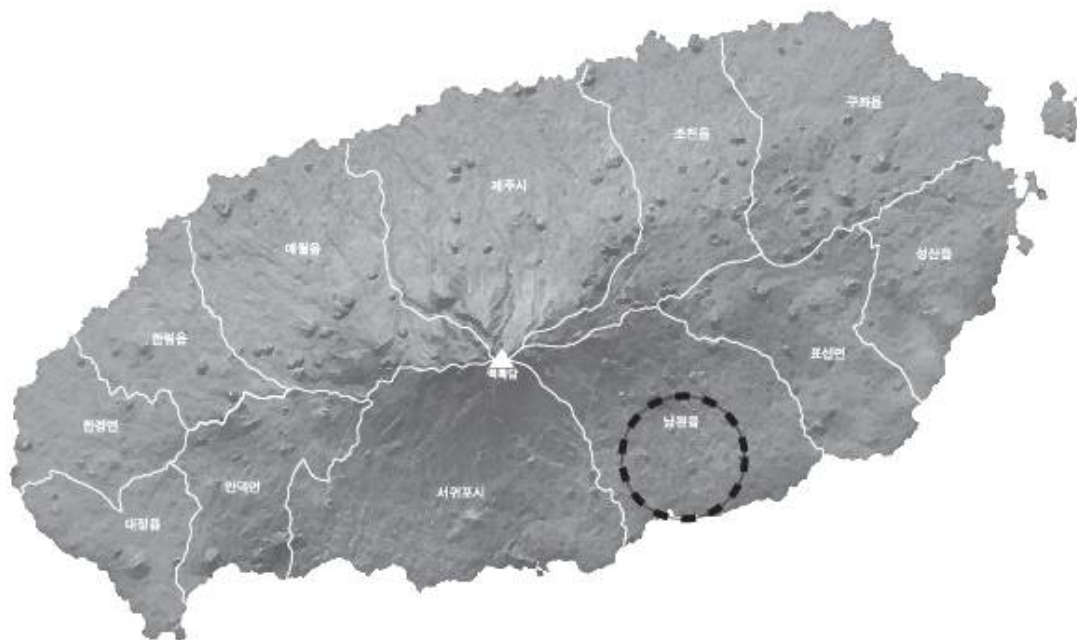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290-01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보향
조사지점 남원읍 남원리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6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9

제2장 남원읍 남원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0
2.2. 조사 기간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10
2.4. 전사	12
2.5. 장비	12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3	2. 제보자 일생	16
3. 밭일	35	4. 들일	59
5. 바다일	69	6. 의생활	77
7. 식생활	102	8. 주생활	159
9. 신앙	174	10. 세시풍속	175
11. 놀이	181	12. 통과례	193
13. 민간요법	222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227

제2절 어휘

1. 인체	229	2. 육아	235
3. 친족	242	4. 의복	245
5. 음식	251	6. 가옥	259
7. 생업	264	8. 수와 단위	276
9. 민속	279	10. 신앙	282
11. 자연	283	12. 동물	290
13. 식물	299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남원읍 남원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고영주(남, 1935년생)
정갑순(여, 1934년생)
정효아(여, 1928년생)

2.2. 조사 기간: 2014. 10. 28.~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마을	구술 1. 조사마을 5. 바다일	고영주	00:26:05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일생 12. 통과례	정갑순	02:00:34	○
3. 밭일	구술 3. 밭일	고영주 정갑순	00:46:35	○
	구술 3. 밭일	정효아	00:53:43	×
4. 들일	구술 4. 들일, 11. 놀이	고영주 정갑순	00:52:30	○
5. 바다일	<구술 1. 조사마을, 5. 바다일>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고영주 정갑순	00:59:32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 1	고영주 정갑순	00:52:18	○
	구술 7. 식생활 2	정갑순	01:01:15	○
	구술 7. 식생활 1	정효아	00:59:27	×
	구술 7. 식생활	정효아	00:40:24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고영주	00:34:22	○
9. 신앙	구술 8. 주생활 9.신앙 10.세시풍속	고영주	00:32:48	○
10. 세시풍속				
11. 놀이	<구술 4. 들일, 11. 놀이>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정효아	01:04:04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14. 경험담	정갑순	00:10:39	○
14. 경험담				

<_>는 다른 항목의 조사가 하나의 파일 저장된 경우다.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정효아	01:09:49	○
2. 육아	어휘 2. 육아 1	정효아	00:18:20	○
	어휘 2. 육아 2	정효아	00:12:21	○
3. 친족	어휘 3. 친족	정효아	00:44:45	○
4. 의복	어휘 4. 의복	정효아	00:35:57	○
5. 음식	어휘 5. 음식 1	정효아	00:50:07	○
	어휘 5. 음식 2	정효아	00:30:43	○
6. 가옥	어휘 6. 가옥, 7. 생업 1	정효아	01:43:55	○
7. 생업	어휘 7. 생업 2	정효아	00:50:22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정효아	00:21:32	○
9. 민속	어휘 9. 민속	정효아	00:23:33	○
10. 신앙	어휘 10. 신앙, 11. 자연	정효아	00:54:15	○
11. 자연				
12. 동물	어휘 12. 동물 1	정효아	00:24:11	○
	어휘 12. 동물 2	정효아	00:14:47	○

	어휘 12. 동물 3	정효아	00:25:44	○
	어휘 12. 동물 4	정효아	00:21:14	○
13. 식물	어휘 13. 식물 1	정효아	00:16:23	○
	어휘 13. 식물 2	정효아	00:39:17	○
기타	어휘 보충조사 1	정효아	00:43:37	○
	어휘 보충조사 2	정효아	01:02:28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김보향, #1: 고영주, #2: 정갑순, #3: 정효아)

1. 조사 마을

101001 @ 남원린 어떻 만들어져신지 마을 유래 같은 거 알아지쿠과?

101001 #1 잘 몰라.

101002 @ 남원리에는 어떤 성씨가 많우과?

101002 #1 이제는 김 씨가 많을 거라.

101002 @ 예전에는?

101002 #1 예전에도 김 씨가 많을 거라.

101003 @ 남원리는 주로 어떤 농사 지었수과?

101003 #1 옌날에,

101003 #2 보리 갈고, 조 갈고 감저.

101003 #1 보리 갈고 조 갈고.

101003 #2 그자 믈물 같은 거 콩 같은 거는 쪼끔씩 허고. 주로 먹영 살라면 보리, 조.

101003 @ 먹영 살라면 보리, 조. 그럼 풀기도 하고?

101003 #2 제국시대에는 일제시대에는 지금 김일성 모양으로 공출.

101003 @ 김일성 모양으로 공출 바천?

101003 #1 그런데 보리 팔기 시작헌 거는 나가 사헤이치(4H) 자원지도자 헐 때 부터니까, 60년 들어서서 맥주맥, 그거 풀기 시작헐지. 대정더레는 보리가 잘웨니까 허는데 여기는 잘 안 웨니까 자기 먹을 거만.

101003 #2 감저 심어서

101003 #1 고구마, 감저. 감자가 아니라 여긴 감저.

101003 #2 빼떼기 해서 술공장으로 나가고

101003 @ 빼떼기 헐 술공장으로 갖수과?

101003 #2 그거헐 풀고 그자 우리 먹을 거는 땅 파서 속에 묻어서 먹고. 쪼는 거는 빼떼기 허고.

101003 @ 계민 미깡 농서 지은 거는 언체서부터 미깡 농서 지었수과?

101003 #1 60년대 후반부터. 장려 시작허기가 69년도부터니까.

101003 @ 미깡 농서 시작허난 보리 농서 잘 안지언?

101003 #2 예.

101003 #1 밀감허면서도 한참 보리농서 젓주게.

101003 #2 쪼끔 선밭대로 허면서 그 거 보면서 쪼끔쪼끔 헤 간 것이 전부.

101004 @ 남원리에는 굴이나 내창이나 이름 있는 것이 잇수과?
101004 #1 굴은 이 알동넨 엇고,
101004 @ 예 옷동네?
101004 #1 옷동네는, 그 굴이엔 해가지고는 엇고.
101004 @ 오름은 잇수과?
101004 #1 오름이야 옷동네 잇주게.
101004 @ 오름 이름이 뭐과?
101004 #1 은주름. 은주름, 은주름 허주만은 잇주만은 이제는 길 나부나까 오름
같지 않주만은.
101004 #2 의귀리오름은 녀시 오름.
101004 #1 의귀리는 있는데 여기는.
101004 @ 남원리에 포함된 오름이 은주름밖에 엇어?
101004 #1 어 남원2리에. 여기는 오름 엇고.
101004 #2 남원읍에 포함된 오름은 저 녀시오름도 잇고.
101004 #1 에 남원읍에만 많주만은. 한남리에도 잇주 허주만은 여기는 엇고. 여
긴.
101004 #2 바다에 박물관 앞이 큰녕 흐나 잇어.
101004 @ 큰녕이 뭐과?
101004 # 풀거치 막.
101004 @ 큰녕은 하나 잇어예, 신영박물관 앞이에. 내창도 잇수과?
101004 #2 내가 엇어. 있기는 있는데 내가 저 다른 쪽 족아, 족아.
101004 #1 아 그거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 칠 적에 했던 내창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만들었지 인공적으로.
101004 @ 그럼 자연 내창은 없다예.
101004 #1 엇어, 엇어.
101004 @ 신영박물관 앞이 큰 영?
101004 #1 그 바당에.
101004 @ 바위?
101004 #1 어 그거 저 왜냐하면 관광지로 해서 간판 달려 잇어.
101005 @ 남원리에 읍사무서 잇지예.
101005 #2 잇주.
101005 @ 남원1리에 잇는 거예, 읍사무소.
101005 #1 어.
101005 @ 남원리 여기 중학교도 잇수과?
101005 #1 국민학교, 중학교, 읍사무서, 지서.
101005 @ 아, 지서도 잇고?
101005 #1 어.

101005 @ 소방서도 있고?
101005 # 소방서 잇고.
101006 @ 기관들은 다 들어와 잇구나예. 혹시 여기 옛날에 계 같은 거 해놔수
가?
101006 # 계?
101006 @ 예, 남원리 마을계 같은 거?
101006 #1 엇어. 없었어.
101006 @ 개인덜로 해나지 안해수가?
101006 # 개인으로야계 갑장회여 뭐여 허면서들 뭐여 허면서 부락으론 없어.
101008 @ 아버님이 생각할 때 남원리 특산물은 뭐과?
101008 # 1제주도에서 남원리 특산물이라고 해세 내놓을 계 없어.
101008 @ 어쨌든 여기도 그냥 굴.
101008 #2 굴 하나베끼 남원리 특산물이....
101008 #1 옛날에 메역혈 적에는 안녕메역이라고 허면은 육지가서도 알아쨌지.
101008 @ 미역혈 때는.
101008 #2 미역이 맛있고 좋아.
101008 #1 미역허면은 육지가서도 제주도 미역 샀고 가지고 안녕미역이라고 헤
가지고 속여서 풀아먹었지.
101008 @ 무슨 미역?
101008 #1 메역.
101008 @ 안녕 메역.
101008 #1 어
101008 #2 바다 일름이 안녕.
101008 @ 남원리 포함된 바다 이름이 안녕?
101008 #1 어 바로 이 앞이.
101008 @ 안녕. 거기서 난 메역을 안녕메역이라고 헐예.
101008 #1 겐데 이제는 미역이 값도 안 주고, 제주도 미역이 안 나니까. 옛날에
는 남원리는 위미에서 시집을 많이 온 원인이 그 관계로 많이 왔주게.
101008 @ 아 메역허레, 여자들이
101008 #1 옛날에는 메역헤 가지고 밧도 사고.
101008 #2 살지 못허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101008 @ 남원리 분들도 여자들은 다.
101008 #1 아이구.
101008 #2 겐데 겐도 기술이라. 기술이 좋아야.
101008 @ 상군이 되어야 돈 버는 거라.
101008 #2 어 상군이 뉘야.
101008 #1 옛날 이철 되면 봄 나가면 나 메역헐 줄테니까 쌀 도라해서 밥 먹었

다가 메역해서 물고 헛주게.

101008 #2 생활을 경허고 밧값이 싸니까 밧도 사고. 미역값은 좋고 밧 값은 싸고.

101008 @ 경 메역해영.

101008 #1 부제 웬 사름도 셔.

101008 #2 막 만허여.

101008 @ 예전에는 여기 안녕미역이라고 해서.

101008 #1 어 그거 없어져버리니까 특산품이라고 헛 엇어

101008 @ 아버지 남원리 자랑거리 잇수과? 이 마을 자랑거리.

101009 #1 자랑거리가 엇어.

101008 #2 제일 이 마을이 자랑거리 없는 마을.

101008 #1 웨 엇느냐 허면은 이제야 각 처에서 들어와서 모여살기 따문에.

101008 @ 아 토박이가, 토박이가 엇어부난.

101008 #1 토박이가 엇어.

2. 제보자 일생

102001 @ 오늘은 어머니 낳고 살았던 애기 물어보쿠다.

102001 #2 난 혼 열, 열. 침 나니까 공부도 못 현 이유가 처음 나서 아 그때는 초등학교 부뜨기에 지금보단도 예려와네 간에 칠판에 강 뭐 글을 썼는디 그 글을 읽지 못허민 못 부뜨는 거여. 못 부뜨민 또 내년. 계난 으덱설도 상관 없고 아홉 설도 상관 엇고. 계난 나가 간에 처음 명칭허게 간에 그걸 몰란에 학교를 으덱설에 못 부뎡지 못 부뜨난 아홉 설 나서 학교를 부뎡는디, 아홉 설 아홉 설 나사 학교는 부뜨고 학교를 부뎡서 이년 썸 이시니까 그 육지, 그 일본 늑들이 이젠 막 이제 좇 처갈 때난, 하룬 학교 가시난 선생님이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잇어도 선생 넘허고 배 탕 육지로 도망을 가야 헛 거다. 집이 오라서 어머니보고 아이고 학교 선생님은 배 타근에 우리영 시경 어디 육지 나갈 거엔 허난, 아이고 글 못허건 말라 죽어도 ㄴ치 앓양 죽주 느만 보내덩 우린 어떻사 헤질티. 우린. 계난 죽어도 ㄴ치 죽고 살아도 ㄴ치 살주 글 못허건 말라.

102001 @ 아, 학교 다녀 낯구나예.

102001 #2 쟁 학교를 이젠 못 간 거야. 계난 나가 ㄴ음이 그때 막.

102001 @ 계난 4.3 사건이 나난 경헌 거 아니예?

102001 #2 으으. 일본늑 시대에.

102001 @ 예.

102001 #2 줌줌헤지난 다닐 건데, 아 선생님을 보민 절로 어디 갔다 오다 보민 선생님이 봐지민 곱아 불고.

102001 @ 무사, 무사 곱아?

102001 #2 학교 못, 아니 가부니까 아니 가기 시작해부난.

102001 @ 아, 선생님 보민 무사 너 학교 안 왔시냐 허카부텐?

102001 #2 어. 그거, 그거 이제만이만 으망져시민 선생님 뵙 웨 학교 아니 왔시냐 허민 이제라도 가민 뵙니까 허민 뵙 건디, 아 어디 가다 보민 선생님이 저만이 봐지민 오꼴 곱아 불고 그렇게 허단 보난 학꼴 2학년 헨 못 헛어.

102001 @ 계난 2년은 다녀진 거?

102001 #2 어. 2년 헨 못허난 그땐 밤에 저 강습소라고 야학소, 옛날말로 야학소. 야학솔 강 좀 헐라고 허니까 나 생각에도 그런 배울 수 있는데, 아 무슨 심정사 신디 야학소 ㄴ르치는 사름이 윈 나광 곳인추룩을 그렇게 허여. 계난 것도 안 헤도 기자 기억, 니은 본관만 아니까 기자 가에도 아버지 기억에도 아버지민 아, 무신 니은에도 아버지인 것을 알기를 시작허니까 그냥 나가 공부를 헤신민 막 잘헐 곁.

102001 @ 잘 헐 곁에.

102001 #2 나 스스로가 이제 그 지금 한글을 알아서. 간판이나 전화번호나 통장 번호나 그자 나 스스로 뜰어가지고.

102001 @ 나중에예, 천천히.

102001 #2 천천히 뜰어가지고 기자, 할망덜 말로 고지서 온 거나 기자 어디 나 전화번호나 하르방 전화번호나 기자 아이덜 번호나 나 스스로. 그추룩헨 기자 살아 왔는디 혼 열 두설 나난 우리 아버지네가 살아가는 것이 일베긴 없어. 밧은 좋지도 안 허고 너르고. 어머니 그땐 나는 쵸 말이로 나부니까.

102001 @ 몇 형제 중에 말이마씨? 형제가 어떻 뵙수과?

102001 #2 우리 저 우리.

102001 @ 말이렌 허난 동생이.

102001 #2 남동생 두 개, 여동생 하나 네 사름.

102001 @ 아, 네 사름.

102001 #2 으. 내가 말이로 나부니까. 어머니 얘기도 나고 또 그 뭐나 요번에, 길쌈이 선수니까 그 길쌈을 해서 풀아야 먹을 거니까 그것만 허고 할무니허고 아부지허고 나만 밧 메레 가렌 허고.

102001 @ 아 어머니 집이서 길쌈허고.

102001 #2 으. 그러면 밧 메는 것이 놉덜 메다 오다가 어디서 목욕을 허느냐, 연못. 연못도이 매일 목욕 허고 밧디 가 오민 목욕헤영 그 물에서 빨앙 가곡 목욕 허곡 허난 물이 팍팍허다 싶으면 푸리롱 허영 소뭇 썩영. 그렇게 헤도 밧디 강 오당 그 연못에 오면, 아이구 우린 내일 가민 초불 다 멧저. 모레 가민 초불 다 멧저. 우리 그때 시작이라. 집이 오라서 울민, 어무니 누게네 아무겐 초불 다 멧젠 험수다 허난 내불라 허명 그렇게 나 허는 건 나 인간 사는 건. 너 거 알아지크냐 소를 밧 갈자면 그 솟송아지를 세 살, 네 살 나면 이 밧을 ㄴ르쳐야 밧을 갈지.

102001 @ 으으.

102001 #2 계난 그곁 이꺼야 ㄴ르치지.

102001 @ 밧 가는 췌를 뒤헸 허는 것꽜?

102001 #2 큰 췌는 밧갈와치, 작은 거 ㄹ르치는 건 췌췌, 췌췌. 큰 건 밧갈췌. 남전 밧살와치, 췌는 밧갈췌 디, 조금 ㄹ르치는 건 췌췌. 게난 아이구 우리 아버지 그 췌만 이끄렸 허꼭 어리어도 그 돛통 알지 그 돛통에 거름을 냇다가 가을 들어가 밧 이 마당에 다 퍼다 낱 그디 씨 뿌리고 비료 뿌리멍 췌, 아메도 혼 세 개췌 모가 지 연 메가지고 혼 놈은 이끄꼭 혼 놈은 몰고. 경허멍 불려. 그 놈을 또 실러가는 멩텅이가 돛걸름착, 건 요만이 허, 그 요만이 현 걸로 큰 췌는 하영 담고 작은 췌는 죽영 담아. 그추룩허민 그걸 이것이 소다 소 질메다, 질메면 두 개를 시꺼야 헸 거 난 아버지가 허나 앳땅 췌질메 메노라 허민, 무겨왕 나가 죽아부난 못허민 아버지 앳다 논 거 ** 밧양 이시민 아버지가 또 한쪽 앳다가 시경 밧테 갓당, 지금말로 방수, 방수에 그 놈을 평 나두민 그날 처낙은 날이 춤기가 뒷날은 보리 갈레 강 보민 요만인 멩텅이로 영 평, 건 평 아져오라야 또 시꺼갈 거난 것이 땅땅 열러불엇서. 장갑이 어디 시니. 그자 손으로 손으로 이추룩해서 뿌려서 그 보리 같고 그 그렇게 헤도 이놈의 손이 팔월에도 췌 먹이 출 비레 가면은 억새이, 억새 받은 췌어진 거 장갑도 안 췌 무꺼도 손이 살아 이시난에 지금은 장갑 두 개씩 경 일을 허여. 경헤도 손이 아프텐 허는디.

102001 @ 하하.

102001 #2 그렇게 헤서 살단 보난 나 뿐새 앳고 못 폴아 먹카부텐 우리 아바지가이 저 우리 말 잘허는 영감은 열 여덱이.

102001 @ 예.

102001 #2 난 스물이. 나가 두 설 위. 경헸 시집을 보넸어이.

102001 @ 예.

102001 #2 아이구 시어멍이 보통 남원리 안에서 허나인 곽곽허는 시어멍신딜 보넸어. 보넸디 나는 오란에 지금말로 지금은 그만이 아프민 탁 산부인과에 가근에 검사헤영 딱 약 쓰주만은. 그 배만 그렇게 그 옛날 말로 핏배가 그렇게 아프는 것도 몰르고 그자 배만. 생리 올 때가 뒷민, 생리도 그자 옛날 말론 몸엿거.

102001 @ 예, 몸엿거.

102001 #2 생리 올 때가 뒷민 삼사일을 죽어나는 거여.

102001 @ 음. 몸엿거 헸 때 뒷민예?

102001 #2 몸엿거 오민 그렇게 허민. 난 스물에 시집오라도 스물 다섯까지 애기를 못 낱고.

102001 @ 아.

102001 #2 나 온 후제 우리 시어머니가 애기를 세 개를 나더라고.

102001 @ 아이고.

102001 #2 나가 완 보난 우리 시어머니가 서른 여덱이여. 서른 여덱.

102001 @ 하하하.

102001 #2 서른 여덱인디 우리 집이, 우리 하르방네가 9남매여, 9남멘디 우리가

몰이여.

102001 @ 몰이.

102001 #2 계난 그 몸엿거 오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난 배 아팠 못 살켜 허민, 뺨 무신 배. 겐 우리 어무닌 그거라 그거. 막 아프단 우리 작은, 밧거리에 이.

102001 @ 예.

102001 #2 지금은 어떻 읍사무소여, 맨서기를 머쳐서 사니까 맨서기가 출장을 가 불면은 그 각시가 마슴덴 지허고 같이 눅겐 해. 겐 그 사름허고 같이 뵈단 아이구 난 배 아팠 못 살켜. 무사? 아이고 몸엿거 올 때민 배가 혼 사흘 아파. 아이구 큰일 낫저. 도라지 헤단 먹으면 그렇게 약도 뒤젠 허난이, 도라지 헤단 먹으면 도라지 생체 낱 달영 먹으면 단 번 좋나 헨 지네, 이제 신호여, 하효주만은 그땐 세돈, 이제 신예리도 예춘.

102001 @ 아 기파, 신예리가 예춘?

102001 #2 으, 신예리가 예춘. 예춘 사름이난, 아이고 우리 므을에 삼 년생, 스 년생. 으디서 삼 년생 갈민, 요딘 스 년생, 요딘 오 년생 헨 거 나 사다 주켤 헨. 사다 도렌 헨. 이제 한 들이나 이 다음 넘어 잇어네 그것이 대가 막 올라오라 가지고 그 놈을 혼 뿌리 사와서. 사오난 생칭, 이제 벌꿀도 옛날엔 생칭.

102001 @ 음. 생칭예.

102001 #2 생칭. 생칭도 어디 잇어. 놈의 밧디 간에 풀 하루 쳐 쥘. 밧 갈아 논디, 풀 신 밧 잠대로 갈민 풀이 푸릿푸릿 덤성덤성 허민 걸 앓아 치주게 허난. 풀 하루 쳐 주난에 이홉짜리로 하나라이. 지금은 이만 원 주민 혼 뒤 사는다. 육만원 일당 허면은 석 뒤 사는다.

102001 @ 아.

102001 #2 하루 풀 치난 이홉짜리 하나. 계난 그것에 그 벵이 뒤니까 나무대고 썩이고 빨리고 다 썰어놔서 그 칭 비완 딸런 먹으니까 그자 배 소곱이 우글우글우글, 과글과글과글 허멍 기자 삭 설사가 홀터 분디 원 그것이 약이라.

102001 @ 아, 낮안?

102001 #2 어. 겨난 저 우리 말 잘허는 하르방은이 스건, 브름쟁이야, 브름쟁이.
@ 하하.

102001 #2 군인 열 아홉에 군인, 군인 가켤 군인 강 보낸 놆 두민.

102001 @ 계민 결혼헨 군인 간 거마씨?

102001 #2 열 여덱에 결혼헨, 열 아홉에 군인 갖주게. 지원헨 해병대로.

102001 @ 지원헨?

102001 #2 보낸 나두난 놈의 새각시광 장계 안 가고렌 꼬션. 저 하르방이 허쥬 내우젠 허민이. 계난 들락날락. 군인도 즐바로 안 살앙 들앙 덩기곡.

102001 @ 예.

102001 #2 계난 난 아들덜 군인 가난 겁낫저 아방 답으카부덴.

<중략>

102004 @ 어렸을 때 놀았던 거 기억나시멘 마씨? 뭐 허멍 놀아났수과 동네 아이들이랑?

102004 #2 그 옛날 스몏 일본 시대부터 무신,

102004 @ 으 일본시대.

102004 #2 그때도 가민 경헨 놀아서. 나 그거 잊어불지 안 허여. 이디 넷, 다섯, 저쪽에 넷 다섯 사민 딱 손 이어그네 저레 가명 무신 사꾸라또 민또만또 하나이세 몸메 허멍 아이 흐나 강 딱 지키민 그 아이 흐나 심어오고 또 그쪽에서 오랑 그츄 룩 허곡. 경허멍도 놀고. 그자 밤이 진또리.

102004 @ 진또리.

102004 #2 그 돌아다니는 거. 진또리 그 여저난 자치기거튼 건 별로 안 허고 진또리.

102004 @ 예.

102004 #2 그자 그런 거 주로 허고. 새각시.

102004 @ 으.

102004 #2 이 철 나민.

102004 @ 소꿉놀이.

102004 #2 아니 그거 말고. 풀에 막 머리거치 줌진 풀이 있어, 새각시풀이라 이름이.

102004 @ 어.

102004 #2 게민 나무떼기 헤그네 그 풀 이만이 진 거 헤그네 머리헤영 멘들아 그네 뒤터레 다왕 새각시풀로 새각시 만들야.

102004 @ 아, 머리 따와가지고.

102004 #2 으. 새각시 풀이엔 현 풀이 있어. 새각시 그거 허고 그자. 무시거 남저 허는 행세는 안 허고 밤이 그자 그 들밤이 전기불 엷이난게, 지금 거트민 로타리라고 허지 흐뵂 저 길 널른디 강 그런 디 강 그런 거나 허고. 무신 하시야다린가 무시 거, 그레 돌아갓다 돌아왔다 허는 거 그런 거 허고 그런 거. 게고 방치기.

102004 @ 방치기.

102004 #2 어 방치기, 먹데. 나 먹텐 하영 그자 먹데 요만인 현 거 문드락 현 거 차기 좋은 거. 너미 큰 건 발 아프고 너무 좋은 건 맥사리 엷고 요만이 현 거 허민 먹데라고 헤연 으레 몬 선 굿어 놓고 헤연 이 선더레 샷닥 그 선더레 샷닥 허멍 방치기 윈 학교서도 운동장에 그려 낡 방치기가 일이라.

102004 @ 방치기 허멍 놀멍예.

102004 #2 고무줄은 막 옥은 후제.

102004 @ 나중에예.

102004 #2 으 그건 막 신식 난 후제 허고.

102003 @ 근디 어무니랑 아버지는 같은 동네, 어머니네 부모님 같은 동네, 이

동네, 남원리.

102003 #2 우리 친정?

102003 @ 으 친정.

102003 #2 친정 중학교 앞에서 이디 오란 그 노릇이주.

102003 @ 아아 부모님도 여기 같은 동네?

102003 #2 으. 계남 중학교 앞에서 이 집이 오랏주게.

102005 @ 중학교 앞에서 이집. 그 한 열 설 때까지, 어머니 35년생, 태어난 건 34년생예. 계남 일제 때 공출했던 거 기억남수과?

102005 #2 아이구 기억나주게.

102005 @ 어떤 거 공출해난?

102005 #2 그땐 므스와근예, 저 김일성이난에 저 일본 놈이.

102005 @ 음음.

102005 #2 우리 보리를 갈면 경 좋지 안혜근예 일곱 가마썸 허민 공출을 으덱 가마니 나와.

102005 @ 아이구 일곱 가마니밖에 안 혜신디?

102005 #2 어. 혼 가마니 사야 돼여. 김일성이가 따로 이서. 혼 가마니 산 요덱 가마니 공출 바쳐야지.

102005 @ 바쳐야.

102005 #2 보리 공출 원 보리 공출이라 보리 공출.

102005 @ 보리 공출.

102005 #2 응. 조 경 안 허고 보리 공출.

102005 @ 보리, 또 다른 건 뭐 공출 해나수과?

102005 #2 다른 건 공출 안 허고 보리 공출.

102005 @ 아, 보리 공출.

102002 #2 계남 우린, 사람 먹을 것이 엇이니까 계남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 길쌈을 해서 제주시가 이디서 말허민 모관이.

102002 @ 예 모관.

102002 #2 모관 사람이 여기 오라 살아. 살양 우리 안에 사는디 모관 사름은 오라도 저 2리 같으민 저 읍사무소 근처에 관중에 살고 우린 읍사무소 그 두어레 중학교 앞이 살고 현디, 그 사름네가 우리 어머님네광 친굴 해서 가까이 사는디 우리 어머니가 길쌈을 잘해서 그 멍지를 너무 좋으니까 혼 필 가정 가서 모관 강 지네 친족안티 배우니까 아이고 이진만 사다 도라, 나란 열 필 사다도라 혜연 우리 어머니가 그걸 허명 모관 다 풀양 돈 혜영 양석 우리가 끈이 이어갓주게.

102002 @ 계민 어무니 밧일 안 헛구나.

102002 #2 아니 원 안 허진 안혜신디, 계남 어머니가 저걸 허젠 허민 우리도 비오면 멍지실을 감아사지 계도 나도 멍지 많이 차 나서. 비 오민 어디 놀레 가젠 허민, 아이고 큰년 오늘 멍지 차라, 멍지 차사켜 계민 멍지 경 즘질아도이 우리 어머니

닌 스무자를 하루 차는데 나는 스무자는 못 하고 한 열 일곱자쯤 차져.

102002 @ 아이구 그래도 거즘 어머니만큼 참신게.

102002 #2 으. 겐디 차 논 게 어무니 거만이 좋지 안허여.

102002 @ 아 어머니 게 가늘고.

102002 #2 어머니 것이 세계 두드려신가 더 빼딱허게 좋고 나 거는 그만이 어머니만이 안 좋아. 경해도 어무니가 너무 버치니까 차도라, 차도라 어머니가. 비만 오면은 그걸 해야지.

102002 @ 음.

102002 #2 게난 어디 가지도 못 허여. 게난 바람이 자야 멩주도 늘고 허는 따문이 봄 나면은 겨울이 멩지실 감앗다가 멩지 늘앙 멩주가 팔 월 나민 보름 나민 실이 꺾어정 못 차니까, 멩진 여름에만 차니까 멩질 널젠 허민 바다에 강 물질을 베와야 혈 건디 멩지만 늘렌 허멍 물질을 심허게 못 베완는가 기술이 엇인가 물질 잘 못허여.

102002 @ 하하하.

102002 #2 조금 허다가 잘 못 허난 신경질 나서 설러 불언.

102002 @ 하하 설러 불언.

102002 #2 기자 그 미역해서 먹영 살 때 미역이나 해당 먹고.

102005 @ 그럼 공출할 때 보리쌀만 공출허고 메역이라든지 바다에서 잡은 건 공출 안 해수과?

102005 #2 메역은 공출은 안 허고 그렇게 세월 좋고 풀아서. 그거, 그거는 해방 췌 후에 풀앗던 거.

102005 @ 그럼 일제 시대 때 공출 헛던 거 보리만?

102005 #2 으 다른 거는 뭐 공출 안해서. 보리. 보리허고 저 감저 빼떼기를 그렇게 공출을 하영 헨디 그걸 아이구 맥가마니, 직가마니. 그 직가마니 해서 직가마니 사모나게 해근에 저 짚으로 베 행 무꾼 거.

102005 @ 직으로 무꾼 거. 그거를 췌 가마니도 허고 아이구 멧 가마니 줄도 모르게. 그러면 그 놈을 저 그걸 공출 허면은 받는 디가 잇주게. 여기 같으면 선과장 님은 디 저 옛날말로 저 무시거 감저 해난 디 일름이 **-인가디 그디서 농협 창고 같은 비스름헌 디서 받안에 점. 알기 쉽게 딱 저 산방산만이, 받으면 그건 다른 디 포구로도 안 해가고 이 앞으로 포구 췌 거 시꺼가는디 말췌 산방산만이 헌 걸, 해방 췌난 것들은 화르르허게 돌아나부난에 그거 다 푸멍 해신디 감저 빼떼기 잇주, 감저 빼떼기.

102005 @ 전쟁 끝냥 일본군덜 행 전쟁 끝냥 도망가난 좀 살기 편해전마씨?

102005 #2 편헛주게.

102005 @ 편해전.

102006 #2 으. 살기를 펜해신디 아니 또 그거 살기 펜허난에 또 이 놈덜이 4·3 나난에 산에 일본 때 보다 더 무서와서.

102006 @ 음 더 무서워서예.

102006 #2 저 산간부락에 사름덜이, 명칭헌 건 죄 엇이 다 죽고 그디 올라간 능력 엇인 건. 쪼그만 허민 다 올라가시난.

102006 @ 음.

102006 #2 아 밤이 오라노민 어떻게 밤이, 밤이 자는 동안에 오주게 그때. 드라가젠 드라가젠.

102006 @ 산에 데려가젠.

102006 #2 드려가젠. 경헌 허민 막 어떤 사름은 뺑신 지랄허는 사름도 있고 일름 오랑 막 들민 저 일름 죽여분 사름 일름도 막 곱아서. 그추록 해근에 일름도 바짜 곤곡. 겨난 우리도 저 우리 웨삼춘이 산에 올라가낫주게, 웨삼춘이 산에 올라가고 작은 아바진 순경이고, 게난 우리 아바지가 산에 사름, 저 순경 오민 너네 웨삼춘 산에 갖젠 죽여붙고, 산에 사름은 오민 순경 가족이엔 헨 죽여벤 우리 못 살켄 허멍 게도 죽진 안해신디. 아이고 그땐 더 무서워나서. 밤이 그추록 오란. 이 집이서 요 앞집이만이 헨 디 우리 옆집이 이젠 읍장이주만은 옛날말론 멘장, 멘장이 살아신디 멘장네 죽어질 걸로 아기덜은 다 우리집이 오랑 밤이 우리 할마니 녹지주게 녹진디 밤이 이 밤과 저 밤새 완에 저, 아이구 니 곱으민, 멘장을 칼로 콕허게 박으민 그 각신 살려드렌 칼을 팍 심으민이 확 등겨붙고 허민이 손도 문짝 쫓라지고. 아이구 그추록 경헌 멘장네도 두 밧 흐루쳐냐 다 죽어, 옆집이서 죽어간다 게민 겁낭 살아지크냐.

102006 @ 애기들은 어떻 안 허고마씨?

102006 #2 애기덜은 우리집이 왕 녹고게. 경헌디 저 경허단에 습격을 든 거라.

102006 @ 음.

102006 #2 위미허고 이디허고 두 마을을 흐루 아척이 든 거라.

102006 @ 산 사름들이 습격 든 거 아니예?

102006 #2 으, 산 사름덜이 아척이 조반 전이. 게난 요 가까운 남원2리 우리 친척덜은 우리집이 오랑 다 머진 거주게. 그디도 므스우난 이딘 해벤이라고.

102006 @ 그니까 그니까. 2리는 산이니까.

102006 #2 으 흐썰. 오란 머젓는다, 다 조반헌에 밥 헨에 낭푼이가 어디서 나무도고리에 밥 헨에 다 푸노렌 허난에 요쪽으로 팍팍. 아 산에 사름 총소리 막 좋아. 팍팍, 팍팍 허는 소리가 나난 영 보난 저 집이 가제에 불이 부터더라고 불이 부터시난 아이구 큰일 낫저, 큰일 낫저 이제 물을, 아이구 경허난 보난에 우리집 가제에도 불어 부터가더라고 기자 그놈덜이 오랑 기자 그 헛불 봉화불허는 헛불 아저강 화를 돌아강 이집 가제에 부쳐 저집 가제에 강 부척 허멍 불을 다 부치는 거라 불을 다 부치명. 우리 그때 이젠 더 드릴 데 어시난에 이젠 어디 담 구석에 가네 겁질에 돌아나는 것이 영헌 이불 하나 가정 나와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지금 저 여동생 하나 들썬 애기난 굵굽허난 콕콕 울언 우리영 이불 소굽에 박아지지 못허고 겨난 우 저 거시기 남동생 두 개 드란에 영 현 방 구석에 강 영 현 이불 더경 시난에

이 어떤 놈덜이 통통통통 이 담으로 들어왕 걷으라 걷으라 걷으라 허멍 그 이불 걷으난에 그것이 칼이 아니고 창이라. 요만이 현 거 양펜이 늘 네왕 코쟁이 네운 거. 켜헨 난 이디 흐 번만 박아불고 우리 남동생은이 아이구 이 **엠에 박아베도 것이 저 어떻 안 해네 살아전 박아도 이젠 죽어불켄 해신디 또 흐나가 어떤 놈이 샷단에헤 내불렌 에헤, 에헤 가난 우리 어머니넨 저 우녜펜이 우리 친족덜이영 이젠 영현디 소나무 우리 울타리 신 거 탁 지우고 탁 지우난 그 소나무 텅구리 아래 공간 나난 우리 친구, 친족덜은 다 기어들고 우리 동생 너미 앙작허난 우리 어머니 도에, 도에 앓아시난 기자 우리 어머니가 이추룩 현디 우리 어머니가 막 슬지난 영현디 흐 번 찢르민 저펜으로 또 고망나고 두 밧이라.

102006 @ 아이고.

102006 #2 겨난 기자 우린이 그거 박아분 거 원 아프지 안해라. 그 흐 곱나난 아프지도 안 허고 난 흐 번 박아주만은 우리 동생도 아프덴도 안 허고 기자.

102006 @ 기마씨?

102006 #2 복복복복 털멍. 그거 아프느냐게.

102006 @ 겁난 것에.

102006 #2 복복복복 털멍 앓아시난 우리 어무니가 애기만 달래멍 이 애기 말으라 난 못 살켜. 켜 어머니 어디 터진 것도 모르고 애긴 나 말으난 애기도 흥겹헨 그뻘 안 울더라고 안 우는디 아이고 경헨 앓아시민 어떻게 풍각. 켜 기자 어떻 기자 바로 앞이 죽어가민 아이고 어떻아, 어떻아 허민 아이구 살아지켜 물 흐쓸 주민 살아지켜. 그때 우리가 므스왕 물이 시나, 수도가 시나게 아니 안내난 살앗주, 아이구 나 물 먹으민 살아진켜 해도 어디 강 물 걸려 오는니게. 게민 그자 흐쓸 시민 풍강 허는 건 피 느리는 소리를 몰랑. 이 박아분 디로.

102006 @ 아.

102006 #2 피가이 느리멍 요 고망으로 풍강. 겨난 기자 어무니 앓아난 디 이디가 기자 신 소곱이고 어디고 번번허고 헨 시난 저 이젠 저 서귀포서 경찰에서 놀아와 가난 그놈덜은 편쩍편쩍 들어나불고 경찰에서 왕 다 더꺼지난 그뻘 죽은아바지가 순경이난 우리집일 우선 좃안 왓주게. 좃안 완 보난 경 웨시난 그때 시절에도 참 순경 백이 시난 난 흐 밧디 허난 두루 헛젠 우리 할마니허고 아버지허고 내불고, 우리 어무니허고 애긴 젓 먹는 겨난 데려 갖주만은 우리 동생허고 두 개만 데려가벳주게.

102006 @ 아.

102006 #2 그추룩 헨 어머니넨 병원에 가고 난 흐 밧디 현 겨난에 흐 밧디 그것들이 찢르난에 고망만 요만이 나난에 난 요디난 그냥 내부난에 기자.

102006 @ 거 집이서 어떻 치료헛수과?

102006 #2 치료가 무시겨니게 기자 살암시난 좃앗주게, 오렘시난. 그런 세상 살앗주게.

102006 @ 아.

102006 #2 계난 나 이제도 이거 혼 오락십년 웨도, 계난 우린 경허고 우리 아바 지허고 우리 할마니는 곱지 안헨에 영헌디 이제 소낭으로 더꺼지난에 집이 쓸을 조 곱 내면 문 풀 카던거 문 내난이 노릿노릿 볍아진 좁쌀이민 코시롱허게 들 건디 그 불 칸 좁쌀을 그 가을 내 낭 먹으난 나 이철 나가민 불 칸 좁쌀 내가 나, 하도 그 곁 먹어 노난.

102006 @ 아, 집안에 나둔 곡석을 불태워부난 아, 그게 칸, 그곁 먹은 거라?

102006 #2 으, 그곁 먹엇주. 그곁 먹고 함바엔 헨에.

102006 @ 으, 함바집.

102006 #2 이.

102006 @ 도당집?

102006 #2 아이고, 이 설룬얘기야, 이 남원이 리사무소 엠에 문딱 강 곡석 갈아 먹는 밧 헨나에.

102006 @ 어.

102006 #2 법에서가 다 그 밧더래 오렌 허연.

102006 @ 아.

102006 #2 저 이제말로 허민 저 억새.

102006 @ 어 억새.

102006 #2 억새영 기자 새영 서터진 놈. 산에 강 멧 단씩 비어 오렌 헨. 그거 비어다근에 저 소나무 께기 요만씩 큰 거, 요만씩 흰 곁 헤단에 이 방만씩 다 이녁 만씩 짓엇주게. 경허민 이 방만씩 짓으난.

102006 @ 그럼 여기 거의 다 불 타수과?

102006 #2 불 아니 탄 집 혼 두세 개베끼 엇일 거라.

102006 @ 아.

102006 #2 게고 으기가 으기, 우체국 엠에가 지서니까 그 지서 앞이 집만 불을 안타서, 지서 앞이만. 계난 이 사름덜 사는 디 찍으로 영헤 노난 이찍 영 허민 이 사름덜 사는 것도 보고 밧 헨나에 빙허게 돌아가명 영허고 가운데도 허고 또, 기자 에염이 또 요만헌 공간 시민 그디도 허고 경헤영 살단 그디서 오래 살고 그러난 또 드룻 사름, 산간에 사름덜은 죽여불단 남은 늙은 사름이나 그런 사름은 가민 또 그런 밧 엇이난 바닷가에 그 바닷가에 돌로 이젠 막 흠팡 일로 이디로 반착만이 흠팡 허고 들 소곶에 다와 경헤영 살렌 허고.

102006 @ 경헨 경 산 게 혼 얼마, 멧 들이나 경 산 거마씨?

102006 #2 나 열 네설에 십격은 드니까 그 혼 열 네설엔 다 그물언에 시월덜에 드니까 열 다섯 때깃장은 그디 살아실 거여.

102006 @ 열 다섯 살예.

102006 #2 경허단 집터에 살아난 불카분디 올라오란에, 또 엄막이엔 헨 거 느 알아지크냐?

102006 @ 예, 음막.

102006 #2 엄막 뎨에 살아가멍 집 짓엇주.

102006 #2 나 얼굴이영 거디 상아리 다 나와신게. 아이구. 나 경허카부덴.

102006 @ 어무니 막 곱수다.

102006 #2 하이구.

102006 @ 똥들도 막 예쁘지예?

102006 #2 제국 시대 만나, 4·3스건 만나 우리시대엔이, 시집살이 헤여이 요런 좋은 세상 난디 아이구. 그뎨이 누구나 다 시집살이 허저.

102013 @ 시집살이 허고예.

102013 #2 요즘은 메누리안티 시집살이헬저 나.

102015 @ 하하. 메누리안티 시집살이.

102015 #2 메누리가 살살헌 메누리난 나 겁나.

102015 @ 여기 메누리 아니?

102015 #2 요 위미런디. 막 칸칸헌 메누리 난에 나 겁난 껍도 안 헌다. 마 기여, 기여 기자.

102006 @ 아까 물엇던 게, 경헨 모여 산 게 열네 살때 습격 당헨 몇 살까지?

102006 #2 그 열다섯꺄장 살아서.

102006 @ 한 일 년 더?

102006 #2 아니 일 년 던 안 살고, 일 년 살아가난.

102006 @ 예.

102006 #2 그 사름덜이 이젠 죽이, 심어당 죽일 건 다 죽여불고 또 시꺼갈 건 시꺼단 어디 강 다 죽여불고 게난 이제 그디서 아들이영 딸이영 죽어분 사름도 이제 폭도 가족 추급허멍 이디 오랑 살고헨 산에 사름이 좀 엇일 거다 허난 살아난 집터에 이제 다 움직여 간에 나무떼기 요만헌 거 움막 메왕 살멍 집 짓으멍 헛주게.

102006 @ 엄막 지영 살멍? 터는 자기 터로 돌아왕.

102006 #2 어.

102006 @ 본 집은 못 짓고 그냥.

102006 #2 본 집은 오멍 살아 못 짓주게.

102006 @ 못 짓고.

102006 #2 움막에 살멍도.

102006 @ 어머니 병원 갓잖아예, 동생이랑. 경헨 얼마나 살단 왓수과?

102006 #2 혼 들은 살양 와실거라.

102006 @ 아.

102006 #2 게난 기적거치. 약도 안 좋고게. 병원도 경 지금꺄치 으라 개나 죽은 사름도, 우리 집 뒤에서도 사름이 기자 느랏느랏 다 죽고. 저 시월, 음력으론 시월 으드렛날인디 그때 제서허는 사름이 남원리광 위미런 다 그때 제사, 이젠 그때에 불 카부난 기자 죄 잇고 없고 이 우리 쪽에서가 저디 사름을 하영 죽여부난 그 사

름덜은 제서가 11월달 내내라. 봉가지는냥 죽여부난, 봉가지는냥 죽여부난. 십이월
덜지 잇주. 어떤 어떤 사름은 죄 엇인 늙은이나 아이는 재부는디 재수 엇인 사름은
가족이 다 몰살헌 디도 잇어.

102006 @ 저의 할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수다. 저 한동인디, 할아버지영 동네
사름 멧 사람 월정국민학교 강 죽여부난 그튼 날 제사가 여러 분 잇어마씨.

102006 #2 그땐 흑교 운동장에 혼 십명 심어다 놔근에 눈 딱 막아놔근에, 저 우
리 물을 질레 거주 학교 옆이 통물이 지난 물 질레 가민 저 눈 막아근에 과작 세와
놔근에 죽을 사름이 열 개민 총 가진 사름도 열 개라이. 딱 맞은펜으로 사근에 그
자 페락 헤블민 메기. 겐 우린 물 질레 갖당 보민이 혼 번 똥굴영 죽는 사름, 두 번
똥굴영 죽는 사름이라. 기자 과작 세와냥 죽을 사름 하나에 총 가진 사름 하나씩
맞은펜이 그자 파닥 헤근에 그자 혼 번 똥굴어 죽는 사름 두 번 똥굴영 죽는 사름.

102006 @ 경허영.

102006 #2 아이구, 그땐이 겁을 나도 아이고.

102006 @ 경기도 전쟁 때도 먹고 살젠 농사들은 지엇짚아예, 여기서.

102006 #2 어. 일본, 저 웨정시대엔 바탕으로 그 배가 오라근에 무시거 헤부난
이젠 우리가 산에만 올라야 뵈 거난, 그땐 굴덜 파고이 굴 막 우리 경 굴을 경 일
허지 못허난 일 잘헤지는 사름은 굴 막 산 하나 살림헐 만이 굴 지프게덜 판에 양
식은 뭐냐? 보리만 게역해서 보리게역. 보리게역은 기자 물만 타도 먹영 임시 목숨
을 보호헐 수 지난 보리게역을 멧 말씩 헤영 산에도 가고 굴 소곱에, 저 굴 파진
사름은 굴 소곱에도 강 살곡 굴 못 판 사름은 산에 올랑 어디 강 산에. 느 알아지
크냐 만장굴 닳은 궤열.

102006 @ 으.

102006 #2 궤열에 강 살고.

102006 @ 그건 일제시대에?

102006 #2 으 일제시대에 그렇게.

102006 @ 건 일본 경찰 피해가지고 숨영 있었던 거마썸?

102006 #2 그때게 일제 시대엔 그 일본놈덜 그추룩 헐 땐 산에 강 살저. 또 스
삼사건은 산에 따문 바탕으로 오져 경헤시네.

102007 @ 결혼은 열, 스물살에 하셨짚아예, 아버지 열 여덟살 어머니 스무살.
중매헌 거?

102007 #2 어.

102007 @ 중매헌 거?

102007 #2 중매주게.

102007 @ 동네난 얼굴은 다 알아난 거 아니? 동네난.

102007 #2 저 영감이.

102007 @ 예.

102006 #2 난 역질 안 허고 또 어린 때부터 잘 역안. 열여섯살에부터 중매헤영

돌아다니곡게. 그때는이 경혜네 함바엔 헨 저 함바에 살앙 먹지도 못 허고 굶주릴 때에, 우리가 집터에 강 못 살아서. 성을 다와야지 성안에만 살아야지 허난 성을 닻 쟈 허민 옛날 푸지게 말로 억새말고 집 이는 새 해근에 등따리에 돌로 밀어붙지 안 허게 만들앙 영허영 친들앙 영.

102006 @ 등에, 등에.

102006 #2 어. 영혜영 여저덜 지게 친 행 영혜영 여전 허나고 들은 이거민 돌리가 들렁 이 푸지게 꺾뎡이에 늦 꺾뎡이 돌아서 늑꺾뎡이 돌아 그추룩혜영 성을 열마나 허니 요 체육관 가는 옆으로 헨에 저 남원 상동 알력펜으로 그 읍사무소 해난 옆이꺼정 등글렁허게 헨에 성 안에 다 살앗주게 성 안에.

102006 @ 음.

102006 #2 계난 그 성은 허민 문, 대문 냇주게.

102006 @ 음.

102006 #2 대문 내민, 보출 샅어. 나도 보초 사고 보초 사근에 여저덜 멧설로 멧설. 저 우리집이 하르방네는 보초를 안 사고 총 메연 보초를 잘 삼냐, 못삼냐 순찰. 순찰 뎡기곡 비바린가, 비바리주 옛날은 아가씨가 어딿어. 비바리덜은 보출 사고 허난. 아이구 난 그때 돌아와근에이 나이 많은 어른광 사례 가민이 그 어른이 일어나라고, 시간이게 멧 시로 멧 시깡장은 누게.

102006 @ 누구예.

102006 #2 우리 갈 시간 똥저 일어나라 헨 앓으민 꾸박꾸박 돌아가민 닐랑 자불라, 경허명 곶으명 보초 사고. 아이구 곶앙 다 무시거 허여. 성 다우레 원 기신 엇인 사름은 경 신 사름은 해도 큰 돌도 못 들르고 큰 돌 지도 못허고 얼먹엇주. 경헨 성 안에만 살단에 우리 하르방은 그때도 여간헨 우리 보초 사당 보민 순찰 도는 것도 구역이 다 따로 잇어. 누구네는 어느 문으로 어느 문, 누게네는 어느 문 허민 우리 신 문에 오지 안 허고 저쪽 문에 오랑 감젠. 그 말만 들엇는디 경헨 살아가단에.

102007 @ 누게가 중매 선 것과, 어쨌든 알고는 잇어나지 안 헨마씨, 중매 서기 전에.

102007 #2 아니 저 기자 기다서 이던 나가 두려불고 우리 아버지넨 기자 이것 이 옛날 지역 일름이 쉘므루.

101010 @ 아 여기 이름이.

101010 #2 쉘므루.

101010 @ 쉘므루?

101010 #2 어. 저 쉘므루 누게네, 쉘므루 누게네. 이것만 알아낫주게. 이것만 알앗다네 이 집이 이 집이서가 우리 잘 아는 사름 빌영 구허레 갖주게.

101010 @ 음.

102007 #2 계난 우리 아버지가 날 ** 못 허카부덴. 스무 설이라도이 이제 영역고 컷주. 그때 옷 입어난 거 보민 아주 족곡, 쫓꼬락해서. 저 우리집이 영감은이 두

린 때도 쫓락 켜. 경허난 그추록 열 다섯, 여섯에 중매헨 돌아댕기곡 헛주.

102007 @ 경헨 결혼헨 때 중매헨신디 사주도 봐 나신가예. 사주?

102007 #2 사주도 봤주게. 그때사게 중매헨고 스주 아니뵘 가느냐 좋아서신디
긱어사신디 이 집이서가 좋덴 험젠 허명. 게난 우리 아버지네가 어리석음이주. 이디
서 좋덴 헨도 우리 아버지도 판디라도 강 알아보는게 셔사는디 기자 딸 난 날 난시
긱아쥬부난에 기자 스주 뵘 좋덴 택일헨가난 기자.

102009 @ 그냥 보내불언 하하. 게난 결혼헨 때 혼수품 같은 건 헛수과?

102009 #2 아이구, 이 설룬 얘기야.

102009 @ 설룬 얘기야 하하.

102009 #2 미녕 두 빌.

102009 @ 두 빌?

102009 #2 어.

102009 #2 두 빌이민 어느 정도?

102009 #2 두 필. 사십 자썩 두 개.

102009 @ 아 사십 자썩 두 개예?

102009 #2 이거 딸 사가노렌 허는 문세.

102009 @ 흥세미녕인거예?

102009 #2 흥세에 그 문세에.

102010 @ 헨신게 혼수. 결혼식 안 헨 거고예.

102010 #2 아이구, 이 설룬얘기야 결혼식.

102010 @ 여기 이신 거 물어뵘수다.

102010 #2 저 그때 시절에는 딱 나 끝나난에, 경허난 그때 시절에 머리가 할머
니덜이 막 좋아근에 머리를 비영 풀아이. 비영 요만이 허게 비영 풀민 그 머리를
막 잘 만들야. 도리, 머릿도리.

102010 @ 응 머릿도리.

102010 #2 머릿도리라고 그 놈을 이제 막 으라 개 헨근에 그 이 집이 새각시
시집갈 때 머릿돌리를 헨근에 얼마닌 허느냐 딱 요만이 저 얼마나 으라 개헨근에
요만이 다와근에 저 가운데 돌리를 영 마주부치면은 떨어질 거난 검은 험벌 낱 이
딘 딱 주영 양쪽펜이 다와 저디 걸민 이보단 막 걸어, 이보단 건 거 허민 그걸로
돌림쟁이질 허주. 이 집이도 갓당 저 집이도 갓당. 저 장옷, 장옷 허나 허고 장옷은
파란 장옷. 색시가 자기집이서 헨 거 허난 입곡 새서방칩이서가 갈 때 장옷을 가정
가주.

102010 @ 예.

102010 #2 가정 강 그건 썩우고, 놈 못 바리게. 게난 그 머리 빌어다근에 건지
라, 건지 이디 웬썩더러 톱 건지 들어간 게 이만이, 이만이 헨근에 건지허고 치마,
저고리 입곡 그 장옷 입곡 장옷 쓰곡 허난 이제 신랑칩이가, 새서방칩이서 새각시
칩이 갈 때에 그 가마 멩글젠 허민 창나무 두 개 시끄곡 가마 쫓개쫓개 문 뜯어 하

꼬에 문딱 헛다근에 이제 그거 새서방을 몰 테왕 이끄곡 그 나무영 시끄곡 새각시
칩이 가민 저 새서방은 그 뭐 쓴 거, 그 여장을 앓어 강 주민 그 여장을 봐서, 신부
집이서 새각시집이서 봐서 글자가, 그것이 뿔이 시끄럽냐 허민 자기 어명에 자기
아방에 난 뿔은 막 좋는디 어명이 뿔고 온 뿔이나 어명.

102010 @ 데령 온 딸.

102010 #2 으, 그런 건 글자가 뜰리는 거라. 영 봐근에 이거 글자가 흐나 뜰렸
져, 두 개 뜰렸져 경해도 지금은 눈 곰아 주는 디 그뻐 눈 곰아 주지 안 허여 고치
렌 허여. 경허여 그걸 고치민 새서방은 오랑 딱 앓으민 새서방 대반도 잇고 친구,
벗도 시민, 이제 친구영 허지만은 그때 벗이라고 해서 율이 앓고. 우리 하르방은 으
망지다보난 우리집이 강 딱 앓았는디 저 방에서는, 새서방 이디서 밥 먹고 새각시
저디서 즐리주게. 게 옷도 다른 거 입곡게 머털 만들젠 허민 이제 화장허는 거나
다름엇이. 것도 복 좋은 여자, 시집 강 못 산 여저도 말고 남편이 죽어분 사름도 말
고. 거 건지허는 거. 경 즐리고 신랑은 밥 먹는디, 여 우리 하르방인가 신랑은 밥상
딱허민 신랑상에 뭐냐 주로 도야지 고기 그자 요만씩 썩 거 갈리라고 지구자꾸로
걸치고.

102010 @ 갈리.

102010 #2 갈리라고 지구자꾸로 걸치고, 똑 이만이 현 거 지구자꾸로 걸치고 저
계랄허고 저 득 흐나 허고 경해근에 신랑 상에 올린디 경허난 영 앓앙 밥 먹젠 현
디 우리 하르방은 이제 큰옷이 이거라이 영 현 거 있지 안허냐. 이거 잘 행 밥 먹
젠 영 봐레 보난 그 벗덜은 어느 때 앓아분 줄 모르게 상에 아무것도 엇어렌 다 앓
아벤. 열 여덟설에 장게 간 놈이 앓아불건 앓아불엇구나 헨 밥만 서너 숟가락 먹주
만은 영 보난 아무 것도 엇이난 저 하인, 신랑 데령간 사름이 태구라 일름이.

102010 @ 예.

102010 #2 태구야 해영 불르난에. 어딿 멩령이니게.

102010 @ 양, 이제 ㄱ트민 예 허주만은 양허멍 이젠 가난. 이 사름덜 상 즐려다
주라 배고광 오랐져. 거 오죽 **조냐.

102010 @ 하하.

102010 #2 열 여덟설에 간 놈이 츠마 장가가근에 툇 앓안에 친구가 그거 앓아
베시민 엇인양 먹주만은 태구 불르난 양 허멍 오난 이 사름덜 상 즐려다 주라. 게
그 사름덜도 무안행 먹어지크냐.

102010 @ 그니까.

102010 #2 그런 사름이여. 경허난 그거 난 이불은 무시거 닳은 거 두 췌 해줘라
두 채 해 주난 그걸 포에 쌍 허민 들레 간 사름 그 하인 각시가 그거 지고이 배로
지고 난 가마, 난 가마에 오민 물이 좋은 건 솔솔솔솔 오는 디 물이엔 현 거 그거
허지 말젠 부들랑부들랑부들랑 그것 영 두 개 해근에이 요레 가마 짓영 놔근에 몰
우터레 그걸 올려 노민 물이 부들라부들락 아이고 어떤 사름 시집갈 때 막 털어지
곡 헤여.

102010 @ 하하.

102010 #2 경헨 그거 그처럼 헨 나 시집을 왔저. 시집와서. 아이구.

102010 @ 경해도 결혼식도 다 하셔신게. 그 시대에.

102010 #2 으 그 시대에 허는 식이주게.

102010 @ 사삼 끝나고 언제과, 오십 오년?

102010 #2 열 네월에 끝난에 스물에 시집은 왔주. 으섯 해 살앙.

102010 @ 아 스물에.

102010 #2 아이구.

102010 @ 사진은 찍어젯수과?

102010 #2 사진이 어디 시니게. 그때 흐쓸 잇다네 쪼끔 잘허는 사름은 사진도 찍고.

102010 @ 예.

102010 #2 차로도 가고 해신디, 저, 난 사진이랑 말앙, 어느 저를에 사진 심광. 계난 또 장옷 입곡 장옷 쓰곡 저 가마 타고 오랏저. 가마 타고 시집 오랏주.

102011 @ 경헨 신흠 살림은 어디 차려진 거마씨? 이 터과?

102011 #2 신흠 살림 츠리지 안 헛저, 신흠 살림을 열 여덱에 장가 간에 열 아홉 나난 저 뺑정 돌아나부난에 시집인 저 식구덜도 으라이고 저 살림 출리지 안 허 영 이펜더레 춤 옛날말로 박거리에 옛날 새각신 경 헛저게 저 친정에 가근에 흔 메틀 살당 또 시집 오랑 흔 메틀 살고 애기도 안 낫고 혈 땀게. 친정에 강 하영 살고 픈 사름은 친정에 강 하영 살고 시집이 하영 살고 픈 사름은 시집이 하영 살고 경허 명 살다 놈의 집이 비는 사름도 잇주만은 쪼끔 무시거 허는 사름은 집을 짓어. 아 들네 나시. 집을 집을 짓으는디 우린 경 안 해근에 집을 빌언. 빌언에 흐쓸 살고 어 땡어땡 허단에 저 사름 군인 가분 때 우리 시아버지네가 이거 집을 짓어 쫓주게. 집을 그때, 그때 시절엔이 놈 초가집이 살단 느네 집 풀암저 허민 그 초가집을 사는 거라 상 그거 나무 쓰젠 그 초가집을 그스젠가 그 위의 검질 거프레기 다 걷어 땡 그 나무 뜯어당 집을 짓엇는디.

102011 @ 아.

102011 #2 남원2리 누게네 집 폰텐 허난 그디까지 강 그 나무 뜯어당 짓어는디 살단 그 집이 초가집이라신디 살단 이 집이 우리가 멩글앙 살안.

102011 @ 아아, 초가 뜯어 그 나무를 가져 왕 이 집 짓을 때 쓴 거라.

102011 #2 어. 저 지프레기만 비어당 나무는 으.

102012 @ 아이덜이 넷 낫수게예. 그민 스무살에 결혼헿 멧설에 낫수과?

102012 #2 스물다섯에 난 애기는 일러불고.

102012 @ 잃어버리고.

102012 #2 우리 큰 아덜이 스물일곱, 큰똥은 스물아홉, 저 작은 아덜은 서른 둘, 작은똥 서른 다섯에 애기도 마감헿주.

102012 @ 막 늦엉 나셨다예.

102012 #2 으.

102013 @ 시집살이 기억나는 거 곱아줍서.

102013 #2 시집살이 뭐 기억난 거 무시거라. 그땐게 친정에 강 흐쓸 살고 시집 오랑 흐쓸 살앙 그자 시부모네 일허레 가가민 따라가근에 게 일 도와헨 오꼭 또 여기서 우리 시어명은 물질이 아주 상군이러서. 아주 창피할 정도주. 시어명이영 가민 시어명은 멧짐 허는디 난 흐 짐허도 못허고 허허. 경헤도 뭐 메역 못헨젠 꾸지람이나 허진 안헤도 뭐 그 정도로 헨 살앗주게. 그거 말려근에 시어머니 풀 땐 시아버지가 잘 그치 풀아주고.

102013 @ 아 메역헤 온 거 풀 때.

102013 #2 시아버지가 잘 해주주게.

102013 @ 그런 메역 헤 온 거 개인으로 풀앗수과?

102013 #2 으. 메역만이 딱 부찌근에 육지 메역거치, 육지 저 다시마거치 넘게 허영 부찌근에 그 높을 부찢 것을 저 그대로 흐 낭, 흐 낭헤근에 조근조근 예쁘게 시리 헤근에 기력신 이만이 허고 너버긴 이만이 헤근에. 흐 단헤여, 단으로 무경 놔두민 저 그 메역 야가지, 저 귀 있는 디는 찝가마니 배로 딱 무경 놔두민 거 찝가마니 저울도 영 들르는 저울.

102013 @ 추 저울예.

102013 #2 으. 추 저울 그것에 들렁 멧 근, 멧 근 허멍 막 세월이 좋아나서. 나 시집살이 헨 땐

102013 @ 그럼 시어머니가 물질 잘 헤나니까 바닷일도 많이 헛구나.

102013 #2 아니 여기 오란 그 우리 친정에 살 때보다는 여기는 시부모네가 일을 수월허게 허더라고.

102013 @ 아.

102013 #2 밧에 가도 친청아바지보단 시아버지네가 좀 일찍 오고. 일찍 오라서 저녁도 일찌거니 행 먹어 불고 우리 친청아바지는 밤새도록. 아버지 읍서 집이 가게, 집이 가게 허민 흐저 흐저허라 흐저 흐저 허라, 이거 헤베사 갈 거여. 경허민 일을 시켄게 우리 시아버지네는 어느 때 집이 오라근에 물도 길어 오라야 헨 거난 식구는 하고 물도 밀납공장 앞이 바닷가에 강 물때가 맞아야지. 바닷물이난. 옛이민 소방서 앞이 연못에 흐 쪽은 쉼 먹고 흐 쪽은 사름 먹는 물인디 쉼 먹는 통 안에 사름 먹는 통을 요렇게 만드니까 그 밑으로 쉼 먹는 물이 들언오니까 물이 막 한창 오월 장마 때 번번헌 때 퀘안코 물이 다 베타갈 때는 쉼 오줌내가 나. 그렇게도 그 물을 없어 못 질어.

102013 @ 그럼 갯것이나 강 물때 맞을 때.

102013 #2 물때 맞을 땐 밧디나 강 못 맞으면 이 물 질어오고 경 안 허민 그 물 질고. 식구가 막 하 노난에.

102013 @ 으.

102013 #2 감저도이 흐 솟 청당 보민 뭐 엇어. 점심에 먹곡 낫당 아이덜 먹고.

102013 @ 계민 하루에 물 몇 번을 정 읍니까?

102013 #2 물허벅에 웬 잇어게 물허벅에 하루 네 번 질어오는 날도 씻고 그 물로 그릇 씻고 이제 거트민 모욕, 모욕은, 흐 들에 흐 번인가 혜신가 말아신가. 나도 모욕혜진 기억이 안나.

102013 @ 밧디 갖다 와도예?

102013 #2 으. 나 오죽해야 우리 얘기날 때에 젓도 안 좋아도 이디 젓 게우살 잇는디 떼닥떼닥 현양 우리 친정에 가시난 우리 올케는 나보단 밀에고 그럭찰허게 살주게. 우리 아버지네는 나 신 때는 경허단 츠츠 살아가난 좀 부제난에 살기가 경.

102013 @ 예.

102013 #2 성님 그 옷 흐쫄 빨앙 입읍서게. 그런 정도로 난 살앗주게 이디가 떼닥떼닥. 우리 올케넌 경 아니 살고. 아이구.

102014 @ 자식덜은 넷 나난 츠레츠레 잘 허고마씨?

102014 #2 결혼은 마.

102014 @ 우에가 아들.

102014 #2 흐나 거꾸로.

102014 @ 아 거꾸로.

102014 #2 겨난 저 기자 처음부터 늦 바꾸명 딸 나난 아덜 낳고 그 다음 딸 나난 아덜 낳고 그자 늦 바꾸명 애긴 나신디 우로 큰 아덜도 중매헐에 잔칠허고 혜신디, 딸덜이 중매헐 새가 엇이 새서방을 봉가 와라.

102014 @ 아 어렸을 때.

102014 #2 우리 큰 딸도 아니 곱덴 헐 사름 엇고. 지레 죽아, 지렐 쫓글락헤도 현디.

102014 @ 어무니 닥앙 예뻐구나예.

102014 #2 제주시 여상 간 학꼴 혜신디 주인네 딸 두 개도 여상학생, 우리 딸도 여상학생 현디 쉬험 뵙 통지표 받아 올 걸 보민 주인네 딸보단 우리 딸이 공부 잘 허여. 아버지 도장을 받아 오랜 허민 멀어 부난 주인네 도장을 써신디 주인신디 걸 아져가민 촌에서 온 아이만도 못 허텐 막 그딧 아이덜이 욱 들명 허단.

102014 @ 아, 하하.

102014 #2 아 그추룩 헤도 그 저 사원 덕수 아인디 아이 덕수 아이 서에서 고 등혹꼴 허던 아이가 그 아일 알앙 미침 시작허난에 경 잘 허던 공부가 웬걸. 남저 헤영 그추룩 허난.

102014 @ 아.

102014 #2 계난 예비고살 봐져사 대학에 갈 가느네. 보긴 보는 시늬을 했는디 계난 그 남저에 미천에 젓도 경허고 죽은 아덜도 막 연애헐 새각신 하영 데려오라도 곤는 말 잘 들영. 아 우리 죽은딸이 오라방보다 먼저 가켠 죽젠 살젠 어명 나 인생 살아줄 거과 허여. 난 죽은아덜 못 프난 달랫주, 경허지 말앙 죽은오빠 풀아낭 사위ㄱ라도 딸 다른 데 안 주켜, 서로 연락이나 허명 살암시민 나 죽은아덜 풀아낭

느신디 딸 주마 해도 말 아니 들언. 죽은 아덜 내베던 가이 폴아신디 그 다음 죽은 아덜 폴아도, 죽은아덜네 아 지금 막 사이 좋게 애기도 아덜 하나 딸 두 개 낳고 체주시서 집을 먼저 사부난 좋지 안허다게. 요즘 아파트 아니난.

102014 @ 아, 옛날 집.

102014 #2 옛날 아파트라도 아이고 요새 비싼집이 이녀 집이엔 헨 살고, 사는디 그 놈 가젠 헌디 빼영 산 년이 잘 못 살암저.

102014 @ 누가?

102014 #2 죽은딸.

102014 @ 죽은딸, 음.

102014 #2 아이구 말행 뭐 헤.

102015 @ 계난 메뉴리는 위미리였고예?

102015 #2 큰메누리 위미리.

102015 @ 죽은메누린?

102015 #2 모실포.

102015 @ 모실포.

102015 #2 으. 보성, 보성.

102015 @ 보성. 메뉴린 어떻게? 좋아마씨?

102015 #2 막 착하고 좋아.

102015 @ 착하고 좋아.

102015 #2 우리 메뉴린 가이든디 계난 우리 죽은아덜도 암만 달래봐도 나가 곳 게 안 곱아도 나가 곳게 곱민 반발적으로 나오카부덴 하도 달래난 어무니 날7라 공부허렌 허지 맙서. 난 성만이 아이큐가 엇이난 공부 못 합니다. 경허난 내부난 대학 못 해부난 경해도 그나마 암만 관광대주만은 대학 헌 메뉴리가 올라쥬 메뉴리가 가이드라이. 가이드라도 막 서트랑 허게 안 헤영 막 잘 허여, 막 고참이고 잘 허고 아덜도 웬 연애할 때 시켜사신디 그 사진 기사 허단에 사진 기사 치와딩 관광기사 햄주게. 두 가시가 가이드 허고 관광차 허고.

102015 @ 걱정엇인게 둘이 별민.

102015 #2 아덜은 큰큰헌 차 행 가도 돈 혼엇이 잘 못 벌어. 메뉴리가 돈을 잘 벌어. 메뉴리가 착헌다.

102015 @ 음.

102015 #2 계난 메뉴리 빵 나 시에 가살건디, 하도 막 돌아댕겨부난 아이덜 밥 줄바로 못 먹엄젠 그냥. 쉬는 거 엇이 두 가시가 막.

102015 @ 지금 바쁠 때라 부난예.

102015 #2 으.

102015 @ 계난 손지들, 손지들 밥 츠려주레.

102015 #2 으 고등학교 3학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중학교 2학년이주게.

102015 @ 으으. 사위는?

102015 #2 으?

102015 @ 사위는 어떻게마씨?

102015 #2 사위는. 경 연애, 계난 나 말을 안 들었 연애행 간 큰사위도 죽어베 신디 아덜을 두 개 나신디 그 아덜덜이 어떻게산디 그 집이 식구덜도 머리는 넉넉 지 않은 거 다했디 머리가 막 좋안에 큰아덜이 저 서울대 의사이. 서울대 해도.

102015 @ 완전 똑똑했구나?

102015 #2 서울대 해도 완전 장학생으로만 했는데, 또 그것만도 아니고 의학원을 해서 의사허젠이.

102015 @ 예.

102015 #2 의학원을 해도 그것도 1, 2등에 들어서 1, 2등에 들었.

102015 @ 아이구 완전 똑똑했구나.

102015 #2 이젠 학원 2년 헤시냐 헤네 학원은 졸업 안 헌디 학원에서가 지금 병원에 보냈젠 헤라.

102015 @ 어, 실습허고.

102015 #2 어. 병원에 보냈젠 헤라, 허고 죽은아덜도 대학 허단에 군인 가신디 여저도 있고, 큰아덜도 여저도 딱 허고 아이덜이 얹전허고 헌디.

102015 @ 걱정 엇인게, 사위 죽곡 딸 혼자 키워신디 완전 잘 키워신게.

102015 #2 으, 그렇게 딱 뭐 헌디 저 죽은 사위, 아이고 그걸 경 좋아할 건 무시거니. 날그라 오란 추그리건데 무시거 허는 사람이엔 허난 포크레인 허는 사름이 돈 담넌.

102015 @ 으.

102015 #2 계난 돈 담으카부덴 해주게. 너 오누이 중에 돈 담으카부덴 허단 보 난, 너 오누이 중에 밥을 굶엄서.

102015 @ 잘 안 됐구나.

102015 #2 계난 그 포크레인이 사름힐 거 아니라라. 이 적산이 안됐젠 허민 허 단 보민 그 회사가 부도난 돈 못 받고 삐딱허민 그 차가 고장나민 그 차 안에서 혈 런 부속이 삼십만 원이라 혈런 부속이 삼십만 원. 고장 잘 나고 경허명, 경헤가난 믿음대로 안돼 가난 신경질 나고 사름이 뺑 나다 싶이 허고 경허난 아이덜도 큰딸 네 아이만이 머리도 안 좋고, 군인 갖저만은.

102015 @ 음.

102015 #2 웬 그거주게 아이덜은.

102015 @ 죽은 게 공부 잘 허는 손지덜도 있고.

3. 밭일

103001 @ 어떤 농사 지어났수과 이 동네에서는?

103001 #1 옛날사 조 불리고 감저 놓고 보리 같고.

103001 @ 보리 갈고예. 이 동네 거의 조, 보리.

103001 #1 주로, 주로가. 산디도 불리고.

보리농사

103002 @ 보리 농사 짓는 거부터 먼저 물어보쿠다. 보리 농사 지으려면 무슨 준비를 합니까?

103002 #1 보리씨.

103002 @ 예, 보리씨.

103002 #1 그 다음은 돛걸름.

103002 @ 돛걸름.

103002 #1 근래와선 비료주만은 옛날에 비료가 없으면 돛걸름. 그러면은 돛통에 서 걸름을 내어, 내쳐. 소 가지고는 씨 뿌리면서 불라.

103002 #2 계, 그 씨 걸름에.

103003 @ 순서대로 할거예. 돛걸름을 할려면, 보리 걸름을 할려면 걸름을 미리.

103003 #1 돛통에 검질 집어넣고 계민 돼지 똥도 싸곡 허민 그계 걸름이 웬다고. 그러면 소 걸름도 봄 나가민 돛통에 퍼 놔.

103003 @ 음. 기마씨.

103003 #2 돼지가 맨날 다니난게 그계 걸름이 돼주게.

103003 #1 계민 그계 돛걸름이 돼여. 쉼걸름은 보리씨를 서트질 못 허니까. 그러면 돛걸름은 거의 흙이나 다름엇이 돼불주게. 그러면은 그걸 꺼내가지고는 소로 볶아. 씨를 뿌리면서.

103003 @ 아니 그냥 그럼 그, 거름을 내수다예.

103003 #1 거름을 퍼낸다고 마당에.

103003 @ 마당에예. 그럼 퍼낸 거름을 불리는 거과?

103003 #1 어, 소가.

103003 @ 아.

103005 #1 사름이 이제 콧어댕기명 소 혼 마리나 두 마리 헤가지고는 보름구덕에 보리씨를 자꾸 뿌려.

103005 @ 그 걸름 우이?

103005 #1 어. 걸름 우에다. 이제 걸름을 뒤집어.

103005 @ 음.

103005 #1 또 그렇게 해.

103005 @ 또 보리씨 뿌리명 거기에.

103005 #1 어. 그러면 완전히 서터진다고 그러면 밭에 실러 강 퍼 놔. 그러면 여저덜이 수제비만씩 쪼개면서 걸름을 놓는 거라.

103005 @ 밭 갈기 전이.

103005 #1 어, 갈기 전에.

103005 @ 아, 예예.

103005 #1 그러면 밭 전체 뿌려질 거 아니. 그러면 밭 갈아불민 끝이라.

103007 @ 그러면 그거는 쪼슬퀴 같은 거 안 하고?

103007 #1 어?

103007 @ 쪼슬퀴 같은 건 안 하고?

103007 #1 안 허여.

103007 @ 쪼슬퀴 안 허여.

103007 #1 단지 허게 돼면은 봄 나서 이제 땅이 얼었다가 녹아가면은 보리 뿌리가 약해지거든 경험 뵙으는 거라.

103007 @ 음.

103007 #1 뿌리는 단단하게 허기 위해서.

103007 @ 보리 낱.

103007 #1 여기는 화산토기 맘시 흙이 약허거든.

103007 @ 예. 보리 밟기를 허는 건 보리가 잘 뿌리 내리라고.

103007 #1 어.

103007 @ 보리 난 후제사예.

103007 #1 어. 나서 좀 자란 후에.

103004 @ 그럼 보리는 언제 가는 거과?

103004 #1 동지 전에.

103003 @ 그럼 동지 전에 거름덜을 다 내 놔 뒤야 할 거?

103003 #1 아니, 게 오늘 내민 오늘 뵙아야 돼.

103003 @ 아, 오늘 내민 오늘 뵙아야 돼.

103003 #1 혼 이삼일 돼민 킬라서 안 돼.

103003 @ 그럼 뵙앙 바로 밧디 시꺼 가?

103003 #1 어. 딱 싸 돼 퓌다가. 겐디 그 후에는 구루마가 나오니까. 날라가기가 쉬웠고 또 그 후에는 경운기가 나오니까 쉬웠지. 그 전에는 멩텅이에 거름을 담야.

103003 @ 멩텅이.

103003 #1 어.

103003 @ 거름 담양.

103003 #1 게민 걸 보고 걸름착이라고 헤여. 걸름착. 멩텅이도 좀 작게 만들주게. 겐 그것에 저 거름을 담아 가지고 밧에 퍼 놓는 거라. 그래서 수제비만씩 접아 놔가지고는 그래서 밧을 갈아 불민은. 이 저 밧 뵙을 수 사름은 밟고 그렇지 않은 사름은 뵙지 않고.

103005 @ 게민 보리씨 뿌리는 거는 영 뿌리는 게 아니고 영 좁아 놓는 거.

103005 #1 어. 걸름에 불리적에는 뿌리고.

103005 @ 아, 걸름에 헐 때는 뿌리고. 밧디 강?

103005 #1 밧디 강 허는 건 접아 논다.

103005 @ 아, 접아 논다.

103005 #1 또 걸름 논텐도 허고.

103005 @ 아, 보리씨 논텐 안 허고 걸름 논다. 그럼 어느 정도 간격으로 접아
놓니까?

103005 #1 흔히 엇어 그건.

103005 @ 흔히 엇어예. 저베기처럼 놓는 건.

103005 #1 왜냐하면 코치롱허질 안 허니까. 그래서 어 오일육이 나서 골 파라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야 수확이 많고 잘 췌다. 그때는 홈을 친 거라 그래서 걸음을
거기다만 놓거든. 거름을 놔 놓고 거기에 보리씨를 뿌려 게서 흙을 덮어놔주. 그거
는 여기도 허는 사름 별로 없었어. 나도 그거.

103005 @ 그 후제사.

103005 #1 나도 그 지도자 헨 뎅기니까 모범적으로 허런 헨 헤 봤는데 인건비
가 많이 들고 여기는 안 췌는 거야. 왜냐하면 화산토이기 땀시 보리가 씨러져서 안
췌여.

103006 @ 저기에 그럼 보리 종류에는 뭐뭐가 잇수과?

103006 #1 두줄보리허고 쓸보리.

103006 @ 두줄보리허고 쓸보리?

103006 #1 두줄보리는 맥주맥.

103008 @ 아 두줄보리가 맥주맥. 보리밭디 검질은 멧 번 메놋수과?

103008 #1 검질도 비료나기 전인 안 멧어.

103008 @ 아, 기짜?

103008 #1 검질이 안 나니까. 땅이 약허니까 안 난다고. 게 비료 나오기 시작헤
서 검질을 멧주.

103008 @ 계난 비료 나왕 검질 메기 시작허난 검질은 멧 번이나 멧디가?

103008 #1 흔 번.

103009 @ 흔 번. 보리밭디 나는 검질들은 어떤 검질들이과?

103009 #1 역기. 주로 역기.

103009 @ 검질 이름이 역기.

103009 #1 어. 겨고 주로 잡풀덜 나주. 그리 많이 나진 안헤서.

103009 @ 어무니 보리밭디 무신 검질 납니까?

103009 #2 역기 주로 역기주. 주로 역긴디 물룻도 나고.

103009 @ 물룻.

103009 #1 게고 보리밭디 검질이 별로 나지 안 허여.

103009 #2 대우리.

103009 @ 대우리.

103009 #2 대우리, 역기, 무시겨 곶아지크라. 시에미알케엔 현 거 시에미알케.

103009 @ 시에미알케.

103009 #2 으 그거라. 여름 검질은 제완지 나주만은 그건.
103009 #1 건 보리밭던 안 나.
103009 @ 아. 콩밭디 나는 거잖아예?
103009 #2 으.
103009 #1 조밭디.
103009 @ 조밭디. 나중에 밖에서 검질 이름 가르쳐 주면 사진 찍으쿠다예.
103009 #1 이제 다 과수원 해부난 어디 검질이 있어?
103009 @ 아니, 밖에 가면 물룣도 이실 거고.
103009 #1 그런 게 이제 었어. 아, 이 아래 밧디 멧 개 봐져라.
103010 @ 보리는 아까 동지 전이 보리 간덴 헛잖아예. 수확하는 건 언제과?
103010 #1 봄에.
103010 @ 봄에.
103010 #1 지금, 지금 일럿주게.
103010 @ 수확허는 거 애기 해 줘서.
103010 #1 하지 전에.
103010 @ 하지 전에예?
103010 #1 늦으민 하지에도 헤여.
103010 @ 보리 베는 거부터 묶는 거 단장허는 거?
103010 #1 저 보리 익으민 비여,
103010 @ 익으민 비여.
103010 #1 널영 들류와.
103010 @ 그냥 그 자리에서 들려?
103011 #1 어. 그 자리에서 비여만 노민 웨난. 무꺼가지고 집이 싰거당 홀타. 그 보리클, 보리클허주게. 그걸로 홀튼덴 헤여. 홀타가지고 마당질헤여. 도께질. 여긴 도리깨 ㄹ라 도께.
103011 @ 도께질.
103011 #1 도께질 헤영 쟁 불러. 들류와근에 들여노민 수확은 끝나불주.
103010 @ 게난 비여 놓으민 언제 무끄는 거라, 바로 무꺼?
103010 #2 아이고 날씨에 따라.
103010 #1 날씨에 따라. 비 왓직 허다 허민 무꺼 불고 경 안 허민 이삼일 들려. 그래야 집이 와서 장만헤영 물리기가 쉬우니까.
103010 @ 게민, 영 무끄잖아예. 무끌 때, 무끄는 건 뭐로.
103010 #1 보리로.
103010 @ 보리직 거기 거 그냥?
103010 #1 어.
103010 @ 얼마씩 무릅니까?
103010 #1 그건 혼이 었어.

103010 @ 혼이 엇어. 그럼 그거 묶은 거 하나를 뭐렌 불러.
 103010 #1 단. 혼 단.
 103011 @ 혼 단. 타작은 그냥 흘튼 다음에 도리깨질 허는 거예.
 103011 #1 어.
 103012 @ 어머니 보리쌀 장만 어떻힙니까?
 103012 #2 어떻허여게.
 103012 #1 그것도 옛날에는 돌방에에 가서 돌방에에 가서는 물에, 물에 돕가듬 수루 곶아. 곶아가지고는 담양 집이 왕 물리왕 채 빼똥 그냥 두 불 곶아오나 거피 나.
 103012 @ 거피예. 경 집이 가져오민 정ㄴ레에서.
 103012 #1 게 거피는 건 정ㄴ레에서.
 103013 @ 보리쌀로는 아까 밥 헤 먹고 또 뭐 헤 먹읍니까?
 103013 #1 밥 헤 먹음베끼 뭐.
 103013 @ 미숫가루?
 103013 #1 건 보리로.
 103013 @ 보리로.
 103013 #1 건 여긴 게역.
 103013 @ 보리, 보리쌀로가 아니고 보리로.
 103013 #1 보리로. 보리로 볶아가지고 가루로, 정ㄴ레에서 가루로 곶아. 방앗간 나니까 방앗간 갖지만은. 정ㄴ레로 곶양 치여가지고 아래 놔, 게민 채는 우에 트주 게. 게민 아래 신 것이 게역.
 103014 @ 그럼 보리장만 헤나민 보리직, 보리 까끄레기 같은 건 뭐에 씹니까? 보리 장만헤나면.
 103014 #1 보리 고스락.
 103014 @ 보리 고스락.
 103014 #1 보리 고스락은 불 태와불주게. 건 걸름도 안 똤여.
 103014 @ 짚은?
 103014 #1 직은 걸름게.
 103014 @ 직은 걸름에 쓰고 통시도 깔고.
 103014 #1 쉤막에도 깔고 또 마당에도 깔고.

조 농사

103016 @ 조농사 물어보쿠다. 조농사예. 아까 보리 농사허젠 허민 걸음을 미리 준비헛잖아예. 조농사는 어떻힙니까?
 103016 #1 조농사는 걸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밧을 갈아, 밧을 갈아.
 103016 @ 갈아.
 103017 #1 밧 간 다음에는 씨를 뿌려.

103017 @ 음.

103020 #1 그런 후제 소나 말을 가지고 불러. 여기는 불린다고 하여. 불린다. 조 불린덴 허주게.

103020 @ 예.

103020 #1 게민 그 씨가 물어질 거 아니.

103020 @ 예.

103024 #1 그러면 그게 나면은 여기 우리말로 좇주게. 좇으면은 초불 검질 멜 적에 속아. 갹 초불검질 메고 두벌 검질 메면은 게민 익어근에 비여 들이면은 조는 톤아. 홀트는 게, 고고리라고 헤가지고.

103024 @ 음.

103024 #1 호미 이렇게 낄앙 앓앙 요만씩 잡으멍 그 고고리 톤앙, 톤아 놔근에 도리깨질.

103024 @ 아. 보리는 홀팅 도리깨질 허는 거고 조는 톤앙 도리깨질 허는 거라 예. 아까 조 갈 때는 거름을 안 허는 거마씨?

103017 #1 어. 건디 비료가 난 후에는 글로 헤영 초불검질 멘 다음에 비료를 헤여.

103018 @ 어쨌든 보리헐 때는 걸름을 먼저 허고 밧 갈았는데, 조는?

103018 #1 그대로.

103019 @ 밧 갈아난 다음 뿌리는 거?

103019 #1 밧 갈아난 다음에 뿌리는 거.

103020 @ 불르기도 허고예.

103020 #1 불르지 안 허민. 저 대정더레 낫음만 해도 돼는데, 여기는 화산 토질 이니까 안 뵈는데, 비료가 난 후제는 그 저 낫음만 해도 뵈어.

103018 @ 조는 언제 씨 뿌령 언제 가는 것과?

103018 #1 하지 기준해서, 하지 기준해서.

103018 @ 하지경에. 거뒤들이는 것은?

103018 #2 나쁜 밧은 하지에 허고 좋은 밧은 소서 거자 웨야.

103018 @ 소서 거자 웨사.

103018 #1 그 저 모종 그르 같은 데.

103018 @ 모종 그르 같은 데.

103018 #1 건 걸름 진 데니까.

103019 @ 음. 좁씨는 어떻 뿌리는 거마씨?

103019 #1 손으로 작작.

103019 @ 건 여저가 뿌립니까 남저가 뿌립니까?

103019 #1 남저가.

103019 @ 아, 남저가.

103019 #2 여저도 잘 뿌리는 사름은 뿌려.

103019 @ 뿌려.

103019 #1 주로 남저가 허여.

103019 @ 계민 밧 다 갈아 낱 씨 뿌리는 거라?

103019 #1 밧이 예를 들어 천 평이면은 이, 삼백평 갈아지면은 좁씨 빼여근에 불리렌 허주게.

103019 @ 여자안테예?

103019 #1 아이덜이나 원원 놉을 빌던지 여저안테던지 영영 불려가명 밧 갈아 가명 씨 빼여 가명. 그때는 주로 장마거든 제주도는 거니까 장마철 나민 그 안개비 해 가면은 빨리 해야 허니까.

103020 @ 계민 조팏 밧을 때는 뭐 남태나 돌태나 험니까?

103020 #1 남태는 근래 나온 거. 옛날에는 소나 말.

103020 #2 소에, 소를 엇저근에 큰 소 하나러레 죽은 소 다 돌아메근에.

103020 #1 거 연 멘다고 해서.

103020 #2 어 돌아메영

103020 @ 음.

103020 #2 저 소 흔 멧 개허고, 물은 그 큰 물 하나만 이끄면 몽아지덜이 줄줄 줄줄 큰 물 조름에 딱라. 계민 앞에 모는 사름이 있고 숫자가 많으면 돌이가 몰고. 숫자가 적으면 한 사름만 몰고. 소도 그렇게 마찬가지.

103020 #1 그러다가 소 물이 줄어들기 시작허니까 남태라고 해서 나무에다 말 못 박아가지고는 그 거는 나온지가 얼마 오래지가 안 해서.

103020 @ 그러면 돌태는 안쓰고?

103020 #1 돌태는 뭐라?

103020 @ 돌로 만든 거마씨.

103020 #1 아니.

103020 @ 그런 건 아니. 꿈게는?

103020 #1 여기서 썩슬퀴라고 해서 거 갈 적에.

103020 #2 썩슬퀴주, 썩슬퀴.

103020 #1 끌것, 끌것 헤여.

103021 @ 조팏디 검질은 멧 번 맵니까?

103021 #1 두불.

103021 @ 두불. 조팏디 어떤 검질 нама씨?

103021 #2 막 저 잘 메는 사름은 벨레기 돌레메라고 해서 막 씨 죽은 때 혼불 멧당 두불 메는디 보통 두불.

103022 @ 두불예 조팏디 검질에는 뭐 잇어?

103022 #2 뭐 그거주게 그건.

103022 #1 제완지 그루조.

103022 #2 득쿨 뒤.

103022 #1 득쿨, 해바라기. 그거 혼이 었어.
 103022 @ 이제 그런 검질덜 못 봐?
 103022 #2 나긴 나는데 밧마다가 었어. 잇긴 잇어.
 103022 @ 과수원 생겨버리니까 제초제허고 자주 메버리니까 이제 씨가 몰라버
 렸다 말어주. 여긴 물룣도 누웁 텡글어도 옷 안 버무릴 정도로 잇어났다고 물룣도.
 겐디 이제 자연 소멸이 돼불고 이제는 수입 검질. 이름도 성도 모른 거. 그게 문제
 라.
 103023 @ 이젠 조 수확하는 거. 수확은 언제 한다고?
 103023 #1 보통은 팔월, 구월달에 음력.
 103023 #2 구월, 음력 구월.
 103023 #1 음력 구월
 103023 @ 음력 구월에. 게민 베어들영 밧디서 무경.
 103024 #1 무꺼근에 실어들영 톤양.
 103024 @ 톤는 건 여기서예.
 103024 #1 마당에서 톤양.
 103024 #2 도리깨로 두드리는 거주.
 103024 #1 도계질 허여.
 103012 @ 아까 보리쌀은 어무니 몰ㄴ레에 강 먼저 곶아왕.
 103012 #1 몰ㄴ레가 먼저주.
 103012 @ 집에왕 정ㄴ레로 헛수다예.
 103012 #2 어.
 103025 @ 좁쌀은 어떻 장만헉니까?
 103025 #2 좁쌀은 그 조코고리 날 좋은 날 막 몰르민 두께도 두드려근에 이제
 그 높은 두드려 노민 즐아부난에 두드린 장소에서.
 103025 #2 조 그 고고리를 영 곶라서 도리깨로 두드리민.
 103025 #1 톤아근에 두드려.
 103025 #2 게 톤아근에 그 고고리를 두드리면 얼맹이 있어, 얼맹이 알아?
 103025 @ 예, 얼맹이.
 103025 #1 알지게. 얼맹이 다 이시난.
 103025 #2 게난 너무 흥영 급허면은 초불 쳐, 초불 치는 디 대체로 쳐, 대체로
 치민 대체 아래 건 멩탱이에 담아 놓고 또 안두드려 진 건 강메기라고 해서 또 두
 드리멍 경헉 문딱 헤영 대체 아래 거 나면은 그놈은 센보름에 못 불려.
 103025 @ 음.
 103025 #2 아주 아침에 살살헌. 그 브롬은 부는 줄 모르고 살살허게 나오는 그
 브롬에 그놈을 불려가지고 그추룩허난 아침에 새벽에. 경헤영 그 채는 돼지 주곡
 그 조는 이제 불리민 보리거치, 보리는 불린 후젠 못 불리민 곶팡이 피고 암만 잘.
 조는 팬참여. 게민 담아텡 곶레 갈 때만 잘. 이틀은 불려야 돼여. 물령.

103025 #1 것도 물방에에 강.
103025 #2 그놈 물방에에 강 이제 막 돌리노렌 허민 걱죽 벗어지주게.
103025 @ 아까 도리깨질 혜영 안 털어진 걸 뭐렌 혜수과?
103025 #1 강메기.
103025 #2 조강메기.
103025 @ 강메기. 안 떨어진 거.
103025 #1 두루 떨어진 거게.
103025 #2 두루 떨어졌당 또 두드리젠 허민 아이고 조강메기 두드려베사켜.
103025 @ 아 강메기.
103025 #2 보리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보리 강메기 저디 담아놔네 못 두드려 안
웨켜.
103025 #1 한꺼번에 떨어지지 안허니까. 그 가운데 좀 덜 마른 게 있으면 두루
떨어지주게.
103025 #2 으, 강메기.
103026 @ 좁쌀로는 뭐 만들엉 먹엇수과?
103026 #2 게, 무시거 만들앙 먹어게 떡허고 밥허고 죽베끼.
103026 #1 무사 범벅도 잇어주.
103026 #2 에이, 조범벅 어디 조범벅 잇어. 기자 밥, 죽, 주로.
103026 #1 주로 밥, 죽이주게.
103026 @ 밥, 죽.
103026 #2 떡.
103026 @ 술은?
103026 #2 어?
103026 @ 술?
103026 #2 술은이 차조라사 술 헤여.
103026 @ 응 차조로.
103026 #2 차조로 술 허지 이제 그런 모인조로는. 흐린조라 차조가 아니고.
103026 @ 조 종류가 뭐, 뭐 잇수과?
103026 #2 아이고, 조 종류는.
103026 #1 여기 말로 흐린조, 모인조.
103026 @ 흐린조, 모인조. 그리고 그 차조라는게 흐린조?
103026 #2 흐린조.
103026 #1 차조는 모인 거고 찰조는 흐린조고. 차조가 모인조라.
103026 #2 흐린조, 모인조 헤불민 웨주게.
103026 @ 예, 흐린조, 모인조예. 술은?
103026 #1 게난 흐린조로 헤여.
103026 @ 술은 흐린조?

103026 #2 흐린조로.
 103026 @ 그럼, 여기 농사 짓는 건 흐린조 아니?
 103026 #1 무사.
 103026 @ 게, 흐린조예?
 103026 #1 두 가지라.
 103026 #2 여기 두 가진데. 흐린
 103026 #1 뭐 모인조 안에도 여러 가진데.
 103026 #2 흐린조 아무 밭이나 못 허는 따문, 경 다 모인조고.
 103026 #1 흐린조는 아주 건, 땅이 좋은데.
 103026 @ 아, 좋은 데.
 103026 #1 고구마 묘종 키와난 데나 거름헌 데.
 103026 #2 흐린조 아무 데나 안 뒀어.
 103026 @ 음. 거난 조로 술도 담드는 거 아니. 흐린조.
 103026 #2 으. 흐린조론 술 담가.
 103027 @ 술 담그는 거예. 그민 조짚은 뭐에 씹니까, 조짚?
 103027 #2 소 맥여. 아주 좋은 먹이라 그건. 조칩은 흐나 떨어지지 않아 늘어.
 경 겨울에 조칩 흔 번 주고
 103027 #1 사름같으면 쌀밥.
 103027 #2 조칩 흔 번 주고 또 산에 강 비여온 건 일름이 쉼플이라 쉼플.
 103027 @ 으.
 103027 #2 쉼플 흔 번 주고 쉼플 주라 이번에라. 경헌디.
 103027 #1 출 종류는 쉼플, 제완지 여기서는.
 103027 #2 제환지출.
 103027 @ 그 출, 출이렌 안 하고 쉼플이렌 헤?
 103027 #2 쉼플.
 103027 #1 그 출 안에 나눌 때.
 103027 @ 아.
 103027 #2 아니 쉼출 주라 쉼출 주라 헤영 쉼출 주레 가가민 이번이라 조칩 주
 지 말양 쉼플로 주라이 영허고, 조칩 주라이 영허고.

콩 농사

103029 @ 이제 콩 농사 물어보쿠다. 콩 농사에. 콩밭 거름도 준비힙니까?
 103029 #2 콩밭 거름 안 허여. 콩 갈아나민 밭만 건다고 해서 보리만 갈아. 콩
 쉼 떨어진 것이 걸름이라고.
 103029 @ 으.
 103029 #1 콩섭보다도 콩뿌리에 그 대가 생기니까 그 거름대.
 103029 #2 줍설만씩 헌 거.

103029 @ 그럼 콩농서 지을려면 뭐 준비해야 됩니까?
103029 #2 막 건 쉬워.
103029 #1 건 아무 것도 아니.
103029 @ 아무 것도 아니?
103030 #1 것도 조 모양으로 콩씨 뿌려 갈기만 허민 돼.
103030 #2 건 조 불리거나 헐다. 이건.
103030 #1 그 콩은 불리지도 안 허여.
103032 #2 아무스령 안 헐 디가 그자 밧 아니 간 때 콩씨 자루에 담양 메여듬서 작작 뿌려 놓고.
103030 #1 경 밧 갈아불민 돼여.
103030 #2 밧 갈아서 여자 이제 또 풀 치지 풀 쳐.
103030 @ 예, 검질.
103030 #1 옛날엔 풀이 만허니까.
103030 #2 아니 검질 메질 안 허고 갈아난 밧디 풀 털어.
103030 @ 아, 풀 붕가부는 거.
103030 #2 어 털어, 털어. 그 놈이 치는 거라고 아이고 콩 갈레 가민 풀 치레 가살 걸. 경허고. 그 밧에 풀에 많지 안 헐 밧은 아니 부치는디 콩 갈레 간 밧은 막 진물 가슬이라고.
103030 #1 가슬왓, 가슬왓 허주게.
103030 #2 가슬왓디라고 풀이 막 허주게.
103030 #1 겨울 농사 안 지어난 디.
103030 #2 풀이 한 디 강 콩씨 빼영 남전 밧만 갈민 풀 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닐어. 쟁 풀 청 나두민 메칠 돼민, 흔 삼사일 돼민 콩은 나주게.
103030 @ 으.
103033 #2 나민 그 놈을 잘 허는 사름은 두 번 메도 흔 번 주로 메여. 콩 밧 검질이라고 조팏 초불 메두고 두불 메는 그 중간 간격에 검질 흔 번 메영 내불민 가을 들민 비어 오는 거주게.
103033 #1 것도 돌림 검질이라고 해서 콩밧 검질 메는 건 그자 메주.
103034 @ 콩밧디 나는 검질덜을 뭐 잇수과?
103034 #2 그게 그거라 주로 제환지.
103034 #1 아이 주로 조팏이나.
103034 #2 제환지.
103034 @ 췌비눔 같은 건 여기 안 나낫수과?
103034 #1 췌비눔은 아주 건 밧데나. 아주 좋은 밧디.
103034 #2 그때는 막 좋은 밧디만 췌비눔 나는데. 지금은 좋은 밧 곳인 밧 헐 거 엇이 췌비눔이 나. 그때 시절엔 막 좋은 밧.
103034 #1 췌비눔 난 밧은 좋은 밧이야.

103034 @ 저희 한동은 당근 밭인데 췌비늬이 많이 났었던 기억이 잇수다.

103034 #1 게메 이디도 막.

103034 #2 여기도 이제는 농서 짓는데 걸음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게 나는데, 아메도 그게 안 존 밧디는 안 나.

103035 @ 콩 수확은 어떻헤마씨?

103035 #2 게민 콩 그거 그놈은 이젠 내부는 거라 다른 거 저르지만,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내불민 콩섭이 하나토 엇이 털어지고 콩 여물만 따그락허게 이시민, 옛날에 콩 비도 안 허여 꺼끈다고 해서 꺼끔은 호미로 가정 영 딱 대민 부러지주게. 나무가 킬랑 부러지고. 또 어떤 땐 손으로도 영 꺼끄곡 행 콩 비여사켄 안 허여, 콩 꺼꺼사켄. 콩 꺼꺼사켜 꺼꺼사켜. 경 꺼경 콩은 막 팔고 잘 헤지는 사름은 그날도 무끄고 못 무끄는 사름은 뒷날도 무꺼근에 허당 보민 시꺼오라 가민 막 빠직빠직 발발발 털어지곡 시꺼당 못 허민 놀고 데멧다가 날 좋으면.

103035 #1 것도 도께로.

103035 #2 풀영 영 콩을 세우지 팔렌. 영 뇌난 처레로. 콩 두드림은 쉬워. 두드리민 콩찍은 쳐베덩 그자 알맹인.

103035 @ 그 마당에 막 넣어 낵 그디서 두드리는 거?

103035 #1 으.

103035 @ 알게 넣어 낵.

103035 #2 으.

103035 @ 두드려지민 걷어 불고.

103035 #1 게난에 옛날 농서 짓는 집은 전부 마당으로. 게서 검질을 낵지 안허민 땅이 솟아버리니까.

103035 #2 도리께질 헐 둘레만 내베덩 주위에 돌아가명 다 세우지.

103035 @ 세워 낵 두드려덩 그거 가져베덩 다시 낵 두드려.

103035 #1 아니, 아니. 흔 사름이 콩 놓는 사름이 잇주게. 두드리민 여물 까지민 또 앓아 놓고. 게민 이디가 이만이 높아 가민 도리께질 설러덩 이제 째을 탈탈탈 털어덩.

103035 @ 아, 얹게 낵 도리께질 헤영 치워덩 다시 놓는 게 아니고 그 우이 그 낵.

103035 #2 으 낵다낵다 허당 너무 높아가민 이 도리께질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가민 이제 그 콩찍을 청. 옛날 땄감이 그거랏어 콩찍.

103037 @ 콩찍예. 불 솟을 때, 물 데피고.

103037 #2 ㄱ슬자리 구워 먹고.

103037 @ 맞수다. ㄱ슬자리 구워 먹고 거기에.

103037 #2 으 땄감이 그거라서.

103030 @ 아니 그럼 콩은 언제 씨를 뿌령 언제 거두어 들입니까?

103030 #2 건 조나 마찬가지지.

103030 @ 시기적으로는 같은 시기?
 103030 #2 으. 소서는 전이, 하지 넘고.
 103030 #1 소서는 여기선 유월절, 유월절 허는 디 그 전에.
 103030 #2 소서는 전이, 하진 넘곡. 허민 그 콩 시기는 가을인디 못 허는 사름은 막 오래 내베 뒤덩 꺼끄기도 허고. 헤지는 사름은 시기에 딱, 곧 익으면 꺼끄곡.
 103030 @ 막 익으면 막 콩 바래영 떨어져 불지 안 허여.
 103030 #1 게 켜텐 허는디.
 103038 #2 케는 것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103038 #1 무슨 일이 생기여만 켜텐 헤여.
 103038 @ 아.
 103038 #2 이런 머리 큰 사름이 죽을 때가 워나.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에.
 103038 #1 콩 켜주.
 103038 #2 혼날혼시에 기자 오독톡 헤불어서. 비어 논 거고 안 빈 거고 그자 혼 시간에 그자.
 103038 @ 정말 경 헤낫수과?
 103038 #2 어. 죽는 시간에.
 103038 @ 억!
 103038 #2 그러니 나라에.
 103038 #1 게난 옛날 어른덜토 거 생각허면서 현 말이주.
 103038 #2 저 전장이 난이거든. 아이구, 난 일젠 허민 무시거라 콩 케염저. 경허연 콩을이 혼 시간에 우독톡 다 안 익혀도 콩 켜 때가 셔. 경허민 아이고 날 일젠 험시고라 콩 케염저.
 103036 @ 게민, 콩으로는 뭐 행 먹엇수과?
 103036 #2 그거 그거주게. 옛날엔 콩나물도 사먹지 안 허영 콩나물도 놓아도 옛날엔 잘 워던데 이젠 콩나물 놔도 안 워서. 콩나물 옛날엔 영 현 낭푼에나 무신 장테에 콩 낱 나두민 풀대로 막 불면은 우리 떡 치는 시루에 저 뭐 망사 닳은 거 아무거라도 요 깔아근에 그 콩을 슬째기 비왕 막 차갑지만 안 허게 요 행주나 톱 더 켜 놔두민 그 높이 나서 시루 안에서 과아짜 올라오민.
 103036 #1 매일 물 줘.
 103036 #2 물을. 경허난 시리에 험주. 물을 주민 그 시리 고망으로 다 내리고.
 103036 @ 음.
 103036 #2 경험 헤신디 이제는 원 이디서 콩나물을 놔도 안 워고, 기자 콩은 무시거 메주허고.
 103036 @메주허고?
 103036 #2 죽 끌려 먹고, 콩고루로.
 103036 @ 두부허고예

103036 #2 두부허고.
103036 @ 콩집은 불 때고예.
103036 #2 으.
103036 @ 콩농서 지으멍 뭐 재미난 일 잇어난 거 잇수과?
103036 #2 무시거 허멍?
103038 @ 콩농사 지으멍 재미난 일 잇어난 거?
103038 #1 농서 지으멍 재미질 수가 엇어서.
103038 #2 일이 힘들어 가지고.

밭벼 농사

103039 @ 아 예. 산디, 산디는 뭐 준비해야 험니까?
103039 #2 산디도 좋아.
103039 #1 조 불리는 식으로.
103039 #2 산디도 불러.
103039 @ 불러예.
103039 #2 산디도 조팍만이 딱딱하게만 안 불리지.
103039 @ 예.
103020 #2 조팍은 딱딱하게 불리고. 조팍은 어떤 영감 하르방덜은 목멩이 아정
장 영.
103020 #1 지뽕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안 들어가게끔 여기. 여기 화산토니까.
103020 #2 걸 안 들어가면 똥 거고 걸 들어가면 안 불려졌젠 허는디 산디는 경
안해도 똥.
103020 @ 좁쌀 가벼웁 바람에 불려 가불카부덴?
103020 #1 아니 아니. 조 나무가 크니까.
103020 @ 으.
103020 #1 바람 불민 쓰러져불카부덴.
103020 #2 드러 눈덴. 조코고리 버청.
103020 @ 아, 조코고리 버청 쓰러져불카부덴.
103020 #1 이디 화산토이기 땀시.
103020 @ 예, 예.
103040 #2 산디, 산디는 그보단 쉽게 불러.
103040 @ 산디는 언제 갈양 언제 수확하는 거?
103040 #1 조팍 곳에.
103040 @ 조팍 곳?
103040 #1 조팍 불린 때.
103040 #2 산디 불리는 거?
103040 @ 아니, 아니. 가는 거, 가는 거.

103040 #2 산디 이제 훑쓸 시민 불리주게.
103040 #1 가슬왓디는 하지 전이 허고.
103040 #2 아니, 산디 늦은 산디라사.
103040 #1 게메게.
103040 #2 겨난 망중 전에 저 산디는 불려. 산디는 제일 일찍 곡식 중에 일찍 불려.
103040 #1 겐디 요즘은 저, 그 고향더레나 성산읍쪽으로는 벼, 벼씨를 허주게.
103040 @ 한동은 안 허고예, 종달쪽에는 벼 헤낫수다.
103040 #1 게메.
103040 #2 농서 중에는 산디를 제일 일찍 헤.
103040 #1 겐디 산디라는 건 옛날 밭벼라고 해서 옛날.
103040 @ 밭벼예.
103040 #1 옛날 거주게.
103041 @ 산디 거름 험니까?
103041 #2 아니.
103041 @ 안 헤여.
103041 #1 비료 난 다음엔 비료 헛주.
103042 @ 산디씨는 어떻 뿌려?
103042 #1 조씨 뿌리 듯.
103042 @ 마찬가지로.
103042 #1 으.
103042 @ 콩씨나 조씨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103042 #2 어.
103043 @ 게민 산디는 검질 몇 번 맵니까?
103043 #2 산디는 세 번 메여. 너무 일찍 갈아부난.
103043 @ 에구게.
103043 #2 너무 인척 갈아부난.
103043 #1 스끄지만 안 허주.
103043 @ 아. 조는?
103043 #2 스끄고.
103043 @ 스끄는 거라예.
103043 #2 산디 검질은 세불 메여.
103043 @ 세불 메여. 산디 밭디 나는 검질도 마찬가지로?
103043 #1 으, 마찬가지로.
103045 @ 그럼, 산디 어떻 거둬 들일 것과?
103045 #2 산디, 산디도 수명이 땅에서 골려서 수확허는 시기가 진 거라. 쥬 인척 산디 농서는 헤신디 밭 때는 ㄴ트게 비여.

103045 @ ㄱ트게 비여.
103045 #2 응.
103045 #1 거뒤다근에 보리 홀트듯 홀타.
103045 #2 것도 홀타.
103045 @ 비여 오는 거나 무끄는 거나 다 보리식으로?
103045 #1 으, 보리식으로.
103045 @ 묶을 때 산디쪽으로?
103045 #1 으, 산디쪽으로.
103045 @ 산디쪽으로예. 홀탕 도리께질 행.
103045 #2 홀트당 그거는 보리거치 까스락이 많지 않으니까 두드리기 쉬워, 도리께질 허기가 홀타만 놓으면 경 꺼럭지도 안 허고. 보리는 지금 말만 골아가도 지긋지긋해.
103015 @ 막 간지러워?
103015 #2 옛날에 그것에 너무 얼 먹어나난.
103015 @ 까실까실 헤가지고 막 몸 간지럽지예.
103015 #1 아이고.
103015 #2 것도 제 시기에 헤지면은 두루 얼 먹는데 제 시기에 못 현 사름은 놔 뒷당 허민.
103046 @ 경헌 산디로는 뭐 헤 먹을 거?
103046 #2 무시거.
103046 @ 산디로는 뭐 헤 먹엇수과?
103046 #1 곤밥.
103046 #2 죽광 밥광 떡.
103047 @ 음, 죽광 밥광 떡예. 직으로는 뭐 헛수과?
103047 #2 직으로는 옛날 좋은 산된게 맥도 접고게
103047 #1 멍석도 접고.
103047 #2 멍석도 접고.
103047 #1 방식도 접곡 다.
103047 @ 산디직으로 접는 거?
103047 #2 응.
103047 #1 여긴 나룩찍이, 벼찍이 없으니까게.
103047 @ 아니 그 새로 안 하고, 집 짓을 때 새?
103047 #2 집 짓을 땐 새로 허고.
103047 @ 새로 허고.
103047 #2 멍텅이 헐 때.
103047 #1 아, 여기 멍텅이.
103047 @ 응, 멍텅이.

103047 #1 새 익기 전에 퍼렁힐 때 헤다가.

103047 #2 건 사칠오.

103047 #1 사칠오라고 허지 경 그건.

고구마 농사

103049 @ 아. 감저 농서 짓젠 허민 뒤 해야 험니까?

103049 #2 모종, 모종 그것만. 지금 낡주게.

103050 @ 아, 지금 모종 놀 시기?

103050 #2 노양 낡주.

103050 @ 아, 낡 시기에. 모종, 모종 미리 준비헿.

103050 #2 그 꼴을 막 정성 들영 키워야주게. 키우노렌 허민.

103050 #1 밧 초불 갈고.

103050 #2 밧 초불 갈아근에 헿 십 오일 잇다근에. 감저 놀 시기 한 십 오일 전 이 초불 갈앗당 감저 놀 시기가 옛날은 소설이 다 끝나사 낡어.

103050 @ 음.

103050 #2 요즘은 하지에 놓는다.

103050 #1 건데 소설 넘으면은.

103050 #2 죽어 불어.

103050 #1 이 더위가 심허니까 죽넨헤근에 소설날 오전 오후가 죽는덴 헤서. 여 기서 유월절, 유월절 허메.

103050 #2 그 꼴 그창 시꺼갈 수 엿인 사름은

103050 #1 등짐으로 지어 강.

103050 #2 다 배로 지어당.

103050 @ 어 요즘은 얼마나 키웁니까? 언제 싱경 언제?

103050 #2 키우는 시기가 게메.

103050 #1 지금부터게.

103050 @ 지금부터 소서까지?

103050 #1 으.

103050 #2 게민 그 밧이 뜰린가 이만이 건 사름도 잇고 요만이 헿 사름도 잇고.

103050 @ 하하

103050 #2 꼴이 구구각색이라.

103050 #1 옛날 웨감저엔 헿 건 요만이베끼 안 헿고 흰감저엔 헿 건 이만이 헿 것도 잇고.

103050 @ 아.

103050 #2 게난 그거 끈어다가 그 때 그자 심으민 웨는 거난. 밧 두불 갈앙.

103050 @ 밧 두불 갈앙예.

103050 #1 두불 갈 디, 초불 갈앙 이 뚝북이엔 헿 거 요즘 말썽 피우는 거. 저

거 말렸당, 저 서촌더레 가민 요 높은 데가 고랑이엔 허는디 여긴 야픈 디가 고랑
이엔 허주.

103050 @ 아, 야픈 데가 고랑? 그럼 야픈 데는?

103050 #1, 2 판이.

103050 @ 판이?

103050 #1, 2 으.

103050 #2 고지도 여기 사름은 고지엔 안 헤여.

103050 #1 여기 사름은 고지엔 안 헤여.

103050 @ 그럼.

103050 #2 저 서쪽 사름이나 동쪽 사름은 고지엔 허는디.

103050 @ 음 여긴 뤼렌 곶아?

103050 #2 판이.

103050 #1 고랑허고 판이.

103050 @ 판이.

103050 #2 뜰러 말 곧는 거.

103051 @ 말 곧는 거 뜰러마씨. 기민 거름은 아까.

103051 #1 저 뭇망.

103051 @ 뭇망 헤 놔가지고예.

103051 #1 보리찍 이신 사름은 보리찍도 허고.

103051 @ 게민, 초불 갈양 거름을 하는 거?

103051 #2 으.

103051 #1 이 고랑에 쪽 놔.

103051 @ 예.

103051 #1 겐 두불 갈민 거 물어지는 거.

103051 #2 고랑이 또 판이 뤼는 거주게.

103051 @ 아.

103051 #1 고랑이 판이 뤼 거난.

103051 #2 소 많이 질황 한 사름은 통시에 퍼 놓다도 남양 또.

103051 #1 쉼 걸름이나 보리찍이나 듬북이나.

103051 @ 음.

103051 #2 보리찍은 주로 안 농곡 감저 죽어분덴 허멍.

103051 @ 산디찍 놓고?

103051 #1 산디찍이 아니고 뭇망.

103051 #2 쉼걸름, 쉼걸름.

103052 @ 갖다 놓고예. 게민 심을 때 감저 심을 때는?

103052 #2 그거 요만씩 잘랑게 잘랑 그자 놔 갈 거주.

103050 @ 두불 가는 거는 그거 싱그는 날 가는 거?

103050 #1 2 으.

103050 #2 싱그는 날. 가는 날 싱거불지 안 허민 아차 허당 비나 와 불민 굳어져 불어.

103052 @ 굳어져 불어예. 가는 날으로 폭폭 손으로 집어 넣는다?

103052 #2 으. 세상 엇어도.

103052 #1 양손으로 그것도.

103050 #2 그것도 속 상헌 일이라. 자기 소가 엇인 사름은 놓 빌엇다근에 밧 가는 사름이영 소영 빌엇당 그날 허당 밧은 조금 남았는데 비가 오랑 못 허민 갈앙 내불민 뒷날은 놓젠 허민 딱 절여베.

103050 @ 못 헤여예.

103050 #2 이녁대로 헤 지는 사름은 딱 마추앙 설렀다가 따시 허는다.

103053 @ 엇이민예. 감저 밧디도 검질 맵니까?

103053 #2 메주게.

103053 @ 몇 번이나?

103053 #2 흔 번.

103053 @ 흔 번. 감저 싱근 거 속으거나는 안 하잖아예.

103053 #2 안 허여.

103053 @ 막 줄 뺨으렌 허는 거난.

103053 #2 으게. 줄 그레 찢러부난.

103054 @ 찢러 부난예. 감저 밧디 검질 특별헌 거 잇수과?

103054 #2 엇어, 특별헌 거 엇이 그자 제한지 같은 거.

103053 #1 옛날에는 건데 요 근래에 와서는 수돗 둔다고 해서 그 고랑을 갈았어.

103053 @ 음.

103053 #1 갈아불민 검질 맴이 쉽주.

103053 #2 게난 감저왔디 제한지 아니민 해바라기, 독쿨 거 주로 그거.

103055 @ 음. 게민 수확 할 때 줄을 먼저 걷어?

103055 #2 음.

103055 #1 줄 걷어야지, 줄도 안 걷엉.

103055 @ 수확하는 거 곶아 줍서. 수확 어떻게.

103055 #2 줄 걷주게, 줄 걷엉 파는 거주게.

103055 @ 걷어덩 그날 흙치 파.

103055 #2 으.

103055 #1 그날이든 뒷날이든.

103055 #2 뒷날이든 건 상관 엇이.

103055 @ 파는 건 골갱이로 그냥 앓앙?

103055 #1 으.

103056 @ 계민 감저 보관은 어떻게 거과?

103056 #2 그땐 그리난 집이, 지금은 돌로 집 짓어도이 그땐 이 땅소곶에 빈네 앓는 디 사름이 살아야 돼여. 이 우жат 울타리에 감저가 얼마 죽은 창고만이 구덩일 파야 돼여. 겨울내내 먹영 살젠 허민. 구덩일 파근에 등그렁허게 팡, 나 들어서면 이디가 무쭈무쭈허게 팡 그 조칩이 그렇게 아까와도 조칩으로 딱 땅에 돌아가멍 짹 짹 세왕 구들거치 만들양 밑에 깔고. 경혜영 그레 막 실러다 놓주게. 텔 수 시민 걱 죽 안 벗어지게 조심허게 해도 막 벗어져. 쟁 막 실어다 놔근에 땅에 우터레도 조 칩해근에 이만이 해게 죽은 놀거치 이만이 해영 느람쥐 알아, 느람쥐.

103056 #1 흑을 올려.

103056 @ 느람쥐?

103056 #2 흑 올리멍.

103056 #1 흑 올려냥 그 우터 느람쥐 더꺼.

103056 #2 쟁 겨울내냥 그거 먹고 또.

103056 #1 씨허고.

103056 #2 빼떼기 혜연에 이제 막 그거 배로 가멍 풀다가 쪼끔 시대가 지나난 공장이 생겨 노니까

103056 전분 공장 생기기 전에는 그 웨정 시대에, 웨정시대는 감저 빼떼기를 해서 나갓어. 어디 웬, 나 두려부난 육지사 감신지 일본사 감신지. 그때 일본농광 그 땐 우리가 일본농광 쟁쟁헐 때난 경헐 우리 남원리 이집 높이 두 개만씩에 두 놉헐 다네 혜방 땐난 그 사름덜 탈탈 털어덩 도망가부난데 것도 다 썩으멍 헛주만은 그 거 지나니까 전분 공장이 생기더라고. 전분 공장에 그자 풀고.

103056 @ 음. 저 감저늘 들어가지고 파 먹으민 감저 썩어불지 안해?

103056 #1 아니 우이로 파멍 먹는 거주.

103056 @ 위로 파멍 먹는 거.

103056 #1 여긴 감저 구덩이엔 해여. 감저 구덩이.

103056 #2 우를 요만헌 우로.

103056 @ 구멍 넣어.

103056 #2 영헐, 이추룩헐 내허주게 내허민.

103056 #1 그거 숨통.

103056 #2 주지가 잇주게. 주지.

103056 @ 예.

103056 #2 주지 툇 더꺼다근에 이제 그 거시기 감저 거튼 거 도수를 맞출라면 감저 파젠 허민 주지를 열민 더운 김이 속으로 푹 나는 것이 잇어. 그렇게 허당은 듯양 썩어불고이.

103056 @ 음.

103056 #2 또 흑을 덜 올리거나 어떻게 허민 도술 못 맞추민 또 썩어불고이 그 추룩 허난 그디.

103056 @ 돛수를 못 맞추면?

103056 #2 그디 구텡이에 감저 놈근에 지금추록 꼬짜 잇나 허는 것은 막 기술 이다 싶은 도수라.

103056 @ 아.

103056 #2 혼 반 저슬만 나민 아이구 우린 감저 돛안 문 썩어불엇저. 아이고 우 린 얼어신고라 문 썩엄저. 경허민 봄 나도록 먹어, 양석혈 거 먹어져 썩어불엿.

103056 @ 아.

103056 #2 못 먹어.

기타 농사

103060 @ 저기 수박 농서 지어났수과?

103060 #2 아니.

103060 #1 이디 그런 농서들은 안 짓어.

103061 @ 참웨?

103061 #1 참웨도 아니.

103062 @ 고추?

103062 #1 고추는 자기 먹을 거주.

103062 @ 자기 먹을 거예. 고추. 고추 농산 어떻 짓는 거? 씨 뿌립니까, 묘종을 심금니까?

103062 #1 그 전인 씨 뿌렸는데 이제는 모종으로 사당 헤여.

103062 #2 사당도 허고 모종 낱도 허고.

103062 @ 모종 낱?

103062 #2 으. 저추록 푸는 거기친 안 헤도 바라로 낱 놔두민 심을만치 웨여.

103062 @ 으, 집에서 먹을 건예.

103062 #2 으.

103063 @ 배추는?

103063 #1 배추는 나 인척이 말헛주만은 배추는 여기서 개량 배추 나온 지가 얼마 안 웨여.

103063 @ 음.

103063 #1 개량 배추는 육십년도 초반에 나오기 시작헛어. 결구 배추는. 그 전 에는 여기도 좀 사는 사름덜은 함덕 배추 왔수다,

103063 #1 무수도 요 근방엔 안 웨가지고 남원읍에서는 주로 수망리나 신예리 가서 사다 먹엇지.

103063 #2 지금은 잘만 웨는디.

103063 @ 지금은 잘만 웨는디예.

103063 #1 거 이 돛걸름 밧이엔 헤근에 보리 갈아똥 소나 말에다가 멩텡이 시 쟁 강 여기서 상 시경.

103065 @ 지슬 같은 거, 지슬 농사는?
 103065 #2 거 이녁 먹을 거나베끼.
 103065 #1 여기는 이제도 장사로 허는 사름 엇어. 이녁 먹을 거만.
 103065 @ 이녁 먹을 거, 지슬 농젠 허민 어떻게.
 103065 #2 지슬 놓는 건 수월헤여.
 103065 #1 옛날에는 여기 가을 농서는 안 헛는데, 봄 나면은 쪼개가지고 눈 보
 명 갱 심어가지고.
 103065 @ 지슬 눈 나는 거 보명?
 103065 #1 어.
 103065 #2 봄에는 눈을 흐나씩만 허게 뽀개도 좋는데 이제 여름 지슬 헐 땀 뽀
 개면 썩어불영 잘잘헌 거 통차 놔야돼.
 103065 @ 아.
 103065 #2 땅이 더우니까.
 103065 @ 더우니까예.
 103065 #2 으.
 103066 @ 저기 피 농사 헛수과?
 103066 #1 아니 여기 안 헤.
 103067 @ 모물, 모물 농서 헛잖아예. 므물 농서는 어떻 지읍니까?
 103067 #1 여기는 므물 농사 양력으로 팔월 십오일 기준, 전후 사일.
 103067 #2 그렇게 해서 가을이 돼니까 음식 만들기도 곧 노민 익어불어.
 103067 @ 아, 곧 돼불어.
 103067 #1 밧을 흙을 쳐 고틡을 내면은 불씨 므물 씨 서텡다근에 여저덜이 특
 툫 접아놔.
 103067 @ 아.
 103067 #1 수제비 접아 놓듯이.
 103067 #2 이제는 다 씨 뿌런 험서.
 103067 @ 아, 불치씨 이거는.
 103067 #1 불치에 서터가지고.
 103067 @ 예.
 103067 #2 므물씨 씨 서꺼살 거, 므물씨 씨 서꺼살 거.
 103067 #1 겐디 이제는 비료가 나오기 시작허니까.
 103067 @ 예.
 103067 #1 거름을 안 해도 돼니까 뿌려가지고 해도 웬다 이거지.
 103067 @ 음.
 103067 #1 옛날에야 다 불치로 헛지.
 103067 @ 그러면 모물 갈 때 밧 갈앙.
 103067 #1 이렇게 흙을 쳐.

103067 @ 흠을 쳐.
103067 #2 밧 두 번 갈앙 세 번차 줄줄허게 흠을 쳐야 웨여.
103067 @ 음.
103067 #1 초불 갈고 두불 갈고.
103067 #2 세 번째
103067 #1 세 번째는 흠만 쳐. 게민 더우면은 초불 갈 때는, 초불, 두불 갈 때는
달밤에.
103067 @ 달밤에.
103067 #2 낮에 더우니까게. 소가 세 내운덴 허주, 소가 세만 헬레레 허멍.
103067 @ 아 더웁. 하하.
103067 #2 막 더웁 쉼 거슬로 니치름만 찰찰허멍 소가 경.
103067 #1 그렇지 았으면 아침 새벽이 허고 저녁 때만 밧 갈아.
103068 @ 더워부난. 저기 담배도 해 낫수과?
103068 #1 아니 우리 담배 안 허여.
103067 @ 게민 므물 아까 갈앗잖아예. 므물 들일 때는 어떻게?
103067 #2 므물은 갈면은 그거 싹끄지도, 좇으나 드무난 안 허는 거난 내베당.
103067 @ 검질 메여?
103067 #2 검질도 안 메고.
103067 #1 검질 안 메여.
103067 #2 멜 시기가 엇어서. 팔월 십오일에 갈민 무시거 그거 잠깐 시간에 열
앙 거 익으면은.
103067 #1 시월 초순 웨민 거뒤.
103067 #2 시월 초순 웨면은 막 쉼 브름 불면은 잘 안 허민 털어져 부는 수도
싹고.
103067 @ 예.
103067 #2 하영 브름 불민 털어져. 므물이 부쁜 것도 약해 놔서. 그 므물 방울
에 부쁜 것이 실밥거치 덩글덩글 해노난 므물도 비어다근에, 므물은 밧디서 주로
허는 사름도 싹고 그렇지 았으면 아저당 영 도리계질헐 도리만 내베당, 이것이 마
당이라면 이렇게 꼬짜 세와.
103067 #1 룡 허는 거나 마찬가지로.
103067 #2 세와서 그냥 도리계를.
103067 #1 두드려 가민 혼 사름 접아 논덴 헤근에.
103067 #2 집어 노멍 그걸 두드려 털영 그.
103067 @ 장만은?
103067 #2 게 그거 도리계로 두드리민 장만이 웨는 거주게.
103067 #1 그건 방엿간에 안 가, 이 저 들방에엔 안 가.
103067 @ 아 그럼 여기서 정ㄱ레에서 ㄱ는 거?

103067 #2 어.
 103067 #1 으. 정마레에서 거퍼. 거핀덴 허는 건 쓸 내는 거.
 103067 @ 쓸 내는 거예.
 103067 #1 또 마레로 글고프민 것도.
 103067 #2 막 거평 쓸내우고. 막 먹을 사름은 급허면 므물만 물려 므물로 겁덕차 그대로 글아이.
 103067 #1 보차 근덴허여.
 103067 #@ 겁덕차 글면은 마루가 그 므물마루가 겁덕 부서진 것이 가물가물헌 것이 섞어져도 보챗 므물가루.
 103067 @ 경헨도 먹읍니까?
 103067 #2 먹주게. 범벅, 주로 그런 건 범벅헤영.
 103067 #1 엇영 못 먹어. 아니 요즘 사름도 그거 행 주민 잘 먹어.
 103067 #2 감저 놓고 범벅 헤영. 옛날엔 그 감저는 많이 놓고 그 마루 호출만 놔근에 감저에 문대여 노민 거 오죽 맛좋아.
 103067 @ 아, 겁덕차 헤가지고.
 103067 #2 보챗므물마루. 거퍼서 헐.
 103067 @ 보 뭐?
 103067 #2 보챗, 보차.
 103067 #1 껍질이엔 헌 말이주게.
 103067 @ 아, 보챗므물마루.
 103067 #2 거평헌 거는 거핀 마루는 진마루이.
 103067 @ 음.
 103067 #2 거평 쓸로 근 거는 진마루. 므물로만 근 건 보챗마루.
 103067 @ 보챗마루.
 103067 #2 응.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소 길러낫수과?
 104001 #1 길러낫주.
 104002 @ 쉼 질러난 거 그거 여쭙 볼게마씨. 쉼 종류에 따라 이름이 다르과?
 104002 #1 암쉼.
 104002 @ 으, 암쉼.
 104002 #1 송애기.
 104002 @ 송애기.
 104002 #1 부랭이.
 104002 @ 부랭이.

104002 #1 부랭인 줌 송애기. 밧 가는 건 밧갈쇄.
104002 @ 밧 가는 건 밧갈쇄예. 혹시 색깔에 따라 이름은 어떻게마씨? 털 색깔에 따라.
104002 #1 여기서 그다지 그런 건.
104002 #2 검은쇄.
104002 @ 으, 검은쇄. 또?
104002 #2 붉으면 황.
104002 #1 노린쇄, 검은쇄 경헛쥐.
104002 #2 게고, 또 얼룩진 건 얼룩쇄.
104002 @ 으, 노린쇄, 검은쇄, 얼룩쇄.
104002 #1 건디 보통 목장에 강 쇠 좃으레 갈 때나 우리 얼룩쇄 봐저냐, 우리쇄 봐저냐 허주 그렇게 저 뵤 쇠, 식쇄 허진 안 허여.
104002 @ 음. 청축매, 노랑뵤 허는 것처럼.
104002 #1 그건 뵤.
104002 @ 뵤 혈 때 그거였고예. 뵤 혈 때 물어 불거고.
104002 #1 뵤 우리 안 질뵤부난 잘 몰라.
104002 @ 뵤 모양에 따라 또 불르는 건 엇어수과? 뵤 모양에 따라 일름이 달라 낫수과?
104002 #1 아니, 아니.
104001 @ 그런 건 아니고예. 쇠는 어떻게 질뵤마씨?
104001 #1 여기서는 겨울에는 집에 데려와서 허고 여름에는 목장에 방목허고.
104001 @ 목장에 방목허고.
104001 #1 어. 가을철 뵤민 좃 현뵤 헤근에, 좃 현뵤 헤근에 자기 좃왓이 있으면 자기 밧디 가고 없으면 남의 밧디 좃을 사 가지고는 비주게. 이 저 동촌 가민 낫이엔 현 것이 많은데 이뵤 낫은 막 내중에야 들어왔는데 긴 거 헤가지고 허는 거 걸로 허고 또 줌호미라고 이 앞아서 비는 줌호미라고 헤서.
104001 @ 음, 앞아서 비는 건 줌호미예.
104001 #1 으. 게서 그건 무꺼다가 집이 왕 놀영 뵤 뵤당 경 소 들어노면은 집이 메면은 그거 흐나씩 뵤으면서 주고. 옛날에 사료거튼 거 여기는 없었어.
104001 #2 지금 딱 지금 산에 올라갈 때 겨울에 뵤다가.
104001 @ 겨울에 뵤다가.
104001 #2 으.
104001 @ 아 지금쫘 산에 올라 갈 때예.
104001 #2 으.
104001 @ 지금예. 그럼 데령 오는 건 언제쫘 데령 옵니까?
104001 #1 ㄱ슬 들영.
104001 @ 으, ㄱ슬 들영. 농서 다 끝난 다음예.

104003 #1 아, 저 선덜 들엉 해변에서 자란 놈덜은 ㄱ슬 들어 가면은 추워 가민 막 내려오젠 허주게 목장가에 와서. 경허든 농서 짓는 췌는 출 혈 때도 앓아당 출도 실렁 오고 여긴 시꺼온덴 허주게 시꺼온덴.

104003 @ 으, 경혈 때도 쓰는 거예. 소는 그림 이용하는 게 소를 이용하는 게 아까 밧 갈 때 쓰고.

104003 #1 구루마.

104003 @ 구루마.

104003 #1 또 밧 갈 때도 쓰고. 또 질메 헤가지고는 질메도 짐 시끄고.

104003 @ 질메행 짐 시끄고. 또 저기 밧 갈고, 구루마 끌고.

104003 #1 또 짐 시끄고.

104003 @ 짐 시끄고.

104003 #1 거 세 가지.

104004 @ 소 막 길들이는 방법이 뭐파?

104004 #1 아, 밧 갈젠 허면은 이 저 뭐 그 후제는 다이야가 나오난 다이야 허는디 나무, 설피 헤가지고는 무꺼 쟁 췌 멩에 메와근에 처음엔 게벼운 걸로 허단 내중엔 들을 노나 사람 올랑 꾀주게 멩에톡 내운데 헤근에.

104004 @ 멩에톡 내운데 헤가지고. 그렇게 메영 꾀으는.

104004 #1 아니 막 꾀영 텅기주게. 끄실퀴 헤영.

104004 @ 음.

104004 #1 경헤영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민 밧데 가서 혼 사름 이고 뒤에서 갈고 헤영 밧을 갈주.

104004 @ 아, 바로 밧갈췌가 되는 게 아니구나예.

104004 #1 아니주게.

104004 @ 크실퀴 헤영 연습헤영.

104004 #1 어. 짐도, 질메행 짐도 시끄민 뵤덴 헤근에, 버칭 허주게. 게민 그거 뚜드르멍 든든이 무껍 열른 풀어지지 안허게 시꺼가지고는 길을 들인 다음에야 제라헌 거 시끄주게.

104004 @ 아.

104004 #1 그게 사람 모양으로 힘들어도 ㄱ만이 허는 게 아니난게.

104004 @ 아 지가 힘들민 ㄱ만이 있지 안 허영?

104004 #1 어. 쟁허영 뵤덴 허주게.

104004 @ 예, 경행 떨어져도 걱정없을 걸 행 연습허는 거예?

104004 #1 어. 건데 질메 든든이 무끄민 잘 풀어지지 안 허여.

104005 @ 췌, 췌 나이?

104005 #1 여기선 옛날은 출만, 요즘 사료를 주니까 빨리 크는데 옛날에는 출만 주니까 빨리 못 크주게.

104005 @ 그니까.

104005 #1 게니까 세 살, 사름이렌 허주게.
104005 @ 한 살은 뉘렌 험니까?
104005 #1 금송.
104005 @ 금송, 그 다음 두 살은?
104005 #1 다간.
104005 @ 금송, 다간.
104005 #1 사름.
104005 @ 사름
104005 #1 그 다음은 나름, 다습 영 험 나가주.
104005 @ 나름.
104005 #1 다습험 그대로.
104005 @ 여습험니까?
104005 #1 으, 여습. 일곱부터 습을 안 써. 그냥 일곱, 여덟 험근에.
104005 @ 아, 여섯까지만 여습으로. 일곱부터는 그대로예.
104005 #1 게면은 잘 뉘면은 사름에 일을 시키꼭, 경 안허면은 나름 뉘야 일을 시키주.
104005 @ 음.
104005 #1 잘 못 먹언 크지 못 허니까게. 겐 잘 먹어야 크지.
104009 @ 음, 음. 쟁기 이름은 지난번에 물어 봤고예. 목장을 누가 관리허는 거과, 목장은?
104009 #1 건 접이니까.
104009 @ 예.
104009 #1 접으로 허난에 해방 뉘사 내중엔 목장 조합장이엔 험는디 옛날엔 초지라고 험주, 초지.
104009 @ 아, 그 목장 관리허는 사름이 초지?
104009 #1 으. 게서 내중엔 조합장, 조합장 험는디 그 전인 초지.
104006 @ 으. 초지이? 이거, 이게 쟁이우다만은 이름 한 번씩만 더 말해 줘서.
104006 #1 이거 성에.
104006 @ 어디, 어디가?
104006 #1 이거. 이게 몽쿨.
104006 @ 이 부분 자체가?
104006 #1 이까지 성에, 잠대 성에, 요건 몽쿨, 이건 설치, 이건 양젓머리, 이건 돌뱅이뿔.
104006 @ 이게 뉘, 설치?
104006 #1 어.
104006 @ 이게 성에?
104006 #1 어.

104006 @ 돌벥이뿔 맞고예. 이거 양짓머리렌 험니까?
104006 #1 으. 요건 뭉쿨.
104007 @ 뭉쿨. 이건 쟁기면 질마는 어떻 것과?
104007 #1 질마렌 현 거 멩에, 저저 여기 질메주게.
104007 @ 질메는 어떻 것과?
104007 #1 나무를 질메 가지라고 해서 요렇게 생긴 거를 뒤에 건 흐썰 낚고 앞에 건 죽은 걸 해서 나무를 헤다가 좇엇다가, 없으면은 이렇게 나무를 연결해서 만들어. 걸 질메가지라고 허주.
104007 @ 예 질메 가지예.
104007 #1 그래가지고는.
104007 #2 안 아프게.
104007 @ 뭐가 안 아프게.
104007 #1 나무 그대로 허민 아프니까게.
104007 @ 아, 예예.
104007 #1 도금이라 해서 보리쪽으로 만들든 산뒤쪽으로 만들든 허단 내중에는 마다리가 나오니까 마다리로 싸서 만들엇어. 그레 영 방식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양쪽에 무끄주게. 경해가지고는 소 우이 올려놓게.
104007 @ 아, 경헨 소 우이 올려놓게.
<중략>
104007 #1 옛날엔 구루마 엇고 허니까 주로 췌질메로 헛주게.
104007 @ 췌질메예?
104007 #1 영헨 췌질메, 췌질메. 몰도 몰질메. 몰에 허민 몰질메, 췌에 허민 췌질메.
104007 @ 예, 췌질메예?
104007 #1 꼭 거튼 거.
104008 @ 예. 멩에는 이 부분만을 멩에렌 험니까?
104008 #1 으, 이거게, 이거 멩에.
104008 @ 이거 멩에.
104008 #1 으. 이건 접괘.
104008 @ 아, 이거 접괘?
104008 #1 으. 이건 줄대.
104008 @ 줄대.
104008 #1 또 뒤에, 뒤에 이렇게, 요거 요건 오리목.
104008 @ 아, 이거 오리목.
104008 #1 아, 아니 이거게. 요기서부터 요렇게 돌아오게.
104008 @ 이거 자체가 오리목.
104008 #1 어.

104008 @ 오리목. 또 다른 거 명칭 이수과?
 104008 #1 엇주게.
 104008 @ 엇어. 요거 요거는 뭐렌 불르는 거?
 104008 #1 접괘.
 104008 @ 아, 이게 접괘예요. 아 이걸 떨어진 거고 이걸 붙어진 거군아.
 104008 #1 으. 그렇주게. 이걸 모가지에 이걸 해야만 이걸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질 거난.
 104008 @ 아.
 104008 #1 저, 저 그자 접는 거난 접괘주.
 104008 @ 접는 거난.
 104008 #1 이걸 윤누리나 아주 잘 안 부러지는 나무 해야돼.
 104008 @ 아.
 104008 #1 거 아무냥이나 헛당 부러져근에 못써.
 104008 @ 아, 그림 잘 휘여지는 냥.
 104008 #1 휘여져도 잘 안 부러지는 냥.
 104008 @ 잘 안 부러지는 냥예.
 104008 #1 으.
 104008 @ 예예.
 104008 #1 저 윤진 냥 게난.
 104008 @ 사용하는 건 윤진 냥을 쓰는 거라예.
 104008 #1 말라도 잘 안 부러지는 냥.
 104008 @ 윤진 냥을 써야.
 104008 #1 게난 옛날에는 이것도 드레, 드레. 드레나 뭐 뿌리 헤다가 못아. 겐 체 헤가지고는 저 베를 만들어서 헛는데, 또 이제 멍이엔 현 게 이서, 멍. 그거 멍 굴 헤다가도 또 세겍으로 들영도 허다가 나이론 나오니까 나이론으로도 헛주.

말 기르기

104011 @ 음. 저 물은 안 길러났덴 헛잖아예.
 104011 #1 어.
 104012 @ 물 터럭에 따라 아까?
 104012 #1 뭐 칭축매여 무시거영 허는 디 난 잘 몰라 그진.
 104013 @ 물은 어떻게 할 때 쓰는 것파? 뭐 혈 때?
 104013 #1 여기서 우리 어린 적에 뭐 혈 때는 쉼로만 बात을 갈았는데 요 근래, 혼 삼, 사십년부터는 물로 बात을 갈았어.
 104014 @ 물, 아까 쉼 나이헤신디 물 나이 세는 것도 잇수과?
 104014 #1 물도 어린 거는 금승.
 104014 @ 그다음. 똑같애?

104014 #1 금숭, 이수, 삼수로 나가.
104014 @ 불러 봅서. 금숭.
104014 #1 금숭 나민 이수, 삼수.
104014 @ 이수, 삼수, 그리고?
104014 #1 물은 저 열 설 나는 물인디 여덟설꺼진 팔수라고 허여.
104014 @ 그럼 아홉은?
104014 #1 아홉부턴 계산을 안 해볼어.
104014 @ 아, 여덟설까지만 세는구나. 그럼 아홉설부턴 늙은 거?
104014 #1 늙은 거로 허는데 물이 혼 스십년꺼지 산다고 허는데, 옛날에 잘 못 먹으니까게 오래 살지를 못했주게.

떡이

104016 @ 그럼, 므쉬, 물이랑 쉼랑 떡이는 어뎡 해수과?
104016 #1 출.
104016 @ 저 물도 출?
104016 #1 으.
104016 @ 출 외에 다른 거는?
104016 #1 아니, 없어. 아, 조칩.
104016 @ 조칩.
104016 #1 여긴 보리짚은 안 멕여 봤고, 조칩 산뒤짚 그거주.
104016 @ 콩찍은?
104016 #1 콩찍도 경 안 먹어.
104016 @ 안 먹어.
104017 #1 근래 오니까 그걸 부쉬가지고 끌려 먹이니까 먹는 것이지. 빠닥정 먹 질 못허여.
104017 @ 아. 그럼 출허젠 허민 어뎡 준비힙니까?
104017 #1 가을 들면은 산에 가서 비영, 말려 가지고 무꺼서 실러가지고 집이 와서 눌러 두는 거야.
104017 @ 아까 출왔 이신 사람들은 자기 출왔.
104017 #1 이신 사람덜은 허는 거고 옛이민 놈의 출왔디 강 사근에.
104017 @ 밧차로 출을 사는 것과?
104017 #1 어.
104018 @ 그거 해가지고 출 비민.
104018 #1 비영 들령.
104018 @ 한 며칠 정도 들립니까?
104018 #1 브름 조, 브름 종양 하늬브름이 잘 불민 오늘 비영 널 무끄주게.
104018 @ 아.

104018 #1 또 막 늦으면은 오전 비영 오후에도 무꿀 수도 있고.
104019 @ 으. 그럼 무껍 뒤에 실렁 와?
104019 #1 구루마나 아니민 쉼나 몰이나.
104019 @ 실렁 왕 여기에 쌓는 거라예.
104019 #1 게 늘영. 여기선 눈덴 허주게.
104019 @ 출 늘 늘영.
104019 #1 어.

멜감

104022 @ 이제는 멜감헤난 거 물어보쿠다. 멜감.
104022 #1 어, 지들커.
104022 @ 예, 지들커. 지들커 물어보쿠다예. 지들커 종류에는 뭐 있어수과?
104022 #1 아, 여기선 쉼나 몰이나 먹다가 남은 걸 뒤치엔 헤여, 뒤치 것도 갖다근에 때고. 옛날에는 여기 소나무가 있다, 거 가지치다가 걸리민, 순경안티 걸리민 큰일 나거든. 아이 큰일 나. 잘못 허민 심어 가고 벌금 물고 현 때문에, 도둑질로.
104022 @ 아, 소나무 같은 거 함부로 허민.
104022 #1 어. 계난 풀 비여당 늘었다가 걸 지들커 헨다던지. 켜 여기 산이 있어도 잔치나 대소상이나 뭐, 이제 우리집에 나이 많은 사름이 있으면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말이야. 그러면 돼지 잡아냥 고기 삶은 물, 떡거튼 거 헨 지들케 있어야 해. 그러면 산에 강 거 도둑질로 거 걸리면 큰일 나니까 켜 헤다가 깨근에 화목에엔 헨 늘영 놔두주게.
104022 @ 화목?
104022 #1 화목.
104022 @ 화목
104022 #1 어.
104022 @ 계민 아까 멜감 종류 뒤치도 잇고?
104022 #1 검질.
104023 @ 검질 잇고 그 다음 뭐 똥덜도 좇어 왔던 거?
104023 #1 에이.
104023 @ 굴목 짓젠 허민?
104023 #1 굴목 짓젠 헤도 이 헤변이난 힘들어서.
104023 @ 아.
104023 #1 계난 마당에 검질 길앗당 문지락 생기민 그걸로 주로 허고.
104023 @ 쉼똥 똥똥 안 좇어 왔수과?
104023 #1 아니 여기서 목장 가젠 허민 그게 어딘 디 강 켜 와야 똥건디.
104024 @ 솔입 걸으레도 안 가수과?

104024 #1 술입 게 술입 건당 걸리민 큰일나니까 도둑질로 걷는 거베끼.

104024 @ 낭 그치는 거 아니고 술입 걷는 것도 안 돼?

104024 #1 그렇주게.

104024 @ 아, 낭 가지 꺼끄는 거 말고 술입 걷는 것도?

104024 #1 거 낭 밧디 걸름 웬덴 해근에게. 겨고이 여기는 해변이니까 소낭 밧이 많지가 안 허여. 겨난 이 바닷가에 까끄레기 낭이여 그런 것도 허단 걸리민 큰일나니까 도둑질로 딱 순경 왓시냐 안 왓시냐 보고, 멘서기 왓시냐 안 왓시냐 보명 도둑질을 해다근에 우жат 오민 곱정 놀어 놔뒀다가 때고. 게난 첨 살기가 힘들엇주게. 지들커 허메, 아 여자덜 몰 저 오지 밧디 강 와근에 저 지들커 도둑질 허레 텡김이 얼마나 못전더게.

104024 @ 어무니 술입 걷어 낫지예.

104024 #1 걷어낫주게.

104024 #2 걸엇주게.

104024 @ 게난 어무니 술입 걷영 어떻 싸메고 헛는지 곱아줍서.

104024 #1 어떻헌 짐을 싸게.

104024 @ 그 술입 걷영 영 무끄젠 허민.

104024 #2 거 칙도 끈고 막 요령으로 헤사.

104024 @ 그니까 그니까 그냥 무쨍 안 텔 거잖아예.

104024 #2 어, 베도 막 많이 가정 가사.

104024 @ 예, 예. 뭘 막 많이 가정 가사?

104024 #2 베, 베. 베 많이 가정 강 베로 처음 두 개 요렇게 놓고 그 다음은 요디 설피를 헤서 요만치, 요만치 술입 안 떨어질 만이 요만치 놔가지고.

104024 @ 그 설피는 무슨 낭으로?

104024 #1 소낭게.

104024 #2 그 소나무 가지 거 그차서. 겐 혼자 가민 이런 짐을 못 저. 친구 행가사주. 놔가지고 이렇게 낱, 술입을 걷어 놔서 글쟁이 잇주게 글쟁이로 요만이씩 낱 툃툃. 그 술입은 툃툃 쳐 가민 그 술입과 술입 사이에 기 들어가지고 막 툃툃허여. 그렇게 안아다가 요레 툃 놓고 흔 바둑이렌 헤여. 또 흔 번 해당 툃 놓게 경 흔 다섯 개쨍 헤다 노면은 그레 또 해당 우터레 놓고 또 해당 우터레 놓고 허민 이제 세 도리쨍 노민 이제 둘리가 친구광 베허고 빙허게 몰아가지고 그놈을 이 벤 이 베에 즐라메고 이 벤 이 베에 즐라메영 또 글쟁이로 막 가쟁이로 나오지 못허게 툃툃 헤영 앓져 놔근에 또 다음은 베 놔가지고 툃 헤다 노민 이 닙아 이 닙으면 요렇게 요렇게 요 동그란 거 흐쨍 그차. 경헤영 이거 헤영 정 왓주. 이렇게 이걸 바둑집이라고 헤서 게난 막 많이도 헤지고.

104024 @ 바둑집예.

104024 #2 술입 흔 바둑, 두 바둑, 거 흔 번 두드령 안아 놓는 것이 흔 바둑이라고 헤서.

104024 @ 바둑, 바둑?
104024 #1 바둑.
104024 @ 아, 바둑. 흔 바둑, 두 바둑 허는 거.
104024 #2 어. 아이고 난 바둑이 조난에 짐이 족다. 아이구 난 바둑이 훑으난 짐이 크다 이런 정도로.
104023 @ 아. 말뚱, 소뚱도 좇어놔수과?
104023 #2 좇어놔주게.
104023 #1 경헌디 많이 줍지를 못 허여.
104023 @ 많이 줍질 못 허여. 그것도 정 와난마씨?
104023 #1 정 와야지.
104023 #2 질 것이 경 하. 구덕에 메였지. 뚱 좇는 구덕이 따로 있어. 그래서 뚱을 좇어서 이렇게 뚜러메 왓지. 뚱을 경 많이 이시민 많이 좇주만은 뚱이 경 많이 이서.
104023 @ 목장에 많지 안 험니까?
104023 #2 목장까지는 가져 오기가 뚱허고 그 걸름허는 사람덜은 그렇게 다 옛날말로 뚱통, 뚱통에 놔 가지고 걸름을 만들어야 가을 뚱가지고. <중략> 걸름을 해야 보리 갈 거주 가을 때.
104023 #1 그런 디 보리 갈 때, 굴묵 짓으려고 좇으렌 안 가고 걸름 허젠.
104023 @ 아, 걸름 허젠?
104023 #1 아, 그 때 비료도 엇고 허니까 걸름베끼.
104025 @ 계민 낭은 어떻게놔수과, 낭, 뚱 낭?
104025 #1 계난 도둑질.
104025 @ 도둑질이라예.
104025 #1 설피 도둑질. 순경이나안티 걸리민 큰일나.
104026 @ 집에서 솟 구워놔수과?
104026 #1 아니.
104026 #2 아니, 저 솟은 굽는데 우리 개인으로 안 굽고 굽는 사름이 있어.
104026 @ 계민 거디 강 사당 쓰는 거?
104026 #2 굽는, 어. 산에 가서 그때는 나무를 영 단속허지 안 허니까 츠남이라 는 것이 그 여기말로 도토미목 허는 나무, 그런 것은 츠남이라고 여긴 허여 그거 끊어서 솟을 만들젠 허면 대정 사름 용기 굽는 마냥으로 그렇게 해서 솟을 구민 줍 사고 싶은 사름은 솟 꼭는 디가 딱로 잇는 모양이라. 사고 싶은 사름은 그 구운 솟을 흐찰 샅주 개인으로 솟을 굽지 못허여.
104026 @ 굽지 못헤. 어머니 상 써신 디, 솟 어떻 굽는 건진 알아지쿠과?
104026 #2 상?
104026 @ 계난 솟을 어떻 굽는지 알아지쿠과?
104026 #2 아, 그거는 그 나가 들은 말로 보지는 안 현디.

104026 @ 예, 들은 말로.

104026 #2 나무를 막 쌓여 놓고 조금만 연통에 그 나무에 물을 붙음 시작하면 그 나무에 바깥더레 불꽃이 안 나가게 그거 그거.

104026 #1 우이로 흠 더퍼.

104026 #2 흠 더퍼 가지고 나무를 막 쌓여 놔서, 이제 그 흠을 어떻, 그것도 나가 안 본디 나 들은 말인디 나무덜 우이 흠을 듬뿍 더껴도 그디 뭐 나무 탁 지들라져 불지 안 허게 어떻게 험 거지 그렇게 해서 소굽에서 불을 부트면 베졌디로 연기만 나서 불꽃 안 나가게 말젠 해쌍 보민 슷이 엉강허게 슷이 좋주게. <중략>

사냥

104028 @ 네. 저기 사냥 해 봐수과?

104028 #1 아니.

104028 @ 여기는 해안이라부난 엇수과?

104028 #1 아니 허는 사름 멧 사름 잇엇는데 여긴 경 안 해.

104029 @ 꿩, 노루, 지달이 그런 거 잡아난 거.

104029 #1 으.

104032 @ 족제비도?

104032 #2 아니 그런 건.

104032 #1 족제빈 그 저 엇장시덜 와근에 바짜가고 돈 잘 준덴 해근에 허는 사람이 잇주만은 잘 못 잡아.

104029 @ 못 잡아. 아버지 꿩도 안 잡아났수과?

104029 #1 꿩도 에이.

104029 #2 그 꿩을 잡을라면 사냥 개를 질러야지, ㄹ르청.

104029 @ 아니 꿩코 놔가지고.

104029 #1 우리 꿩코도 노고 생이코도 놔 낫는디 여기 그때는 꿩이 그렇게. 생이.

104029 @ 생이에.

104029 #1 그런 아이덜마다. 여저, 남저 아이덜마다. 이제 생이 잡으렌 허민 아이덜 거 먹을 거넨 허주만은 그뻐 먹을 게 없으니까.

104029 @ 예.

5. 바다일

105001 @ 아까 바다일 나오난 바다일에 관한 거 여쭙보쿠다. 그 여기서 바다에서 하는 일들, 아까 메역허는 일 얘기 했고, 또 바다에 강 뭐 잡읍니까?

105001 #1 구쟁기, 지금도 구쟁긴 막 일본으로 나가니까 막 한창 잘 잡아.

105001 @ 해녀 많으쿠다예.

105001 #1 육, 칠십명 웬다고 해.
105001 @ 아이구.
105001 #1 겐디 젊은 사름이 엇어.
105001 @ 아. 바다에서 잡는 거 메역허고 구쟁기허고 또?
105001 #2 뭐 잡는 거야
105001 #1 옛날엔 오분자기 보고 여긴 조개라고 했는데, 그것도 오염 관계로 없
어져 붙었어
105001 @ 오분자기를 조개렌 헛수과, 또?
105001 #1 여기선 조개.
105001 #2 문어, 해삼 그거 잡주게.
105001 #1 문어도 여기선 멩게라고 해.
105001 @ 멩게예. 그거 잡고예. 툇도 헤낫수과?
105001 #1 어.
105001 #2 전에는 헤낫는데 지금은 오염워서.
105001 @ 그니까 옛날에는 툇 헤낫고 지금은 엇고예.
105001 #2 우뭇가사리.
105001 @ 우뭇가사리엔 헙니까, 우미엔 헙니까?
105001 #1 우미.
105001 #2 우미, 우미. 저 할망덜이 우미엔 헤여. 우미, 우미.
105001 @ 여깃말로 곶아줍서. 우미예.
105001 #2 툇도 헤낫고 다 헤낫어.
105001 @ 근데 듬북 같은 거 감태 같은 거?
105001 #1 듬북 헤낫주게.
105001 #2 감태도 허고.
105001 @ 감태도 허고. 듬북은 그냥 듬북이렌 헙니까?
105001 #1 어, 여기선 듬북.
105001 @ 감태는 그냥 감태렌 허고.
105001 #1 어.
105002 @ 그럼 듬북이랑 감태헐 때 마을 사름덜이 공동으로 헤낫수과, 아니면?
105002 #1 아 여기는 듬북은 바당이라고 해서 풀아나서 동네서. 바당을 경매를
부텅 풀면은 그 돈을 가지고 부락 운영도 허고 포제도 지내고.
105002 @ 그럼 바당을 풀면은
105002 #1 그 다음에 산 사름덜이 이제 또 멧 사름 동아로 그걸 헤다가 고무마
도 심고 거름으로 쓰고.
105002 @ 그럼 바다를 폰다는 것은?
105002 #1 그 듬북 올라오는 것만. 듬북만.
105002 @ 듬북 마음대로 가져가라?

105002 #2 2년 동안만

105002 #1 딱 등록이 올르면은 계라고 그러는데 등록계를 사면은 그 산 사람이 이제는, 나가 예를 들어 나가 사면은 다른 사람덜을 붙지는 거라. 그러면은 나가 돈을 수급혜 가지고는.

105002 #2 책임자가 되는 거지.

105002 @ 아버지 계 해나신게예. 등록계

105002 #1 등록계 그거는 1년씩 허는 거니까.

105002 #2 접, 등록접.

105002 #1 접이 겐디 그런 건 계라고 할 수 없지. 왜냐하면 1년이면 끝나.

105002 @그럼 어쨌든 계로 해서 등록 채취를 했었던 거. 채취한 자기들 가져당 자기 밧디 걸름?

105002 #1 똑같이 갈라.

105002 #2 흔 사름찍시 더 주지. 책임헌 사름안티.

105002 #1 직허니까게. 늡 못 가져가게.

105002 @ 그럼, 자기가 돈 내가지고 돈 내영 자기가 헌 거 자기가 가정 가는 거?

105002 #1 아니, 똑가트게.

105002 @ 아, 똑갈게 나누고 책임자만 한 사람 몫 더 가져가는 거예.

105002 #1 으.

105004 @ 아. 여기 고동 뭐렌 험니까?

105004 #1 고동? 구쟁기ㄴ라 고동이엔 헤 여긴.

105004 @ 고동을 표준어이고, 고동을 여기서 구쟁기?

105004 #2 고메기.

105004 #1 여긴 고메기 고메기엔 허는디

105004 #2 두 가지.

105004 @ 두 가지?

105004 #1 보말이나 춤고메기엔 헌 계 있고 수두리허고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여기선 고메기엔 허지.

105004 @ 다시 한 번 고메기를 어떻게 나눈다고?

105004 #1 떡보말.

105004 @ 고메기 종류예?

105004 #1 떡보말, 수두리, 춤고메기.

105004 @ 그렇게 세 가지가 잇어마씨?

105004 #2 아니, 준준헌 거, 어지렁헌 건 하서.

105004 #1 뭐 생이고메기여.

105004 @ 그런, 그런 이름덜.

105004 #1 생이고메기여, 문두닥지여.

105004 @ 생이고메기, 문두닥지 또?
105004 #2 메웁새.
105004 #1 또 마타슬. 거 마 칠적에만 올라와.
105004 #1 저 장마 칠 적에만 올라오는 거.
105004 @아, 마타슬은?
105004 #1 장마 질 때는 못 봐. 어디 갔다 오는 지, 장마 칠 적에는 흔 군데 흔 두 뿔박씩도 모여.
105004 @장마 칠 때만 모이는 거예.
105004 #1 어.
105005 @ 게는?
105005 #1 게?
105005 #2 쟁이, 쟁이.
105005 @ 여기는 쟁이예?
105003 @쟁이는 어떻 잡습니까?
105003 #1 돌 일렁도 잡고. 옛날에는 돌 일렁도 잡고, 니껍 헤영도 잡고.
105003 #2 아니, 돌 일르민 팍 도망강 잡지 못허여.
105003 @ 쟁이도 니껍헤영 잡습니까?
105003 #1 니껍 행 놓으민 막 모여지지게.
105003 @ 고메기 어떻 잡아마씨?
105003 #2 그자 돌 일렁.
105003 #1 돌 일렁.
105003 @ 고메기는?
105003 #1 아니, 여기는 구쟁기마라 고메기엔 헤여. 구쟁기엔도 허고 고통이엔 도 허고. 겐 즘수덜 고통 잡으레 가게 영 헤여.
105005 @ 쟁이 종류에는 어떤 게 잇수과?
105005 #2 아니, 여기는 다른 쟁이가 엇어. 여기서 잡아 먹는 토종 쟁이만 잇주 게.
105005 @ 토종 쟁이만 잇고 다른 쟁이 엇어예?
105005 #2 으, 엇어 엇어.
105006 @ 우리 불 쌍 뭔가 잡기도 험니까, 밤이?
105006 #1 아, 여기 밤메기 잡아낫주게.
105006 @ 아, 밤고메기?
105006 #1 으, 춤고메기 허고 밤고메기.
105006 #2 불 쌍 잡는 거는 문계가 아니고 낙지.
105006 #1 낙지도 잡아낫주게 안에 가근예.
105006 @ 밤 고메기 뭐, 뭐 잡아낫다고?
105006 #2 밤 고메긴 주로 다른 건 아니고 주로 보말 허고 수두리.

105006 @ 보말허고 수두리.

105006 #2 그때는 헛불로 헛주, 헛불로.

105006 @ 헛불. 경헛 헛불로 잡는 거 문게는 아니고 낙지를?

105006 #2 어 밤이 거 고메기 잡으레 갓당 심는 건 낙지. 밤에는 낙지.

105006 @ 또 헛불로 잡아난 물고기 같은 거 엇어난?

105006 #1 으, 엇어. 옛날 원담 강 멜은 거려낫주만은.

105007 @ 원이 뭐과, 원?

105007 #1 아 바당에 사름, 원은 구좌나 김녕더레 가면 만헌데, 바당에 영 돌
쌍짚아게. 그걸 보고 여기서 원이라고 허주게.

105007 @ 그 원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 잡읍니까 여기는 원 안 헛니까?

105007 #1 옛날에는 헤낫는데 지금은 없어.

105007 #2 멜 거릴라고.

105009 @ 아, 원 쌍는 게 멜 거릴려고?

105009 #2 원에 멜이 들어오면 물이 쌀 때는 물이 빠지면 멜이 잇주게.

105009 #1 담에도 간혹 고기 들어 올 때는 그거 잡아서 헛주만은 그건 헛들고.

105009 @ 멜 들어온 거는 영 거리기만 허면 되는거?

105009 #2 뭐가 있지, 나무로 이만이 헛 거 이서 그물 주어서 그걸.

105009 #1 사들, 사들렌 헛 것이 있어. 쪽바데. 여기서는 사들이라고 해.

105008 @ 그 원 보수는 어떻게 헛니까?

105008 #1 보수라는데 이서?

105008 @ 아, 엇어?

105008 #1 동네에서 모아들어 가지고 담 쌍다가.

105008 #2 어, 원 다우레 가게 헛, 멜 들 때가 돼면은 우리 원 담게 헛 원 다우
주게. 그 담 다운 사름덜이 권리가 있지 멜 들면.

105008 @ 아, 거기 참가 안 헛 사름덜은 멜 못 거려?

105008 #1 참가 안 헛 사름덜은 가긴 가도 어디 흐쓸 옆으로 헛 디나 허주, 다
운 사름덜이 권리가 있어?

105008 #2 아, 거 뻬헌 사실인데.

105010 @ 경헛 아까 거기 멜 든 걸 잡았던 거라예. 그 멜 외에 고기들은 어떻
잡았던 거라?

105010 #1 낚시질로 가지.

105010 #2 낚시질도 가고 배나 가고 영.

105011 @ 낚시질 허젠 허민 낚시대 봉돌 같은 건 어떻 구해난마씨?

105011 #1 옛날에 아주 옛날엔 자기대로 만들엇주게.

105011 @ 만들언예.

105011 #2 불에 구웁 두드려근예, 쪼끄만 허게.

105012 @ 작살로도 고기 잡아낫수과?

105012 #1 어. 작살로도 잡아놔주게.
105012 @ 작살로 잡젠 허민 물에 들엉?
105012 #1 그렇지게. 물에 들엉 안경 써 가지고.
105012 #2 소살, 소살로 허주게 그 작살.
105012 @ 그럼 즘녀들이 강 잡안.
105012 #1 아니, 남저도 잡주게.
105012 #2 남저도 헤엄칠만 잘허는 사름이 강 잡는디 남전 사람마다 헤엄질을 못 허니까 경 혼엇이 못 잡아.
105012 #1 또 그거를 옛날엔 고길 꼭 잡아서 먹을라고 남저들이 가질 안헛주게.
105012 #2 헤엄질 허는 사름은 혼 동네서도 멧 사름 안돼어.
105012 @ 바닷가 동네에서도.
105012 #2 해녀들은 두렁박 짚고서 한 바당에 나가지만은 남저들은 원 손발 힘으로 휘여서 한 바당에 고기 쏘레 돌아텡겨져, 뭐 사지 못허는 디라부난.
105013 @고깃배도 종류가 잇어놔수과?
105013 #1 옛날에야 다 풍선이주.
105013 @ 풍선. 그 자리 잡는 거는?
105013 #1 테위.
105013 @ 테위렌 헤?
105013 #1 어, 여긴 테위.
105015 @ 물질헛 때 어떤 도구가 필요헛니까?
105015 #2 두렁박.
105015 #1 테왁.
105015 @두렁박이 테왁예, 테왁이 옛날말이과, 두렁박이 옛날말이과?
105015 #1 테왁이 옛날말.
105015 #2 꼭 있지, 꼭으로 만드는 거.
105015 #1 박, 박.
105015 @ 박으로 만드는 거예. 그리고 또 물질허젠 허민 뭐가 필요헤?
105015 #2 옷게.
105015 #1 망사리.
105015 @ 옷은 무슨 옷 잇수과? 우에 입는 건?
105015 #2 물적삼이라고.
105015 @ 물적삼.
105015 #2 하양헌 천으로 짚막허게 적삼 헛주게.
105015 @ 밑에 거는?
105015 #2 속곳.
105015 @ 소중의렌 안 헤영?
105015 #2 소중의, 소중의.

105015 @ 소중의렌도 허고 속곳이렌도 허고예.

105015 #2 으, 할망덜은 소중의. 쪼끔 젊은 사름덜은 속곳. 것도 표준말 부쩍 거라. 소중의.

105015 @ 소중의가 더 오래된 말?

105015 #2 으.

105015 #1 게난 굴중의, 굴중의엔 현 거는 쟁상시 입는 거고, 여저들이. 소중원 바당에 물에 들 적만 입는 거주게.

105015 @ 옷 소중의 있고, 테왁 필요허고 그 외에 뭐?

105015 #1 망사리

105015 @ 뭐 따젠 허민 뭐로?

105015 #1 빗창.

105015 #2 아니 저, 미역혈 땀 호미고, ** 잡으레 갈 땀 빗창.

105015 #1 저 호미도 여기선 중계호메렌 해. 낮 보고 호미렌 허니까 이디션.

105015 @ 호미렌 허는 게 뭐 비레 갈 때.

105015 #1 바당에 가는 건 중계호미.

105015 @ 바다에 가는 건 중계호미, 밧디 쓰는 건 그냥 호미.

105015 #1 호미.

105015 @ 지금도 물질하잖아예?

105015 #2 으.

105016 @ 옛날이랑 지금이랑 비교허민 뭐가 달라졌수과?

105016 #1 게 옷 달른 거나 허고게, 고무나 허고 옛날엔 콧으로 해서 두력박을 멘들앗는디 지금은 스폰지로 해서 그거 허고.

105016 @ 옛날은 콧으로 만들어신디.

105016 #1 어, 옛날에 박 키와가지고

105016 @ 게민 콧으로 만든 것도 테왁이렌 불러났수과?

105016 #1 그걸 테왁이렌 헛주.

105016 @ 그걸 테왁이렌 불렀는데 이제 스폰지로 만든 것도 테왁?

105016 #1, 2 으.

105018 @ 툇은 어떻 채취힙니까

105018 #1 툇은 어촌계에서 어촌계 해녀들이 그걸 끈어가지고 물러났주게.

105018 #2 아주 옛날에는 자기 먹을라고 헛지 풀라고 허질 안헛으니까. 조끔씩 헤다가 물러서.

105018 @ 그럼 어촌계가 생긴 건 언제쯤이과?

105018 #1 어촌계는 일정시대부터 생긴 거지.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운용헌 거는 근래부터이고.

105018 #2 그걸로 허다가 돈을 다 풀면 돈을 다 갈랐지게. 공동으로 댜는 거.

105019 @ 툇은 공동으로 헛잖아예, 그럼 우미도 다 공동으로?

105019 #1 옛날에는 우미도 헛다가 자기가 먹을라고 했는데, 경허다가 쫘 남으민 풀기도 허고.

105019 @ 전 한동인디 우리 어머니도 물질 해나신디 개인으로 헝 자기가 헝 거 자기가 풀고 해나신디.

105019 #1 게메, 여기도 옛날에는 개인이라신디.

105019 #2 우미 나는 것이 한동허고 여기허고 하늘과 땅 차이라. 한동이 잘 나지.

105019 @ 아, 우민 한동이 잘 나는 것과?

105019 #@ 어.

105019 #1 여긴 툄이나, 여긴 툄이 아니라 툄이라.

105019 #2 우뭇가사리가 한동 거는 이만씩 더벅더벅 여기 거는 빼작빼작.

105019 #1 게난 여기도 가인 먹을라고 허다가 쫘 남으면은 그 사례 다니는 사름덜 있어 개인별로, 그 사름덜신디 쫘 풀고. 요 근래와서 수협이 단체가 돼기 시작허면서 자기네가 딱 잡아붙엇지.

105020 @ 전복, 소라는 개인이 헛수과, 공동으로 헛수과?

105020 #1 아주 옛날에야 개인이 헛지.

105020 #2 지금은 양식장을 해가지고 그 양식장에 가입웁 사름은 공동으로 해서 벌고, 가입 안 웁 사름은 그디 얼씬도 못 거리고.

105020 #1 옛날에는 전복이고 해삼이고 전부 가인.

105021 @ 전복에 종류가 잇수과?

105021 #2 전복은 종류 엇어.

105021 @ 암놈, 수놈?

105021 #1 암놈, 수놈이야 있겠주만은

105021 @ 게난 그 암놈, 수놈 부르는 명칭이 따로?

105021 #2 엇어.

105021 @ 큰 거, 죽은 거 부르는 명칭도?

105021 #2 어. 큰 거 죽은 거, 이건 전복 큰 거, 이건 죽은 거 그거베끼.

105021 #1 아니 죽은 건 설피역.

105021 @ 아, 설피역. 그리고 이거 전복이민 부분 명칭, 고망을 뒤엔 부르는 거?

105021 #1 여기선 그런 건 없어.

105022 @ 테위는 어떻 만들엇수과?

105022 #1 숙대당이엔 헝 거 그거 해당 물려가지고.

105022 @ 말려가지고 자기대로 만들영 배 띄왕 자리 잡안?

105022 #1 어.

105022 #2 자리 거리는 사람들끼리 막 그런 걸 만들주.

105022 @ 게민 자기 꺼만 허는 게 아니라 멧 사름이 꺾치허여?

105022 #2 어, 수놓명. 누구네 테위 짓엄져, 누구네 테위 짓엄져 허민.

105022 #2 경 헤도렌 허고 허레 가고.

105023 @ 이런 배는 아까?

105023 #1 풍선.

105024 @ 예, 풍선 부분 명칭들 알아지쿠과?

105024 #1 글썸, 뒤에는 고물이렌 허는다.

105024 @ 뒤에는 고물, 앞에는 이물마씨?

105024 #1 나 이런 배는 안 헤 보니까.

105024 @ 예.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옷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예, 옷 종류예.

106001 #2 으.

도구

106019 @ 이걸 뭐렌 골아낫수과, 이걸?

106019 #1 거, 물레.

106019 @ 물레예, 물레로 뭐 헤마씨.

106019 #1 멘네. 멘네를 막 벳디 널영 플류왕, 이거 영 현 거 닻아도 여기가 틈
냥 쌀이 이거 두 개라 이거.

106019 @ 예.

106019 #2 요 사이더레 맥이면서 저 앞으로, 요거 끝양 앓양 노단착 손으론 들
르고 웬착 손으론 메기멍 둘러가민 씨는 앞더레 돌돌 털어지고 목화만 뒤터레 나가
지.

106019 #1 실 블루는 거주게.

106019 @ 게민 실을 여기만 하나씩 넣는 거?

106019 #2 털어지지.

106019 @ 아 털어지는 거.

106019 #1 목화는 멘네.

106019 #2 요거 끝양 앓양.

106019 #2 이건 노단착으로 둘루고 요거 요 사이 베롱헌더레 멘네를 영 메기멍
헤가민 씨는 밋터레 떨어지곡 목화는 뒤터레 찰찰 나가고.

106019 @ 나가고.

106019 #2 그러면 또 많이 해서 이제 멧 근 헤가지고 또 테우는 기계가 있어.
그 테에 가서 테와 오라서.

106020 @ 이런 건 안 하고?

106020 #2 이건 무시거라.

106020 @ 이건 실 막 돌릴 때.

106020 #2 계난 그걸 테와 올라야 이걸 허지.

106020 @ 아, 테우는 건 어디 강 테와.

106020 #1 그때는 기계가 따로 잇었주.

106020 #2 그 테우는 기계가 있어. 발로 들랑들랑들랑 블라가민 그 숨이 지글지글지글 퍼져가지고 움상허게 퍼지면 이만씩 뜯어놔서 싹싹 김밥보단 조금 길고 ㄱ 늘게 말아다가.

106020 #1 걸 정이라고 해, 정.

106020 #2 정.

106020 @ 그 테와온 걸 정이렌?

106020 #1 말아논 거.

106020 #2 돌아논 거, 멘네 정.

106020 @ 멘네를 뽑아 논 거 넘적허게 헨 그걸 돌돌 만다고요?

106020 #2 으, 숨틀레 가서 이걸로 혼 다음에 다음에 요만이 허게 부각허게 헨 할머니들이 기술적으로, 김밥보다는 ㄱ늘고 길게 헨 멧, 두달을 허다가 딱 여기 제겨 놔둬서 이걸로. 이던 뭐가 잇어 이던, 가래기.

106020 @ 아, 여기가 가래기.

106020 #2 실 감아지는 거. 이거 둘러가민 이 형태로 뿔거라이. 이제 가래기더레 영 둘루명.

106020 @ 요거랑 비슷헛수과, 요거랑 비슷헛수과?

106020 #1 이거주, 이거. 저거는 살이 많고. 여기 사름덜은 이거.

106020 #2 으.

106020 @ 아.

106020 #2 요거 계난 그냥 가래기를 요레 언쳐 낡.

106020 @ 요게 가래기예?

106020 #2 으.

106020 @ 그럼 여기에 실들이 감아지는 거?

106020 #2 으, 가래기러레 실 말아지는 거.

106020 #1 여기는 억새, 여기 우리말로 어웁.

106020 @ 어웁.

106020 #1 그, 저 겹테기 그걸 해당 여길 꼽아.

106020 @ 어웁 낡 요만헌 걸 여기 꼽으민.

106020 #2 췌주게. 어디 가래기가게.

106020 #1 가래기 꼽는 건.

106020 #2 가래기 꼽는 거 빈둑, 저 사람 데웁게.

106020 #1 데웁 말앙 실 감는 거 말이주게. 실 감을 적에.

106020 #2 꼬리 말이라?

106020 #1 꼬리 말앙 가래기에 저 어웁 그 저 뺑이 해당 졸랑 실 그것에 감앙 께지 안헤서게.

106020 @ 아하, 계난 가래기에 췌가 이신디?

106020 #1 췌 우이.

106020 @ 췌 우이 가래기 실 감앙?

106020 #1 감이지민 췌 뽑아지게 꼽앗던 거.

106020 #2 이디 다 이신게 줄을 이거 이거 이디 오랑 영켜사 이거 둘러가민 실 이 이만이 뽑아논 거 수룩허게 감고. 감아뵤 또 영영, 풀 건 사름은 이만씩 졸른 사름은 이만씩 허영 다 헤지민 영영헤가민 주주룩허게 감아지고. 이 줄이 이거 이거 라 이거.

106020 @ 감아지는 거.

106020 #2 가래기 이거 잘 헤신게.

106020 @ 경행 이거 명주실 뽑앗던 거?

106020 #2 미녕.

106020 @ 미녕 뽑앗던 거?

106020 #2 멥주실은 이렇게 안 뽑아.

명주

106005 @ 아아, 명주실은 어떻 뽑읍니까?

106005 #2 멥주실은 누에를 질좌가지고 메칠이 뵤면 딱 것도 기한이 뵤면 여기 말로, 옛날말로 올르젠 헉젠 허여. 올르젠 허면 뵤.

106005 @ 멥주 올럼저.

106005 #2 아니 저 누에 올럼저 헤근에, 뵤, 뵤를 만들주게 이런 바탱이에. 새겹으로 헤가지고 너질너질 문들아서 이레 앓다 낡 그 올르젠 허민 밥도 안 먹고 누에가 알랑알랑알랑 허멍 입으로 멥주실이 잘잘 나오라가. 잘잘 나오라 가멍 알랑알랑 이추룩허멍 막 허민, 그런 걸로만 골라다가 그 여길 올럼 ㄱ만이 뵤 두민 그것이 그 입으로 나오는 실이 요만씩 고추를 만드는 거. 게민 그 고추를 이제 막 굳으면은, 메칠이 뵤민 굳주게. 날짜가 난 날짜를 몰라. 날짜가 뵤면 굳으면 그 놈을 따서 밖에 거를 다 너질너질 현 것을 베껴두고 속에 깨끗헌 것만 또 솟디 뵤서 그놈을 솟으면서 또 이 식으로.

106005 @ 누에를 솟으는 거?

106005 #1 고치.

106005 #2 고치를. 고치를 솟으면은 솟아서, 솟으는 솟디서 하시거락으로 이렇게 허다 보면 그 줄이 다 이레 영켜져. 영켜지민 그걸 영 이레 등기면 가만히 솟디서 보면 그 누에가 영영 허멍 고치를 만들엇던 올이.

106005 @ 응

106005 #2 또 고추가 오글오글허멍 그 줄이 다 풀어져 가. 풀어져 가민 그 줄을 또 이제 요런 것에 감는 거여. 이런 것에 감으멍 솟디서 솟으면 하시로 떨어질까봐 들쭉들쭉허멍 이걸로 감아. 막 멧 번 감는 것이. 멧주허고 미녕허는 것이 손 가는 것이 츠레츠레로 멧 번인지 몰라.

106005 @ 아, 기민 뭐 기계 안 헤영 손에 뭐?

106005 #2 아니 기계. 아까 이런 것덜에 감아. 솟디 실을.

106005 @ 솟디 실을.

106005 #2 으. 솟디 실을 혼 착 손으로는 그때는 또 방향이 이제 바꾸지. 이거 처음 목화를 짓을 때는 노단착 손으로 이거 들르면서 이렇게 손으로 빠가고 멧주를 헐 때는 이착 손으로 들르면서 이착 손으로 솟디 그 고치가 떨어져, 실이 떨어질까봐 이레 엇저 부치는 거라. 엇저 부쳐근에 이레 이거 이렇게 타수를. 이거 부쳐 노면 이제 베끼면 실거치 타수가 뿔 거 아냐.

106005 @ 아.

106005 #2 타수를 또 동그랑 헨 거를 그 타수에 맞은 것을 만들어서 끼와 놓고 이제, 감지 멧주는. 여기 이제 간쯔메 깡통, 그런 것에 감아 멧주는.

106005 @ 아, 간쯔메 깡통.

106005 #2 으. 그것에 이제 그 멧지를 멘들라면, 놀라고 허면 솟자가 다 잇주게 열 두 개. 열 두 개 를 감아 놓민 이제 놀아. 느는 것이 이거.

106005 @ 느다는 게 뭐과?

106005 #1 그거 이쪽에 말뚝 박고 요기해서 기계 왔다갔다 허는 걸 느다고 허주게.

106005 #2 왔다갔다 멧지 필 자수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놀아서 이제 어떡허냐 허면은 다 그거, 다 그거 나는 그거 머리에 안 드니까 그걸 몰른데 그걸 놀아가지고 또 다 이제 그걸 그 허터지까봐, 이렇게 이렇게 막 허터지지 안허게 옛날말로 잘해서 놔 뿔다가 또 메여. 메는 것이 있어. 메는 거는 또 이거 짜는 건 이디 안 나왔네.

도구

106021 @ 아, 베틀.

106021 #2 으.

106021 @ 베틀.

106021 #2 으.

106021 #2 멜 때는 그 베틀에 도꼬마리라고 그 일름이 도꼬마리, 일본말인가 웬 도꼬마리라고 이 만이 헨 거 메서.

106021 #1 실 감는 거.

106021 #2 메어놔서 그 땐 베틀에 놔서 짜지.

106021 @ 아.

106021 #2 계난.

106021 #1 논다는 말은 저 거 무시거**- 바귀 고망에 전부

명주

106003 @ 그럼 그렇게 명주를 짜면 명주에 종류가 잇수과? 어떤 게 잘 짜진 건 뉘렌 부르코, 뉘렌 부르코. 예를 들면 생멩주, 수아주렌 그런?

106003 #2 아니 생멩주는 솟디 놔서 솟지 안헌 거난 생멩주고 생거난.

106003 @ 아, 생거난.

106003 #2 으, 생거난 생멩주. 명주에 대해서는 생멩주는 그 여기서 옷헐라면 옷 종류에 딸라서 생멩주로 허는 옷이 잇고

106003 @ 으.

106003 #2 남저 옷을 아주 제헐 때 입는 아주 관복이난 그런 거는 솟양 메영 다듬어사 만들고, 또 간단히 입는 창옷이라고 그거는 생멩주로 허고 이디는 그런 차이만 잇고 저 그런 명주 종류는 실이 잘못 허다 서툰고 잘 못허민, 실 빠는 것이 제주가 엇이민 막 훑어불어이. 훑어불민 그런 좋은 멩지를 못헐가지고.

106003 @ 아, 기술이 좀 모자라면 굶어버리니까.

106003 #2 왕실이라고 해서 그거는 딱로 짜서 왕꼬는 딱로 짜서 훑은 디 사용 허는, 뉘 수수헌 옷게.

106003 @ 아, 집에서 입는?

106003 #2 으, 막 그런 비단으로 안 입고 수수헌 옷 입는 거 그런, 그런 종류베 낀.

106004 @ 그럼 멩주실은 종류가 나뉘가지고 이름이 따로 불리는 건?

106004 #2 엇어.

106004 @ 그럼 안 좋은 것은?

106004 #2 으.

106004 @ 굶은 건 안 좋은 거고예?

106004 #2 으.

106005 @ 그럼 멩주로는 어떤 옷 헐 입엇수과?

106005 #2 멩주로는 보통게 남저덜 큰옷이라고 제사헐 때 입고 죽영갈 때 입고 허는 이만이 든 멩지로, 그거허고.

106005 #1 창옷.

106005 #2 창옷허고. 바지, 저고리. 멩지로는 다허지 바지, 저고리도 허고.

106005 @ 바지, 저고리도 허고.

106005 #2 우리 또 여저들도 시집갈 때 창옷허고 치마 저고리도 허고.

106005 @ 으.

106005 #2 그러다보난 지금 시대 나서 저 수에옷으로도 돌아가지 멩주가.

106005 @ 음.

106005 #2 으, 수에로 감주게.

106006 @ 멩주실 허젠 허민 누에를 치지에.

106006 #2 으.

106006 @ 누에 칠 때 어떻게낫수과?

106006 #2 아이고, 누에 치젠 허민, 침 누에씨 왓젠 누에씨 사가렌 여기 거트면 이젯말로 조합이라이.

106006 @ 예.

106006 #2 그런 디 강 나는 어무니가 허는 걸 따라서 본디. 똑 요만이 현 걸 가져와. 그렇게 이름이 혼 바둑이라 혼 바둑. 이걸 허민.

106006 @ 이만이 현 거에 누에 여기 담겨져 있어?

106006 #1 상자. 알게 알.

106006 @ 알?

106006 #2 알이 뵈보다, 줍쓸보다 훨씬 즐지.

106006 @ 아. 누에알이.

106006 #2 그것이게 딱 튼엇이 박아진 거. 붙인 거지. 또 혼 바둑을 버청 방도 엇고. 이거 방이민 못허지.

106006 @ 누에 알이 한 요정도 현 걸 혼 바둑이렌 헤마씨?

106006 #2 어. 게민 또.

106006 #1 거기 수 천 개 들어 잇지.

106006 #2 조그마니 허고픈 현 사름은 또 갈라서 반 바둑.

106006 @ 그럼 이 혼 바둑허젠 허민 공간이 얼마나 필요해?

106006 #2 질루는 공간?

106006 @ 예, 질루는 공간.

106006 #2 이 방만이 현 것을 다 이제, 요 이제말로 앵글인디 그때말로 도들이라.

106006 @ 도들. 공간을 도들?

106006 #2 아니, 앵글을 만드는 거.

106006 #1 이렇게 게 층층 만든 거.

106006 #2 방을 다 돌아가면서.

106006 @ 앵글을 만든 거?

106006 #2 혼 네칸 이젯말로 앵글인디 그뎨말로 도들이라 도들.

106006 @ 아, 도들.

106006 #2 도들 메서 이만씩 현 걸 너븐 이추룩허게 너븐 차룽을 만들앙 이디 숨뻑 놔야지. 줍박이라고 줍박. 경허민 이걸 앗다가 메질을 가만이 차룽착에나 알팍 현 옷 끌고 알팍현 옷 더꺼근에 그 놈을 놔 두민 일주일 놔 두민 누에 깨왓저 깨왓저.

106006 @ 요만큼 가져왔잖아예?

106006 #2 으.

106006 @ 그림 좁팍에.

106006 #2 아니, 처음은 좁팍 필요가 엇고. 가져오는 날은, 요만이현 차롱착에 알팍헌 옷 더끄곡 길곡 살팍허게 놔 두민, 혼 일주일 시민 그때도 기술이지 옛날. 누에 깨왓저, 누에 깨왓저. 보면 똑 지금 알기로 이 족은 개미, 제일 작은 개미만씩 현 걸 그 이 종이 우이 폭삭이 다 나왔어. 폭삭이 다 나왔 것이 움직거리는 거 아니 움직거리는 것도 몰르고, 그러면 처음은 혼 차롱에 저 지금말로, 옛날말로 차롱이엔 허여 그 떡 놓는 거.

106006 @ 떡 놓는 차롱예.

106006 #2 혼 차롱에 그놈을 이젠 그렇게 흔해도 종이 길고이 그것더레 놔근에, 뽕잎을 어떻게 멘드느냐. 기술엇이 사름은 못 썰어. 막 줌질이, 막 줌질이 섞영 그레 솔솔솔솔 쉼 놔 두민.

106006 @ 가루처럼.

106006 #2 아이, 뭇이 짐승인지 아니지도 몰르게 준 것이 것을 먹으난 살양 킵지. 혼 사흘이 시민 우리가 보기에도 이젠 누엔줄 알아지게 돼 가. 경혜영 일주일을 질루면은 즈을 세 번 자사 올라. 일주일을 질루민 누에 줌 잘 때 뻗저. 경행 즈을 자민 야가지가, 거 애기 땀 잘 못 바레사 커사 바레지. 야가지가 꼬딱도 안 혜영 영행 그자 밥도 안 주고, 사흘을 자지. 경 자민 이것이 깨영 영영 움직거려 가민 누에 깨엇저. 게민 이제 그 다음 혼 번 즈자 자나민 또 훑게 썰지. 커 가는 것에 따라, 훑게 썰어 이제 쉼 나두민 이제 그거 먹으민 두 번차 줌 자근에 깨민 이제 요만씩 헤가지게. 요만씩 헤가민 더 훑게 썰지.

106006 @ 음.

106006 #2 훑게 썰영 낫당 세 번 즈자나근에 올를 때 뻗민 안 썰어. 그자 뽕잎 그자 쥐도 저 방에서 먹는 소리가 이디서 알아져. 숨박숨박숨박 허는디 것도 얼마나 약헌 짐승인지 누에 길러 땀 일 년에 두 차례 질르지 봄, 가을. 질르민 이 이 가을엔 해도 봄이 비가 많이 오니까 뽕잎이 젖으면 이 안팍을 닦아야지 물기 있는 거 주민 당장 설사나.

106006 @ 설사 나민 누에 죽어봅니까?

106006 #2 죽지게. 게난 뽕잎 다꿈이 일이라.

106006 #1 게니까 이쪽으로는 봄에는 잘 안 칠라고 허지. 장마가 심허게 허니까.

106006 @ 아하.

106006 #2 게난 그렇게 허난 또 막 부족헤가민 뽕잎이 어떻게 귀헌지. 게난 지금 휴지뽕란 말이 어딜로 난 말이라 휴지뽕도 막 나무 좋은 것엔 썩이 줌 곱어. 경 나무도 막 늙은 나문디 올라강 헤쓰민 휴지뽕도 어떤 사름은 헤다 주곡. 그렇게 해서 그 누에를 세 번 줌 자낭 아주 훑게 요만이 요만이.

106006 @ 음.

106006 #2 계난 이제 커 가민 혼번 줌자 나민 두 차룽, 세 차룽에 놔 뒷당 두 번 줌 자나민 이제 줌박에 쪼금 놓는 거여. 두 번만 줌자나민 깨어가민 세 번 줌 잘 때 돼민 막 나눠 놓지 막 갈랑.

106006 @ 그니까 알, 요 판데기에 알 사와가지고 한 일주일만에 새끼가 된 거라예?

106006 #2 으.

106006 @ 그럼 가루 뿌리고 나서 한 번 잠잘 때까지 며칠?

106006 #2 일주일 있다가.

106006 @ 일주일 한 번 잠잔다는게 거의 일주일 단위마씨?

106006 #2 으, 계난 그 한 번 줌잘스이 일주일 허고 줌자명 삼일 허고 보통 누에 혼 들이라 혼 들.

106006 @ 기다예, 한 달이다예.

106006 #1 세 번 줌자는 거난.

106006 @ 그렇다예 세 번 줌자는 거난예.

106006 #2 그추룩허곡 누에 올려서 고추 딸 때꺼정은 기간을 몰르크라. 건 그자 경해난 생각.

106006 @ 음.

106006 #2 그 때 돼민 우리 어머니가 그자 아이고 고추 딸 때 뻘저, 고추 딸 때 뻘저. 경헨 이제 타는 거니까, 경헨 글후젠 나도 어머니 허는 것에 따라 나도 혼 두 번은 헤 봤는데 나 여러 번은 안허고, 혼 두 번 헤봤는디 그거 그자 영 몬직아 보민 딸 때 돼민 췍췍. 처음은 그 보이도 못허는 줄로 동그라미 만들앙 뱅뱅 돌르멍 만든 것이 켁췍해근예.

106006 @ 켁췍허다는 것이 뭐마씨?

106006 #2 딱딱헌 거.

106006 @ 아.

106006 #1 여기서 나 다 누에 고추.

106006 #2 계난 그 번데기 먹기도 헨게. 번데기 먹기도 헨게.

106006 @ 예 번데기 먹기도 헤마씨.

106006 #2 번데기 그 누에 고추 타는 날은 번데기가 혼 다라로 혼나 념영 두 다라도 세 다라 나와.

106006 @ 아.

106006 #2 종일 어무니가 헤 가민 그 솟디 낱 숲으멍 문 풀어지민 번데기 나왕 다라에 건져 놓곡 또 들이치고 번데기 나오건 건져 놓고 허민 하루종일 허민 아이덜이 먹어부난 거주 막 하. 겨고 누에가 잘 돼면은 번데기가 노랑게 얼마나 곱다고 요만큼 헌 것이.

106006 @ 음.

106006 #2 잘 돼면.

106006 @ 잘 돼면예?

106006 #2 으. 안돼면은 그것이 영 동그라미 안에서 허다가 지 목숨을 번데기 안 돼가지고 누에차 죽기도 허고 경 딱딱허지도 안허고. 누에만 잘 허민. 계난 멩진 그 정도주게. 계난 옷은 경. 여저도 입고 남저도 입고. 주로 노동헐 때 입는 것은, 노동헐 때는 미녕.

106006 @ 미녕.

106006 #2 으, 미녕. 또 베는 저 입다가나 헐어사 노동헐 때 입주. 베도 신사복 이여. 베도 신사복. 더울 때.

106006 @ 그지예, 여름에 신사복.

106006 #2 더울 때만 간간이 신사복으로 입는 거. 거 입다가 헐어가민 헐 수 엇 이 막 입어부는 거.

106006 @ 막 입어부는 거예. 계민 옷감 종류가 아까 저기 명주 있고 무명 있고 또 베 있고, 또 뭐가 잇수과?

106006 #2 계민 우린 저.

106006 #1 모시.

106006 #2 저 육지러레 아니민 우린 모신 안헤 보난. 육진 모시허주게.

106006 @ 계민 여긴 세 개만 했던 거?

106006 #2 으. 우린 세 개베끼 안 만들어서.

무명

106007 @ 계민 무명예, 아까는 명주 물어봐신디 무명 물어보쿠다예.

106007 #2 으.

106007 @ 무명 종류는 뭐 뭐 잇수과?

106007 #2 무명은 종류가 따로 엇어.

106007 @ 왜 광목, 생목 영 나뉘지지 안 험니까?

106007 #1 광목은 여기서 안 헤여.

106007 @ 여기 광목 안 험니까?

106007 #1 안헤여.

106007 @ 안헤. 그럼 여기 나오는 건 뭐라? 다 통틀엉 무명이렌 헤.

106007 #1 여긴 무명도 아니고 미녕.

106007 @ 예, 예. 미녕예?

106007 #1 으, 미녕.

106007 #2 미녕도 좀 사치시럽게 입을라면 그때 실도 좀 흐쌀 좀 물들여서 색 색일 놔서 헝 입어보고 그런 거베끼.

106007 @ 기파? 광목이랑 미녕이랑 어떻 틀립니까?

106007 #1 광목은 미녕실을 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거주.

106007 #2 폭도 널르고 즘질아근에 공장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 미녕은 베틀로

다가 우리가 짜는 거지.

106007 #1 실은 미녕실인데 우리 군대 간 후젠 대군가 강 보니까 보통 미녕실 이더라고.

106007 @ 그니까 저기 미녕이면 닷새미녕, 옛새미녕 그런 건 있지 안허과?

106007 #2 으, 잇어.

106007 @닷새 미녕은 뭐고 옛새 미녕은 뭐과?

106007 #2 일곱새는 막 좋은 미녕, 즘질고 저 그거 닷새 미녕은 막 얼덜덜 요만이 막 훑고 옛새는 보통.

106007 @ 아 그럼 그렇게 세 종류? 닷새 옛새, 일곱새?

106007 #2 으. 일곱새.

106007 @ 일곱새

106007 #2 흐쨌허민 아이구 일곱새 미녕이여. 또 못헌 건 아이구 닷새 미녕이여.

106007 @ 잘 만들어진 건 일곱새이고 굽영 뭐 한 건 닷새 미녕?

106007 #2 어.

106007 @ 여덥새도 있고?

106007 #2 옛어. 멩주는 열 두새.

106007 @ 어떻 불릅니까?

106007 #2 열두새 멩주. 경허고 베는 보통 훑으니까 베는 닷새라. 미녕은 즘질고 베는 훑으니까. 베는 보통 그자. 할망들이 닷새배, 닷새배.

106008 @ 아, 실 굽기게. 멩주가 아주 가늘게 하니까. 그럼 미녕으로는 어떤 옷 만듭니까?

106008 #2 갈정뱅이.

106008 @ 갈정뱅이. 또?

106008 #2 갈적삼.

106008 @ 갈적삼.

106008 #2 옛날말로 강중이. 그거주게

106008 @ 그런거예. 요즘 우리 광목천에 물들이는 것같이 광목이 옛이난.

106008 #2 거난 그걸로 감을 들여가지고 감물 들여서 갈정뱅이, 갈적삼, 우리가 입는 건 그 옛날에 그 시절에 몸빼를 헐 중 몰라가지고 이만이 널른 거 중의라 중의.

106008 @ 갈중의.

106008 #2 경헨 옛날에 할망덜 요렇게 요렇게 헤영 이디 딱 무꺼근에 요렇게. 고무줄 헐 중도 모르고 천도 이제보다 굽 들었지. 이디가 이만이 폭널게 헨 이디오 랑 이렇게 이렇게 딱 무경 영. 케난 거 갈중의.

106008 @ 갈중의.

106008 #2 또 갈적삼.

106008 @ 아.

106009 #2 토목이렌 현 건 엮어놨수과.

106009 #1 건 광목쪽.

106011 @ 아 광목. 홍세미녕은?

106011 #2 그건 미녕을 홍세 놓는 거.

106011 #1 시집갈 적에. 장가드는 사람이 새각시 집이, 거 예단이지, 예물이지.

106011 @ 홍세함에 넣었던 거예. 함에 미녕 넣으니까 홍세미녕이라고 불렀구나 예. 홍세미녕 양은 어느 정도 넣읍니까?

106011 #1 거 혼이 엮어.

106011 @ 혼이 엮어.

106011 #2 저 거세기 40자라 영 보통 허는 게.

106011 @ 미녕 한 필이 40자?

106011 # 어 혼 필이 40잔데, 저 잘사는 사름은 세 필을 놓고 못사는 사름은 두 필을 놔. 그것도 엮영 못사는 사름은 그러다가 츠츠 좋은 세상이 나서 저 광목 혼 통 해당 놓는 사름은 막 잘 살아. 누계네 집인 광목 혼 통 홍세 왓젠 영허고. 또 그 후젠 세상 좋으난 그 멩주를 또 그 다 여산해 가지고 시마지 혼통 사고 멩줄 혼 통 놔서. 그 사람 결론허민 얘기 나면 시마진 기저귀허고.

106011 @ 시마지가 뭐짜?

106011 #2 시마지 잇주게.

106011 #1 건 기계에서 나온 건데.

106011 @ 아 기저귀하는 거, 기저귀감?

106011 #2 어. 기저귀감. 그거 한 통허고 멩주 마흔 자를 놓면은 결론해 나민허민 얘기 나민 그 시마지는 기저귀허고 멩주는 그 장계 간 사름 옷 행 입는 사름도 있고 놔 두민 얘기 옷혜주는 디도 있고 그렇게 했어. 홍세미녕은 그거주.

106011 @ 시집갈 때는 어쨌든 미녕을 혜줬던 거다예.

106011 #2 으, 옛날은 미녕.

106011 @ 줌 지나명 잘 살아지민 명주까지 갔었던 거지예.

106011 #1 그렇주게.

106011 @ 겐디 광목혜 주는 사름도 돈 잇었던 거, 사당 혜 준 거니까예?

106011 #2 으, 그때 막 여기 광목이 어려와.

106011 @ 어려와예?

106011 #2 육지서가 잘 들어오지 안허여.

106012 @ 아, 게민 목화 농사는 어떻 지엿수과

106012 #2 목화농사는 목화씨기 콩 방울 죽은 콩 방울만씩 헤어이. 그거 했다가 목화 갈 때는 불치에다가 그놈을 사악 버물어 놓고 밧을 쟁기로 해서 요만석 사이 나게 밧을 남저가 갈면은 그거 버무린 거 대바구니에 그걸 출구덕이라고.

106012 @ 출구덕.

106012 #2 출구덕이라고 해서 끈 돈 거 툽 메가지고 적당한 간격으로 두 방울씩 들게 잡아놔당 것도 막 질 몰라서주 내중엔 메어붙고 검질 멜 땀 흘 방울, 흐나. 계난 것도 다 완고힐 지 안힐 지 몰라가지고 그자두 개도 놓고 세 개도 놓고 그자. 씨는 자기집이서 볼룰 때 행 땀던 거난 딱 검질 멜 때는 땀직한 것만 놔 두고 다 메영 나 두민 그 놈이 커 가민.

106012 @ 씨를 언제, 몇 월에 뿌리는 것라?

106012 #2 씨는 봄에 뿌려서 팔 월에.

106012 @ 거뒤 들여?

106012 #2 거뒤들, 이거 어기가 거뒤 들여?

106012 #1 왜냐하면 드레라고 하는데 열매 그, 거 익기 전엔 참 맛있어.

106012 #2 여름 나가민 꽃이 피 가지고 팔월 나가면 드레가 생기는디.

106012 #1 익으면 이렇게 벌어져.

106012 #2 생기는데 그놈이 생겨서 소곱에서 그 목화가 돼가지고 그놈이 삼각형으로 그놈의 드레가 벌어지면은 그 드레 소곱으로 부각헌 숨이 있어.

106012 @ 음.

106012 #2 계민 그것이 쪼그만이 헤싸질 때 타기 힘들고 탁 자자지면은 이제는 그걸 다 일일이 타야지.

106012 #1 하나 하나 손으로 바, 바구니에 아저당.

106012 @ 그럼 그거 타는 게 언제 몇 월?

106012 #1 주로 8월이주게, 8, 9월에. 8월에 탈 때는 초창기에 초물을 타고 9월에는 못 된 거 물잔 거 막물 타고.

106012 @ 그럼 아까 열매 맛있다고 한 거는 그거 벌어지기 전에.

106012 #2 어, 그 맛있던 게 목화가 되는 거여.

106012 @ 아.

106012 #1 참 그거 아이덜 도둑질 헤 먹었다근에.

106012 #2 드레 타 먹으레 들엇당 혼나주.

106012 @ 그거 먹어 불민 안 뵈 거 아니?

106012 #1 으. 거 맛이 좋거든. 거 옛날에 먹을 게 없거든.

106012 #2 계난 옛날에, 지금 사는 세상 얼마나 그거를, 요만씩 봉우리 현 거를 멧 짐 타다가 그 농서일 하면서 저르 실 때 아무날이나 널지도 못 혀. 몬지락은 다 숨에만 들라 붙을라고 허지이.

106012 @ 맞아, 맞아.

106012 #2 그 요즘ㄴ치 이렇게 세면 허곡 영 깨끗헤신민 허주만은 옛날에는 순질에도 포장 흐나 안 허영 다 흑히고 쟁기. 집에도 이 마당에 다 검질 끌앗주게. 집도 검질 웬 우리 세상 검질 아닌 것이 엇주게 집도 검질 초가집이고, 앞마당에도 검질로 끌고 허난 티는 다 숨에만 붙을라고 허니 멧심헤영 옛날에 그런 거 저런 거 널 거 시민 요런 이불헛다가 할머니들 이불 뜯어가지고 멧석에도 그 이불 안에 널

영, 설명헐라고 허면 그 티를 다 다듬어야 헤여. 암만 멍심해도 그 티가 어떻게 부트는지 그걸 다듬양 요건 다듬은 거 요건 안 다듬은 거 놔 뒷당 또 날씨가 막 존날은 이놈을 또 팔라야 그 아까 무르레로 불라, 그 두지민 절대 씨 안 떨어져 몰어. 팔민 영 불르명 들으민 수강수강수강 그것이 씨가 돌아지는 소리가 나명 씨가 툭툭 털어지명 저레 나고. 허다허다 버치민 저 이디 불도 슬랑 팔루는 수도 있고, 팔지 안 허민 절대 불루지도 못허여. 불루는 거라 영허는 거. 거 불라, 멘네 갈아, 검질 메여, 그놈 타, 팔라, 불라, 불룬 후제 또 다듬아 왜 또 다듬느냐 불룰 때가 여물진 씨는 떨어지꼭 죽은 씨는 까지명 저레 넘어가불어. 게민 이제 불룬 후제 또 다듬아. 또 다음은 거 또 갈라야 또 틀에 가. 틀에 가민, 그 틀에 가 오민 집이 오랑 좇아. 좇으민.

106012 #1 좇은텐 허는 건 실 빼는 거.

106012 @ 불루다는 건 어떤 거과?

106012 #2 씨 빼는 거.

106012 @ 아, 아까 여기 씨 빼는 거?

106012 #2 좇는다는 건 실 빼는 거.

106012 @ 실 빼는 거.

106012 #2 그추룩 허면 실만 빼면 웨여, 또 감아 모뎡이로 동그렇게 감고, 두가지로 감아. 꼬리 늘허니까 늘 헐 거 요렇게 감아서 늘고 꼬리헐 거는 영영 감아서 짤 때 허고. 쟁 늘고 꼬리 감고 메여 놔서 베틀에 짜민 미녕이라 혼 멧 번 수 없어. 지켜워, 지켜워.

106012 @ 그럼 그거 팔 월에 따면 그 장만을 장만허는 거를 그 때 헵니까?

106012 #1 겨울내내.

106012 #2 겨울내내 걸어 놓고, 봄내내. 가을에 따면 이제 여기 말로 조 비고 감저 파고 헤불민, 보리 갈지. 이제 보리 갈아뒤근에 겨울 들민 그게 일이지이.

106012 @ 음.

106012 #2 봄 나가민 또 이제 늘지. 그 눈 올 때는 그것만 것만, 다듬고 불루고 케와 오고 실 좇고 감곡 헤 낱 날만 조금 누그러지면 이제는 늘기 시작허민 늘아다 멧다 허민 주로 짜는 거는 오월 장마가 좋아.

106012 @ 그니까 불루다는 거는 씨 불루다는 거고?

106012 #1 으, 씨 불루다는 거. 불룬다 글자 그대로.

106012 @ 테운다는 건 집에서 못허는 거라예.

106012 #1 2 으.

106012 @ 그럼 어디 기계있는 디 강?

106012 #1, 2 으.

106012 @ 테와왕 짜, 베틀에 낱 짜.

106012 #2 아니 좇아 좇아.

106012 @ 아 좇아.

106012 #2 잣아, 그 다음 모뎡이라고 헤여 모뎡이.
 106012 @ 예.
 106012 #2 모뎡이 감아, 놀아.
 106012 @ 노는 건 뭐과 노는 거?
 106012 #2 베틀에 그대로 가져게.
 106012 #1 짜는 짜게끔 만드는 거.
 106012 #2 자수를 다, 자수를.
 106012 #1 나 이척에 말한, 말한 대로 논다는 거는 마흔 자혈 거민 마흔 자 길
 이 헤가지고는 왓다갓다 허는 걸 보고.
 106012 @ 아, 논다.
 106012 #2 경헨 놀아 낱, 메여근에 베틀에.
 106012 #1 멘다는 건 뭐냐허면 바데에 고평에 전부 꼽는 거.
 106012 #2 풀질헤 가지고 도꼬마리라고 풀질헤 가지고 메영 감아야 베틀에 가
 지.
 106012 #1 도꼬마리라는 건 저 간단히 알기 쉽게 헐라면은.
 106012 #2 연술 감는 거.
 106012 #1 실 감아가지고 놔 두는 거.
 106012 #2 연술 감는 거 식으로.
 106012 @ 연줄 감는 식으로?
 106012 #2 어. 연술 감는 식으로 이따만이 진 거 헤가지고, 이거는 질어도 이거
 는 미녕 너비가 이거라면 이것베끼 아니되고게.
 106012 @ 예, 예.
 106021 #2 그추룩허난 이만이 헤도 이것을 그 베틀에 놀라고 허민 질어야 웨.
 그 베틀이, 베틀 안 봐 봤지.
 106021 @ 예, 사진으로만, 다음에 사진 가정 오쿠다.
 106021 #2 베틀이 옴로 요만인 헐 거라.
 106021 #1 길이 거보다 길주.
 106021 #2 아니 너비게.
 106021 #1 아, 너빈 그만이.
 106021 #2 너비 요만이 허민은 도꼬마리도 이만이 허여.
 106021 #1 사람이 앓으민, 사람 앓으민 요만인 허난에.
 106021 #2 사람 앓아도 남주게 이디. 비도 놓고. 비도 놓곡게 그디. 겨난 지겨워
 다 설명헐라고 헤도.

모시

106015 @ 계민 모시는 안헤난 거라 전혀.
 106015 #1 어 이쪽은 안헤.

106015 #2 모시는 안 허여.
 106015 @ 하는 건 알아지쿠과 어떻허는 건지?
 106015 #2 모시는 삼베는 여기 삼베는, 삼베허는 것도 어떻게 산디, 삼을.
 106015 @ 그럼 모시는 육지만 하는 거? 제주도 자체가 모시를 안 헵니까?
 106015 #2 어. 아니, 아니.
 106015 #1 몰라, 저 서쪽으로는 어떻헤신디
 106015 #2 아니우다 저 한산 모시여 뭐여 다 육지레 난 거.

삼

106018 @ 삼은 어떻헤낫수과 삼?
 106018 #2 삼은 여기 같앗지.
 106018 @ 삼을 갈앙?
 106018 #2 갈아서 그눔을.
 106018 @ 삼이 베?
 106018 #1 으게, 아마.
 106018 @ 아마.
 106016 #2 으, 걸 갈아서 잘허는 사람은 길쪽헤여. 삼나무가 길쪽허민 그눔을
 이제 비여.
 106016 #1 쟁 전부 꺾죽 베껴가지고.
 106016 #2 비면 그눔을 꺾죽을 베껴. 베경 이제 그걸 다 숲아, 숲으면은 밖에
 이런 건 벗어지고 씨 닳은 것만 헤영케 남지이.
 106016 @ 그러니까 꺾질 벗긴다는 건 초록색 부분을 이렇게 벗겨낸다는 말?
 106016 #2 으.
 106016 @ 쟁 안에 하양헌 거?
 106016 #2 어.
 106016 #1 건 내불고.
 106016 @ 내불영 그걸 하양헌 걸 숲는다는 얘기?
 106016 #2 으.
 106016 #1 하얀 거 속에 거는 말고 꺾질게.
 106016 @ 꺾질?
 106016 #2 으. 나무대는 빼불어딩.
 106016 @ 나무대는 빼불어딩.
 106016 #2 꺾질 중에 밖에 거는 데껴 불고 안에 속만. 그걸 이제 집에서도 못
 숲아. 이제 그걸 옛날말로 어른들이 내창이라 워렌 헐거니 내창, 계곡 그런 디 가
 서, 내창에 솟 아장 가근에 그거 숲는 것도 그대로 물에 숲으면 안 웨여.
 106016 #1 잣물.
 106016 #2 화리에 재, 재 놔근에 숲아근에 이제 그걸 집이 앓다근에, 이제 달달

그걸 숭아도 빨앙 그걸 ** 안허게 잘 헛당 집이서 맨날 메칠을 메깍 빠다가 실만씩 다 벌르지. 나무 흥나 췌 거, 베낀 것을 들러근에 멧 가닥 실만씩 헤근에. 할마니들이 옷 다 걷어근에 이 슬에서 그거 다 잇는 거여, 잇엉.

106016 @ 다리에서?

106016 #2 어, 이 다리에서 실 마주 붙여근에 소록허게 꼬앙 또 차반지더레 영헤 놓고 또 이 췌 잇지, 췌 잇이민 췌 앓당 요레 부짱 어떻헛 소록허게 헛 요레 헤 놓곡 헛 이 차반지로 이만이 그거 헤 놓곡 또 이만이 헤 놓곡 허민 이제 그것이 열 두 고망 헛 거민 열 두 차반지를 헤야 헛 거야. 열 두 차반지를 헤야야 그 느는 메다를 맞추아근에 늘아서 또 메여서 짜사 베지.

106016 @ 아.

106016 #2 계난 옛날 어른들 헤난 거 듣기만 헤도 지겨워.

106017 @ 그럼, 베로는 무슨 옷 만들어났수과?

106017 #2 그 베로는, 멩주는 아주 비단으로 헤 가지고 옛날 아주 과거엔 멩주를 못 헤가지고 옛날 어른덜은, 나가 췌 보난 베로만 이런 관복을 헛더라고.

106017 @ 음.

106017 #2 남저덜. 베로만 헛다가 우리가 안 후에야, 것도 개발이 돼여네 그 누에 씨가 연고가 돼가지고 멩주를 만들어서 멩주로 헛주. 다 역언 보난 베를 베를 두 가지, 옷새 베는 막 좋은 거고, 닷새여, 넷새 베는 막 훤은 거주게.

106017 @ 음

106017 #2 그것이 삼 삼는 거라고 헤여. 베 일르는 천 일름이 삼이니까 이거 꼬는 것이 삼는 거, 삼 삼는 거.

106017 @ 아. 삼 삼는다.

106017 #2 이 기술도 모지레민 실이 훤어가지고 이 기술도 좋으면 그늘고 삭삭 해서 좋고 기술이 나오라근에 그췌룩 헛, 훤은 건 그자 수수허게 여름에 정벱이 적삼 거튼 거나 하르방덜영 할망들이영 허영 입고.

106017 #1 것도 이신 사름이라사.

106017 #2 베가 막.

106017 @ 귀허여.

106017 #2 요즘 육지서 베 옷 비교허민 베가 베 아니라 훤어부난.

106017 @ 아, 하하.

106017 #2 색깔도 안 좋고.

106017 @ 요즘에야 기계로 짜니까.

106017 #2 으, 색깔도 안 좋고 베가 베 아니라. 그 때 베를 생각허고 요즘 베 생각허민.

106017 #1 것도 그때도 우리 보면은 저디 베옷 입어 가민 쳐다봐서.

106017 #2 것이 귀해서.

106017 #1 잘사는 사름이나 입지게. 아니민 미녕 입주게.

106017 #2 여름에도 어디 소상이나 지금 닭지 안혜영 소상이나 대상이나 헐 때
도 잘 사는 남저 어른은 베중의 적삼 착허게 입영 나가고 못사는 사름은 못 입어.
베 허기가 힘들어.

106018 @ 그럼 어쨌든 멩주보다 농사하기가 힘들었던 것과, 베가?

106018 #2 아니.

106018 @ 그건 아니고.

106018 #2 멩주가 쨌 힘드는데

106018 @ 그지예, 미녕보다 힘들었던 거지예?

106018 #2 으, 미녕은 요렇게 해서.

106018 #1 아니, 미녕은 숨 따다가 씨 빼 두고 테운텐 허는데 테와다가 실 뽑앙
허민 간단헌 거주게.

106018 #2 그 베는 삼나무가 혼 바리다 허민 혼 밭에다가 그거 씨만씩 꿩영 다
이어근에 그걸 만들젠 허민.

106018 @ 게민 삼농사는, 아까 목화는 봄에 씨뿌렁.

106018 #1 삼도 봄에.

106018 @ 아, 삼도 봄에. 삼농사는 어떻 씨 뿌려났수과?

106018 #2 삼농사는 삼은, 어떤 집일 봐도 저 집마다도 안허고 허는 집이 있는
데 저 울타리에 조그만이 삼은 같아. 목화는 막 밭에 강 하영 같고.

106018 #1 조그만이 같아도 이게 막 저 제주도 말로 좇아사 이게 길고 매끈허
지 두물민 거려불어 가지가 나불어.

106018 #2 거려불민 안돼여.

106018 #1 가지가 나불민 못 쓰는 거야.

106018 #2 보통 말로 ㄱ는 삼 나듯. ㄱ늘아야.

106018 @ 아, 길죽길죽허게.

106018 #2 어.

106018 #1 안 그러면 가지가 나부니까.

106018 #2 조팠디 밭 메레 가도 좇으민 할망들 곤는 말이, 아이고 ㄱ는 삼 나듯
좇양 안 돼켜. 탁 붙은 디 붙영 나난 울타리에.

106018 #1 그렇지 앓으민 삼을 못 쓰주.

106018 #2 쪼끔만 헤.

106018 @ 어쨌든 삼은 조지게 심어야, 쪼금만허게 울타리에 허는 거고.

106018 #2 어.

106012 @ 목화는.

106012 #2 목화는 밭디 막.

106012 @ 널리 심어야 되는 거라예. 목화 간격은 얼마나 험니까? 한 이 정도.

106012 #1 건 혼이 엇주.

106012 #2 아이고 막 널리 그 정도 아니 허영.

106012 #1 거는 가지가 많이 거려야만이 많이 나오니까.

106012 #2 많이 허는 사름은 목화도 좋은 밧디 싱경 다박다박 나민 훑으면 드레가 잘 열며 목화도 하고 굿인 밧디 싱근 사름은 남도 즈그만 허민 드레도 얼마나지 못허고.

도구

106020 @ 음, 그 아까 도구, 도구예 제가 베틀 사진은 못 가정 와신디. 이것도.

106020 #1 젠디 이건 우리 이쪽에선 안 써난 거난.

106020 @ 그럼, 아까 사진, 이거예.

106020 #1 음.

106020 @ 아까 요거예.

106020 #1 이거 췌주.

106020 @ 요런 형태.

106020 #2 으.

106020 @ 요런 형태. 그럼 이거를 물레렌 곱아낫수과?

106020 #2 으, 물레.

106019 @ 그럼 이것도 물레?

106019 #2 으.

106019 #1 ㄴ치 물레, 물레

106019 #2 아니, 아니. 저건 멘네 불르는 물레, 이건 미녕 좇는 물레. 무르레.

106019 #1 젠디 다 물레, 물레렌 곱아서.

106019 @ 물레, 무르레?

106019 #1 물레.

106019 @ 물레?

106019 #1 다 물레렌 곱아서.

106019 #2 으.

106019 @ 이것도 물레, 이것도 물레.

106019 #1 요것 ㄴ란 나오는 귀.

106019 @ 귀. 하나씩 물어볼 거우다. 잠깐만예.

106019 #2 잘헛저.

106019 @ 박물관에서 그런 것도 사진 다 찍어 나뒀니께.

106019 #1 찍어 나두지 았으민.

106019 @ 몰르니까, 몰르니까. 그럼. 이걸 뭐렌 곱아?

106019 #1, 2 귀.

106019 @ 이건 귀. 그 다음.

106019 #1 이건 쌀.

106019 @ 여기를?

106019 #1, 2 이거 두 개.
106019 @ 아, 이거 두 개를?
106019 #1 쌀.
106019 @ 쌀. 또?
106019 #2 무시거라 이건 즈룩.
106019 @ 이건 즈룩.
106019 #2 이건 낱알 앓는 판데기.
106019 @ 판데기. 기냥 판데기렌 해난.
106019 #1 근데 이거는 자체 이름은 없었어.
106019 @ 아, 요 판을 뭐렌 허는 건 없고?
106019 #2 아니, 그건 엇고.
106019 @ 이 기둥도 이름 따로 없고?
106019 #2 엇어, 엇어. 그자 물레쌀.
106019 #1 옛날은 요것이 여기 부러질까 봐서 여기 저 나무해서 박아놨지.
106019 #2 물레쌀, 물레귀, 물레즈룩.
106020 @ 그럼 여기 왕 이거 명칭은마씨? 이거 명칭?
106020 #2 이건 이디 가레기가 잇는다.
106020 @ 영헨 가레기가 잇었주.
106020 #2 요거 이거 톡 나신게 이거. 이레 이만이 헨 가레기가 잇었주게.
106020 @ 여기 가레기에, 여기 뭐가 잇어예.
106020 #2 으. 실 감아지는 거.
106020 @ 이거, 이거,
106020 #1 맞아.
106020 @ 여기 돌돌돌 허민 실 감아지는 거예. 이거 실 감아진 건데 하양해부
난. 이걸 가레기렌 해.
106020 #2. 으.
106020 @ 이걸 가레기, 가레기. 그럼 다른 거는? 다른 거 이름 잇는 거 엇수과?
106020 #1 이건 글자 그대로 손잡이.
106020 @ 이건 그냥 손잡이예.
106020 #2 으.
106020 #1 우리 여기서는.
106020 #2 이것도 쌀이렌 해서 이거.
106020 #1 물레쌀 허면은 이거 영, 물레쌀 해근에 딱로딱로 곤주 안 헛주게.
106020 @ 요런 걸 물레쌀이렌 헛던 거예. 물레쌀. 물레바퀴렌 그런 것도 안 허
고?
106020 #1, 2 안 허여.
106020 @ 퀘머리 같은 단어도 없지예?

106020 #1 여기서 그런 말 곧지 안허여.
106020 @ 물레살, 가래기 그 정도다예.
106020 #2 으.

바느질

106022 @ 바느질할 때 도구 뭐뭐 이수과?
106022 #2 도구 무시거렌 바느베끼게.
106022 @ 바느베끼 엇수과?
106022 #2 ㄴ세허고 바느베끼.
106022 @ 두 개만 이시민 뉘?
106022 #1 여기서 손에 꼽는 골무 거튼 거 잘 안 쓰니까.
106023 @ 안 써예. 그럼 바느질 할 때 방법이 있잖아예. 막 둠성둠성 허는 바느질도 있고, 막 줌질게 허는 바느질도 있고.
106023 #2 잇주게. 호허는 건 둠성둠성.
106023 @ 그 둠성둠성 현 바느질을 뭐렌 곶아마썸?
106023 #2 호허는 거.
106023 @ 또?
106023 #2 또 제깍 꼽는 건 텅침허는 거.
106023 @ 음.
106023 #2 것베낀 무시거?
106023 @ 텅침허는 거렌 험니까? 시침질 아니면 뉘 그런 바느질 이름은 없고?
106023 #2 으, 막 줌질게 허민, 아이고 텅침험구나 허고 호허는, 막 둠성둠성 허민 호완 내베신게.

옷종류

106024 @ 아, 호완 내붙어신게. 경허는 거예. 그럼 남자옷 종류에는 어떤 것이 이수과? 남자옷.
106024 #2 이런 저 이런 바지덜은 말앙?
106024 @ 음, 남자옷 붙렀던 옛날 이름들?
106024 #2 도포, 두루막.
106024 #1 후루미.
106025 @ 여자옷은 마씨?
106025 #2 여자옷은 창옷허고게, 장옷, 장옷, 창옷이 아니고 장옷이라.
106025 #1 시집갈 때, 옛날 여저덜 영 쓰는 거게.
106025 @ 뒤집어 쓰는 거예.
106025 #2 겨고게, 치마 저고리 바지베낀게.
106025 @ 치마, 저고리 바지예.

106025 #2 으.

106026 @ 아기 옷은? 애기?

106026 #2 베넛옷. 옛날 애기는 애기옷 허민 지금 거트민 우에 우아래 큰옷 입어 그 옷으로 노봉옷이렌 애기들 입져나신디.

106026 @ 노봉옷?

106026 #2 으.

106026 @ 노봉옷이 어떤 거?

106026 #1 누빈 거.

106026 #2 으, 애기들 누벼네.

106026 @ 아, 누빈 옷. 누빈 옷을 아까 소리를 어떻게 넷수과

106026 #2 노봉옷.

106026 @ 아, 노봉옷이렌 불린 누비옷을?

106026 #2 으.

106027 @ 게민 옷 만들젠 허민 어떻게 만들어났수과?

106027 #2 계난에 실을 만들양 찻주게. 옛날엔 만들양 찻주게.

106027 @ 경헨 옷을 다 집어서 만들어난 거 아니?

106027 #2 옛날사 만들앗주게.

106027 @ 옷 만들엇던 애기 해줍서.

106027 #2 어떻 만들어?

106027 @ 어떻 만들어?

106027 #2 옷은 게 어떻게 그자 쥬 입엇주게.

106027 @ 그세로 잘라냥?

106027 #2 천게 몰랑 거 몰름이엔 헤여, 그세로 즐르는 게. 몰랑 헛주게.

106027 @ 게른 천 므르젠 허민 대층 눈짐작으로 험니까?

106027 #2 자.

106027 @ 자.

106027 #2 자 잇주게, 자로 해서.

106027 @ 음, 자로 해서. 재어 가지고.

106027 #2 으. 자 안 허민 못 허여. 옛날에 할망들도 암만 어둑어둑해도 갱헨 막 익숙헤지면 발로도 영 석자쭈 짐작헤지는다 보통 자로 헛주게. 자로.

106027 @ 자로 헨. 만약에 그 자로 헨, 가위로 몰랑 바느질 허면 옷 뻬던 거.

106027 #2 으. 겨고 저 거시기 이제 나일론 잇주만은 윤디 다리웨, 걸로 멩지 옷은 윤디허고 다리웨 가져사고 미녕 옷과 베옷은 손으로 삭삭 고비 나고. 멩지옷은 윤디허고 다리웨 가져사.

106027 @ 다리웨 가져사.

106027 #2 몰리우민 다리웨로 다리곡 헨 땐 윤디로 실밥 누리떠사 멩지옷은.

106027 @ 누리떠사예?

106027 #2 으 멩지웃은 실밥 누리떠사.

106027 @ 만약 저기 바지면 바지에 이름들이 잇수과? 예를 들면 여기면 이 허리띠 부분 뭐렌 끈고 이 부분 뭐렌 끈고 허는 이름이 잇수과?

106027 #2 바지사 무시거 그런게 잇어게. 무신 그디 딸룬 거 무신.

106027 @ 남자 바지, 남자 한복 바지에 보면 여기 무끄는 부분은 뭐렌 끈는게 잇수과?

106027 #1 대님?

106027 #2 행경베끼 행경은 제사헐 때 허는 행경.

106027 #1 행경은 여기 강 무끄게 췌 거주.

106028 @ 여기 무끄는 거. 밑에 부분. 치마에 보면, 우리 저고리 입업을 때 여기 부분은 뭐렌 굴읍니까?

106028 #1 동전 드는 디.

106028 @ 동전 도는 디.

106028 #2 이 모가지에 거?

106028 @ 모가지에 거.

106028 #2 건 동전이주게, 짓허고 동전.

106028 @ 아, 짓.

106028 #2 으, 짓허고 동전.

106028 @ 여기 무끄는 거는?

106028 #2 곱.

106028 @ 곱예. 소맷부분은 뭐렌 불르는 거 엇어난?

106028 #2 아니 소매는 거세기, 색동 논 거는 끝동 낫젠 허는데 옛날엔 곱에 요만이 색동이 아니고 꼭 요만이 봐 나셔. 걸 끝동 낫젠 허는디 그건 옛날이고 그거 저 아주 호사로 색동낱 입은 사름이 멧 개 엇엇주.

106028 @ 보선 신언예, 보선, 한복 입을 때 보선 신짱아예 보선 신으면 이 부분을 뭐렌 허는 거 잇수과? 명칭이?

106028 #2 코 보선은 보선 앞코지.

106028 @ 그 다음 여긴.

106028 #2 그건. 엇어.

106028 @ 명칭 엇어. 앞코지만 명칭 잇고?

106028 #2 으, 신영 고우민 아이고 보선 앞 코지도 곱다. 그거주.

106028 @ 옛날에 단추 잇어낫수과 이런 거?

106029 #2 단추 잇어나셔? 곱 메주.

106029 @ 곱 메다 헤마씨?

106029 #2 으, 보통 곱으로 들앗주 곱.

106029 @ 곱예. 거 모작 메다도 헉니까?

106029 #1 건 속곳.

106029 #2 모작도.
 106029 @ 속곳에 모작?
 106029 #2 으, 돌메기.
 106029 @ 아, 돌메기. 모작단추렌도 허고.
 106029 #2 으. 돌메기렌도 허고.
 106029 @ 돌메기렌도 허고?
 106029 #2 으.
 106029 @ 그럼 이거는 속곳?
 106029 #2 으.
 106029 @ 속곳에는 들앗던 거고 보통 우리 옷에는 곱.
 106029 #2 어, 곱 들고.

재단과 염색

106031 @ 혹시 우리 감옷 만들젠 허민 물들이잖아예.
 106031 #2 감물 들일 땐 어떻습니까?
 106031 @ 감 뺏앙게. 감 뺏앙 물 나오면 헐랑헐랑허게 안드룩게 들이젠 현 사람은 물 섞어서 들이고 세게 뺏뺏허게 들이젠 현 사람은 그대로 감물로만 들이곡. 그거, 그거베끼.
 106031 @ 아, 물 짱 그디 낡?
 106031 #1 아니 물 짜지 안 허영 감에 ㄴ치 낡 막.
 106031 #2 물 짱 이젠 뭐.
 106031 #1 물 짜, 이젠 물 짜.
 106031 #2 이제사 물 짜, 이제사 곶암주만은.

신발

106032 @ 경 했던 거예. 신발 종류에는 어떤 거 잇어났수과?
 106032 #2 옛날에 신 만들앙 신엇주게.
 106032 #1 옛날에 짚신.
 106032 @ 짚신. 나막신도 잇어났수과?
 106032 #2 잇어났주.
 106032 #1 나막신 잇주.
 106034 #2 나막신은 아무나 못 신어서. 아주 거. 거 나막신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
 106034 @ 나막신 만들젠 허민 막 파야 돼여?
 106034 #2 게, 그거 팡 거 요새 구두거치 신 형상 만들젠 허민, 그거 아무나. 나막신 말만 들영 잇긴 잇인디 거 아무나 못 신어.
 106034 @ 아무나 못 신어예, 계민 보통 짚신 신어예.

106034 #2 어.

106036 @ 개민 짚신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잇수과?

106036 #1 뭐 짚으로 만든 것도 있고, 삼으로도 만들고.

106036 #2 막 고양헌 사름도 잇고 헌디 종류가 으라 개카? 그런 몰라.

106036 #1 여기 저 짝신, 짝신헌 짚신이 아닌 직신.

106036 @ 짝신. 짝신이렌 불러난예. 뭐 다른 이름은 엇어 나고? 저기 삼으로도 직신 만들어나고?

106036 #1 거 깍이라고 허는디 요렇게 올라오는 걸 깍이라고 허는디 **허는 사람들은 삼으로 깍을 만들어.

106036 #2 그런 삼, 짝신 깍허는 삼은 베허는 삼보다 굵어도 뉘고 게. 그건.

106033 @ 가족신은 못, 안 해낫지예.

106033 #2 가족신은게.

106033 #1 가족신은 결혼식날.

106033 #2 거 신은 사름이 그런 때나 허주.

106033 @ 결혼식 날은 자기 거헤신가, 빌령 신어신가?

106033 #1 접으로 만들앙.

106033 #2 관복에 붙엇주게.

106033 #1 접으로 헤가지고는 거 관복이영 딱 만들앙 놆 텃당 누게네 결혼식 험저. 거 가져당.

106033 @ 빌려당예?

106033 #2 사모관대라고 신랑 쓰는 것에 그런 관복에 다 부튼 거주.

106033 @ 개인 걸로 뭐 했던 건 아니다예?

106033 #2 으.

106033 #1 아, 잇엇저. 가족신 잇어서. 개 가족신. 이 저 사농허는 사름덜.

106033 @ 아, 사농허는 사름들.

106033 #2 노리, 노리 가족이나 개 가족 가지고 멘들앙, 신는 이만이허게 오게 허는 겐디 보통사름덜은 안 신고 거 사농 같 적에 추우니까.

106033 @ 추우니까 짚신 신영 눈 위에 못 걸어가난예.

106033 #1 어.

모자 등

106037 @ 모자 종류에는 어떤 거 잇수과? 모자 종류?

106037 #1 옛날에, 옛날엔 모자가 없엇어.

106037 @ 웨 밧디 강 일허젠 허민 모자 안 써낫수과?

106037 #1 패랭이.

106037 @ 예, 패랭이. 또?

106037 #1 가족 모자.

106037 @ 가죽 모자.
106037 #1 것도 사놓히는 사름덜 가죽 모자.
106037 @ 거지예. 보통 쓰는 거는 패랭이 썼었던 거예?
106037 #1 어. 모자 만들 게 없었으니까.
106037 #2 저 하르방덜은 휘향이라고 헤 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헝 하르방덜은 쓰고 모자가 었었주.
106037 #1 것도 잘 사는 사람덜.
106040 @ 양태는?
106040 #1 여기 양태 없었어.
106042 @ 었언. 탕건도 안 헤낫수과?
106042 #2 건 잇주.
106042 #1 탕건 옛날게, 옛날 하르방덜.
106042 #2 하르방 저, 아주 부제집 하르방, 잘 사는 하르방 영 보민 탕건 썩 앓 양.
106042 @ 그 탕건 상 왔던 거 아니민 여기서 탕건을 만들었던 거?
106042 #2 하르방을 이거 썩 앓아, 보민.
106042 @ 이거예?
106042 #1 이거 위이 이거 쓰는 거주게.
106042 @ 이거 우이 이거.
106042 #2 이거 쓰는 하르방은 아주 혼 마을에 두 세 개.
106042 #1 우리 난 후젠 벨로 없었어. 일본 시대니까게.
106040 @ 그럼 양태 만들고 이 동네서 헤낫수과?
106040 #1 아니 안 헤연. 물총덜 왕 사 갖주게. 서이 사름덜 왕. 물 여기 물을 키우니까. 거 콩지 헤영 놔 뒤. 건 그거 산 강.
106043 @ 망건은? 여기 하는 거
106043 #1 망건은 우이.
106044 @ 도롱이 었어낫수과 도롱이?
106044 #2 도롱이엔 현 말은 안 들어반.
106044 @ 비 올 때 쓰는 거?
106044 #1 우장.
106044 @ 우장이엔 헤낫수과?
106044 #2 우장.
106044 #1 새로 만든 거.
106044 @ 여기 걸치는 거 우장이잖아예. 머리에도 뭐 쓰지 안허여.
106044 #1 안 써. 패랭이.
106044 @ 아, 패랭이 써.
106044 #1 여기는 이걸 없었어.

106044 @ 아, 이건 없고.

106044 #1 이거 우장.

106044 @ 우장에 패랭이 썼던 거예.

106044 #2 우장은 또 아무나 만들어져. 저거 헤젠 허민 새도 빼딱이 다 쳐더근에. 침 저거 어떻게 멘드카부덴.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 종류가 뭐가 잇수과? 보리밥, 쌀밥.

107001 #1 곤밥.

107001 @ 아, 곤밥.

107001 #2 옛날에게 보리찰 나민 보리밥. 경헌디 아주 췌췌묵은 옛날은 육지는 모른디 제주돈 못사니까 피밥, ㄹ랑조팍, 그대로 조팍. 그거 먹을 땐 그거 허고. 보리찰 나민 보리밥, 밀팍.

107002 @ 계민 밥 지영 먹었던 쌀 종류로 허민?

107002 #2 밀팍은 알기 쉽게 말허민 벨미라이. 밀허는 사람이 밀이 그렇게 보리 거치 많지 안 허난 보리밥보다 맛은 좋은데 밀팍은 벨미로 행 먹고 밀쌀은 곤쌀에 여깃말로 요즘거치 나룩쌀이민 허주만은 옛날 촌에 산디 불렛던 거 방앗간에 강도 안 글양 이 방에에도 지고. 옛날 어른들은 보통 방앗간도 내중사 낫주게. 그 독고방에만 저 노니까. 거 요새 현미쌀 모양으로 거 현미 껍죽은 거 프리롱이나 현다. 그 옛날에는 산디도 격죽이 발강헤여. 거 우에 격죽 채 벳겨불민 그 중간에 것이. 발강헤노니까 밥 거 뿐세가 엇어도 원 시대가 그런 시대난 그거 그렇게 헤영. 조찰 나민 경, ㄹ랑조라는 건 원 너무 밋이 굿이니까 조가 안 되여. 안 되민 그 ㄹ랑조를 불리면 쯤 되니까 그 ㄹ랑조팍.

107002 #1 ㄹ랑조는 여기 지금 풀 종류는 나오는 거주.

107008 #2 게고 그 피밥은이 그 피가 아주 아무디나 안 되는가 피밥은 어떻게 어렵느냐 막 맛은 좋은데 피쌀 씻어난 물은 국 끌려도 요즘 웬장국, 옛날 어른은 장을 닷 말씩 담으니까 주로 아무 반찬도 엇고 물장 웬장으로 일 년을 사난, 피쌀 씻어난 물은 던져불지도 안허여. 국 끌려도 돌아. 현디 피 껍더기 아홉 불이 난다, 아홉 불. 계난 쌀 보기가 얼마나 힘들 거니.

107008 @ 아, 껍데기가 아홉 불.

107008 #2 피는 장만허면는 방울도 훑어 현디 껍더기 아홉 불 벳기당 보민 피쌀도 쯤쯤하고 침 옛날 할망덜 애 먹엇주. 계민 밥을 허는디 맛은 좋아도 그렇게 피밥이 경 어려와 낫저.

107008 @ 맛은 좋아마씨, 피밥이?

107008 #2 으. 맛은 좋아도.

107003 @ 보리밥은 어떻 허과?

107003 #2 보리밥은 두 가지.

107003 @ 보리쌀 장만하는 거부터?

107003 #2 보리 장만하는, 옛날에는 저 빙빙 도는 그레 굴 때는 보리쌀, 보리를 비어다가, 비어서 무끄지 못하여 젓엉 그대로 밧데서 낱 나누민 들르면 무껍 싣거 당, 홀테 잇지 홀테 쌀 돋으 거 보리쌀 그것이 보리쌀이라. 보리쌀로 혼 놔은, 이렇게 메왓주 이렇게 메운 거, 혼 놔은 사서 홀트고 혼 놔은 혼 줌씩 접아주주게 홀트라고 접아주민 그거 접앙 홀타 논 거 막 벧 나민 들류왕 도리깨로 어야 흥.

107003 @ 어야 흥.

107003 #2 어야 흥 헤여 그걸 두드려 가지고 아이고 그 꺼럭 그거 두드려서. 우리집 그튼 딴 좋아. 영 길이 가까우니까 허주만은 옛날에는 올레 골목이 막 질어 가주게. 계도 산태 알아 산태.

107003 @ 예, 산태.

107003 #2 그거 두 사름이 이렇게 앞에 혼 놔, 뒤에 혼 놔. 멩테기엔 허민 알아 멩텅이 짚으로 영.

107003 #1 멩텅이 알주게.

107003 @ 예.

107003 #2 멩텅이엔 담앙 들러당 그거 솔박으로 불려. 솔박으로 불려서 보리가 집이 갓당 낫당 그 보리 장만 헐 철 돼민 날이 좋지 안 허여 아멩헤도 그거 널영 들류왕 그 방에 아정가민 이제 물 컷당 건정 그것에 낱 막 도노렌 허민 겁더기 벗어져 헤도 잘 벗어지멍 말멍. 아정오랑 또, 굴아도 다 이해가 안 웬다. 널영 채 갈름이라니 바삭 들류진 못허고 쪼금 보슬보슬허민 채 갈름이라고 또 이제 보름 발른 코에 꿇어당 이제 불령 채 갈랑 그 채는 돼지 주꼭 그 쓸을 또 널영 좀 여기서 살만 현 사름은 또 거기 가서 또 방엿간에 가서 또 그것을.

107003 #1 들방에라고 헤 여기는 들방에.

107003 @ 들방에.

107003 #2 들방에라고 그디 가서 그대로 이제 므른 차 그대로, 므른 차 허면은 줌 깨끗허는디 우리거치 못 사는 사람은 이제 그대로 굴아.

107003 #1 정그레엔 헤근에.

107003 #2 굴면.

107003 #1 쌀을 두 개씩 벌러.

107003 @ 집이서 그는 거예?

107003 #2 두 개도 벌러지고.

107003 #1 거핀다고 헤 걸 보고.

107003 #2 보리쌀 거퍼.

107003 @ 거핀다.

107003 #1 으.

107003 #2 두 개에도 벌러지고 세 개에도 벌러지고.

107003 @ 그 집이서 정ㄱ레에 ㄱ는 걸 거핀다라고 헤마씨?
 107003 #2 어. 보리쌀 거퍼사켜. 보리쌀 거퍼사켜.
 107003 @ 아, 보리쌀 거퍼사켜.
 107003 #2 게민, 그걸.
 107003 #1 그래야 밥 빨리 돼고.
 107003 #2 어멍네쯤은 모진 어멍은 저 보리쌀 거평 밥 허라. 경헤딩 가불민.
 107003 #1 열 일곱설쯤에 밥 헤서.
 107003 #2 성제쯤 신 사름은 ㄱ레 굴젠 허민 싸우멍덜이.
 107003 @ 몇 살부터 밥 헛수과?
 107003 #1 열 일곱설부터 애기 돌멍 저 보리쌀 솥앙 나두라 허민 시간 돼가민 물 낱 꿩왕 나 뒤.
 107003 @ 아, 보리쌀, 보리밥은 보리쌀 솥아난 다음에 밥 허는 거?
 107003 #2 아니, 솥으질 안혀고 보리쌀 거평 쌀을 만들지 치는 것이 있어. 게민 처근에 대체 거름체 경헤영 그 대체는 아래, 거름체는 우이 꼭 그런 중간에 걸로 허지 아니 거퍼진 건 거름체 우이 거 신 건 또 거퍼야 돼고 또 너미 거퍼진 건 이 제 소레기 돼불고, 보리쌀 소레기. 경허난 그걸이 씻엉 솥디 놔 가지고 불을 습노렌 허민 부꺼이. 부갈부갈 부끄민 틈 재운다고 불 쟁 두쟁 더쟁 놔 두민, 얼마나 그 놈 이 자연적으로 피어나서, 계난 물을 맞춰야지. 밥이 웬 디, 얼마나 배 고파산디 솥 두쟁 열민 막 맛 존 냄새가 나.
 107003 @ 하하하.
 107003 #2 막 맛 존 냄새가 나.
 107003 #1 먹을 게 엇으니까게.
 107003 #2 어떤 사름은 물은 잘 맞춰도 빨리 급헤영 틈 자지 앓을 때 푸면 밥 으로 물이 나. 흥 짝으로 먹어가민 흥 짝더레 물이 가. 쌀은 겁덕은 익지 그거 틈 자지 앓을 때 빨리 먹을라고 밧디, 아척이 조반 좀 인척 일어난 여저가 허민 허고, 좀 늦게 허민 시간 돼민 밧디 가야니까, 밥 두루 틈 자도 퍼 내렌 막 남저가 야단 허주게. 밥 출려 내라 밥 출려 내라.
 107003 @ 하하하.
 107003 #2 옛날 우리 친정 아버지는이 부엌 무똥에 가서 고자 안 돼시냐 출려 노라, 출려 노라 허민 막 다올려 가민 밥이 점점 안 돼여.
 107003 @ 뜸 들여야 돼는데.
 107003 #2 으. 그런 정도로 먹영 살았저. 그러다가 이젠 까끄는 기계가 나니까 그때는.
 107005 #1 그때는 진짜 쌀밥이라.
 107005 #2 진짜 쌀밥으로 먹었주. 우리대로 물ㄱ레가 강 굴고 정ㄱ레에 거피고 우리 친정에서는 너무 일만 허니까, 난 경 어무니 밧디 가민 보리쌀 거평 밥을 못 허주게. 난 뒤 형 아시도 엇고 나 혼자고 경허난. 우리 어머니가 헤알 거난 아이고

자고 싶영 자당 보민 무신 소리가 막 나이. 소리가 나민 뭘 소린고 허민 그런 소리 허는 힘으로, 그 우리 어머니 혼 지금 막 공부허는 학생이라. 공부허는 학생 흐루쳐냐, 우리 웨손지도 흐루쳐냐 딱 세 시간은 낮젠 헨디 세 시간, 네 시간 자는 학생 모양으로.

107003 #1 잠 자질 못 헨데 허난.

107003 #2 일허레 강 오랑이, 그거 저녁 해 먹고 그거 뒤치다거리 허당 보민 혼 열 시 뉘민, 두 서너 시간 자면 그 보리쌀 거퍼 뒤야 또 밧디 갈 거난 무신 소리가 막 낭 보민, 소리를 허멍 그 소리 힘으로.

107003 #1 즐리니까.

107003 @ 아.

107003 #2 막 소리힘으로 허고 또 방아질 때는 웅덩덩 허멍 우리 어머니는 친정 어무니는 소리가 좋으니까. 막 요즘은 그 가시리서 그 전설이로 뉘 가시오름 강당당 집이 세켄방에 새 걸러 온다. 전승 곳인 우리 성질 들어사난 세 콜도 맞고 네 콜도 맞다 허는 전설이 모양으로 막 우리 어무니가 소리를 허는디 첨 뉘 알 수도 엇게 소리허멍 그 방에를 지어사주게. 우리 어머니는 흐쓸 잘 먹젠 허민 저 몰ㄹ레에 아니가도 방에에 보리쌀을, 거 보리쌀을 실름이라고 허여. 초불 헤영 온 거 방에에 낱 실르민 흐쓸 보리쌀이 문작헤지주. 문작헤지민 거평 밥을 허민 우리 어무닌 그렇게 헐 줄이 쓸도 그렇게 나가고 허는 때문에 힘들게 우리 어머니 ㄹ레 곶고 방에 ㄹ는 걸 잘허난 난 보고 듣고 험 뿐이주 경 막 잘허진 못 헤여.

107003 @ 어무니 소리 잘 허실 거 같은디?

107003 #2 아니, 형도 엇고 아무 아주망도 엇고 허니까 나 흐나를 그렇게 허렌 헐 수가 엇주게. 밧디는 꺾어 가도. 쉼 ㄹ꾸레. 쉼 ㄹ짜야지. 쉼 농서허젠, 조 불리젠 쉼 내려와 오면 내일도 불리젠 허민 비오라불민 못 불리고 그민 ㄹ꾸레.

104001 #1 쉼 ㄹ꾸레 가야지.

104001 @ 쉼 ㄹ꾸레 간다는 게?

104001 #2 쉼.

104001 #1 맥이러.

104001 @ 맥이러 간다는 거.

104001 #1, 2 으.

104001 @ 물 맥이러 가고 출 맥이러 가고?

104001 #2 아니 쉼막에, 쉼막에 밤에는 멧다가 아침이 붉으면 그 쉼을 몰양 들에 나가서 놉.

104001 #1 풀을 뜯기는 거, 풀을 뜯기는 거.

104001 #2 놉, 요즘은 그디 저디헤서 막 뉘 짓엇주만은 출왓말고 내분 밧도 잇주게 내분 밧. 그런 내분 밧디 가근에 그걸 저물양 소를 멕여사지게.

104001 #1 도망가지 못허게 막양.

104001 #2 도망가지 못허게. 심술 곳영 도망 잘 가는 소나 만나면은 똥 사주게.

울멍.

104001 @ 하하하.

104001 #2 울멍. 돌아나불민.

104001 @ 그거 좇으레 다니젠.

104001 #2 게고이.

104001 #1 막으레.

104001 @ 막으레 다니젠.

104001 #2 게고이 소가 저 그 요즘은 탁 수정으로 허는디이 옛날은 새끼를 베젠 허민이 암내를 허면은 아이고 수놈이 그 암소만 좇으멍 지랄을 허고 그렇게 뒤편은.

104001 @ 아, 뭐 할 때 되면은.

104001 #2 으. 그렇게 우리 그건 세상 살아서.

107003 @ 저 먹을 거 잊어서 보리 다 익기도 전어 비어 왕.

107003 #1 그렇주게.

107003 @ 밥도 해낫수과?

107003 #2 그거는 우리는.

107003 #1 그런 집도 잊었주.

107003 #2 우리는 허지 안허고 우리 쪼금 전에. 너무 굶을 지경이 되니까 보리가 여물은 들고 익지 안허니까 그 놈을 비어다가 고고리를, 고고리를 모가지로 툥아서 방에에 뺏으면 그 쓸물이 나온다 허여. 나오민 그 물을 줍지라서 솟디냥 딸리면 청묵 거튼 거 나오지. 그 보리쓸 언저는 청묵 거튼 거.

107003 #1 오죽 먹을 거 없었으면.

107003 #2 우리는 딱 그 세계는 지나고 그 세계는 지나서 저 그렇게 헤가난 우리 세계 뒤편 육지서 밀채도 오고 밀채도 사 먹었지. 줍진 건 값 더 주고 훑은 건 덜 주고.

107003 @ 음.

107003 #2 겐디 옛날 어른은 그만헌 것도 잊이니까 보리 고고리를 뺏아서 물헤서 췌 먹고. 그거를 쭈다가 보면 난 들은 말인데 청묵으로 안 먹으니까 쭈다가 보면 녹물 같은 거 녹물도이 옛날 드룻녹물 행 먹었저, 갯녹물.

107003 @ 그지예, 갯녹물.

107003 #2 드르에 난 거.

107003 #1 갯녹물이 아니주.

107003 #2 으, 드룻녹물.

107003 #1 갯녹물을 독해가지고.

107003 #2 드룻녹물이라고 것도 쓰.

107003 @ 아, 갯녹물이랑 드룻녹물이랑 달라?

107003 #1 어.

107003 #2 맵지 안 해도 것도 써. 켜디 그 녹물을 주로 먹었어. 그러 해다가 그런 수세 많이 놓고 또 이제 돈 안 주니까 옛날 어른덜 풍부하게 행 먹으 건 고사리. 고사리는 자기 먹을 거베끼 안 해 오니까 흔 짐씩. 나도 우리 어머니랑 나 두린 때 ㄴ짜 날 도랑 가민 잠깐 시간에 우리 어머니가 나 질 거 우리 어머니 질 거 허 드라고. 그런 거.

107003 #1 그때는 개간 안 헌 맛이 만허니까게.

107003 #2 그 고사리 해다가 삶양 요즘은 막 그 늘고사리를 유행으로 먹어도 그때는 그거 늘고사리 먹을 건 아니고 삶양 물류왕 따시 삶양이 썰어서 지저냥. 그것 솟디 놓고 가루 흥쌀 카 노민 육개장식인디 거 막 돼주게. 밥 안 먹어도 웰 정도. 그런 거 허영 주로 먹고 벨거. 빼다귀.

107003 #1 감저, 고구마.

107003 @ 예 빼떼기. 말린 거, 말린 거예?

107003 #2 빼따귀 말린 거를.

107003 #1 방에 쩌 가지고.

107003 @ 어무니 빼따귀?

107003 #2 으. 감저 빼떼기

107003 #1 여긴 빼떼기.

107003 @ 빼떼기.

107003 #2 감저 빼떼기를 막 물류와서 물ㄴ레에 가서 막 끓면은 그것이 ㄴ루가 나민 청 안 끓아진 건 또 그레 노민 ㄴ는 사름은 따로 잇고 치는 사름 따로 잇어. 그레 거려다 노민 청 안 끓아진 건 또 놓고 행 그걸 해다가 그 빼떼기 ㄴ루로 범벅도 허고 저배기도 허고.

107003 #1 속.

107003 #2 속 놔근에.

107034 #1 속범벅.

107034 #2 범벅.

107034 @ 음.

107034 #2 범벅, 범벅. 감저 ㄴ루해서 속범벅 그리고 끓다 끓다 보면 콩방울만 씹 노시 안 끓아진 건 무게기라고 해서 물에 킷다가 보리쫄에 서팅 밥.

107034 #1 밥 헐 때 같이 낵.

107034 #2 밥을 허민 첨 들기가 그보다 더 든 밥이 엇어나서.

107004 @ 어무니 반지기밥 알아지쿠과?

107004 #2 어게.

107004 @ 어떤 걸 반지기밥이고?

107004 #2 보리쫄 곤쫄에 섞은 거. 케난 반착씩 써끄니까 반지기밥.

107004 @ 아, 반착씩 서끄니까.

107004 #2 으.

107004 @ 막 서끄는 거 아니면 금을 갈랑?

107004 #1 아니, 아니.

107004 #2 아니, 어른이나 질루고 현 어른들은 밥 허는 게 공상시럽게 보리쌀밥 받은 뉘면은 반 쉼 후제사 곤쌀을 씻경 영 혼 쉼더레 보리쌀을 밀러덩 그 곤쌀을 노면 밥 혼 사발은 그대로 막 젓어불지 안허면 거렁 어른나시 놓고 또 혼쌀 어질어 질현 거 보리쌀에 서꺼불고. 경 그것이 그추룩도 행 먹고 또 그대로 팍 그자 보리쌀에 서경 반지기로도 허고.

107004 @ 그민 저거 서경 헐 때 말고 영 나뉘헐 때는 보리밥을 먼저헿당 나중 에 쌀을 놓는 거.

107004 #1 보리쌀이 잘 안 익으니까.

107004 #2 으. 보리쌀은 익기가 힘드니까. 절반 현 후에.

107004 @ 아, 반 정도 끓인 후에 그 위에 곤쌀 낱 허는구나예.

107004 #2 그리고 그러난 잔치 때에도 보리쌀을 먼저 삶아서 딱 퍼 낫다가 따 시 곤쌀 씻어 놓고 그 보리쌀에 서경 밥을 허는 거주.

107004 @ 음.

107004 #2 보리쌀이 익기가 힘들어.

107005 @ 곤밥은 언제 먹어젿수과?

107005 #1 제서.

107005 @ 제사 때예.

107005 #2 제사 때 해난에 밀팝이 맛 존 것이 이 잘 살지 못허고 종손이나 뉘 면은 제 먹으레 얻어 먹젠 막 하영 가면 곤밥으로만 다 먹을 수도 엿어. 잘 살지 못허는 종손집인.

107005 @ 아.

107005 #2 밀팝해서 받은 밀팝으로 거리고 우터레 곤밥 낱 곤밥추룩.

107005 @ 하하.

107005 #2 경도 혜영도 먹고 또 어른덜 나시 곤밥으로 주고.

107006 @ 밀팝은 아까 ㄹ랑조로 헿던 거예?

107006 #1 ㄹ랑조.

107006 @ 어.

107006 #2 감저 옛날도 노니까.

107006 #1 겐데 우리 막 역은 후제는 개량이 뉘서.

107006 #2 조팝을 안 허고. 우리 역은 후젠 부루 조팝에 감절 낱 헿어. 감저. 감저, 깍두기보단 좀 훑게 썰어가지고 씻어서 막 혜영게 벳경 둠박둠박 수제비보다 혼쌀 좀 크게 혜영 그 감저를 놔서 팍 와썩 쉼면은 좁쌀을 낱 밥을 허민 밥 다허민 감저가 익어 먹기 좋아.

107006 @ 감저를 먼저 낱?

107006 #2 으.

107006 #1 기주께.
107006 @ 감저 낱 나중예 좁쌀 놓는 거라?
107006 #2 으.
107006 #1 좁쌀은, 조팍은 금방 돼니까.
107006 #2 제일 곡식 중에 믰물이 빨리 물에만 노민 익고. 믰물은 나서 자라서 익어서 추수허는 시기가 쫄른가 믰물은 썸만 허민 음식이 돼고 그 다음은 좁쌀. 피쌀, 좁쌀.
107006 #1 조팍만 헐 땀 물 낱 물이 막 쁘면는 그 때 좁쌀 놓는 거지.
107006 #2 으. 쁘사 좁쌀 넣지.
107006 @ 아, 조팍 만들 때 경험니까?
107006 #2 으.
107006 @ 아 조팍 만들 때 경험니까? 물 끓을 때 좁쌀을 넣는 거?
107006 #2 어. 찬물, 찬물에 안 놔.
107006 @ 아, 찬물에 안 놔.
107006 #2 으.
107006 @ 하하하.
107006 #2 물 쁘여사.
107007 @ 쁘팍은마씨?
107007 #2 어?
107007 @ 쁘팍
107007 #1 것사 쁘 솥양.
107007 #2 쁘을 솥양다가.
107007 @ 솥양다가.
107007 #1 주로 잔치 때.
107007 #2 잔치 때나 아무 때나 원 쁘팍을 헐 때는 쁘을 솥양 물삭허지 안 허 게 솥양 딱 놔 뒫다가 밥 헐 때는 ㄴ치 썬에 영허민 밥이 되는 거.
107007 #1 우리 두린 때 영 보민 잔치 때나 아니면은 영장 때 주로 밥 출려 가 덴 허주. 그거 잘 허는 걸로. 쁘팍은 잘 허는 거로.
107007 @ 아 쁘팍은 잘 차리는 거라예. 그민 아까 피팍이 막 맛 좋은 거렌.
107008 #2 맛 좋아도 그건 아주 쁘쁘묵은 때에 우리보단 앞시대에이.
107008 @ 아.
107008 #1 뉘 험 후제도.
107008 @ 예.
107008 #1 이 저 송당 그런 데는 피팍을 헤 먹엇지. 저 웃드르는.
107008 #2 으, 그런 데는. 그.
107008 #1 여기도 수망리나.
107008 #2 그 피허고 ㄴ랑조베끼 안 돼니까.

107008 @ 아, 농사가?

107008 #2 으, 안 돼니까 헐 수 엇이.

107008 #1 목산이라고 허거든 목산.

107008 @ 으.

107008 #1 궂은 산디허고 메밀베끼 잘 안 돼니까. 조가 잘 안 돼니까 저 피를 한다고.

107008 #2 피를 갈면 그렇게 힘들어도.

107008 #1 겐디 그거 우리 거, 사람 먹을 거 헤 두고 나머지는 소나 말 먹이고.

107008 @ 피밥 손이 많이 가도 맛있는 거렌 허지 안헐수과?

107008 #2 어.

107008 @ 게난 그 후에도 맛있으난 헤 먹었을 거 같은데.

103066 #2 게난 이레이.

103066 #1 수확이 잘 안나고 힘이 드니까.

103066 #2 이레이 이 휘곽더레는 저 아까 말헌 그런 송당더레이.

103066 #1 요 한 십여년 전까지만 헤도 목초용으로 피 재배를 헐어.

103066 #2 득리, 득리 송당, 도리 송당 그런더레만 그런 건 주로 헐어.

107009 @ 어무니 감저 밥은마씨?

107009 #2 게메 감저밥 아까 감저를 수제비만씩, 요만씩 감저를 벌러가지고, 또 벌른 후에도 혼 번 싹영 요만씩 헌 거 헤영 솟디 놔근에 팔팔 끌리민 그 다음은 좁쌀을 노면 감저밥 돼주.

107009 #1 것도 늘렁 먹을라고.

107009 @ 아.

107009 #1 먹을 게 없으니까.

107009 @ 감저에 좁쌀 놔근에.

107009 #2 잘 사는 사름은 그거 벨미로나 혼 번씩 허지 안 헤영 쓸로만 행 먹 곡 못 사는 사름은 감저에 좁쌀 쪼그만 놔근에 밥 퍼낭 보면은 사발에 거자 감자라. 사름 사는 것에 따라.

107010 @ 무밥, 무밥은?

107010 #2 무밥은 아무나 안 허는디, 무는 밥을 헤 보니까, 우리도 밥을 헤 봐 신디 것도 무우채가, 무는 채 썰어야 밥을 헤이.

107010 @ 채 썰어가지고?

107010 #2 으. 무채가 절반 익어서 이제, 조밥에 잘 안 돼더라고. 보리쫄에 보리쫄에 거 맞춰서 낱 허민 무밥은 허민 암만 물을 맞게 헤도 물이 이서이.

107010 @ 물이 많아, 무에 물.

107010 #2 으. 밥에 물기가 이서이. 맛은 배고프니까, 이제 먹으면 어떻사 헐티 배고프니까 먹어도 봤는데 맛은 있는데 물기가 있더라고.

107010 #1 겐디 이쪽으로는 옛날엔 무가 잘 안 뻬거든. 여기서 무우 할라면 저

수망리나 저 신예리 가서 사 와서 그러니까 무우가 힘들었주.

107010 #2 아주 못 살 때는 우리는 안해 봤주만은 우리보단 조금 전이는 톨, 톨 밥은 해 낫다고 해.

107011 @ 톨밥, 톨밥?

107011 #2 으 톨. 거 톨이라, 톨. 톨이난 톨은 아주 밥허젠 허민 깨끗이 헤사. 그걸 비여다가 파란케 돼민 파란 게 곱지. 게민 물에 한참 담드민 찻던 게 다 우려냥 그건 기자 먹을 때도 다 우려나야 먹는다 우려나면 솟디 놔서 쓸에는 안 돼여. 쪼끔 흐쌀 건도 인척냥 좀 익여야. 톨도이 바당에 딸라서 요 바당, 저 바당 막 부드러운 바당이 있고 아이고 썰영 못 먹는 바당이 이서. 우리도 요 앞이 건 막 썰고 이디 안여라 허는 디 건 입에 노민 수왕수왕수왕 그렇게 허고. 톨에 딸라서 것도 밥도 맞추앙 경 허는 거.

107011 @ 게민 톨 먼저 익히당.

107011 #2 으.

107011 @ 갹 무슨 쓸 낱 험니까?

107011 #2 으?

107011 @ 무슨 쓸 낱 험니까?

107011 #2 좁쌀.

107011 @ 아 좁쌀. 보리쌀도 놓고. 톨 철이 지금 보리철광 톨철이 맞아. 톨도 이제 비는 거. 보리는 이제 쪼끔 시민 장만허는 거. 겨난 그 시기가 그러난 보리쌀에도 허고 좁쌀에도 허고 경. 나가 어른덜 행 먹어난 말만 들어났주 나 손으론 톨 밥은 안 해 봐서.

107012 @ 그럼 이 동네 패밥도 해낫수과, 패밥? 밥에 패 논 거?

107012 #2 아니. 패는 우리도 하영 해 봤는데 메여다가 믈물꺾루에 국 끌려 먹는 것이 그렇게 맛 좋아. 저 올케 패는 저.

107012 #1 여기에서 패밥이엔 현 거 엇어.

107013 @ 어서예. 어무니 이제 국 종류 말씀해 줘서. 국 종류에 뭐, 뭐 잇수과?

107013 #2 국은 무시거라게 웬장국이주게.

107013 @ 웬장국.

107013 #2 고기국, 소고기국.

107013 @ 소고기국.

107013 #2 돼지고기국.

107013 @ 돼지고기국.

107013 #2 바다고기국.

107013 @ 또.

107013 #2 겨허고.

107013 @ 호박잎국?

107013 #2 어.

107013 #1 호박잎국.
107013 @ 그리고
107013 #2 호박국도 잇고게.
107013 @ 호박국도 잇고.
107013 #2 무수국.
107013 @ 음, 무수국.
107013 #2 으.
107013 @ 한계.
107013 #2 배추국.
107013 #1 그거주게 무신.
107014 @ 그럼 어 느물국은 어떻 끓이는지?
107014 #2 느물국은게 웬장에 허젠 허민 웬장 거려나근에 팔팔 끓리민 느물 씻엇던 거 낱 익으민 웬장국.
107014 @ 물 끓리당 웬장 풀어 놓는 거?
107014 #2 아니, 웬장 풀어 낱 물 팔팔 끓리민 느물 낱 익으민 것이 느물국.
107015 @ 콩느물국은?
107015 #2 콩느물은 웬장만 맞추면 언 때 놔도 좋곡 끓여 놔도 좋곡.
107015 @ 예. 웬장만 맞추민.
107016 #2 어. 무우도 그렇게. 무우도 웬장만 근만 뒤면 풀어놔도, 저 꿩영 놔도 좋고 언 물에 놔도 좋고.
107016 @ 근데 무우 논 거는 무우국이렌 험니까?
107016 #2 느물국. 늠뵤국. 이디사 보통 이제야 무우영 무시거영 늠뵤주게.
107016 @ 늠뵤국, 늠뵤국예. 콩국은 마씨?
107016 #2 으?
107017 @ 콩국?
107017 #2 콩국은 콩국허젠 허민 막 콩ㄴ루를 물에 카서 물을 이젠 놓양 꿩여 가민 그 콩ㄴ루 칸 걸 낱 근 허진 말양 막 이제 오래 익을만이 젓영 거자 콩ㄴ루가 익은가 싶으면 근을 허는 거라. 소금을 허면 듬발듬발 그 늠의 것이 헛당 두부거치 듬발듬발 허민, 그 근을 허면 콩ㄴ루가 모여져. 모여지민 슬째기 그자 무우를 놓던 배추를 놓던 그자 놓양 그거 익으민 콩국.
107017 @ 근을 현다 허는게 무슨 말이과?
107017 #2 어?
107017 #2 근을 허다?
107017 #1 간 맞춘다.
107017 @ 아 간을, 아 간을 맞추다.
107017 #2 으.
107018 @ 호박잎국?

107018 #2 호박잎국도 물 췌면 호박잎 씻어근에 썰엿 낵 호박잎이 익은가 싶으면 호박잎은 ㄱ루를 캡 넣어야지.

107018 @ 호박잎국은 간을 뭐로 헵니까?

107018 #2 장으로, 우린 장으로.

107018 @ 콩국은 소금으로.

107018 #2 으. 콩국은 소금으로.

107019 @ 어, 저기 몸국마씨, 몸국. 몸국이과 들망국이과?

107019 #2 들망국

107019 @ 들망국은 기자 물 찬 때고 췌엿이고 낵 들망만 익어사. 것도이 들망이 좋은 들망은 빨리 익고 경 아니헌 들망은 들망만 익으면 그 고기국물에 낵던, 들망국은 배랑 여깃사람은 췌기 슴아난 물 아니민 아니 끓인다.

107019 #1 주로 잔치 때나 영장 때나 대소상 때 소, 돼지 잡아가지고는 고기를 많이 삶은다 이거지 그것에.

107019 #2 그 물에나베긴. 그것에 헤엿, 하엿 안 허엿 살짝 ㄱ물ㄱ루 아저뎡기민 풀풀허주게. 경헌 건 들망국.

107019 @ 들망국. 기민 생선국은 어떻 끓입니까, 생선국?

107020 #2 생선국은 저 물 언 때 뇌불민 카진덴 물 국 끓일만이 양을 뇌근에 물 팔팔 끌리민 생선 논 다음에 들썹들썹 허지 말앙 불 느리와근에 생선이 거자 익지 않을 때라도 ㄱ을 허는 거라.

107020 @ 뭘로 간을 해?

107020 #2 우린 장으로 현다만은 장 반, 소금 반허고. 옛날에는 경 장으로만 헵소금 경 먹을 걸로 알지 안헤라. 장으로 헤근에 고기가 그자 익은 성싶으면 메역을 놓던 무우를 놓던 자기 놓고픈 거 놓는 거난. 메역 좋아라 허는 사람은 메역 늣뻘 좋아라 허는 사람은 늣뻘 경 헵.

107021 @ 메역국은?

107021 #2 메역국은 저 물 췌나 안 췌나 그자 놓아근에 장 ㄱ 맞추고 헤노민 메역국이구.

107022 @ 냉국?

107022 #2 냉국은 ㄱ물 슴은 거든 메역이나 그자 헤엿 장만 놓아근에 그자 슴지 안헤엿 ㄱ만 맞추민 돼는 거난.

107022 @ 하하.

107022 #1 그주게 그자 췌 비스름헌 거난게.

107022 @ 냉국에 뭘뭘 썰어뇌마씨?

107022 #1 아이구 여기 사람은이 옛날말로 기자 새우리, 새우리 췌장에 뇌근에.

107022 @ 새우리 췌장에 낵.

107022 #2 새우리 췌장에 뇌근에 췌장 풀어뇌근에게 저 메역이라도 장에 헤엿문작문작 헤근에 물 뇌근에 짜민 물 더 놓고 헤엿 싱겨우민 장 더 뇌근에 그자 그

거 근 맞추민 냉국이주게.

107023 @ 저 성계국은?

107023 #2 성계국은 저, 요새 성계국 말도 그디 들어. 귀국이라 귀국.

107023 @ 아, 다시 한 번 어무니. 귀국?

107023 #2 으.

107023 @ 성계 귀렌 험니까, 귀?

107023 #2 귀, 귀.

107023 @ 귀 아. 귀국?

107023 #2 으. 그건 뭐 건 익을 일도 엇일 거 그자 퀘민 말거난게.

107023 @ 계민 물 끌리멍?

107023 #2 물 끌리멍 경 팍 허지 말양 슬허게 성계 놔근에 퀘면은 메역 놔근에 근 허민 웨는 거.

107023 @ 메역보다 성계 먼저 놔?

107023 #2 어?

107023 @ 성계를 먼저 놔?

107023 #2 어. 성계를 먼저 놔. 성계 낱 그자 퀘거든에, 성계 딸리는 사름은 딸리는데 성계 너미 딸려도 국 맛 엇고. 그자 퀘민 메역 놔근에 그자 근허민 웨는 거.

107023 @ 보말국?

107023 #2 보말국은 그 보말을 물에 낱 문작문작 해근에 그 보말 더가리는 건 쳐이 건져더근에 그 더가리나 각이나 ㄴ찌 놔근에 막 삶아 불민 더가리가 쨌다고 해가지고 질긴다고 해가지고.

107023 #1 제주도엔 성계도 여기선 귀엔 헤여 귀.

107023 #2 귀주게.

107023 @ 몰란 몰란.

107023 #1 여기선 귀엔 헤여. 성계국을.

107023 #2 계난 그걸 그 문두테긴 물을 놔근에.

107023 #1 말똥성겐 여기선 숨이엔 허고.

107023 @ 음.

107023 #2 문두테긴 걸 낱 근 맞추고 막 국 웨다 싶으면 메역도 놓고 그자 보말 데가리도 놓고 허는 거주게.

107023 @ 아까 패는 국 끓여 먹는덴 헛잖아에.

107023 #2 넵패.

107023 @ 넵패. 으.

107023 #1 여기서 패ㄴ란 넵패렌 헤여.

107023 #2 넵패는 메엿다가 그대로도 안 웨고 바당 바다에서 요만헌 돌 이시민 돌로 복작 그놈을 두드렁 ㄴ얏 물에 씻영 오랑, ㄴ얏 씻영 오랑 집이 오라근에 오늘 헤 오라시민 이제냐 솟디 놔서 오래 안 삶아도 보글보글 물 하영 안 낱 저 그거

그자 무시거 혈만이 국으로 안 허는 거니까.

107023 #2 겐 그놈을 얼추 하영 허지 말앙 흐쓸 솥당 두께 폭 단아근에 이제낙 밤새 내불어. 널 아척이 일어낭 보민 문탁허게 익엇주게. 그거 농곡 장 농곡 물 농곡 헤영 근만 뒤면 믱물궤루 흐쓸 카 노면 어찌 맛이 좋은디 고기국이영 안 바꾸게 맛이 좋아.

107023 @ 아하.

107023 #2 녁패국 좋아라 안 허는 사름이 엇어. 녁패국.

107023 #1 근디 그쪽으로 먹는다 여기 안 먹는 게 있어. 가시리엔 허는다 가시린 여기선 안 먹어.

107023 #2 안 먹어.

107023 #1 여기선 풀만.

107023 @ 아.

107023 #1 방 브르는 데나 문 브르는 데 풀만 허지 여기선 거 먹지 안 헤.

107023 #2 그 가시리는 맹주 멜 때, 미녕 멜 때, 방 블를 때. 가시리풀. 여기선 가시리 풀베긴 안 헤여.

107023 @ 그디 아까 녁패가 막 썬 것과?

107023 #1 빠닥빠닥.

107023 @ 빠닥빠닥허난 돌로 모셴 거?

107023 #2 으. 경 세지도 안 헤도 원 어른덜이 그거 허는 방법이 그거란게.

107023 @ 음. 가시리국은 안 먹고예.

107023 #1 여기선 가시린 먹을 걸로 안 허여.

107023 @ 프레국도 끓여 먹읍니까? 프레.

107023 #1 프레, 여긴 프레가 엇어.

107023 #2 프레 엇어.

107023 @ 프레 엇어예. 물혜는 어떻 만듭니까?

107023 #2 으?

107023 @ 물혜. 자리 물혜힙니까?

107023 #1 어 자리물혜나 어랭이 물혜나.

107023 @ 물혜는 어떻 힙니까?

107023 #2 물혜 어떻게. 그거 휘혈 정도로 알팍허게 가지 엇게 잘 썰어 노면. 양념.

107023 #1 자리헤다가 비닐 거시리고 가시 전부 떼어두곡 헨 즘질게 썰어. 거 썰어 놓고 뒤 오이나 뒤 놓고 싶으면 놓고 보통 여기서는 잘 안 먹는데 새우리.

107023 @ 새우리.

107023 #1 으. 허고 재피.

107023 @ 재피.

107023 #1 허고 웬장.

107023 #2 자리웁 원 그거주게.
107023 #1 식초.
107023 @ 음.
107023 #1 식초.
107023 #2 경헌 막 먹을려면 춤지름덜 노면서 먹엄주게.

죽류

107024 @ 음. 어머니 이제는 죽 종류우다예, 죽 종류예.
107024 #2 아이고 죽은 못 썬는 것이 엇이 하도 하부난 죽은 무시거렌 곶을 거니. 죽 못 썬는 게 시냐?
107024 @ 다 죽 끓영 먹어. 그럼 헉나 씹 물어보쿠다예. 흰죽은 어뎡 끓입니까?
107025 #2 흰죽은 간 안 헉 것이 흰죽이주게.
107025 @ 쌀은?
107025 #1 곤쌀.
107025 @ 곤쌀로 헤가지고예.
107025 #1 아이고 좁쌀로도 죽은 썬고 믱물쌀로도 썬는데, 흰죽이라는 거는 기자 물에 곤쌀만 낱 풀여정 알맞다 허민 원 곤 안 허는 거난.
107026 @ 간 안 허는 거예. 조죽?
107026 #2 조죽은, 흰죽 허민 아픈 사름이나 먹주. 좁쌀은 죽을 쓸라면 옛날에 국죽이라고 거릴 놈근에 곤을 헤야 허여. 좁쌀은 아픈 사름은 그대로, 조 미음이라고 그대로 먹는데.
107026 @ 어머니 조죽, 조죽?
107026 #2 조죽.
107026 @ 물 막 꿰는디 좁쌀 조금 넣는 거?
107026 #2 원 꿰영 나도 좋고, 밥은 꿰영 놓는디 죽은 꿰영 나도 좋곡 기자 놈도 좋고 죽만 꿰민 말 거난. 경헌디 그건.
107026 #1 여기서는 놈물을 낱.
107026 #2 놈물을 낱 국죽으로 헤야주. 흰죽은 미음 꿰불어 아픈 사름이.
107026 #1 그저 놈물 노난에 국죽.
107026 @ 아, 놈물 노난에.
107026 #2 놈물을 국에 놓는 건데 거기 노니까 국죽.
107026 @ 조 좀 끓이당 좁쌀 낱 좀 끓이당.
107026 #1 옛날 늘평 먹을라고 경.
107026 @ 아, 늘평 먹을려고예.
107026 #2 밥헤 먹는 거보단 이 죽 썬 먹는 것이 좁쌀이 적게 들거든.
107026 @ 게니까예. 거기에 놈물 놈근에예.
107026 #1 게 놈물 집어낱게.

107027 @ 예. 이제는 풋죽.

107027 #2 풋죽은 풋을 삶아서 이제 그 두 가지라. 껍데기를 싹해서 이제 물만 해서 쭈는 사름 잇고. 껍데기가 흐나씩 동푼이 하나씩 아니 카진 것이 잇어사 든덴 허는 사름이 잇는디 그거 물만 허는 사름은 막 문두데기당 물만 헤영 그놈을 물에 놔근에 끌리다근에 흐쉴 퀘민 쉼을 씻어 놔근에 이젠 죽만 돼민 말 거. 근만 맞추 양 양만 돼지도 안허게 알롭지도 안허게 그거 맞추이 어렵주. 그거 맞추이.

107027 @ 음.

107027 #2 게난 어떤 사름덜은 저 돼카, 돼민 찬물 노민 자르륵 현대 헤영 죽 쭈멍 옆이 물을 끌려. 경 끌리당 웹직허민 그 끌린 물을 거려 노멍 죽은 그거.

107028 @ 콩죽.

107028 #2 콩죽은 콩ㄴ루 강 곱아당 문른 차 곱아다근에 그놈을 그거 물에 조금 경 안 허영 콩ㄴ를 물에 섞으는 사름도 있고이 그렇지 안 허민 물에 좀 카서 쉼 허고 그 콩ㄴ루허고 놔근에 그자 놀카부덴 젓음만 험시민 영 먹어보민 콩죽 맛이 나주게 익으민. 경허민 근만 허는 거.

107028 @ 아, 경허민 콩ㄴ루 곱아당 허는 거과?

107028 #2 으.

107028 @ 풋죽처럼 콩 삶양 허는 게 아니고?

107028 #2 아니, 아니. 무을, 무우 농주 보통 콩죽엔. 콩죽엔 무우 놔.

107028 @ 아, 무우 놔. 쉼 놓기도 하고 아까?

107028 #2 어. 쉼 놓고.

107029 @ 으. ㄴ물죽.

107029 #2 ㄴ물죽은 두 사발 쭈고자 허민 두 사발 쉼 만이 물 놔근에 삭삭 퀘민 ㄴ물쉼 사르르허게 노민 퀘민 벌써 죽 돼베서.

107029 @ 죽 돼베서 하하. ㄴ물죽은 저도 하영 끌려낫수다.

107029 #2 으. 죽 돼베서 ㄴ물죽은. ㄴ물죽 끌리기 쉬와.

107030 @ 녹두죽?

107030 #2 녹두죽도 풋죽이나 마찬가지로 녹두 삶아가지고 또 이제 문질러서 쉼에 ㄴ치 이제 쭈민 돼는 거.

107031 @ 문질러예. 득죽

107031 #2 득죽은 득 삶아난 물에 쉼 놔서 끌리다가 이제 고기 흐쉴 지저놔근에 허민 그것이 득죽이주 무시거라.

107031 @ 쉼은 그냥 곤쉼 놓니까?

107031 #2 곤쉼게.

107032 @ 쟁이죽?

107032 #1 쟁이는 잡아다가 저 오줌 쉼운덴 허는디 안 그러면 늘렛내가 많이 나니까 물에다 바닷물에 흐 멧 시간 됴가 뒤.

107032 @ 아 됴가 뒤?

107032 #1 으, 그 쟁이를.

107032 @ 예.

107032 #1 그러면은 그 아주 노란물을 싸붙어. 그러면은 방에에 찌여근에 쟁이를. 그레가지고 물을 걸러 가지고 물만, 껌질은 내불어덩 물만 내어가지고는 것에 국을 끌리던지 죽을 쑤든지 쌀을 놔서 쑤면 돼는 거지.

107033 @ 음. 킬앗던 거 말고 자꾸 해 먹어난 죽 잇수과?

107033 #1 엇어.

107033 @ 어머니 지금 킬은 거 말앙 꿀영 먹어난 다른 죽이 잇수과?

107033 #1 벨 죽이 없었어.

범벅과 수제비

107034 @ 범벅 종류는 뭐 잇수과?

107034 #1 감저 범벅, 속 범벅.

107034 @ 감저 범벅, 속 범벅 또.

107034 #1 그건 거주 뭐 별 다른 거 셔.

107034 @ 감저 범벅해 먹고 속 범벅 해 먹고예.

107034 #2 으.

107034 @ 범벅할 때는 믰물ㄱ루 낫던 거?

107034 #2 으, 옛날에는 감저ㄱ루 낫 헛주게. 감저ㄱ루 낫 허는다.

107034 #1 감저ㄱ루 낫 헛 것이. 거는 빼떼기. 그거 가루헛 떡도 해 먹고.

107034 @ 예.

107034 #2 믰물ㄱ루도 헛고.

107034 @ 떡도 해 먹고.

107034 #1 친떡도 해 먹고.

107035 @ 수제비 종류?

107035 #1 저베기.

107035 #2 저베기주 수제비라.

107035 #1 여기선 저베기. 수제비가 아니라.

107035 @ 여기선 저베기예?

107035 #2 믰물저베기, 밀저베기.

107035 @ 아, 믰물저베기, 밀저베기. 아까 밀채는 여기서 농서 짓는 게 아니라 사 오는 거?

107035 #2 밀채는 여기 굶엄젠 허난 육지서 오주게.

107035 @ 아, 밀저베기, 믰물저베기예?

107035 #2 여기선 밀 갈긴 가는디 경 하영 못 허여. 저딧 밀보단 즐고. 방울이.

107035 @ 음. 저베기. 접아 놓는 건 저베기예.

107035 #1 아, 조범벅도, 좁쌀 ㄱ루로도 조범벅도 해 먹엇주.

107035 #2 손으로 툫아 놓주게.
107035 @ 손으로 잡아 논는 거 저베기라예. 칼로 썰어 놓는 건?
107036 #1, 2 칼저베기.
107036 @ 아, 그거 칼국수엔 안 해?
107036 #1 아니, 여긴 칼저베기.
107036 @ 칼저베기?
107036 #2 으.

김치

107037 @ 이제는 저기 밥혀고 죽해서난예 김치 만들게마씨?
107037 #2 김친 어제도 안 골아냐게.
107037 @ 김치 종류가 많아예?
107037 #1 옛날에 여기도 짐치엔 해서 김치 아니라.
107037 #2 짐치. 또 아주 옛날 할망은 징뀌.
107037 @ 아, 징뀌.
107037 #2 우리 시대 나난 짐치지 할망덜 징뀌야.
107037 @ 짐치 종류 어무니 생각나는 거 뭐 잇수과?
107037 #2 무시게라 녹물베끼 짐치 더 허는 거라?
107037 @ 녹물.
107037 #1 이딘 늠베짐치 허고 배추짐치.
107038 @ 어. 배추짐치예. 배추짐치는 어떻 만들엇수과?
107038 #2 거 어떻 해게. 녹물 퍼덕이 닳은 거 함덕 강 안 사오민 녹물도 속 안 찬 거 해영 저 우린 바다 브디난 바당에 강 물 질어당 큰큰헌 항아리에 소금 쪼금 해영 돌 짝 질들황 흥 메칠 놆 두민 죽어시민 거 건져당 대바구니에 지영 가근에 바다에 강 잔물에 씻어당 놆근에 물 빠지민 고치궤루 헤 온 거 흥뽀 놓고 뽀뽀 흥 뽀 놓곡 마늘 흥썰 놓고. 생강이난 어디 셔. 여기 생강 엇어. 장도 그추록 엇고.
107038 @ 경허난 배추 씻어 놓고 양념 따로 헌 거 아니예?
107038 #1 따로 허주게.
107038 #2 따로 흥썰 곳이나 조나 만들엇당 닝기는 채 헛주게.
107039 @ 닝기는 채 열무짐치는 안헛수과?
107039 #2 열무 이제사 낫주게.
107039 @ 이제 어떻 만듭니까?
107039 #1 열무난 지는 요 근래.
107039 @ 열무짐치는 어떻 만들엇수과?
107039 #2 늠은 어떻 만들엄신지 몰르고 난 그자 우리대로, 우리가 열무 갈앗당 허민 그자.
107039 @ 아, 집이서 갈앙 헤 먹엇구나.

107039 #2 우린 갈양. 저 집이서 간 거난 저 소금 절엿당 저 주로 짓갈 놓고 헤 근에 어떤 민직거렁.

107039 @ 고춧가루에.

107039 #2 으, 마늘에.

107039 @ 마늘, 고춧가루에 물 딸릴 거 아니? 멸치물 딸려.

107039 #2 물 좀 딸럿당.

107039 @ 뭐, 뭐 냥 물 딸렘수과? 멸치에.

107039 #2 멸치에 뭐 냥 물 딸려, 잘 허고자민 다시다나 흐썰 냥 딸리고 경 안 허민 거 딸럿당 딸젓허고 마늘허고 그거 허고 흐썰 문경 놔두민.

107039 @ 아.

107039 #2 무시거, 경 나 헐 중도 모르고.

107038 #1 열무나 알타리는 요 근래 나온 거고 나가 그걸 헤 봐서 아는데 처음 에는 잘 못 풀앗다고. 여기 함덕 배추, 함덕 배추 해서 오는데 반절구 배추. 원래 그게 시조니까. 절구 배추가 중국에서 온 거주게. 옛날 함덕 배추, 함덕 배추 허면 것도 돈 있는 사름덜이 사 먹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무수 종류, 드룻누물이렌 헤가지 고는 보리밭에 나는, 지금 날 철이라. 계민 여기도 배추, 배치엔 헤 가지고는.

107038 #2 배치.

107038 @ 배치김치 그럼?

107038 #2 어, 배치김치. 배치김치가 어디 셔.

107038 @ 맞아, 배치김치.

107038 #2 배치김치.

107038 @ 물김치 안 헤낫수과?

107038 #1 무사 안 헤. 무수 나니까 허주게.

107040 @ 어무니 물김치.

107040 #2 물김치 무신 다른 거라게. 무수 그냥 알파파하게 썰어근에 띠물 쪼금 허고 근만 헤근에 생강이나 마늘이나 쪼금 놓곡 놔 부민 좀 시부룻허민 물김치엔 허멍 먹엇주.

107040 @ 띠물, 띠물?

107040 #2 띠물. 쌀 씻어난 물.

107040 @ 아, 쌀 씻어난 물. 쌀 씻어난 띠물에.

107040 #2 초불 거 말양 두 불 거 헤근에. 좀 노민 뽀이룻 허민.

107040 @ 초불 건 데껴불고?

107040 #2 어.

107041 @ 동지김치도 잇어낫수과?

107041 #2 동지김치 잇주게.

107041 @ 동지김치는?

107041 #2 누물이 이만이 동 사면 그 동 찰라다가 대 몽클락 허민 칼로 대 흐

썰 오려근에 소금 헛다근에 양념허민 그계 동지집치주.

107041 @ 물집치?

107041 #2 으.

107042 #1 거, 늑뻘집치.

107042 @ 늑뻘집치예. 물집치가. 파집치도 만들어 봅서.

107043 #1 파집치 요 근래에사. 건 우리 마나님께서 잘 헤여.

107043 #2 파집치는 파는 그것은 마늘 종내기라.

107043 #1 여기선 마농, 마농 헤여.

107043 #2 마늘 안 놔, 안 노난 파집치 허긴 쉬워. 파 씻어근에 고추ㄴ루 허고 다시다나 흐썰 놓고자 허민 낱 저 대사니 무시거 안 노난 주로 멜젓이 위주라. 파 집치는.

107043 @ 아, 멜젓이 위주라. 어쨌든 파집치 헐 때도 고추ㄴ루 양념은 다 들어 가지예.

107043 #2 으.

107043 @ 별도로 행예.

107043 #2 으. 벨도로 험주.

107044 @ 달래?

107044 #1 드룻마농.

107044 @ 드룻마농.

107044 #2 허는 사름은 헤도 난 안 헤여.

107044 #1 쨍마농이엔도 헤여.

107044 #2 쨍마농은 달래가 훤은 것이 쨍만농이주.

107044 @ 드룻마농 집치.

107044 #2 것도 막 행 먹는 사름은 행 먹어. 드룻마농도 난 안 행 먹어도 그자 그것도 거 헛다와근에 양념 무치민 그자 거 웨는 거주.

107044 @ 양념은 똑같이 무치는 거예?

107044 #2 으.

107045 @ 저기 갓집치도 헛낫수과?

107045 #1 아니, 여긴 갓이 엇어.

107045 #2 아니, 놨은 허는디, 허는 사름은 헤도 난 아니 헤.

107046 @ 저기 새우리 집치

107046 #2 새우리도 거 달래나 비슷, 같은 거 양념.

107046 @ 양념이?

107046 #2 어, 거 쪽과허고 새우리허고 달랜 주로 멜젓도 아져 텅겨사고 그자 마늘만 안 허는 거.

107046 @ 아, 다른 거랑 양념할 때 차이점이 있다면 마늘 안 놓고.

107046 #2 어, 그건 마늘 종류난 마늘 안 허는 거.

107046 @ 마늘 안 넣고 멜컷 더 놓는 거?

107046 #2 으, 몰라 놨은 어땡사 허는디 난 그추록헨 헤신디.

107046 @ 계난, 저기 김치허젠 멜컷 하영 담가뒤야 허쿠다예?

107046 #2 담그는 사름은 담그는 디 담그지 았은 사름은 사 았주게.

젓갈

107048 @ 어무니 어쨌든 담가나지 안 헨예. 젓갈 종류는 뭐, 뭐 담가났수과?

107048 #2 주로 멜컷, 자리젓베끼 난 뭐.

107048 @ 멜컷, 자리젓예. 아감젓은 안 담가났수과?

107048 #1 에이구, 여기 아가미 엇주게.

107048 @ 엇어. 게젓 아감젓?

107048 #2 아니.

107048 #1 게젓도 안 허고.

107049 @ 아, 게젓도 안 허고예. 그럼 자리젓은 어땡 담궜수과?

107049 #2 자리젓은 담가도 난 궂영 먹지도 못헤도. 요즘 허는 사름사 사대일로 소금허고이.

107049 @ 뭐가?

107049 #2 사키로에 소금 일키로.

107049 @ 아. 뭐가 자리 사키로에.

107049 #2 으.

107049 @ 자리젓 담그젠 허민 어떤 자리가 좋아?

107049 #2 가운데 거. 너무 크도 안 허고 너무 족도 안 허고. 큰 거 너무 크고 족은 건 젓허당 보민 먼 녹아불고 즐아지고. 가운데 거.

107049 @ 아. 가운데 거예. 이제 담가 봅서. 자리 사 왕.

107049 #2 건디 난 손 맛이 엇어가지고 자리젓 맛 엇어. 헤보젠 안 험서.

107049 @ 계난 어무니 맛 잇든 없든 담가 봅서.

107050 #2 멜컷은 자리젓보단 소금을 많이 헤야 허고.

107050 @ 음, 그것은 멧 대 멧 그거는?

107050 #2 멧 대 멧은 아니고. 그것은 헤 보지 안 허고 멜에 다 소금인 거 님아 사 헤여. 멜젓은.

107050 @ 아, 소금 허영허게 험신게.

107050 #2 으, 경허난 멜도 다 녹곡 경허도.

107050 @ 계난 담가 봅서게. 어땡 담글 것과?

107050 #2 어땡 담가게 어디셔게. 자릴 젓허는 건 집이 오랑 씻지 안헤사 웨여.

107050 @ 아.

107050 #2 그 어떤 사름은 바다에 배 들어왕 사민 그디서 바닷물에 싱그주만은 여기선 씻지 말앙 다라에 놔근에 소금 멧달 낱 싹 젓어근에 향아리에 안 담는 거

라. 그대로 ㄱ만이 다라에 ㄱ만이 이걸 놔 두면 널 아척인 보민 물이 나서 근근히 주게. 근근히민 그때는 하나하나 훌훌 허멍 단지로 놔 땡 물을 딸랑 보민 비늘이랑 그 추접헌 거 다 이 창에 잇어이. 그런 건 버려베딩 그때 단지에 놔 두는 거.

107050 @ 그럼 흐룻밤은 다라에서 재기는 거구나 그 다음날 단지에 담고예?

107050 #2 으. 경 곳인 물 빠불라고 경허는 거. 그자 무턱대고 담양 향아리에 놔 부는 사름도 잇고 여러 가지라.

107050 @ 아, 그럼 뭘엇은?

107050 #2 뭘엇은 그대로 소금 버무리멍 향아리에 딱 담양 두는 거.

107050 @ 계민, 아까 자리는 씻지 말렌 햇잖아예 뭘엇은?

107050 #2 아니, 뭘도 안 씻어. 맛 없넨 안 씻어.

107050 @ 아.

장아찌와 회

107055 @ 지시 종류가 뭐가 잇수과? 마농지시도 잇고.

107055 #2 옛날엔, 요즘 오라사 마농지시 잇주 옛날엔 아주 옛날엔 마농 잇어서. 반치지.

107055 @ 반치지?

107055 #2 거 사람 울타리에 바나나ㄱ튼 거 잇잖아 떡 바나나낭광 꼭 같은 거. 것이 일름이 반치라. 반치를 집 울타리에 이만큼 슬진 거 시민 호미로도 못 잘랑 톱으로 잘라다가 요만씩 간격 낱 즐라서.

107055 @ 반친 길이가 얼마나 헤?

107055 #2 반친 저 문 높이보다 큰 것도 잇고 죽은 것도 잇고.

107055 @ 아, 그냥 나무였구나예, 낭예.

107055 #2 으, 바나나 나무주게 영 그림에 봐도. 멩기당 봐봐 울타리에 잇는 거.

107055 @ 예.

107055 #2 그것을 요만이 잘라서 겁덕거리, 밖에, 베꼈디 건 데껴덩 안에 것만 장 돕는 디 같이 들이쳐 메주에.

107055 @ 아, 따로 담갔던 거 아니고.

107055 #2 아니, 장 돕는 디 들이쳐 나누면 그 높이 무삭허게 익는 디, 이루 말허민 짠 것을 말허민 말 할 수가 엇지. 장 돕는 지시 얼마나 짬 거라. 그렇게 게서 쪼금 건져 내영 찌지멍 밥 반찬 먹언. 그 좀 다음에덜 오래 잇어 가사 이 마늘이 나왔주. 옛날에 콤포테사니라고 쪼금씩. 콤포테사니, 콤포테사니.

107055 @ 계민, 지시 담가 먹어난 건 아까 반치지.

107056 #2 으, 그 마늘지도 지금 저 뭐이나 저 무수혜가지고 왕기리로 썰어가지고 그놈에 섞어가지고 마늘지를 허주게.

107056 @ 마농지렌 험니까 마늘지렌 험니까?

107056 #2 마농지.

107056 @ 계민, 마농지 따로 있고 콤포테사니지 따로 있고?
 107056 #2 아니, 그게 그거. 그 콤포테사니렌 해도 지를 곁을 땀 마농지.
 107056 @ 콤포테사니도 마농지예?
 107056 #2 마농지.
 107056 @ 그럼, 지 종류는 반치지, 마농지 두 개밖에 없는 거?
 107056 #2 아니, 글후제 막 오래가사, 요즘이라 가사 뭐 그거 저거, 저 양에끈도 해서 지를 헨다 뉘를 헨다 헤다 지는 나 생각엔 것베끼 안 헤 난 거 닐아.
 107056 @ 마농지 담글 때 어떻 담그는지 곁아줍서.
 107056 #2 마농지 담글 땀 요즘 오복 간장에 물에 소금 흐썰 더 낱 그거 간 맞 창 팔팔 끌여근에 그걸 그 마농 썰어서 단지 담았다가 익은 땀 비워 불민 다 익어 불고 식은 다음에 그 마늘러레 비와.
 107056 @ 아니, 옛날에 담글 때, 지금에야 오복 간장이주만은 옛날에는 장 담 간.
 107056 #2 옛날에는 집이 장.
 107056 @ 집이 장예.
 107056 #2 으.
 107056 @ 집이 장에 어떻 행?
 107056 #2 집이 장에 해도 요즘거치 담질 아니 헤. 그자 저.
 107056 @ 계난 옛날 담았던 거.
 107056 #2 조금 장물만 버물영 짬만 허민 먹엇지.
 107056 @ 양념 안 행예?
 107056 #2 예고 양념거튼 거. 양념이 무시거라. 계난 김치도 누물 죽인 것이 김 치주. 양념. 옛날사름은 경 생각이다, 뉘 마늘이다, 뉘젓이다 뉘 이거 저거 맛있는 양념을 허지를 못헨게.
 107056 @ 음.
 107038 #2 그자. 이디서도 뉘은 거리니까 뉘젓은 시난 뉘젓은 허는데. 그자 주 로 마늘 쪼금 낱고 뉘젓 낱고 고추ㄱ루 윈. 죄다 양념이 거라. 누물이라 누물거튼 거라게 이추룩 이따만이 포기 안지 안허영 여기서는 옛날에 늣뉘가 무시것도 안 뉘고 배치도 안 뉘고. 함덕 우일 가서 배출 사서. 함덕베끼 배추가 안 뉘주게. 함덕. 여기 사람말론 아이고 함덕 배추만이 크다. 함덕 강 사온 사름은 배추 닐은 걸로 헤영 먹고 그렇지 못 헨 사름은 갈앙 나두민 그런 씨가 아니니까 섭만 와사사 나명 속이 안 차. 안 차도 그놈을 캐여근에 저 바다에 강 짬물을 질어 오지. 저 허벅헤 서, 요즘 민속촌에 있는 허벅. 질어다가 소금 흐썰 더 낱 걸. 누물만 여기 요즘 누 물 오래 죽이민 누물만 낱 헨뉘 해도 향아리에 거 짬물 질어당 소금 흐썰 낱고 그 배추를 들이청 돌 짬 지들라서 흐 15일 ㄱ만이 두는 거라. 뉘당 것이 죽영 누리롱 헤시민 대바구니에 건정 물 안나게 이디 뉘 받앙 바당에 정 가주. 거 짬물에 또 씻 어.

107038 @ 아.

107038 #2 그 찐물에 씻엉 또 정 오랑 물 빠지민, 헌다 허는 건 고치ㄴ루허고 멜젓허고 그 마농 쪼금허고. 그거 행 경 빨경도 안 허여. 고치가 안 좋은가 웬 이제 생각해 보민, 이제 고치덜은 경 물이 곱는다 게고 불그롱헌 거 그자. 신 거 무시거 몰라 짜불고 허민 그자 나중에 그자 누리롱헌 차 배추라고 여기 사름은. 난 또 경 해도 그나마 쪼금 휘설 오래 낫당 먹어도, 우리집이 그 하르방이 조곰 잇어가난 원 예를 취미 붙여 허니까 헐 먹엇주만은 이디 사름덜 배추꼴 못 봐. 내중이라 가야.

107038 @ 어머니넨 심영 먹엇구나 배추예.

107038 #2 으.

107057 @ 장아찌 종류 물어봐신디 이번엔 휘 그 휘 종류.

107057 #2 휘사 오죽 하게.

107057 @ 무신 휘 잇수과?

107057 #2 아이고 휘는 나 다 못 세켜. 웬 휘 못허는 고기가 어시니까. 원 챗차는 자리주만은.

107057 @ 자리휘.

107057 #2 자리 무신 빗게휘든, 상어휘든 휘 못허는 것이 원 엇어.

107057 @ 빗게가 뭐파?

107057 #2 겁둑 벗겨뒤근에 먹는 거. 그 빗게가 막 쥬 술이 또락전 세지.

107057 @ 생선 이름예?

107057 #2 으.

107057 @ 빗게 휘?

107057 #2 상어, 자리 원 나 그거 다 못 세기크라. 원 휘 못 먹는 것이 원 엇이니까.

107057 @ 새끼휘도 먹어나고마씨?

107057 #2 새끼휘 허주게.

107057 @ 음.

107057 #2 돼지새끼휘.

107057 @ 돼지새끼휘예. 아까 빗게휘 얘기 헛잖아예. 우럭 같은 것도 다 휘 헛수과?

107057 #2 다 휘 헤.

107057 @ 우럭, 객주리.

107057 #2 어, 다 휘 헤. 원 요즘 휘 못 먹는 고기가 없어. 옛날엔 그런 거를 휘 행 먹을 줄을 몰랑 그자 아는 건 자리.

107057 @ 응. 그니까 지금 헤 먹는 거 말고 옛날 헤 먹는 거 물어보는 거라예.

107057 #2 으, 옛날에 아는 건 자리, 빗게.

107057 @ 지리휘, 빗게휘. 빗게가 물고기 이름이과?

107057 #2 으. 겁더기 더들더들 헌 걸 그걸 벗겨 두고 막 알에 술이 또락정 맛

있주게. 옛날에는 이러한 상어여 객주리여 휘 먹을 줄을 몰라서 점점 지금이라가나 벨 휘 다 먹는다. 웬 옛날에 아는 건 자리휘.

107057 @ 자리휘.

107057 #2 도새기새끼 건 뭐 여저도 뭐 임신헛당 잘못됐민 그런 것도 헤 오고 그 도새기새끼는 잘헤여.

107057 @ 방어휘도 먹어난?

107057 #2 이제야 나는 거 이제야.

107057 @ 옛날엔 엇어난?

107057 #2 옛날엔 방어라 현 말이 원 무신 말인지 경 고기 종류가 그렇게 몰랐지. 그자 아는 건 저기 생선, 우럭. 기자 무신 돔 그자 이런 정도베끼. 빗게, 상어. 지금은 뭐 방어여 벨 거여 그런 거 뭐.

107058 @ 음, 그렇지예. 그럼 예를 봄에는 이런 반찬 먹고 여름에는 이런 반찬 먹고 구분되는 건 잇어낫수과? 예를 들면 여름 되야 물휘 같은 거나 먹을 거 아니예?

107058 #2 주로 옛날에는 그자 여름나민 메역허고 녹물 숯아근에 냉국 행 먹곡.

107058 @ 여름에는예?

107058 #2 으. 그 그런 짐치도 가을 들어 헤여 가야 겨울베낀 못 먹곡. 봄 나가민 시들영 안 먹어, 못 먹어.

107058 @ 음. 게민 봄에는 반찬 뭐 행 먹어.

107058 #2 아이구 그런대로 여기 사람덜 반찬 옛날에는 뭐 메역같은 거여 그자 그런 어지렁허게 녹물이영 먹주. 녹물도 영 갈아 퍼덕진 거.

107058 @ 퍼덕진 거.

107058 #2 그거 철 출령 반찬 못 먹어.

107058 @ 예. 그냥 이신 거.

107058 #2 자리가 봄에는 나긴 나는 디 막 줄엇당 4월달 뉘민 막 알찬 슬젓당 7월달 뉘민 자리가 줄어불주. 줄어당 가을 들민 자리가 그렇게 슬지민 그때 그거 상 ㄴ슬자리라고 그거 반찬허고.

107058 @ 그러면 그 반찬은 줄이는 거 구워 먹는 거?

107058 #2 구워 먹어 ㄴ슬자리.

107058 @ ㄴ슬자리.

107058 #2 꿩 그 뜰께 말고 참깨 나무를 헤영 털어난 걸 무짱 세왓다가 그 꿩적을 살라서 ㄴ슬자리를 구워 먹어. 아궁이에 솟디 다 그 불을 떼니까.

107058 @ 맞아마씨.

107058 #2 꿩적인가 그것을 꿩적이엔 헤영 꿩낭에 꿩 털엇던 거 비 안 맞게 잘헛당 자리 굽젠 허민 그걸 앗당 숯아 가민 나무 닭지 안헤도 검질 불 보다는 망불이 이시니까. 경헛 그걸로 ㄴ슬자리 반찬 허고.

107058 @ 불이 오래 강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꿩집이랑 콩집예?

107058 #2 으. 콩직도 콩직이엔 안 혜영 콩꼬질.

107058 @ 콩꼬질.

107058 #2 콩꼬질, 껌직. 저 경.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언제 담급니까, 장?

107059 #2 장은 아무렇게나 허는 사람은 해도 딱 시기로 말허민 음력 한 10월 말 웨영 11월 초 웨민 메주를 췌여 이 새해 낳은 장을 남저 있는 집은 안 담는다 고 입춘 전에, 옛날에도 건 철저히 입춘 전이.

107059 @ 아.

107059 #2 묵은해라고 새해 아니 날 때 그때에 장을 담는 거.

107059 @ 아 장을 담는 거예. 그니까 메주 삶고 허는 거는 음력?

107059 #2 음력 시월 그물어 가민 동지덜 보름 전에 메주를 삶아야. 삶아야 동지덜 전에 저 더러 물르고 선덜에 물르고 선덜 그물어 가민 장을 담아베야주게. 음력으로 정월 날 때 장을 잘 안 담아.

107061 @ 장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줘서.

107061 #2 장 담그는 건 두 가지. 어떤 어명은 소금을 맹물에다가 낱 막 짓으면 소금을 녹으면 우리가 소금을 먹어도 굉장하 나쁜 걸 먹엄서. 소금 거 소금 만드는 디서 갯벌. 더러운 것이 소금에 붙었어. 게민 소금이 지금 하양해도 그 소금물을 안 청당 보민 창에 건 그롱헌 저 거기 뭐 저 텔레비전에 저 조개 잡으레 간 디. 그런 색깔로 물이 더러우미 슬허게 깨끗헌 물로만 덜어내서 메주만 씻어근에 들이침 돕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맹물에 메주를 들이쳐 놓고 알븐 광목 형박해서 주머니 줍아 가지고 그 속에 소금을 놔서 쌍 그레 탁 들이쳐. 털어지지말게 벌려근에 영혜. 경 두 가지로 혜.

107062 @ 게민 어무니는 어떻 담가나신지 메주 삶는 거부터 영 곱아줍서. 메주 삶는 거부터.

107062 #2 메주는 어떻게 메주는 삶으면 메주는 콩 내일 삶을라면 오늘 물에 푹갓당.

107062 @ 얼마나 해낫수과? 몇 돼, 몇 말?

107062 #2 처음에 다른 반찬 엇어 주로 그 웬장만 먹영 살 때는 혼 서말 정도 혜나신디, 이젠 혼 말, 혼 말. 혼 말해도 애기덜도 가져가도 혼 말이민 먹는디 메주 삶양게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티왕. 하여튼 메주를 삶양 장 돕는 새에 혼 오십 일, 오십 일 셔야 완전 달라. 그러면 거 선덜, 정월 안 날 때 선덜에 그거 씻영 장을 돕그는 거주게. 쟁 그거 씻영, 나는 올히도 돕는디 난 소금을 써 보니까 너무 추접허 길래 소금을 씻영 장을 돕감서.

107061 @ 녹아불지 안 혜. 녹아 흘러 내려불지 안 혜?

107061 #2 손해야 가지. 가주만은 소금을 물에 확 혼 번 짓어근에 대차롱, 저

나이론 차롱더레 삭 건지민 저 삼분지 일은 손해 강 녹아불어. 손해 가도 그걸 널 영 싹 물러근에 후라이팬에 볶아. 볶양 장을 돕는디 계난 어떤 사름 잘못햇당 장 쓰기도 허주게. 소금 잘 못 만났. 쓰기도 허는디 그런 거 었어. 계난 장 돕는 것도 그것베끼 었고 무시거라 장.

107061 @ 계민 메주 슌젠 허민 콩 전날 물에 불리는 거마씨?

107061 #2 응.

107061 @ 메주 슌을 때는 콩 솟디 낱, 옛날 슌아난 거예, 영 불 지졌을 거 아니 예. 콩은 솟디 어느 정도 낱 물 얼마나 놓니까?

107061 #2 아이고 그거는 이 슌아 가당 물 족아가민 더 놓고.

107061 @ 슌아 가명 찬물 더 놓고?

107061 #1 으, 찬물 더 놓고.

107061 @ 계민, 콩은 반은 놓니까, 가득차게 놓니까?

107061 #2 콩 저 물 불른 것도 반 쪼금 넘어노렌 해도 불 헤가민, 슌아가민 막 물이 넘어근에 경 그득 못 놔.

107061 @ 계민, 메주 슌아가지고 만들잖아예. 어떻 주물러?

107061 #2 발 깨끗이 씻영 보선 신영.

107061 @ 슌는 거 멧 시간 슌읍니까?

107061 #2 콩이 좋은 건 슌는 것도 쉽고 콩이 껏인 건 슌는 것도 오래난 거 멧 시간이렌 헐 수 있어.

107061 @ 그냥 먹어 보명?

107061 #2 으, 먹어 보명. 슌아지민 두께 흐썰 폭 허게 뜸들이민 계민 다라에 놔 텡 발 깨끗허게 씻어 보선, 새보선 신어 불르는 거주게. 블루민 블라져시민. 그렇게 얹으민 무신 차두에 콩을 담아가지고 또 차두 다라에 낱 그자 다라 안에서 차 두 영 주둥이 심영 영헤영 영 블루던가.

107061 @ 차두가 뭐과?

107061 #2 저 비료 푸데던 저 천으로 멘든 거든 잘리, 잘리.

107061 @ 아, 잘리에 쌀 잘리 같은 거에 담아 가지고.

107061 #2 응, 그렇게 허던가. 다 지 의견만씩 헤여.

107061 @ 어머니네는 톡톡톡 헤영 네모나게 행 매달양 물렸수과?

107061 #2 응, 매달양.

107061 @ 매달양.

107061 #2 거 흔 이틀 영 아래 놔근에 시민 거 물 흐썰 빠지민, 전인 었어도 어디 잇는 디 사름그라 흐썰 헤다드렌 헐 찢으로도 테레비같이 찢으로도 헤낫주만은 었이민 그자 다른 걸로 헤영. 매들면은 그 매든 디서 그 곰팡이가 나오면 터 가지 주게. 나오명 트명 들르명 그자 허민 흔 사십일 넘어가가민 땀땀헤영 들랏구나 헤영.

107061 @ 어디 걸어뒤마씨?

107061 #2 우리 요 현관에 저 방 앞이 우린 걸영 내붙어.

107061 @ 아, 이 앞이. 그럼 뭐 그늘에 말려야 되는 건 아니다예. 햇빛 받아도 되는 거다예.

107061 #2 햇빛 받아도 돼는데, 영 집 안에서 영 햇볕 받은 건 허는데 그걸 터서 채 돌리지 안 헌걸 저 밖에다 앓당 내놓민 막 벌려져붙어. 벌려져붙어.

떡류

107064 @ 아, 이젠 떡 종류 물어보쿠다. 떡 종류 무신 떡이 잇수과?

107064 #2 아이고, 이제 떡 수정 하지 옛날엔 떡 경 안해서.

107064 @ 예, 옛날 거 옛날 거. 식게나 멩질 허젠 허민?

107064 #2 멩질 허젠 허민 요즘은 팡 놓고 시루떡 헌 것이 이것도 허고 저것도 허지만, 옛날에 어른덜은 이 풋이 구신 다올리는 곡식이라고 헤가지고 게난 이사할 때 풋빵 올리고 다 허고 허난 아는 사름덜은 풋떡을 제사에 안 써.

107064 @ 음.

107064 #2 사름이 죽어서 삼 년 전에는 스몫 구신이 아닌 산 일양이라고 해서 곧 죽은 때는 제물떡이라고 해서 풋떡을 허는데 게난 옛날에 제사에 써난 건 제펜, 흰 떡. 흰 시루. 요즘 백설기지.

107064 @ 예전에 제펜이렌 불러난예?

107064 #2 옛날엔 제펜. 제펜해서 그거 밑에 놓고 그 다음에 솔벤헝 놔 낫주게. 솔벤, 절벤허고 그 요즘은 옴떡이 나왔는데 옛날엔 그렇게 옴떡을 헝 줄 몰르고 어떻게 해서 집이서 그루를 뺏으니까 도쿠방에 낵 그 옴떡은 방앗간에서 빠는 거니까 그런 건 못허고 저 잘 식구도 많고 모든 재료가 곡석이 많은 부자는 제사허젠 허민 친척덜이 오라서 그루도 뺏고 솔벤 절벤 인절미 우썩 이것이 기본이라이.

107064 @ 아, 예예.

107064 #2 제펜은 아래 놓곡.

107064 @ 제펜은 아래 놓고?

107064 #2 그 다음은 인절미, 그 다음은 절벤, 그 다음은 솔벤, 그 다음은 우썩. 우썩은 거 우리 기름떡 같은 거.

107064 @ 으.

107064 #2 원 그건 디 없어서 못허는 사름은 그루를 뺏아 가지고 저 그 새미 모양으로 만두 새길 만드는 거야. 이거 저거 복잡허게 안 헤가지고.

107064 @ 아.

107064 #2 조개 송펜이라고.

107064 @ 조개 송펜예?

107064 #2 으 조개 송펜. 그거 허고 또 너무 없는 사름은 그 집이 므물을 그뻬 많이 갈아나니까, 원 조만 불렛당 그르쳐도 므물 같고 므물은 혼저나니까 정기, 정기.

107064 @ 정기.

107064 #2 정기도 행 쓰곡. 주로 이제난 뭐 이거 저거주 옛날에 떡 일름이. 그 고 막 없는 막 제펜만 제사 때는 제펜을 허는디 대상 때고 소상 때는 그런 떡을 주로 사용허젠 허민 얼마나 없어야 혼착은 곧ㄴ루 혼착은 조ㄴ루헤영 두 가지 ㄴ루행도 떡 혼빚을 만들야.

107064 @ 아, 앞뒤를 다르게.

107064 #2 으, 거 곧ㄴ루 쓸ㄴ루가 어려우니까.

107064 @ 으.

107064 #2 조ㄴ루른 자기 집이서 만들어노난 잇고 허민 조ㄴ루 반착, 쓸ㄴ루 반착 해서도 그걸 알기 쉽게 말허민 제펜 근떡으로 쓰는 거야. 옛날엔 떡이 그처럼 다 쓸 불렀다가 방에에 뿔고 또 대상이나 소상이나 영장이 나 가면 그 민속촌에 뿔방에 잇지 그것에 곱고 허난. 떡방아가 이제사 나온 거주 전이 나와서.

107064 @ 그지예.

107064 #2 으.

107064 @ 계민, 시루떡이 제펜이랑 같은 거잖아예.

107064 #2 거 시루에서 치는 거주게. 그 시루에서 문친떡도 치곡 제펜도 치곡.

107064 @ 문친떡?

107064 #2 문친떡은 풋 논 거.

107064 @ 아. 문친떡은 풋 논 거?

107064 #2 풋 안 논 건 제펜.

107064 @ 아, 계난 백설기는 제펜.

107064 #2 으.

107064 @ 그 풋만 험니까? 콩도 험니까?

107064 #2 무신 콩?

107064 @ 검은 콩 삶아가지고 험니까, 경 안허여.

107064 #2 옛날에는 검은 콩이 있어서게 그때. 검은콩은 어느 나라서 와신디사 이제야 난 거주.

107064 @ 아.

107064 #2 그자 그뎨 주로 풋 집이 갈앗당 풋.

107065 @ 그럼, 이제 시루떡 만드는 거 가르쳐 줘서. 어떻 만들어 낫수과?

107065 #2 시루떡 만드는 건 방에에 ㄴ루를 곱아가지고.

107065 @ 쓸 물에 담갓당?

107065 #2 쓸 물에 담갓당 방에에 뿔아가지고 뿔는 사름 여기서 뿔아지는 거 뿔으민 처근에 아래 느린 ㄴ루 내불고 저 우이 것 또 담아냥 뿔곡행 막 힘들어 다 뿔아지민 방에 들어오랑 그 뭐 다라해도 좋주만 옛날엔 요즘 존 다라가 엇주게. 나무도고리라고 그런 거 나무로 판 도구리.

107065 @ 낭도구리엔 험니까?

107065 #2 으, 낭도구리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안 허민 장테, 장테라고 허주. 대정서 만든 거 풀레 오는 사기 장테 거 옹기 풀레 오는 거. 그런 것에 그걸 낱 간을 맞창 물을 살살 그 ㄱ루에 섞어가지고 침 힘이 다가도록 미는 거여. 그 ㄱ루에서 막 칭이 나민, 날 정도로 밀어 가지고 그 시루에 창이 시루 고망 터졌지. 고망 막을 라면 대섭, 다니다 보민 대 있지.

107065 @ 예.

107065 #2 대섭을 타다서 이거 대섭이면 울로 나무에 붙여낱 그치곡 꼭다리 그치곡 혜영 반드허게 씻어당 놔서 시루창에 그 대섭을 싹 끌아가지고 그 가루 밀어논 걸 대는 거여 사발로. 혼 징이라 허여. 하나 두께가 혼징. 싹 그걸 웨영 거기 낱 손으로 살살. 손재주도 좋아야 돼여.

107065 @ 하하

107065 #2 높은 디나 자운 디 엇어야주게 게민 떡이 두더운 거 알룬 거 엇지. 경허영 혼 도리 혜지민 또 ㄱ루 안 들게 그 대섭을 재각 또 더뜨는 거여. 또 더평 또 ㄱ루 웨영 놔근에 막 그 할머니들이 그때 재주라, 막 살살살 허게 혜근에 그 시루로 하나 혼 시루 떡 놓젠 허민 막 시간 걸리게. 둘리가 대섭 더퍼 주는 사름도 잇곡 혜영 그걸 놔근에 형벽 톱 더깁 그걸 솟디 낱 솟 우이 낱 그거. 이거만이 험게 솟이다 허민 이거 영 앓지민 일로 공기 나가카부덴 ㄱ루 물해서 짹허게 막고 혜영 멧 시간 또 그것도 막 오래여. 경허영 달영 이제 비우면 재수가 좋으면 잘 소록 허게 익는디 요즘은 방앗간에서 멧 분이민 팡팡 익는디. 재수가 굿이민 혼 쪽은 익고 혼 쪽은 설고 경혜영 그걸 또 빗 간격으로 요렇게 혜영 요렇게. 혼 드리 혜불민 또 대섭 이시민 대섭 때덩. 계난 그때 시절에는 얼마나 헛는지 그 대섭 이시민 대섭에 붙은 거 뜯어 먹젠 아이덜이 막 돌아져. 대섭에도 때는디 조금씩 부트주게.

107065 @ 예.

107065 #2 경험 그것이 보통 제사 때 쓰는 거. 그자 문친,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제사 때에 상에만 올리곡이. 그나마 또 그 풋 노명, 대섭 노명 경 힘들게 안 허영 풋 노명은 흐썰 쉽주. 흐썰 더 두텁고이. 풋 노명 혜영 그건 그자 친촉들도 나뉘 먹고 그자 영.

107065 @ 아, 대섭 낱 하얗게 하는 것보다 풋 낱 문친떡 하는 게 쉬워마씨?

107065 #2 으. 쉬워. 건 풋 뵈아근에 그자 혼 도리 사발로 ㄱ루 얼마나 거려 낱 살살 경 풋 살살 허꺼근에 또 ㄱ루 놓곡 허민 허는디 대섭은 ㄱ리 아니 새여 들게 그 ㄱ루 위이 짜각 더끄젠 허민 막 힘들주게. 그 또 아무나, 기술자나 비습혜사.

107065 @ 아, 하하.

107065 #2 겨난 그뻐 제우 나 알아진 건 그 솔벤 절벤 그거 허고 그건 아니 허민 그건 제웬허고 인절미, 절벤, 솔벤, 우썩 그건 기본이난.

107074 @ 그럼 솔벤은 어뎡 만들어 낱수과?

107074 #2 그거는 솔벤.

107074 @ ㄱ루 곶아 왕?

107074 #2 ㄹ루 곶아 오민, 이제 절벤 만드는 건 어떻게 허느냐.

107074 @ 으.

107074 #2 이제 물 쪼끔 간 맞춰서 ㄹ루에 물 낱 요만씩허게 오메기를 만들어서 솟디 낱 막 삶는 거여.

107074 @ 음.

107074 #2 삶양.

107074 @ 삶는다는 건 끝는 물에 그냥 놔?

107074 #2 으. 끌린 물에 막 끌리주게. 끌렁 익어시냐 설어시냐 것도 잘 못 보민 안돼주, 그것도 딱 맞아야. 것도 끌린 물에 낱 삶양 익은 거 닳다 익은 거 닳다 허민 건지렌 행 그거 이제 조루 닳은 물 나가는 곰박으로, 곰박이라 떡 건지는 거.

107074 @ 떡 건지는 거 곰박예.

107074 #2 어. 곰박으로 건정 장텐가 뭔가 옛날말로 장테주 장테. 그것에 낱 손아니 뜨거울만이 짐이 나가민은 이제는 막 달루는 거여. 절벤허는 것만. 달뤄서 이젠 떡이 이제 헤질 거 ㄹ트면 그때는 사름덜 모여 앗양 그치명 요추룩 헤영 두 방울헤지민 똑 두 개 마주 부쳐근에 본 잊지 분.

107074 @ 예, 떡분.

107074 #2 본으로 똑허게 누리뜨고 또 두 개 붙영 똑허게 누르뜨고. 솔벤은 게고 인절미허고 우찍은 또 ㄹ튼 종류로 저 물을 ㄹ루에 물을 섞어서 저 알맞은 정도 뻘다허면 요만씩 오메기보다 크게 이만씩 만들어. 만들양 끝는 물에 들이청 잠간. 혼 오분 들이쳤다가 꺾데기만 쪼끔 익으면 건져 내는 거야. 건져내영 막 달뤄. 달뤄웨민 이젠 밀어가지고 본이 잊지 들반착.

107074 @ 예.

107074 #2 쉼로 만든 거.

107074 @ 예.

107074 #2 밀어가지고 솔벤두께만 이만허민 들반착으로 떠 내여. 떠 내민 요건 또 어떻게 허느냐 솔입, 소나무의 솔입. 솔입을 헤다 낱다가 솔입을 헤야지 미룻 헤다 놔뒤야지 떡 허는. 헤다 낱다가 솟데 바드랭이 놓는 거여 바드랭이. 빠지지 안허게 놔서 솔입 살살허게 혼 도리 놓고 떡 혼 도리 놔지민 솔입 혼 도리 놓고 헤영 멧 징, 징 놔가지고 이제 쳐진 거 닳다 허민 박세기에 물 낱 영 내 낱 혼들혼들 혼들민 안 익은 놈은 그릇 나명 별러지고 익은 놈은 안 별러져. 게민 익은 거 닳다 헤영 내영 물에 씻영 그놈을 솔입 떼명 혼나혼나 영 씻영 차룽에 놔서 물 빠지민 또 기름 불르고.

107074 @ 으.

107075 #2 인절미 허고 그건 그추룩 헤영 두 가지는 그렇게 허고 우찍은 요즘 기름떡이라. 물 맞춰서 우찍본이 요만이 현 거 잊지.

107075 @ 음.

107075 #2 걸로 똑똑 누리명 터 가지고 이제 그건 옛날에도 후라이팬이 없을

때라도 솟두껍에라도 살짝. 옛날엔 빙떡을 솟두껍으로 허니까 그때라도 살짝 솟두껍에 낱 너무 아니해도 살짝 흐썰 헤영 우썩으로 쓰고.

107075 @ 아.

107075 #2 떡 허는 거 그거. 이제 벨 거 움떡이여 뭐여 해도 옛날엔 떡이 그거. 기계도 엇고 기술도 엇고. 너무 떡 허는 게 곡식을 방에 뿔아서 썰을 내어 놓고 또 그 썰을 듬갔다가 또 ㄱ를 뿔아서 떡을 헐라고 허니까 어떻게 힘이 들어.

107075 @ 하하.

107075 #2 여저는 방에만 짓다 보민 세상 세월 다 갖지. 식구나 좋으면 허지. 방에 지고 보리, 저 보리썰 곱아야 밥 헐 거난 보리썰 곱고 방에 짓고 허당 보민 여저는 세월 다 가.

107066 @ 송편은마씨? 송편은?

107066 #2 송편은 아까 솔펜 허듯 ㄱ루 헤다근에 물 쪼금 맞췌 요만썩 헤영 췌는 물에 흐 번 들이췌당 건져내영 달뿔근에 송편 헐 만썩 만드는데 그거는 저 저 생각허는 사름이 흐썰 앙꼬를 낱. 그자 콩게역도 놓고.

107066 @ 콩게역도 놓고?

107066 #2 어 콩게역도 놓고 이제 경 정 허는디 어떤 사름은 췌 낱도 것도 췌 이라고 췌을 제사허는 디 쓰는 것은 경 안 좋게 생각허여. 췌은 구신 다올리는 것이라고.

107066 @ 음.

107078 #2 정긴 주고 그자 막 잘 허는 사름은 저 콩게역도 해도 그거는 너무 허난 그자 무수, 무수. 빙떡 소곱엔 무수. 정 이젠 빙떡이주만은 옛날은 정기.

107078 @ 그거 ㄱ루는 어땡 풀니까?

107078 #2 ㄱ루는 ㄱ물헤다근에 막 그걸 두 벌 세 벌 헤근에 썰 만들앙. 자기 ㄱ물 그 ㄱ물 썰 멘글젠 허민 잘도 힘들어. 경헐 그 썰 허민 썰 세가지로 헤여. 도레미썰이라고 헤영 훗은 거. 그 다음은 보통 죽 끌렁 먹고. 그 다음은 소레기 경 세가지로 헤영 소레기같은 건 이제 막 영영허는 ㄱ레에 가루로 곱아야지게. 가루로 곱앙 체로 쳐근에 체 앓일 걸로 행 이제 또 다라에 ㄱ 맞췌 카근에 이제 정기 지지 주.

107078 @ 무수는?

107078 #2 무수는 췌영 췌영 솟디 낱 슢앙게. 건져내영 소곱이나 쪼금 치고 요즘 마늘겉이나 쪼금 ㄱ근에 영 간만 맞으면.

107078 @ 아까 ㄱ물썰 세 종류. 도레미썰, 소레기.

107078 #2 아니 도레미썰허고 중간에 거 좋은 거 그거.

107078 @ 그 중간에 건 이름이 따로 없고?

107078 #2 으. 말췌 건 소레기.

107078 @ 보통 그냥 중간에 거렌 허는 거예?

107078 #2 으.

107078 @ 그럼 용도가 달라마씨? 도레미썰은 뭐에 써?

107078 #2 훑고, 훑어부난 그거허고 소레긴 그레나 곶고 가운데 건 죽도 끌렁 먹고.

107078 @ 아.

107078 #2 도레미썰, 소레기 같은 건 그레나 곶앙 정기나 지지, 빙떡이나 지지 곱 가운데 건 죽 끌렁 먹고.

107078 @ 아, 죽 끌렁 먹고.

107078 #2 도레미썰이렌 현 거 믰물이 동글락게 겁덕만 나가고 믰물 형체로 그 대로 이신 거. 그대로 죽 끌렁 먹는 건 두 개씩 벌러지지.

107078 @ 아.

107078 #2 벌러지는데 소레긴 너무 여러개로 쪼개지고. 도레미썰은 어찌다가 겁 죽만 동글락게 버슬어정 물방울 형상이 그대로 시난 도레미썰이렌 허주.

107068 @ 상웨떡은?

107068 #2 상웨떡은 옛날에는 우리 밀 여기서 가니까 그 밀 해당 장만해근에 줌 낮게 사는 사름은 그 밀은 몰그렌가 큰방에 강 물 적정 막 곶민 그 밀이 겁더기 다 벗어져, 겁더기 벗어지민 그걸 오라근에 물류왕 겁덕 잘 퍼두고 해근에 이제 정 그레에 그 밀을 밀크를 막 곶주게. 밀크를 곶민 밥을 저 식은밥해다, 밥은 해근에 쉰다릴 해놓는 거야. 누룩은 자기가 보리 가니까 보리 해영 누룩은 해 논 것에 밥 행 쉰다리를 해 노민 그 쉰다리가 보통 쪼금 퀘여 갈 때는 힘이 엇어이. 막 콕하게 퀘면은 그 쉰다리를 물 짜서, 누룩허고 밥 건지는 짜불고 물만 해가지고 그 밀크루 로 톨앙 허민 밀크루 그레에 곶멍, 또 채로 치멍 채 우이 건 안허고 채 아래 것만. 경헨 그 쉰다리 물로 톨앙 놔 두민 피민 상웨주게.

107068 @ 으.

107068 #2 또 막 그거해도 얼마나 엇어신디 쉰다리 짜분 주시허고 밀 곶멍 상웨떡 허젠 곶아난 우에 거 허고 그걸로 떡을 또 요만씩 만들어 그거는 췌기떡이라고.

107068 @ 췌기떡, 췌기떡?

107068 #2 어.

107068 @ 상웨떡보다 죽은 것과?

107068 #2 똑 그거 요만씩. 췌기떡이라고 현디 제사헨 전이 그 고운 상웨는 아이덜이 먹을 수가 엇어.

107068 @ 으.

107068 #2 건 제사상에만 허고 제사해난 다음 먹고 그 췌기떡을 해사 제사렌 허민 아이덜은 다 먹젠, 어느 학꼐 가카.

107068 @ 하하

107068 #2 토다 앓아노민 어느 학원을 가카.

107068 @ 그거 얻어 먹젠.

107068 #2 그 췌기떡. 그 저 누룩 덩어리만 흐쓸 건져당 밥 헤나난 거영 저 밀 험데엔 허주 밀 저 채 베겏더레 난 건. 밀험데를 낱 이만씩 동글동글헤근에 솟디 놔서 감저 치듯 막 치는 거야. 청 익으면 아이덜 그거 떡곡.

107068 @ 아. 원래 상에떡은 밀로 허는 건데 이 췌기떡은 밀 아니고.

107068 #2 아니, 밀이라고 그 우에 난 거. 채 우이 거. 곳인 거.

107068 @ 상웨떡 허는 밀보다는 줌.

107068 #2 험데, 험데.

107068 @ 별로 안 좋은 밀.

107068 #2 안 좋은 거주게. 험데라고.

107068 @ 험데예.

107068 #2 으.

107068 @ 췌기떡.

107068 #2 으.

107071 @ 설기떡도 알아집니까?

107071 #2 설기떡은 무시거라? 설기떡 말은 들어신디.

107069 @ 그 고사할 때, 제사할 때나 멥질 떡은 같잖아예. 제사떡 순서가 제편, 인절미, 절편, 솔벤, 우짱 이렇게 놓을 거예?

107069 #2 으.

107070 @ 근데 장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107070 #2 으, 장 났을 때는 사람 죽어서 첫 번째 혈 때 그대에 제편하고 솔벤, 절편을 못 쓰면은 후제후제 아무 때도 그 떡을 못 헌다고 성복제라고 처음 죽영 사름 첫 제에 그 떡을 못 허면은 대상, 소상에도 못 허고 다음 제사에도 못 헌다고 사름이 죽으면은 첫 번째 아멩 어려워도 그 제편하고 솔벤, 절편은 헤여.

107070 @ 아, 헤야 뉘는 거예?

107070 #2 으,

107070 @ 어쨌든 순서는 다 똑같은 거 아니예. 제사 때나예?

107070 #2 으, 똑거튼 거.

107070 @ 제편, 인절미, 절편, 솔벤, 우짱 헤영 순서는 똑같고 올리는 것도 똑같고예.

107070 #2 으.

107076 @ 고사나 당 갈 때, 당에 갈 때. 당에 갈 때는 어떤 떡 헤낫수과?

107076 #2 당에 갈 댜 게. 동그랑헌 거 알뜰게게 굻떡이라고 요만이 헤근에게 믶물가루로 허는 사름도 싯고 쓸가루고 허는 사름도 싯고.

107076 @ 그걸 굻떡이렌 허는 거? 당에 갈 때 가져 가는 거를?

107076 #2 으.

107076 @ 그거 굻떡. 동그랑허게 지지는 거잖아예?

107076 #2 게난 거 돌레.

107076 @ 아, 돌레떡. 맞아 맞아 돌레떡. 믱물로 헤도 돌레떡?
107076 #2 어, 믱물 돌레, 곤살로 현 돌레.
107076 @ 다데는 뭘지 알아지쿠과? 다덴 엇어?
107076 #2 나 다대말은 안 들어봐신디.
107076 @ 이거 얘기한 거 말고 다른 떡도 잇수과?
107076 #2 아이 몰라, 몰르켜. 기계빵에 강 맞춰허는 건 헐 말 엇고.

소와 고물

107079 @ 그럼 떡 허젠 허민 고물, 속에 놓는 속. 예를 들면 송편 안에 뭐 놓잖아예.
107079 #2 응.
107079 @ 송편 속에 넣는 거 어떤 종류가 이수과?
107079 #2 게메 그거 풋도 허는 사름은 허여도 안 허는 사름은 콩고루나 막. 콩고루나 허고 풋도 막 뽕양 허는 사름도 잇고.
107079 @ 콩도 그냥 노란콩?
107079 #2 우리 장 콩 집이들 가는 거게.
107079 @ 집에 가는 거예. 장콩. 깨 안 험니까?
107079 #2 꿬도 허는 사름은 헤여. 꿬 볶아근에 좀 ㄱ루에 섞영, 설탕이영.
107080 @ 설탕이영 섞영 꿬도 허고예. 그럼 무치는 건. 고물은?
107080 #2 무시겨 무쳐?
107080 @ 떡 우에 무치는 거? 문친 떡 헐 때?
107080 #2 문친 떡 헐 때 풋게.
107080 @ 풋.
107080 #2 풋허고 어떤 사름은 또 콩ㄱ루로도 허는 사름 이서. 콩ㄱ루도 풋 대신 영. 그 사이에 부트지 말라고.
107081 @ 콩이나 풋이나. 그럼 떡 만들 때 뭐하지 말라 금기하는 건 엇수과?
107081 #2 저 굿떡은 아무나 못 만직고 굿떡은 만직기로 딱 지정된 사름베끼. 몸이 좋지 않거나 어디 나쁜 걸 봤거나 허카부텐, 굿떡은 굿제물 허는 디는 아무상 엇이 못 뎅기기고. 뭐 제사헐 때는 무시겨라 경 어려와도 얘기덜 토다지민 자파리허렌 허명 요만씩 ㄱ루 문 것도 그차주곡. 자파리허게.
107081 @ 자파리허게. 굿떡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뭐?
107081 #2 굿떡 할 수 있는 사람이엔 험서 헤영 굿제물 허레 가는 사름 영 허주 아무나 안 허주게.
107081 @ 굿제물허는 사름이렌 헤예. 이젠 다른 거 물어보쿠다. 순대도 만들어 낫잖아예?
107081 #2 으.

벨식

107082 @ 순대 만드는 거 알아줍서.

107082 #2 순대 벨 거 아니주 거, 거 무신 식은 밥도 시민 놓고 당면이나 흐썰
썰어놓고 그자 양념, 마늘 같은 거 흐썰 낱 ㅁ물ㄱ루에 ㄱ 맞창 그냥 담는 거.

107082 @ 음, 게민 창자는 아무 거나 상관 없는 거?

107082 #2 창잔 씻어 보면서, 돼지에 따라 창자가 좋은 건 ㄱ는 것까지 다 사용
할 수가 있는디 어떤 돼지는 ㄱ는 수에라고 허주. ㄱ는 수에는 못 담을 돼지가 있
넨 헤여. 남저덜 허는 거 보민, 아 이진 ㄱ 베설로 못 쓰쿠다. ㄱ 베설은 좋지 안
허여네, 또 어떤 건 ㄱ 베설꺼지 다 담앗수다. 영혜영. 우리가 큰 일 헐 댐 그거 자
꾸 들어 보난.

107082 @ ㄱ 베설이렌 허는 거예.

107082 #2 으 ㄱ 베설. 게고 막은창 쳇, 큰 도새기 이만이 슬진 게 막은창 큰
베설은 요만이 허고 ㄱ베설은 이만이 현 건디 경해도 순대 담을 때 주로 그자 ㅁ물
ㄱ루 그 도야지에 피허고 식은 밥도 쪼금 농곡 당면 쪼금 농곡 그자 그거. ㄱ 맞창.

107082 @ 쌀을 넣는 게 아니고 밥을 넣는 거구나예.

107082 #2 으, 쌀은 안 허여.

107082 @ 당면도 삶아 넣는 거예.

107082 #2 으, 당면도 그자.

107083 @ 두부도 만들어놔지예 두부.

107083 #2 두부 집어서 만들어 나신디 아이고 두부 만드는 건 어려와근에 그
설명.

107083 @ 두부 만드는 거 어려워? 뭐부터 해야 험니까? 콩 먼저 삶아야 험니
까?

107083 #2 콩 물에 커야주.

107083 @ 물에 켕?

107083 #2 물에 켕 지폐슬 이만씩 우려나민 그걸 이제, 옛날로 말로 도고리, 도
고리가 거 ㄱ레보단 막 이만이 현 도고리 소곱더레 ㄱ레를 앓쳐서 그 삶은 콩을 거
려노명 막 삶으민 막 거품나명 그걸 켕 곱아지주 허민, 그거 이제 그눔을 가마솥더
레 놔서 삶으면 이제 얼추 익으면 이제 퍼내어. 퍼내서 이제 둔비 잘리라고 천으로
차두를 요만씩 만들어. 어멍들이 멧 사름 들어 가지고 그걸 막 짜는 거여. 막 짜면
그 차두 아래 깨끗헌 물을 저디 삶아난 솥 단장혜영 그레 놔근에, 그레 낱 그 주시
는 우이 주시는 옆에 놔 두고 이제 아랫물 쪼막 삶으명 거자 삶아져가민 소금 쳐,
소금 치민 그 물이 콩국거치 듬발듬발 언쳐 가주. 언쳐 가민 이제는 옛날에는 그
질긴 거 천이 미녕보단 베, 베로 뒤 차두를 헤근에 그 물을 차두에 그 듬발듬발헌
물은 거려 놓는 거여 거려 낱 물 흘르게 예들들면 그 도고리에 도고리 위에 뒤 놔
서 요런 걸 다 걸쳐가지고 그 차두를 그레 탁 놔, 이제거트면 널판이지 널판 낱 우
리 들르지도 못 헐 돌을 멧 개 놔서 지둘라 그 널판 아래 농곡 널판 더끄곡 혜영.

경 지들왕 놔두민 영 문직아 보민 것이 탄탄해져서이. 혼 이제허민 널 아칙헌 일곱 여덟시나 뉘어야지. 이제허민.

107083 @ 아.

107083 #2 이제 끌린 걸 이제 담양 지들왕 놔두민 게민 영 보민 탄탄한 거 돌 치와 두고 널판대기 앓아두고 보민 탄탄해져서민 그 놈을 이제 베는 거여 칼로 혼 모만씩. 계난 집이, 집이서 허는 식이 그거난 옛날에도 옛날에 잔치를 헐라고 허민 막 치레 허는 사름은 두부를 헛어이. 두부를 했는데 이 시집을 사나 못 사나 싸움 이 났을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남저 하나 조름에 여저가 들이 당했다. 죽은 각 시도 당했다 허면 싸울 때는 그 두부를 찼라고 허면 막 손이 뜨거와이. 너미 식어 베도 안 뉘고 뜨거우난 문제가 죽은 메누리 보고는 둔비물에 손 댄 메누리냐, 느 시집 오젠 허난 두부 허멍 손 뜨겁지 안 했다. 너 시집 올 때는 두부도 안허고 시집을 못 온 메누리니까 너는 둔비물에 손 댄 메누리냐. 두부도이 두부엔 안 헤 둠 비.

107083 @ 둠비지예?

107083 #2 둠비. 둠비물에 손 댄 메누리냐.

107084 @ 묵, 묵?

107084 #2 묵은 여러 가지주.

107084 @ 계난 묵 해난 거. 묵은 믰물묵?

107084 #2 믰물묵인디 묵은 여러 가지로 치레영 잘허는 사름은 아까 ㄱ튼 소레 기나 그 저 도레미썰 훑은 거는 안 뉘고 죽 끌려 먹는 거 흐썰 믰물썰을 푹 물에 푹갠다가 푹 우려나면은 이제 차두에 담아서 막 몽갈몽갈 막 허다 보면은 믰물썰은 약작헌 거니까 믰물은이 이 나는 시기도 막 짧으주게. 다른 농서 반식이 된 갈아도 ㄱ치 뉘는 거난. 믰물썰은 약헌거니까 막 허당 보민 믰물썰이 거푸레기만 남양 다 물을 짜 저벼 허민. 그 물을 솟디 비와 가지고 젓노렌 허면 풀풀 허면은 이제 그걸 어디 판대기에나 어디 낭푼에나 퍼 낵 놔두민 것이 푹푹 언치민 청묵.

107084 @ 음.

107085 #2 청묵이고 청묵 못 허는 사름은 그대로 영 ㄱ를 믰물ㄱ를 헤가지고 웰성시프다 허게 물에 카서 또 솟디 놔서 그렇게 젓으멍 풀닥풀닥허게만 젓영 또 뉘에 평 놔두민 탄탄허민 건 쏜묵.

107085 @ 음. 쏜묵.

107085 #2 쏜묵, 청묵, 또 하나는 이제 믰물ㄱ를헤서 그것도 저것도 못 허는 사름은 요만헌 멩테기에 알맞게 부침개 허는 요만이 카서 옛날에 후라이팬도 엇이니 까 솟두경 우이 놔서 묵 두께로 지지는 거야 이만이 두께허게 지정 또 요만씩 썰민 그거 지진묵.

107085 @ 아, 하하.

107085 #2 계난 묵 종륵 그거 세 개.

107085 @ 세 개예. 청묵, 쏜묵, 지진묵.

107083 #2 계란 요즘이야 두부해영 목 헛주 그뻐 두부허게, 목허게 두부를 못 했어. 두분 해져야지. 요즘은 두부로 목 하영 허는다.

107086 @ 미숫가루는 어떻 만들어수과?

107086 #2 미숫가루는 게.

107086 @ 미숫가루렌 해수과 이름을?

107086 #2 미숫ㄱ루.

107086 @ 미숫ㄱ루.

107086 #2 옛날엔 계역.

107086 @ 계역예?

107086 #2 보리게역, 보리게역.

107086 @ 보리게역 어떻 만들어수과?

107086 #2 슬브리도 좋고, 그건 길보리도 좋은데 깨끗허게 허영 잘만 물류우민 볶으는 거야 솟두경에서.

107086 @ 솟두경에서.

107086 #2 어. 솟두경이 크지. 껍싹싹 막 잘 볶으면 케주게. 경 핑핑 벌러지지 안 허고 그자 그릇만 조금 푹푹푹 나민 아 그것도 ㄱ레에 곱앙 채로 치민 우이 거 말앙 아래 것이 보리 계역이주.

107086 @ 집이서 급니까? 것도.

107086 #2 계게. ㄱ레에게. 이걸로만 살앗주 이걸로.

107086 @ 이거 다른 이름은 엇고?

107086 #2 쟁ㄱ레.

107086 @ 다시 한 번?

107086 #2 쟁ㄱ레.

107086 @ 쟁ㄱ레렌 불런예. 집이서 직접 ㄱ는 건예.

107086 #2 쟁ㄱ레, 밖에 나강 접으로 허는 건 물ㄱ레.

107087 @ 물ㄱ레. 지지미도 부청 먹어났수과?

107087 #2 옛날엔 지지미 못 해서. 요 근래 오랑 벨 거 다 햐주. 옛날엔 곧장 묵허고 떡허고 저 고기점. 옛날에 고기점 요만씩 썰어근에 저 꼬지에 꽃이민 요보 다 너비 좁앙 요만씩 허게 그자 넓적, 그걸 꽃은 건 적. 지지미가 어디셔.

107088 @ 술, 술은 담가나수과? 오메기술?

107088 #2 나는 덤그지는 안 허고 덤그는 거 봄만 해신디.

107088 @ 예, 어떻 담급디까? 오메기술은?

107088 #2 오메기술은, 오메기술 허젠 허민 막 보리 그것에 누룩을 깨끗이 헤야 웨여, 누룩을 깨끗이 해 뵈다가.

107090 @ 누룩은 어떻 만드는 거?

107090 #2 누룩은 보리를 저 보리쌀 곱멍, 저 보리쌀 우리 밥헤 먹젠 곱멍 쪼금 소레기영 곱인 거 ㄱ루도 섞어지곡 소레기로 웬 거 현 거를 물 맞게 물 조놀랑 영

영 해 보민 떡만이 허다 싶으면 그 높은 탄탄하게 췌영 따듯하게 놔 두민 거 트는 거라.

107090 @ 음.

107090 #2 푸린 꽃, 노린 꽃 피멍 트면.

107090 @ 음.

107090 #2 이제 내 낵 물리주게. 트멍 물리멍 해가민 밖에 안 널어도 그게 누룩. 누룩이고 갱 누룩을 헛당 오메기술을 허젠 허민 좁쌀을 해가지고 물에 담강 놔 두민 좁쌀이 다 불어나면 이제 방에 뿔는 거여이. 뿔앙 채로 치멍 채 우이 거는 또 낵 뿔곡 그냥 ㄱ루를 또 해지민 그 오메기떡 허는 건 희여부난에 흐린, 찰조라부난 그 높을 막 멩심해영 너미 질어불카부덴 물 맞창 요만씩 오메기떡을 해가지고 찰조라부난 솟디 부트카부덴 이척에 곱앗듯이 그 대섭을 해다근에 요만씩 나무대에 부트게 해당 영 이것이 솟이민 영 솟 아래 섭 가계 해영 물 끌러 가민 오메기떡을 그레 낵 솟앙 이제 다 익어, 익은성 시프다 허민 그 솟아난 물이나 오메기 떡이나 그자 죽거치 휘취 것영 그자 그 누룩ㄱ루를 섞영, 그 누룩도 뿔아야 따시 그걸 몰랐던 걸 방에에 안 뿔으민 그것이 어뎡해영, 뿔앙 걸 항아리에, 할망덜이 그걸 영 간을 맞추는 거여. 쓸이 멧 돼민 누룩이 요 얼마다 해영 맞창 혼 이틀만 시민 풍당풍당 헤여가주게. 푸글락푸글락. 게민 췌여도 그 높을 ㄱ만이 그대로 놔 두민 이제 오래 케민 든 술로, 게난 누룩을 깨끗이 해야. 먹고자프민 튼튼한 죽 닭은 걸 거렁 먹고 그렇지 안 허영 청주, 청주를 헐라면 ㄱ만이 건드리지 말앙 내불민 기름거치 우이 술을 딸 우터레 나는 거여. 게민 술술 딸랑 이제 그거 청주는 제서에 쓰곡. 제서에 쓰는 사름이 핫주게.

107090 @ 우에 것만 영 딸르는 거과, 아니면 뭐에 거르는 것과?

107090 #2 우에 것만 거 아래 거 들지 않게 술술허게 해근에 청주.

107090 @ 으 청주.

107091 #2 청주해근에 제서에 췌주게. 청주허고 감주허젠 허민, 이제 곱감주로 허젠 허민 저 보리해가지고 물 울려근에 곱 놀 때는 물 울렁 막 물 불어나시민 싹 건정 빛에 따듯하게 놔 두민 탁 보리가 날라고 바작바작바작 막 허민 그 높을 이제 그만 몰르게 해영 밖에다 널영, 죽이는 거여 나젠 허는 것을. 널영 그걸 바삭 몰르민 걸 ㄱ는 거여. 곱앙 곱ㄱ루를 헛다가

따시 이제 찰좁쌀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 알만 췌영 물낵 그 곱ㄱ루를 섞영 놔두민 이젠 밥에 쓸은 다 물 돼부는 것이여. 그 든 것에 물 돼불민 것도 딱 짜가지고 솟디 놔서 딸리젠 허민 것이 옛기름. 옛기름을 해서 요만헌 조막 단지라고 허여.

107091 @ 쪼그만헌 거.

107091 #2 어. 조막단지에 담아서 아이덜 미치지 못허게, 아이덜 그 옛기름 알민 다 파 먹어불주게.

107091 @ 하하.

107091 #2 아이덜 미치지 못하게 그걸 놔 뒀다가 제서 때에는 혼 두 손구락쫘 때 놔근에 물 낱, 설탕만이 들어가 거 흐썰 들게 허민 거 감주.

107091 @ 음.

107091 #2 우리 어머니도 행 놔 두민 우리 동생덜 퍼 먹어베나서.

107091 @ 아 그럼 옛기름에 물 섞으면 감주가 되는 거라?

107091 #2 어. 옛기름에 물 섞으면.

107091 @ 곶은 뭐과, 곶?

107091 #2 곶게 아까 곶은 거. 옛기름 허젠 허민 보리를 헛다가 물을 듬강 다 퍼지민 그 놈을 물을 건져가지고 뭐 차룽착에나 낱 뭐 더핑 चु지 안헌 디 놔 두민 바짝 나지 그거.

107091 @ 아 보리를.

107091 #2 발 난다 허민 또 짝이 나젠 허지게 짝이 나젠 허민 영 혼나 입에 나 보민 소곱에가 뭐 곶라근에 들코롬허멍 무시거 옛어가 게민 곶 이제 죽어불게 베겏 디 내근에 널영 막 여러날 물리당 보민 얼마나 몰라야 것이 이제 괄양 곶게 뵈거라. 곶아야지 그것해서 게난 곶, 곶ㄴ루.

107089 @ 게민 쉰다리는?

107089 #2 쉰다리는, 쉰다리는 쉬운 거. 쉰다리는 누룩만 행 이시민, 밥에 뭐 죽만이 물 헤근에 그 누룩만 들이치민 바글바글 케민 쉰다리 뵈지.

107089 @ 밥에 누룩만 들이치민 뵈는 거?

107089 #2 물 조금 노양. 뵈 죽만이 죽 뵈다 싶을 만이 밥에 물 놔근에 누룩만 뵈 방울 들이청 놔 두민 부글부글 케민.

107089 @ 얼마나 놔?

107089 #2 거 사람에 따라 난 이제 행 나두민 널 오후에사 먹는다 어떤 사람은 이제 행 나두민 널 아척이 먹주게. 성질이 와삭바삭헌 사람은 제기 바글바글 케고. 쉰다리만 제일 쉬운 거. 누룩만.

107089 @ 아.

107089 #2 요즘도이 쉰다리 짝 행 먹는 것이 저 시장에 누룩이 짝 푼니까 비싸도 안 허주게. 혼 삼백 원, 사백 원 혼 들레에.

107089 @ 아 기과 혼 들레에 삼백 원, 사백 원?

107089 #2 으. 그러난 거 사다근에 요만씩 조그만씩 썰어근에 밥 혼 사발 남앗다허민 물 영 흐썰 것영 그거 뵈 방울 들이청 나 두민. 쉰다리가 쉬운 거라.

107089 @ 그럼 아까 누룩은 상웨떡 만들 때도 누룩 좀 넣는덴 헛지에.

107089 #2 상웨떡 만들 때 누룩헤영 쉰다리 헤영 오래 내불민 그 쉰다리가 너 무 오래민 처음은 들고 말젠 쉼헤여. 막 시여 시여 게민 그 신 곶 건져 가지고 물 짜서 상웨떡 허는 거라.

107091 @ 옛, 옛?

107091 #2 게 옛 안 곶아냐 아까 옛기름 만드는 거.

107091 @ 옛기름 만드는 거 말고 썩엇 같은 거.

107091 #2 아 썩엇 만드는 건 똑같이 허다가 거자 끝는 때 고기 들이쳐불민 썩엇, 툇이나 썩이나.

107091 @ 아 닭이나 썩. 그럼 옛 종류는 닭엇 있고, 썩엇 있고, 또 뭐 이수과?

107091 #2 몰라 그자 툇엇, 썩엇만 허는데 재료는 똑가트게 허다가 너무 허도 안 허고 두루 허도 안헤영 거자 반, 너무 인척 노민 고기가 세영 못 먹어이.

107091 @ 으, 막 오래 끌리면.

107091 #2 으 겨난 거자 끌려져 갈 때 고기만 다 단속헐다근에 들이쳐불민 그 옛. 그 옛기름 헐 때 허는 재료 똑 그와 거치, 경허는 거.

107092 @ 말헐던 거 말고 어머니가 특별하게 만들헐던 음식 잇수과?

107092 #2 엇어.

젓갈

107048 @ 젓갈도 담강 먹엇수과?

107048 #3 젓갈 무신 젓, 자리젓이나 허곡.

107048 @ 어.

107048 #3 자리젓허고 저 오징어젓 그런 거나베끼사.

107048 @ 멜젓은?

107048 #3 멜젓도 허주게.

107048 @ 멜젓도 허고.

107048 #3 멜젓이나 자리젓은 건 그자 소금 판찌룩허게 헤근에 그 소금만 버무령 놔 두민 젓이 웨는 겨난.

107048 @ 아, 아무 것도 안 낱.

107048 #3 어.

107049 @ 게민 자리젓 헐 때 소금 얼마만큼 담급니까, 자리랑 소금이랑 비율은?

107049 #3 건 소금, 소금 혼 말에, 침 저 자리 혼 말에 소금 저 거시기 옥제기.

107049 @ 예.

107049 #3 옛날은 옥제기엔 허주게, 저 쏘 거리는 거.

107049 @ 아, 쏘 거리는 거 옥제기.

107049 #3 어, 자리 혼 말이민 걸로 하나.

107049 @ 음.

107049 #3 하나 낱 버무령 짝 담양 놔두민 건 젓 웨는 거.

107049 @ 음, 자리 혼 말에 옥제기.

107049 #3 하나.

107050 @ 하나예. 멜젓은?

107050 #3 멜젓도.

107050 @ 양은?

107050 #3 양은 ㄴ타.

107051 @ 아감젓 알아지쿠과?

107051 #3 어?

107051 @ 아감젓.

107051 #3 알개미젓. 알개미엔 현 건 그 창란젓이나 마찬가지로.

107051 @ 음.

107051 #3 그런 건 안 헨 먹어부난 몰라.

107051 @ 물고기 아가미로 담근 거 아니?

107051 #3 어어 창란이엔 허연 그거 저 거시기.

107051 @ 머리, 머리 물고기 아가미.

107051 #3 어, 아가미, 아우생이.

107051 @ 아우생이 그걸로 담그는 거.

107051 #3 거 창지 빠근에.

107051 @ 창지 빠가지고. 으, 그건 안 담가 먹고?

107051 #3 아니 해봐서.

107051 @ 어쨌든 담그는 건 마찬가지로?

107051 #3 마찬가지로

107052 @ 게젓 해낫수과, 게젓?

107052 #3 게젓은 그거 해여근에 독독독 흐쫂 두드려근에.

107052 @ 뭘 두드려?

107052 #3 그 게, 게 너미 카지게 허지 말앙 독독허게 흐쫂만 허영. 쟁헝 놉근 에 거시기 양념해근에 장에 톱강 놉두민 것가 별경허여. 별경허민 그거 빨아 먹으민 것가 게젓이주.

107054 @ 아, 기구나예. 저 출레는 뭘 출레렌 헵니까?

107054 #3 이 반찬덜ㄴ라 출레렌 허주.

107054 @ 반찬을 다 출레렌 해.

107054 #3 어, 출레.

107054 @ 출레는 어떤 거 잇수과?

107054 #3 출레사게 자리젓, 멜젓, 게젓, 꿩기젓, 창란젓 것ㄴ라 문 반찬. 무시 거 밥 내 놉근에 앓아 내는 것이 거 반찬이엔 허주게.

107054 @ 젓갈 종류만 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생선 구운 것도.

107054 #2 생선 군 거나 또 돼지꺽기 튀긴 거나 군 거나 것도 문 반찬. 반찬이엔 허주, 반찬.

107054 @ 아니, 출레는?

107054 #3 출레는 그거 출레가 반찬이라.

107054 @ 아, 출레가 반찬이라.

107054 #3 어, 출레엔도 허고 반찬이엔도 허고.

107056 @ 음. 콕데사니 지시 같은 것도 만들어놔수과?

#107056 3 콕데사니 지시사게 이제 흥끔 시민 그거 이제 그 파 짐치광 ㄹ치덜
헐거라. 거 해근에 ㄹ 쫄라근에 무우 ㄹ렝이 썰영 ㄹ리운 거. 그거 흥끔 색이고 해
근에 것도 소금물에 ㄹ갓당 건져근에 양념 버무령 담아 ㄹ두민 것가.

107056 @ 음. 지시 담그는 건.

107056 #3 지시, 지시.

장아찌와 회

107055 @ 지시는 뭐, 뭐 담가나수과?

107055 #3 지시사게 파, 파도 허고.

107055 @ 파.

107055 #3 또 대사니.

107055 @ 대사니. 콕대사니?

107055 #3 어, 어. 거베끼사 무시거 지 담는 거.

107055 @ 지 담아난에.

107055 #3 으.

107056 @ 게민, 콕대사니 담을 때 시기는? 언제 답읍니까?

107056 #3 지금 헐 때 텀서. 지금 거시기 ㄹ 짐치헐 때 것도 허는 거난. 이제
대사니덜 허염주게. 대사니지.

107056 @ 예, 대사니 지시덜예. 게민 그건 어떻 답읍니까?

107056 #3 그건 썰어근에 썰영 소금에 ㄹ갓당 건져근에 것도 양념허영 담양 ㄹ
두민 ㄹ주.

107056 @ 양념은 뭐 허영?

107056 #3 양념은 ㄹ타, ㄹ타.

107056 @ 그거 지시헐 때도 고추ㄹ루 ㄹ ㄹ힙니까?

107056 #3 어. 고추ㄹ루 아니 드는 디가 셔. 문딱 고추ㄹ루 ㄹ사.

107056 @ 지시허는 디도? 장물 ㄹ 물 ㄹ ㄹ허는 거 아니고?

107056 #3 물 ㄹ ㄹ로 그 물 크는 건 ㄹ로 오래 못 먹어. 흥쫄만 해근에 그것에
무우 썰영 무우 ㄹ ㄹ렝이 ㄹ룬 거 그거 세껴근에 그 저 대사니 썰영 담아근에 그
것에 흥디 색경 담양 장물만 ㄹ ㄹ ㄹ리명 ㄹ두는 것도 ㄹ는 거고. 또 무우ㄹ렝이
에 세껴근에 양념 버물영 먹는 것도 ㄹ는 거고.

107056 @ 아.

107056 #3 건 아멩해도 이녁 먹고장 ㄹ ㄹ ㄹ행 먹는 거.

107057 @ ㄹ, ㄹ 물고기 ㄹ, ㄹ는 무슨 ㄹ 먹어놔수과?

107057 #3 ㄹ, ㄹ사게 무신 이녁 먹고장 허민 저 자리ㄹ도 ㄹ ㄹ 먹고 ㄹ, ㄹ ㄹ 거
저 옥돔헤어근에 것도 ㄹ ㄹ ㄹ 먹고장 허민 ㄹ ㄹ ㄹ 먹고 경허는 거주.

107057 @ 아까 또 검정 생선 뭐였수과 휘헤 먹는 거?
107057 #3 보근치.
107057 @ 아 보근치. 보근치도 휘 행 먹고예?
107057 #3 으.
107057 @ 새끼휘도 먹어났지예?
107057 #3 새끼휘도 먹는 사름은 먹어도 우린 먹지 못허여.
107057 @ 으.
107057 #3 바레민 먹지 못허여.
107057 @ 바레민 먹지 못허여. 어떤 것과?
107057 #3 도새기 새끼게 별경헌 거, 거 해근에 난도질 해근에 먹는 사름은 막 먹어. 난 간은 흐뎡 먹어나도 새끼휘 먹지 못헤.
107057 @ 어. 그러면 그거는 추렴헐 때덜이지예.
107057 #3 경허주만은 이디션 이젠 그런 거 허는 디가 엇이난.
107058 @ 이제는 엇지예. 이제는. 반찬예 봄에는 무신 반찬 헤 먹엇수과?
107058 #3 봄에 무신 반찬헤.
107058 @ 봄에 보통.
107058 #3 봄에 무시거 흐엇이 딱난 반찬 먹어져.
107058 @ 다 똑같읍니까?
107058 #3 ㄱ트주게. 봄에 무시거 저 툄 시민 툄도 무청 먹고 몰망 시민 몰망도 무청 먹고 허주만은 이젠 그런 거 어디 장에나 강 사옴 전인. 남원리 그거 엇건디 막 오래서.
107058 @ 아, 엇어진지.
107058 #3 옛날에덜은 잇엉 먹어났주게. 옛날에 막 하민 강 헤다근에 널엉 툄렛 당도 먹고 데왕도 먹고 헛주만은 이젠 경 엇어.
107058 @ 어. 여름에는. 여름에 반찬 뭐헐 먹읍니까?
107058 #3 여름에 반찬 뭐, 냉국이나 헐 먹고, 냉국도 메역 해근에 언물예 허민 냉국이주게. 언물예 허민 냉국. 툄도 헐 먹고 헛주만은 이제 그건 거 엇어.
107058 @ 가을에 뭐 따로 엇고?
107058 #3 으.
107058 @ 겨울?
107058 #3 겨울에 툄 게 엇어. 겨울에 무시거게 젓갈 ㄱ튼 거나 헐 낫당 먹음베 끼. 집치영.
107058 @ 뭐 생선 계절별로 나는 거 헐 구웁 먹고 그런 건 엇어났수과?
107058 #3 엇어, 엇어.
107058 @ 우력 조림?
107058 #3 그런 건 먹고장 허민 사당.
107058 @ 뭐 계절 상관 엇수과?

107058 #3 엇어.

107058 @ 고사리 무침?

107058 #3 고사리도 거꺼 오는 사름 싯주만은. 옛날엔 나도 고사리 거꺼낫주만은 이젠 고사리, 고사리가 뿔산디 몰라.

107058 @ 하하하.

107058 #3 나도 고사리 막 하영 거꺼나서. 경헌디, 경허단 보난 나 몸만 망가져 불고.

107058 @ 일만 허당 보난에.

107058 #3 일만 허당, 배운 것도 엇고. 아이구.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3 그건 이제도 허고 저 삼월 나민도 허고. 콩혜근에 슴아근에 막 대경 돌아대영, 테레비에 보민 자꾸 돌아매지 안 허여. 그추룩 돌아맷당 그 막 물류민 그 거 놔근에 또 소금물 곱아 낱 경허엿다근에 그 장물이 까맣게 익으면 장물 툄라뵤그 웬장은 막 대겨 노면은 웬장이 뵤는 거라.

107060 @ 장물은?

107060 #3 장물은 거려 놓고, 거려 놓민 장물만 먹고.

107060 @ 아, 게민 웬장 담갔던 물이 간장인 거라예.

107060 #3 으으.

107060 @ 그럼 그 물은 툄라뵤 웬장.

107060 #3 으으.

107062 @ 그럼 메주는 언제 슴으는 것과?

107062 #3 메주는 이제도 슴고. 옛날엔 저.

107062 @ 옛날에 옛날에.?

107062 #3 옛날엔 저 동짓뵤에. 음력 동짓뵤에 행 동지 전이. 동지 전이뵤 행 슴앗다근에 장은 2월뵤에 듁고. 옛날엔 경헤낫주만은 지금은 아무 때나 허메.

107062 @ 게민 동짓뵤에 메주 슴는 것부터 물어보쿠다예. 콩 장만헌 거 갓당 그냥 물 부영 막 슴아?

107062 #3 으.

107062 @ 콩?

107062 #3 콩은 혜당 두드려. 거 판지롱허게 물리왕 막 싯어뵤근에 슴디 놔근에 막 팔팔팔 막 끌려근에.

107062 @ 물은 얼마나 뇨니까?

107062 #3 물 슴뵤 놔.

107062 @ 슴뵤 놔?

107062 #3 으. 손 우터레 올르게. 이것이 슴 바위면은 콩 우터레 물이 듁박허주.

107062 @ 으.

107062 #3 경허영 솥당 그 물이 브따 불면은 따시 물 흐쓸 낱 영 짓으면은 콩이 빨리 피어나.

107062 @ 어. 몇 시간 정도 솥으는 것과?

107062 #3 것사 거, 하영 허민 하영 솥고 찍영 농민 찍영 솥으는 거주게. 경허민 물 브따가민 물 흐쓸 낱 영 짓으면 콩이 제기, 빨리 피어나주게 북삭허게. 경허영 피어나건데 그걸 해근에 막 대겨. 옛날은.

107061 @ 뭐로 대답니까?

107061 #3 옛날은 방에에서도 뿔아나고 하영 허민 물그레에도 강 골아당 해나고 해나서.

107061 @ 아, 메주 많이 허는 사람들은.

107061 #3 으. 콩을 닷말씩덜도 솥는디게.

107061 @ 어, 다섯 말.

107061 #3 으 옛날은 경해나서.

107061 @ 어무닌 몇 말이나?

107061 #3 나도 서말꺼진 솥아나서.

107061 @ 서말이민 메주덩어리 몇 개나 나와?

107061 #3 하영 나오주. 흐, 건 크게 멘듬 족게 멘듬을 가지고 크게 멘들민 하영 안 나올 거. 족게 멘들민 여라개 나올 거 경. 돈 돌아멩.

107061 @ 솥아서예, 솥은 다음 물방에 강 끓아. 집이서 허는 사람덜은.

107061 #3 방에서 방에서.

107061 @ 어, 방에에서 찍영 뿔잖아예. 경 어떻게 그 다음?

107061 #3 경해영게 죄영 무시것에 낱 놔두민 허영게 곰생이 피멍 북삭허게 트주게. 트민 거 행 해쌍 물황 물류민 장.

107061 @ 영 찻 해영 매달지 안 됩니까?

107061 #3 아니 직으로 돌아메지 안허여. 전인 경 돌아메신디.

107061 @ 게니까, 전이 전이?

107061 #3 전인 경해영 담양 낫다근에 해쌍 물류민, 물류민 소금해근에 다라에나 무시것에 소금 놔근에 간 맞게 행 낫다근에 그 메주 향에 낱 그 물을 비왕 놔두민 장이 되는 거주.

107061 @ 장이 되는 거예. 게민 동지덜에 솥앙 메주를 만들고 그거 곰팡이 피고 뿔허고 두 달 동안은 있는 거다예.

107061 #3 으. 경허민 이월덜에 장 덩그고.

107061 @ 예, 이월덜에 장 덩그고예. 경행 매해 행 웬장 먹고 간장 먹고 헌 거예.

107061 #3 옛날은 경행 장 덩아보면 그 장이 꼭 그튼 물에 그튼 소금에 낱 덩아도 장이 냄새냥 못 먹는 장이 이서. 경행 그 집이 운이 나빠. 그해에.

107061 @ 아하.
 107061 #3 경혜영 그 장으로덜 경 알멍 살아나서.
 107061 @ 아, 장 담가신디 맛없는 때가.
 107061 #3 어, 막 냄새 팍허고 장 웬 먹지 못허는 장이 잇주게 굿언.
 107061 @ 아, 기민 그 집이 무신 일 이십니까?
 107061 #3 굿어, 굿어.
 107063 @ 혹시 그럼 장 만들 때 뭐 허민 안 된다 허는 금기 사항 같은 거 잇수과?
 107063 #3 몰라 몰라 그런 건.

떡류

107064 @ 그런 건 몰라. 떡 물어 볼게예, 떡예. 떡의 종류, 떡 이름 알아지는 거 알아줍서.
 107064 #3 아이구, 떡은 쌀, 쌀 물에 컷당.
 107064 @ 아니 아니, 우선은 떡 이름.
 107064 #3 이름.
 107064 @ 종류부터 무슨 떡 잇수과?
 107064 #3 친떡.
 107064 @ 친떡.
 107064 #3 솔펜.
 107064 @ 어, 솔펜.
 107064 #3 정기.
 107064 @ 정기.
 107064 #3 아니, ㄹ만셔봐. 친떡, 솔펜, 절벤, 인절미. 경허민 네 가지, 네 가지 허고 또시 무시거. 쌀로 허는 건 그거고 거 네 가지. 친떡, 솔펜, 절벤, 인절미.
 107064 @ 뭐 빙떡?
 107064 #3 빙떡은 정기. 정기엔 허주, 정기.
 107064 @ 상웨떡은?
 107064 #3 상웨떡은 저 상웨떡은 밀ㄹ루허여근에.
 107064 @ 그럼, 아까 얘기헌 건.
 107064 #3 밀ㄹ루로 허여근에.
 107064 @ 빙떡은 아니잖아예, ㄹ물ㄹ루잖아예?
 107064 #3 으, 빙떡은 ㄹ물ㄹ루로 허고 상웨떡은 밀ㄹ루로 허고 또 친떡은 곤쌀로 허고.
 107065 @ 친떡이 시루떡, 시리떡?
 107065 #3 시리떡.
 107065 @ 시리떡예. 게민 시리떡 만드는 거 어떻 만듭니까?

107065 #3 시리떡은 ㄹ루혜근에 시리 잇주 저 알로 고망 바롱바롱헌 고망 난 것에 ㄹ룰헨 막 담아냥, ㄹ루 담아와근에.

107065 @ ㄹ루는 언제 행 와?

107065 #3 ㄹ루게 그 떡 헐 때 허는 날에 강 돌아오주게.

107065 @ 케민, 쓸을 씻엉.

107065 #3 쓸 물에 컷당.

107065 @ 물에 컷당.

107065 #3 건저근에.

107065 @ 건정.

107065 #3 거 돌아다근에.

107065 @ 돌아당.

107065 #3 저 이거 옛날에 혜난거라. 지금덜은 경 안 허여.

107065 @ 예, 예 옛날 허는 거로 돌아주십서.

107065 #3 경헨 돌아다근에 그 시리에 와근에 ㄹ루 흐쓸 영 냥 그 우터레 풀 솟은 거 근 거 그거 영 허경 그거 부뜨지 말렌. 경헨 와근에 또 ㄹ루 놓고 허멍 징장이 놓멍 시리떡은 쳐나서. 경허민 따시 그 시리떡 치민 옛날은 이 저 거시기 이디 식으로만 식게 멩질을 허민 자꾸 떡혜근에. 경허민 그 시리떡 허여 와근에 그 떡 허고 또시 솔펜, 인절미, 절벤, 중궤, 약궤 그거 문딱 옛날은 큰일 땀 혜낫주. 중궤, 약궤는 그거 인절미 ㄹ치 비어근에 고망 딸르멍 문 저 후라이판에서 튀겨. 튀겨근에 중궤, 약궤허고.

107065 @ 케민, 시리떡은 아까 떡 ㄹ루 돌아왕 여기 시리에 놓고 또 풋 ㄹ루 놓고 또 떡 ㄹ루 놓고 풋 ㄹ루 놓고예. 그렇게 행 떡 ㄹ루 한 몇 칭정도 만듭니까?

107065 #3 건 시리가 크민 하영 허고 족으민 족영 놓고 허는 거.

107065 @ 거 층은 몇 층 놓고 허는 건 상관없는 거?

107065 #3 거 상관 엇주게. 건 크민 하영 허는 거고, 족으민 족영 허는 거.

107065 @ 경헨 콩 ㄹ루 냥 영 덮어?

107065 #3 으, 풋 ㄹ루, 풋 ㄹ루만.

107065 @ 풋 ㄹ루 놔가지고 더경.

107065 #3 어.

107065 @ 뚜껑 더평 얼마나 솟아?

107065 #3 그거 영 솟아지민 떡이 영 익으민 튼튼혜영 카지주 안허여. 안 솟아지민 카져불고 게나 거, 거 보멍.

107065 @ 시리떡 칠 때 밑에 깎는 건 엇수과?

107065 #3 무시거 깎아?

107065 @ 뭐 솔잎 같은 거 안 깎아?

107065 #3 아니 아니, 솔잎은 저 솔펜, 솔펜 멘들앙 헐 때는 솔펜은 ㄹ루 혜근에.

107065 @ ㄹ루행?

107065 #3 ㄹ루행 밀엉.

107065 @ 밀엉?

107065 #3 밀엉 본으로 똑똑 떠근에 떠근에 솟더레 놔근에 솔입 영 놔근에 또 놓고 또 놓고 행 징징이 놔.

107065 @ 징징이 놔?

107074 #3 경행 치는 것가 솔펜.

107074 @ 아 솔펜.

107074 #3 솔펜이고 그 다음은.

107066 @ 송편은?

107066 #3 송편은 접는 거 속에 앙꼬 놔.

107066 @ 송편 만드는 거 곱아줍서.

107066 #3 송편도 영 밀엉.

107066 @ 아니, 우선은 ㄹ루 곱아오는 거부터 처음부터 다.

107066 #3 ㄹ루 계메, ㄹ루 곱아오는 건 친떡이나 송편이나 다 ㄹ룬 ㄹ치. ㄹ치 곱아근에 물에 몰양 밀엉. 밀어근에 동글랑 현 걸로 똑똑 찍어근에 떠근에 속에 앙꼬 담아근에 접는 건 건 송편. 송편이고 그냥 영 밀어근에 딱딱 떠내어근에 솔입 놔 치는 건 솔펜. 솔펜에 송편은 거 앙꼬 담아 접는 것ㄹ라 송편이엔 허주.

107066 @ 송편예?

107066 #3 솔펜은 그냥 영 뜨는 것가 솔펜.

107066 @ 거 앙꼬는 뭐 씹니까?

107066 #3 앙꼬는 아무거라도. 팻, 팻 담아도 좋고 설탕, 설탕 담아도 좋고 또 저 보리콩 그런 걸 담아도 좋고 앙꼬 아무 거나 담아.

107066 @ 그럼, 송편 반죽할 때 물은 뜨거운 물 놓습니까?

107066 #3 으, 물 레는 물 놔근에 보슬보슬하게 헤근에 막 달황 밀어 밀어근에 떠근에.

107066 @ 아, 여기서는 송편 만들 때 밀엉 땡 이렇게 췌니까?

107066 #3 으, 경허여.

107066 @ 아, 다르구나예, 만드는 방법이?

107066 #3 으, 이 테레비에 보난 요새덜은 그냥 영.

107066 @ 좁아근에 손에서 영영 허건든예.

107066 #3 으. 경헌디 이딘 옛날에 송편 영 접는 건 떠근에 그 소곱에 앙꼬 놔 영영 접어.

107066 @ 아, 영 떠가지고.

107073 #3 어, 인절미엔 현 거 또 솔펜 그 친떡에 딸르는 거라. 그 친떡에 첫 번에 솔펜 그 다음은 인절미엔 현 거 요만씩 허주. 이 인절미 네귀반득현 것이 인절미. 또 저 세귀난 건 솔펜. 또 벵동글랑 현 건 절벤. 절벤은 본 동글랑현 걸로 헤

근에 요만씩 현 거 두 개 부짱, 두 개 부짱 놔근에 꼭 누르뜨민 거 절벤 절벤.

107073 @ 게민 절벤이랑 인절미 만드는 거 반죽하는 건 어떻게여?

107073 #3 둘 ㄴ치허여.

107073 @ 아, 송편이랑 ㄴ타마씨?

107073 #3 다 ㄴ치허여.

107073 @ 쓸ㄴ루 곁아온 거에 퀘는 물 놔서.

107073 #3 어, 퀘는 물 놔.

107073 @ 반죽행?

107073 #3 경행 반죽해근에.

107073 @ 일어예?

107073 #3 어, 송편하고 인절미는 밀영 허고 절벤은 동글랑허게시리 보병, 영 손에서 동글동글허게시리 보벼근에 두 개, 두 개 톡허게 영 부짱근에 본으로 톡허 게 누르뜨민 절벤돼고. 동글랑허게.

107073 @ 게민 치는 거는 어떻게고?

107073 #3 치는 건 그 절벤은 안 쳐.

107073 @ 안 쳐?

107073 #3 건 숲아냥 그자 영영 멘들아냥 숲아벼근에 그건 멘드는 거난 그 절 벤은 안 치고.

107073 @ 아, 그민 다시 한 번예. 그 절벤은 그럼 반죽해난 다음 숲으는 거?

107073 #3 어, 반죽해영 동글동글허게 헤영 숲아근에 그거 건져내영 절벤은 멘 드는 거고 솔펜과 인절미는 그냥 저 밀어근에 떠. 떠근에 솔입 노명 치는 거. 친 건 인절미 저 솔펜 그건 솔입 놔 치곡 절벤은 숲아벼근에 보병 누리뜨면 건 절벤, 건 숲지 안허는 거.

107073 @ 경 절벤은 동글동글허게 요만씩 만들앙?

107073 #3 어, 경 두 개 부짱근에 누리뜨면 절벤.

107073 @ 게민, 절벤 숲을 땀 어떻게?

107073 #3 절벤 숲을 땀 ㄴ루 물아근에 요만씩 요만씩허게 멘들앙 그자, 그자 들이창 숲앙, 팔팔허게 숲앙 숲으민 그거 건져내근에 그거 달좌. 막 물땀게 달좌근 에 요만씩요만씩 그치명 손에서 영 보벼근에 두 개 부짱근에 누리뜨민 거 동글락현 거 절벤.

107067 @ 빙떡은 어떻 만듭니까? 빙떡?

107067 #3 빙떡은게 ㄴ물ㄴ루 허꺼근에.

107067 @ ㄴ물ㄴ루 타는 거부터.

107067 #3 물, 언물에 카.

107067 @ 언물에?

107067 #3 언물에 소금도 간 맞게시리 소금도 놔근에 카근에 저 후라이판에 헤 영 사꾸로 흐끔 걸영 영 짓으민 빙떡이 되는 거주.

107067 @ 후라이판에 헛수과 솟두껍에 헛수과?
 107067 #3 솟두껍에나 후라이판에나 건 마찬가지로.
 107067 @ 옛날에는?
 107067 #3 솟두껍에.
 107067 @ 솟두껍에 헛지예. 영 뒤집어 낳?
 107067 #3 어, 경혜근에 무시거 무우 무우나 숲아근에 거 양꼬 놔근에 영 먹는 거. 갓가 빙떡.
 107067 @ 솟두껍에 기름 칠 하잖아예. 뭐로 칠 험니까?
 107067 #3 지금은 저 무시거게 무우 무우 끝갱이로라도 험 불르고 춤지름 험.
 107067 @ 춤지름예. 무우채 썰영 숲잖아예. 양념험 땐 뭐 놔근에?
 107067 #3 파, 파 놓고 지름 놓고 꿩 놓고 혜근에. 경혜영 담양, 경혜영 몰민 거 빙떡.
 107068 @ 상웨떡은 어떻 만듭니까?
 107068 #3 상웨떡은 밀꺠루 혜여근에 밀꺠루혜영 이스토. 저 상웨 피는 거. 빵집이 강 상웨 피는 거. 거 이스토 도렌 허주게.
 107068 @ 뭐?
 107068 #3 이스토.
 107068 @ 이스토, 이스트?
 107068 #3 어, 그거 흐쫄허고 막걸리 흐쫄허고 혜근에 설탕 놓고 혜영 막 달걀 놔두민 북썩허게 피민 거 밀멍 거 치민 거가 상웨.
 107068 @ 상웨떡 칠 때는 어떻게마씨?
 107068 #3 상웨떡 칠 땐 그거 막 밀영 막 이거 민 거 아니라 밀민 요만썩허게 그창 그차근에 거 솟더레 툃툃허게 흐나썩 흐나썩 앗양 건 포 놓진 못허난 흐나으로만.
 107068 @ 기민 찜통에 뭐 깔아놔? 뭐 천이나?
 107068 #3 험벅, 험벅을 깔아놔. 쟁험 치민 갓가 상웨떡이주.
 107069 @ 제사때는 어떤 떡 혜낳수과?
 107069 #3 제사땐 빙떡도 허고 상웨떡도 험 허고 이 솔벤 절벤도 험 허고 건 혼 앗어.
 107070 @ 그럼 장 낳을 때는?
 107070 #3 그때는 이 솔벤, 절벤, 친떡 문딱 허주.
 107070 @ 떡 종류 다해?
 107070 #3 으, 과질 또 중괘, 약괘 그런 거 다.
 107070 @ 아, 과질, 중괘, 약괘. 중괘, 약괘가 뭐과?
 107070 #3 중괘 약괘엔 현 건 그 저 거시기 밀영 그차근에 요추룩 요추룩 ㄱ는 건 영 ㄱ는 건 중괘, 요만썩 현 건 약괘, 솔벤은 영 현 갓가 솔벤. 요만이 현 건 저 인절미. 거 영 밀영 허는 건 절벤. 그런 거 다 혜나서.

107071 @ 설기떡은?
107071 #3 어?
107071 @ 설기떡, 설기떡 알아지쿠과?
107071 #3 설기떡은 나 몰라.
107074 @ 솔벤 아까 얘기헌 거예?
107074 #3 으.
107074 @ 솔벤이 어떤 거였더라?
107074 #3 솔벤 영헌 거 영 둥그랑. 영 밀어근에 트는 거.
107074 @ 아 요런, 요런 모양으로?
107074 #3 어, 어.
107075 @ 웃기떡은 뭘 웃기떡이렌 험니까?
107075 #3 웃기떡도 몰라.
107076 @ 저기 당에 다닐 때 옛날에?
107076 #3 당에?
107076 @ 당에 다닐 때 떡 해낫잖아예?
107076 #3 그 저 당에 다닐 땐 떡 동글락 떡.
107076 @ 으, 동글락떡.
107076 #3 으, 뱅동글락, 뱅동글락.
107076 @ 그건 뭐렌 곶아난? 당에 다닐 때 허는 떡?
107076 #3 몰라 건 무신. 거 당에 다닐 땐 믱물꺾루도 허고 저 찰꺾루로도 허고 해서. 돌레떡, 돌레떡.
107076 @ 아, 돌레떡.
107076 #3 돌레떡. 동글랑 동글랑허게시리 요만씩 동글랑동글랑허게.
107076 @ 거 돌레떡 만드는 거 곶아줍서. 믱물꺾루로.
107076 #3 믱물꺾루 저 더운 물에 밀아근에 막 달좌. 꼭꼭 달좌근에 그거 헤영 영영 췌민 돌레떡이 되는 거주. 요만씩 허게.
107076 @ 뭐 놀르진 안 허고?
107076 #3 놀르지 안 허고. 요만씩.
107076 @ 영영 손으로만.
107076 #3 어, 손으로 영허민 요만씩 허주게. 동글락 갓가 돌레떡.
107076 @ 만든 거 칠 땐 어떻 쳐?
107076 #3 그 거 다른 떡 치듯이 솟디 고살 놔근에.
107076 @ 험벽 깎앙?
107076 #3 어, 험벽 깎앙 치는 거.
107077 @ 굿떡, 굿혈 때?
107077 #3 굿떡이 그거.
107077 @ 아, 굿떡이 그거과?

107077 #3 굻떡이 저 곤떡으로도, 곤쌀로도 허고 믫물쌀로도 허고 그건 두 가지로 허여근에. 굻허는 딴 그런 걸로 허는 거라.

107077 @ 아, 당에 갈때는 굻 헐 때는?

107077 #3 그 당에도 굻이난에.

107077 @ 아, 고사지널 때영에.

107077 #3 어어.

107064 @ 그럼 그거 외에 아까 떡 얘기 했었던 게.

107064 #3 시리떡, 솔펜, 인절미, 절벤, 중괘, 약괘 거.

107064 @ 중괘, 약괘는 다른 거?

107064 #3 중괘, 약괘는 거, 저 큰일 때에.

107064 @ 큰일 때, 상례 때.

107064 #3 어, 장서지널 때나 대소상이나 그런 큰일 때에는 그게 혜근에 요만씩 허게 그차근에 다 이 저 후라이판에나 어디 낳 든 지저. 지정 것이라 거 중괘 약괘. 그튼 떡인디 거 지지는 것가 중괘, 약괘. 과즐허고.

107064 @ 그럼, 같은 건데 뭐는 중괘렌 부르고 뭐는 약괘렌 허고?

107064 #3 이 긴 거, 긴 건 수량허게 건건 중괘 또 영 족은 건 약괘.

107064 @ 아, 긴 건 중괘.

107064 #3 족은 건 약괘.

107078 @ 족은 건 약괘. 저기 제사 때 떡 했었고, 당에 갈 때 떡 했었고 상례 때 떡 했었고 그 외에 떡은 언제 해낳수과?

107078 #3 그 외에서 무슨, 무시거 떡 헐 때 잇어?

107078 @ 생일날 떡 헷수과?

107078 #3 생일날 안 허여.

107078 @ 안 헷지예.

107078 #3 으. 생일이나 그자 밥덜이나 행 먹고. 무시거 흘리지 안 허영.

소와 고물

107080 @ 케민 그 떡 만들 때 그 고명으로 쓰는 거렌 헷니까, 그 우이 뿌리는 거? 콩 허잖아예.

107080 #3 쉬, 쉬.

107080 @ 예 쉬 허잖아예. 쉬는 뭐로 써낳수과?

107080 #3 쉬는게 무신 풋이나 녹뒤나 거 솥양 막 돼기민 그루 돼는 거 아니라 게 경허민 그거 뿌리는 것가 쉬. 친떡 치는 디.

107080 @ 거기에는 뭐 설탕 섞지 앓고?

107080 #3 안 허여.

107079 @ 그럼 안에 들어가는 거. 고물은 뭐뭐 잇고?

107079 #3 고물이 무시거라?

107079 @ 속에 놓는 거?

107079 #3 속에 놓는 거, 양꼬.

107079 @ 양꼬.

107079 #3 양꼬, 양꼬는 풋 솥앙 놔도 되고. 콩 솥앙 놔도 되고. 설탕에도 그루 아삭 놔근에 그루 하영 놓지 말앙 흐썰만 낱 양꼬 담아도 되고. 쟁허는 거주.

107079 @ 계민, 우이 씨우는 거 풋 솥은 거나 콩 솥은 거에는 설탕 안 서끄고.

107079 #3 으, 안 서끄고.

107079 @ 속에 넣는 거에는 설탕 서끄고.

107079 #3 어, 설탕 흐썰 낱.

107079 @ 께도 해낫수과?

107079 #3 께, 께도 설탕에 흐썰 버무령.

별식

107082 @ 순대 같은 것도 만들어 낫수과?

107082 #3 수에 안 만들어.

107082 @ 안 해난. 뭐 여기 잔치힐 때나?

107082 #3 잔치힐 때 같은 덴게 그 베설덜 꺼내어근에 막 막 빨아덩 빨아뒤근 에 그 베설 흐썰 다져놓고 믹물궤루 해근에 것에 이 양념 파 썰어 놓고 께 놓고 막 양념해영 그 순대에 담앙 솥앙 먹영, 먹어낫주게.

107082 @ 예, 그 수웨 만들 때예?

107082 #3 으.

107082 @ 막 씻어.

107082 #3 어 씻어덩.

107082 @ 그럼, 그 물은 무슨 물에 핏물에?

107082 #3 핏물에 허주게.

107082 @ 돼지 핏물 받아근에 믹물궤루 서క్క?

107082 #3 으, 경행. 피 흐끔 농곡 해영.

107082 @ 피 놓고 양념은 뭐 마늘, 파?

107082 #3, 으 그런 거 양념해영.

107083 @ 두부는마씨? 두부는 어떻 만들어낫수과?

107083 #3 두분 콩 물에 컷당 곱앙, 곱민 거 물에 컷당 곱민 물씩허게 물로 나오주게. 물로 나오민은 그거 해근에 저 솟디 낱 막 젓으멍 팔팔 끌러, 팔팔 끌러근 에 무시거 저 시마지나 무시거 얇은 천, 얇은 천 깎아근에 그레 해영, 콩궤루 막 팔 팔 끌린 걸 그레 담앙 놔두민 그 우이 무시거 지들황 놔두민 것가 두부가 되는 거.

107083 @ 아, 천에 물 빠지게.

107083 #3 어, 어. 빠지민 것가 두부 되는 거주.

107084 @ 메밀묵은 어떻 만듭니까?

107084 #3 메밀묵은 ㄹ루론 ㄹ루 카근에 그냥 떡 지지듯 영 지정. 그건 물론냥 허는 거고 청묵은 그 ㄹ물쌀혜근에 물에 컷당 거 막 즈물민 형벽에 행 막 짜근에 짱 그 물을 물 팔팔 끌리민 청묵이 되는 거.

107084 @ 아, 그 끌린 거 그릇에 담아 놓민?

107084 #3 으, 청묵이 되는 거.

107084 @ 식으멍 굳어가지고예?

107084 #3 으, 그것이 청묵.

107084 @ 청묵할 때 물을 얼마나 놔야 될지는?

107084 #3 건 그 ㄹ루에 맞게. ㄹ루 하민 하영 놓고 죽으민 죽영 놓고. 물 너미 하민 안 돼여.

107084 @ ㄹ루 아니고 저기 쫄이지예.

107084 #3 어어.

107084 @ ㄹ물쌀예.

107084 #3 어어. 쫄혜영 물에 컷당 것가 영 막 짜, 짱 이 물을 솟디 낱 팔팔 끌리민 청묵이 돼여.

107086 @ 저기 미숫가루도 혜 먹어났수과?

107086 #3 미숫ㄹ루사게 보리찰 나민 미숫ㄹ루 혜 먹어났주.

107086 @ 미숫ㄹ루는 어떻게여?

107086 #3 미숫ㄹ루사 보리 보짱 곱민 것가 미숫ㄹ루주.

107086 @ 아, 다른 거 안 놔?

107086 #3 아이 놔.

107086 @ 보짱 그걸 ㄹ루로 곱민 미숫가루.

107086 #3 응.

107086 @ 아 보리찰을 보짱예?

107086 #3 으.

107086 @ 콩은 안 놓고?

107086 #3 콩도 들게 먹고장 허민 콩 흐쌀 세경 곱아. 보짱 곱아.

107086 @ 보짱예?

107086 #3 으, 경허민 미숫ㄹ루엔 혜.

107087 @ 지짐이도 행 먹어났수과?

107087 #3 지짐이사게 무시거 아무거라도 혜다 놔근에 지지민 지짐이가 되는 거주. ㄹ루에 혜근에 무쳐근에 지지민 솟두껍에라도 저 거시기 정기 지지듯이 지지민 지짐이가 돼주.

107087 @ 뭐 낱 지짐이행 먹어났수과? 그 안에?

107087 #3 그 안에서 무시걸 놔? 새우리도 돼고 저 속도 돼고 그런 거 혜근에 지지민 돼난.

107087 @ 속?

107087 #3 어.

107087 @ 속 케당?

107087 #3 어, 속 케당. 막 좋아.

107088 @ 어. 맛있겠다. 오메기술 혹시 만들어놨수과?

107088 #3 오메기?

107088 @ 예.

107088 #3 오메긴 흐린조.

107088 @ 흐린조.

107088 #3 흐린조혜근에 물 컷당 그 물 그냥 삭 버물엿당 ㄱ루로 곱앙 영 떡 멘들앙 요만씩허게 멘들앙 솟디 낱 막 오래 딸려 건 든 술 허는다. 거행 막 딸려근 에 웨겨근에 누룩 섞엉 향에 담앙 놔두민 거 든술도 되는 거고 오메기, 오메기 떡 고장 허민 오메기로도 그냥 솥앙.

107088 @ 아, 그걸 꺼내가지고 오메기로 먹는 거마씨?

107088 #3 어.

107088 @ 아 아.

107088 #3 막 흐령 찰찰허주. 흐령.

107088 @ 그건 오메기떡이랑 다른 거지예?

107088 #3 조, 조, 흐린조.

107088 @ 흐린조예. 쉰다린마씨?

107089 #3 쉰다린 아무거나 웨여. 쉰다린 저 보리밥이나 곤밥이나. 조팍은 안 웨고. 거 쉰다린혜근에 물 멘도롱허게 혜근에 밥 풀어놔근에 누룩 낱 놔두민 거 웨 민 쉰다리.

107089 @ 물에 그냥 밥만 풀엉 놔두민 쉰다리가 되는 거?

107089 #3 밥 풀엉 낱 게메 누룩, 누룩을 낱 놔두민.

107090 @ 누룩은 어떻 만들어?

107090 #3 누룩은 저, 지금 장에서덜도 막 풀주. 전인 장에서 풀지 안허영 이녀 냥으로 혜영 먹언.

107090 @ 예, 그 누룩을 어떻 만듭니까?

107090 #3 보리 곱아나민이 보리 ㄱ루, 보리 ㄱ루 곱닥헌 거 혜여근에 저 쏘 ㄱ루, 쏘스레기 그거 흐쏘 들게 혜근에 영 웨영 영 메취, 콩 솥앙 메주허듯이 경행 담앙 놔두민 그 메주, 저 누룩이 터, 별경헌 꽃이 북삭허게시리 피멍 것이 막 터근에 들 류민 그거 들이쳐근에 놔두민 별경헌 꽃 핀 것은 쉰다리가 막 들허고 퍼렁헌 건 쓰 곡 경허메. 밥 멘동헌 물에 밥 줌아 놔근에 그 누룩을 흐쏘 들이쳐 놔두민 누룩 좋은 건 쉰다리가 들허고 퍼렁헌 꽃 핀 건 씨. 경허민 먹는 거.

107090 @ 퍼렁헌 꽃 핀 것도 먹긴 허고?

107090 #3 으. 먹음은 혜도 저 맛이 별경헌 것보단 맛이 옅어.

107090 @ 어쨌든 좋은 건 별경헌 게 좋은 거다예.

107090 #3 으.

107090 @ 누룩 만들앙 쉰다리 만드는 거라예.

107090 #3 으.

107091 @ 옛도 만들앙 먹어낫수과?

107091 #3 옛이사 옛날에 흐린조 해근에 밥혜영.

107091 @ 으, 밥혜영.

107091 #3 밥 해근에 골혜영 세경 그냥 멘도롱헌 물에 해근에 골 세경 놔두민 그것가 들허주 생차도. 영 좁아 먹어 보민 들허게 꿩엇건 그거 해근에 막 짜근에 딸리민 옛이 돼는 거.

107091 @ 계민, 안에 뭐 넣지 았고?

107091 #3 아이 놔.

107091 @ 조만 해가지고?

107091 #3 으, 조크루 혜여근에.

107091 @ 아니, 뭐 꿩엇 같은 거?

107091 #3 꿩이사게, 꿩 잡아 오라사 꿩엇 허주.

107091 @ 하하.

107091 #3 꿩 잡아당 꿩 숲아놔야 거 꿩엇이주.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낱덜 허여.

107091 @ 아아, 안 낱도 혜집니까?

107091 #3 으. 꿩엇은 허젠 허민 거 고기, 영양가 고기 돼젠 허는 사름덜은 사명덜도 허여. 숲아근에 슷 치저놔근에. 경헨 우린 꿩엇 안혜봐서.

107091 @ 아아.

107091 #3 그자 골혜근에 그 옛혜여근에. 이 정월 멩질 땐 골혜여근에.

107091 @ 골이 뭐 골?

107091 #3 골 보리혜근에 물 버물영 놔 두민 퍼렇게 나주게.

107091 @ 아, 보리 싹이 나는 거?

107091 #3 으, 그거 나건 하영 나게 말앙.

107091 @ 예.

107091 #3 빨린 빨리가 팍삭허게 나고 저, 이과린 파럿파럿 흐쉴 나 가건 거헿 널영 톨류왕, 톨류와 굴아근에 깃가 굴.

107091 @ 아, 보리 물에 담갔다가 싹 난 거 가지고.

107091 #3 으.

107091 @ 계민, 그거 골 톨왕 가루 만들앙 그걸 어떻헿니까?

107091 #3 으. 그거 굴아근에게 밥혜근에.

107091 @ 그걸로 밥혜?

107091 #3 아니, 쏘로, 좁쌀로 밥혜영. 그레 골 세경 놔두민 감쥐 돼민 감쥐로 옛도 허는 거.

107091 @ 아, 그럼 그 골은 따로 마련하고 조밥을 하는 거라예.
 107091 #3 어어.
 107091 @ 조밥 다 되면 거기에 그 골을 담는 거?
 107091 #3 어어.
 107091 @ 담양 서경 막 젓영 놔 뒤.
 107091 #3 어. 경허민 그것이 감쥐 돼민 거 짜근에 숭으민, 숭으민 감쥐. 정월 멥질엔 전이 우린 내량 거 헤나서. 지금은 감쥐 안 해도 먹는다.
 107091 @ 아, 그렇게 행 짜면 감주가 뵈던 거예.
 107091 #3 어어.
 107092 @ 이거말고 특별하게 헤 먹었던 음식은 엇수과? 어렸을 때?
 107092 #3 무시거 엇어. 무시거 헤먹는 것이 셔. 촌에라부난 무시거 혼엇이 거.

8. 주생활

구조

108001 @ 혹시 집 짓어났수과?
 108001 #1 어땡?
 108001 @ 집, 집?
 108001 #1 집들 어땡 했냐고?
 108001 @ 옛날에는 집들 다 자기냥을 짓어 살아났잖아예?
 108001 #1 그렇지.
 108001 @ 집에 관한 것들 물어보쿠다.
 108001 #1 옛날엔 이런 집이 엇어났주게. 다 초가주.
 108001 @ 아버지도 집 지어났수과?
 108001 #1 그렇주게.
 108001 @ 집 지을 때 어땡헤나신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 글아줍서.
 108001 #1 그때는 나무가 귀헛거든. 나무가 귀허고 산림계서 허가도 잘 안 줬고.
 108001 @ 집 짓젠 허민, 아, 나무허젠 허면은 허가가 있어야 헤?
 108001 #1 건디 여기는 사삼사건 때는 나무를 전부 잘라 뵈어.
 108001 @ 예.
 108001 #1 앞이 안 보이니까. 여기 오다 보민 우체국.
 108001 @ 예.
 108001 #1 바로 앞이가 지서랐는다.
 108001 @ 아, 예예 우체국 이신디 알아지쿠다.
 108001 #1 바로 그 앞이, 그 앞이가 바로. 지금 병원허는 디가 지서라고.
 108001 @ 아, 옛날 지서.
 108001 #1 어, 그러니까 이 근처에 나무란 건 전부 잘라 갔어.

108001 @ 잘라 간 건?
 108001 #1 왜냐하면 공비가 오면 안 보이니까.
 108001 @ 아.
 108001 #1 그래 나무가 없거든. 그래서 난 제대해 가지고 와서 남의 집 살다가 집을 여기 짓젠 허니까 나무 여기저기서 모다 가지고 짓엇주게.

< 중략 >

108001 @ 집하젠 허민 어쨌든 동네 사름덜이?
 108001 #1 동네사름덜이 다 왕 허주게. 그때는 다.
 108002 @ 집 종류에는 어떤 어떤 집이 잇어수과? 그때는 다 초가랏수과?
 108002 #1 다 초간디 부저침이는 스칸이엔 허는디 삼간집이주게.
 108002 @ 삼간집?
 108002 #1 삼간집이라는 게 세 군데로 나뉘졌다 해서 삼간집이주게.
 108002 @ 삼간집. 여기, 지붕이 초가로 된 거 초가집이고 지에집 잇어났수과?
 108002 #1 남원리 엇어나서. 도당집 잇어났주.
 108002 @ 아, 도당집?
 108002 #1 지금은 함석이주게.
 108002 @ 기와집을 지에집이라고 합니까?
 108002 #1 으, 지웨. 지웨집
 108002 @ 지웨집?
 108002 #1 으, 여기 절간에만 잇엇주.
 108002 @ 절간에만예.
 108002 #1 게고 남원 학교.
 108002 @ 아, 학교랑예. 뭐 흙집, 돌집은.
 108003 #1 아, 그때 전부 그때는 담 싸가지고 바깥디 외벽에 담을 쌓앙 흑을 블랏주게.

108003 @ 집채가 세 채 있다는 거 아니
 108003 #1 아니, 아니.
 108003 @ 그럼
 108003 #1 칸이 세 개로 나뉘졌다는 거주.
 108003 @ 칸이 세 개로 나누어졌다는 말. 예를 들면 초가집이 잇이면.
 108003 #1 그러니까 왜냐면은 초가집이 어떻게 했는가 허면 왜 삼간이라 했는가 허면 집이, 이렇게 집을 지을 적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개라고 해서 삼간 집이라고 허주. 게 삼 칸 집이 맞는 거주.
 108003 @ 아 삼칸집.
 108003 #1 게니까 요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뉘서 가운데 삼방, 정제 요짝 구들.
 108003 @ 아, 이걸.

108003 #1 어, 삼방.

108003 @ 삼방을 중심으로 이쪽 있고 이쪽 있으니까 삼칸집, 삼간집이렌 헛던 거?

108003 #1 어.

108003 @ 만약에 집이 요렇게.

108003 #1 이간 집이엔 허면은 옛날도 옛날 못사는 사름은 이간집을 허주. 혼자 정제허고 구들, 또 아주 못살민 가운데 기둥 하나 세워가지고 외기둥에 청기와렌 헤가지고, 별명으로 못 산덴 헤영 가운데 기둥 하나 세워가지고 아주 못 사는 사름은.

108002 @ 못 사는 사름은. 집채가 이렇게 이서예.

108002 #1 그거 세 거리집.

108002 @ 세거리집예.

108002 #1 두 개민 두거리집.

108002 @ 두거리집. 개민 여기는 뭐렌 곱읍니까?

108002 #1 어디 이 밖에?

108002 @ 아니 이 집은?

108002 #1 안커레.

108002 @ 안커레. 또.

108002 #1 저 베끼던 바커레. 이디가 사름 살면은 그대로 바커레고 쉼거튼 거 노면은 쉼막이고.

108002 @ 아, 목커리엔 헌 말은 엇수과?

108002 #1 목커리엔 헌 말 써. 여긴 목커린엔 헌 말은 쓰는 사름이 드물주.

108002 @ 안커리, 바커리. 목커리는 헌 말은 잘 안 써예?

108002 #1 으, 이쪽으로는 잘 안 써. 저 서쪽으로 가니까 많이 쓰더라만은.

108002 @ 그럼, 집 짓을 때 어떻 헤나신지 생각나는 거 곱아줍서? 예를들어 나무 행 왕?

108002 #1 나무 행 와근에 목쉬 빌영 짜주게, 짠덴 허주게 짜 놓으민 이 가운데 거만 딱 세와.

108005 @ 가운데 거를 뭐렌 곱읍니까? 기둥, 지둥?

108005 #1 지둥계. 경헨 세와 노면은 요런데 중간에 세우는 건 입쟁이, 저 솔진 건 기둥, 여긴 기둥이렌 안 헤영 지둥. 입쟁이, 저 문 허는 건 문틀이엔도 허고 문 입쟁이엔도 허고 그거주게.

108004 @ 경 세웁?

108004 #1 세워근에 우에 상모루허고 중모루허고 그 아랫건 포. 경혜근에 서리 걸청 서슬혜근에 우이 흑질게. 우이도.

108004 @ 여기부터 흑질릅니까?

108004 #1 천정도 지붕에도 헤여.

108004 @ 지붕에도 허는데 어쨌든 나무 다 세운 다음에 벽을 먼저 흑질할 거 아니예?

108004 #1 아니, 우에부떠.

108004 @ 아, 우에부떠 흑질합니까?

108004 #1 어, 경헨 완전히 더큰 다음에, 더큰 다음엔. 보통 여기서는 동네 사름들이 모다들어근에 우이영 옆이영 당일에 허주게.

108004 @ 아, ㄱ치?

108004 #1 으, 당일에.

108004 @ 그럼, 집 짓는데 얼마 안 걸리겠다예.

108004 #1 얼마 안 걸리주게.

108004 @ 낭덜 미리 다 헤오민예.

108004 #1 어, 낭 헤오민 이, 삼일이민 다.

108004 @ 으.

108004 #1 계민, 딱 기둥 세와 불민 담 다와 가명 흑질 헤가명.

108004 @ 담 다와 가명 흑질헤 가명. 계민 담도 미리 행 오고예. 그럼 저기에. 우리 여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이게 기둥 뿔 것과? 기둥이 어느 쪽에 들어갈 거. 이거 삼방이민?

108004 #1 아니, 이렇게 이거 두 개부떠 먼저 저쪽에도 두 개. 경헨 네 개를 먼저 세와 민 다 세우면 우이 상모루 먼저 걸쳐붙어야주 경허고 중모루허고 허민 이제 씨러지질 안허니까.

108004 @ 아하, 기둥 네 개 먼저 세우고?

108004 #1 어, 경헨근에 이렇게 세우민 이렇게 또 ㄱ르헨근에 세와불민은 이게 씨러지지 안허주게. 그래민 담 다와근에 담더레 서리 걸쳐 붙어. 계민 지붕부떠 먼저 뉘는 거주. 그래면 서슬이엔 행 존낭헤가지고 대나무나 헤다가 죽 여꺼내려. 경 흑질헤붙어.

108005 @ 그 여끄는 걸 서슬이엔 헐 거예?

108005 #1 그 낭으로 허는 건 서슬

108005 @ 낭으로 허는 건 서슬. 주춧돌은 어느 것과?

108005 #1 주춧돌은 기둥 바투는 거.

108005 @ 그 다음 보는 뭐과?

108005 #1 포?

108005 @ 포렌 합니까? 집 지을 때 포도 들어가? 어디가 포라?

108005 #1 상모루 아래 들어가는 ㄱ르웁 나무.

108005 @ 아, 그게 포예?

108005 #1 으.

108005 @ 그 다음 도리는 뭐과?

108005 #1 도리?

108005 @ 예.

108005 #1 도리엔 현 건 베꼈다.

108005 @ 아, 베꼈다.

108005 #1 돌아가명 집가제로, 집가제는 여 여 여것이 집 끄탱이 아니라 계난 영 돌아가명 여끄는 것이 도리.

108005 @ 여기 길죽한 낭을 뒀렌 허는 거?

108005 #1 어디?

108005 @ 이 집줄 묵젠 허민.

108005 #1 아, 거왕, 거왕대 주로 대나물 쓰니까 거왕대, 낭으로 그자 거왕, 거왕 허주게.

108003 @ 저기 집 지으면 삼간집이라예?

108003 #1 삼간집이건 이간집도 허고 자기 살림에 맞춰 허주게.

108007 @ 삼간집이면 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108007 #1 방 두 개 세 개.

108007 @ 두 개 세 개. 방 있고 삼간집이면 방 있고 또 뭐 잇수과?

108007 #1 삼방.

108007 @ 삼방 있고.

108010 #1 정제.

108010 @ 정제 있고.

108009 #1 고팡.

108009 @ 고팡, 고팡 잇고예?

108009 #1 으, 옛, 요즘은 고팡을 안 허니까 방이 뒀는데, 겐디 옛날 골방이라고 해서 처, 비바리덜 곱지는 디가 잇어서.

108007 @ 무사 비바리들 곱지는 방이 잇수과?

108007 #1 나 알아게. 옛날은 여자들이 밖으로 잘 나가지덜 안잖아게. 그러니 뒷방에 쪼금만허게 멘들아.

108007 @ 아하하하. 시집 가기 전이 여기서 이시렌 했던 거.

108007 #1 겐 골방이렌 허주게 것고라. 이디 사름들은 골방.

108007 @ 골방. 고팡말고라예.

108007 #1 으, 고팡허고 골방허고 틀러.

108007 @ 틀린 거라예. 방에 백장에 같은 것도 만듭니까? 방에 백장같은 것도 이십니까?

108007 #1 옛날 시릉.

108007 @ 시?

108007 #1 시릉

108007 @ 시릉이엔 허는 거. 시릉이 어떤 거?

108007 #1 웨냐허면 이불거튼 거 올려놀라고 이 아래는, 옛날에는 굴목을 진으

니까 어떻게 허게 웬, 만약에 여기 허게 되면은 올로 굴목을 진을 거면은 올로 해서 짜.

108007 @ 짜?

108007 #1 아니, 이렇게 해서 팡을 만들어. 겐 이렇게 만들어 노면은 이 아래는 저 밖으로 굴목 진고 그럼 팡이 으꺼지 오는 거 아니.

108007 @ 예예.

108007 #1 게민, 올로 요꺼진 내불지 안혈라고 이렇게 막아 놔 이불도 올려 놓고 뭐든 물건거튼 거 올려 놓게 만들어 난.

108007 @ 예, 그거.

108007 #1 걸 보고 시룽이렌 허주, 시룽.

108007 @ 시룽이렌 불러마씨.

108007 #1 어.

108008 @ 아, 그런 걸 시룽이라고. 마루에 부섭같은 것도 낫수과?

108008 #1 그렇주게. 옛날에는 거의 다 부섭이 잇엇주게.

108008 @ 거의 다 부섭이 잇엇수과?

108008 #1 어.

108008 @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방이 될거우다. 이렇게 들어오는 위치우다. 여긴 방이고 여긴 고팡일 거 아니.

108008 #1 맞아.

108008 @ 여긴 뭐 물건들 놔 두는?

108008 #1 옛날 저, 여기는 그런 걸 잘 안 만들주.

108008 @ 여기는 뒷문?

108008 #1 어 뒷문.

108008 @ 게민, 이 마루는 널마루렌 곱읍니까?

108008 #1 여기선 삼방.

108008 @ 삼방이렌 곱을 거예. 부섭은, 부섭은?

108008 #1 부섭은 이걸 대문이렌 허거튼, 대문으로 들어오면 쉼 안에, 뒷문 뒷문 가차이 가서.

108008 @ 이게 뒷문.

108008 #1 뒷문 가차이 가가지고 만들주게.

108009 @ 뒷문 가차이 가가지고. 으. 부섭은예. 게민 고팡에는 뭐 뭐 놔 둥니까?

108009 #1 아, 쌀 같은 거 소금이나 쌀 같은 거게.

108009 @ 무사 고팡을 만들어 나신고예? 그때는.

108009 #1 여긴 창고가 없으니까.

108009 @ 고팡에 안칠성이 산다고?

108009 #1 아, 거는 허는 사름 안 허는 사름. 허는 집, 안 허는 집. 안칠성 밧칠

성 허는디, 이쪽으로는 허는 집이 벨로 드물어.

108009 @ 아, 남원은 별로 안 헤. 그럼 안칠성 허는 디는 나중에 제사 때?

108009 #1 제스 때 거 올리고 허주게.

108009 @ 고평제 지내는 거라예.

108009 #1 으.

108009 @ 그럼, 여기 남원리 고평제 안 지냅니까?

108009 #1 허는 집이 드물어.

108010 @ 아, 드물어. 정지는, 정지에는?

108010 #1 부엌.

108010 @ 부엌예?

108010 #1 으.

108010 @ 부엌을 정지렌 헛수과, 정제렌 헛수과?

108010 #1 정제, 정제 헤여.

108010 @ 정제예. 정제렌 허는디 정제에는 뭐 잇어낫수과? 솟 있고?

108010 #1 살레.

108010 @ 살레 있고?

108010 #1 거뿐이주게 무시거.

108010 @ 물항?

108010 #1 물항허고. 물항은 거 우선권이니까.

108010 @ 하하하.

108010 #1 거말고는 다른 거 있을 수가 엇주게. 살레는 사발 거튼 거 놓는 거.

108010 @ 사발 씻영 놓고예. 거면 솟은 한 몇 개나 안청 잇어?

108010 #1 두 개, 세 개. 집마다 틀려.

108011 @ 두 개, 세 개. 여기에 집 짓을 때 요 주위에 이거를 뭐렌 험니까. 이 거를?

108011 #1 문 이신 디?

108011 @ 문 이신 디.

108011 #1 문 옆에 세우는 건 뭐냐 입쟁이게.

108011 @ 입쟁이. 문입쟁이? 계민 문입쟁이렌.

108011 #1 거 아래 거나 우이 건 지팡.

108011 @ 문지팡.

108011 #1 어.

108011 @ 옆에 세워 두는 건 문입쟁이.

108011 #1 어.

108011 @ 우에 거랑 아래 거는 문지팡?

108011 #1 어, 지팡.

108011 @ 지팡, 그거 세워 놓고 문 끼우젠 허면?

108011 #1 무시거.

108011 @ 뭐?

108011 #1 도절귀 허주게 문 도메시키는 건, 옛날엔 밀장이 아니라 열고 닫아 허는 거 아니라. 건 도절귀.

108011 @ 문도절귀렌 험니까 그냥 도절귀렌 험니까?

108011 #1 도절귀 도절귀 허주게.

108013 @ 여기에 문 만들 때 호령창도 만들어 낫수가?

108013 #1 그런 말은 엇어나서. 호령창 허는 말은 엇어.

108014 @ 호령창 엇어예. 굴묵허면 굴묵 진젠 허면 연료 같은 건 어떻 마련해 낫수과?

108014 #1 옛날 몬지락이나 소똥 물똥 주어다가.

108014 @ 소똥, 말똥 주우레는 언제쯤 가는 것과?

108014 #1 건 흔이 없어.

108014 @ 밧디 아무디 강 주어와.

108014 #1 으.

108014 @ 그럼 여름에도 강?

108014 #1 시꺼옴도 허고 옛날에는 여기에 마당이라고 해서 검질을 깔았거든 풀을. 경 몬지락이 생겨 걸 모다놔다가.

108014 @ 아, 마당에 깔았던 허는 뭐는?

108014 #1 제주도 말로 새.

108014 @ 아 새 깔아나수과? 보리짚 아니고?

108014 #1 보리짚도 깔고 새도 깔고게 조침도 깔고. 조침은 소 벅일라고 잘 안 깔 메.

108015 @ 예. 집 앞에 요거는 뭐마씨, 요거.

108015 #1 무시거?

108015 @ 집 앞이 이거.

108015 #1 풍채. 이건 풍채.

108015 @ 풍채. 풍채는 아예 달린 것도 있고 땔 수 있는 것도 잇어마씨?

108015 #1 전부 여긴 땔 수 있게끔 허고, 허는 집이 드물었어. 바람이 세부난. 여긴 남풍이 세부난.

108015 @ 아, 바람 세부난 풍채 많이 안 했고. 계민 떼는 거랑 붙어진 거랑.

108015 #1 예에, 붙은 건 없었어.

108016 @ 아, 붙는 건 없고. 풍채예. 물팡은 뭐과? 물팡.

108016 #1 아, 게 물 정 와서 부리는 데. 그냥 밑에 못 부리니까 돌로 팡을 만 들주게.

108016 @ 계민, 물허벽에 물 질어 온 거.

108016 #1 어, 그렇지 물허벽에 구덕 해근에 정 오면은 땅에 못 부리니까 부리

기 좋게끔 돌을 양 옆이 세와가지고 우이 팽팽한 돌로, 요즘은 까끄주만은 옛날에
는 다니면서 팽팽한 돌 좇어다가.

108016 @ 계민, 영 집 짓으면 어느쪽으로 물팡을 만들어?

108016 #1 정제쪽으로.

108016 @ 아, 정제 쪽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108016 #1 밖에, 밖에.

108016 @ 그럼, 물항은 정제에.

108016 #1 정제 안에.

108016 @ 정제 안에 놓고 그럼 정 왕 거기 내령 물은 정제 항에.

108016 #1 경행 물 노리왕 물 비와땡, 그 물 진차 항더래 비와땡.

108016 @ 물 지는 거는 물허벅이고, 물구덕 있고, 대바지는 뭐과?

108016 #1 대바지는 허벅 죽은 거.

108016 @ 허벅 죽은 거.

108016 #1 어린 아이덜 쓰는 거.

108016 @ 아. 조그만헌 건 대바지.

108016 #1 어.

108016 @ 어른들 쓰는 건.

108016 #1 허벅.

108017 @ 허벅예, 저기 아버지 집이 집 앞에 골목이 있어수과? 올레렌 헌 거?

108017 #1 옛날에 거의 올레덜 잇엇주.

108017 @ 거의예.

108017 #1 골목이라고 허는 거는 여기서는 작은 길 보고 골목이라고 허여.

108017 @ 여기 골목이라고 헤낫수과 올레렌 안 허고?

108017 #1 집이 들어오는 건 올레고 골목이엔 헌 거 작은 길, 죽은 길, 넓지 않
은 길을 골목이렌 해서 여기선.

108017 @ 좁은 길은 골목이렌 허고, 집이 들어오는 길은.

108017 #1 올레.

108018 @ 올레렌 허고예. 문간채라고는 안 헤낫수과?

108018 #1 여긴 문간채라는 말은 엇어나서.

108003 @ 으 안커리, 바커리엔 쓰고 목커리도 안 쓰고예?

108003 #1 몽커리엔 쓰는데 벨로 엇엇주.

108019 @ 출 헤오면 출눌 늘잖아예?

108019 #1 늘주게.

108019 @ 그럼, 우이 지붕도 출도 지붕 덮으잖아예.

108019 #1 건 옷두께라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긴 걸로 해서 우이 더프주게.

108019 @ 아, 출 가져온 거 중에서 가장 긴 걸로 해서.

108021 @ 집에 돼지우리가 있어낫잖아예.

108021 #2 돛통.
108021 @ 돛통, 돛통 잊어났지예.
108021 #2 겐디 여기 돛통이엔도 허고 통시엔도 허고.
108021 @ 통시엔도 허고예. 기민 여기 화장실 볼 때 거기에 판데기 놔진 건 뭐
렌 해낫수과?
108021 #2 지들팡.
108021 @ 지들팡.
108021 #2 겐디 디덜팡인디 지들팡이엔 헤 여긴.
108021 @ 지들팡.
108021 #1 돌로 현 건 잘 현 집이고 나무땡이 걸쳐.
108021 #2 나무땡이 두 개 영 놔근에.
108021 @ 돌로 현 것도 지들팡, 나무로 현 것도 지들팡.
108021 #1 어.
108021 @ 낭 지들팡이렌은 따로 안 허고?
108021 #1 안 허여. 경 안 곱아.
108021 @ 다 지들팡예?
108021 #1 어.
108020 @ 계민, 웨지 우에 요렇게 웨지 비 맞을 거 생각해영.
108020 #1 건 웨지집.
108020 @ 웨지집도 있고.
108020 #1 어, 거 다 해야지.
108020 @ 다 해야 되는 거예
108020 #2 돛칩.
108020 @ 돛칩도 허고.
108020 #1 어.
108020 @ 우리 일 볼 때 가려지는 이것도 하고?
108020 #1 옛날엔 엇어서.
108022 @ 옛날엔 엇어난예. 헛간.
108022 #1 헛간이엔 현 건.
108022 @ 쉼막.
108022 #1 밧거리에 문 없는 걸 헛간. 문 없으면 헛간.
108022 @ 밧거리에 문 엇인 거예.
108022 #1 어.
108022 @ 헛간에 뭐 나뉘낫수과?
108022 #1 보통 헛간이엔 허면은 명석같은 거나.
108022 @ 음, 명석 놔 두고?
108022 #1 또 게 예전엔 지들거. 빨감 지들거도 들이고.

108022 #2 저 헛간드레 들여볼라.

108022 @ 헛간드레 들여볼라. 지들거도 들이고.

108022 #1 게 간단허게. 옛날에는 문거튼 거 헛라면 힘이 들고 없으니까. 돈 문을 달면은 세금을 내야 돼여. 지금도 집을 지어가지고 문이 없으면 집이라고 안 합니다.

108022 @ 아, 집이라고 안 해마씨.

108022 #1 어, 세금 안 받아가. 이 집 이렇게 짓어 놓고 문 없으면 세금 안 받아 가.

108023 @ 아, 집이라고 생각 안 행예. 췌막은?

108023 #1 췌막은 소 메는 디, 소나 말 메는 디.

108023 @ 소나 말 메는 디예.

108023 #1 겨울에, 여름에는 방목허고 겨울에 가져다가 거기다가 여기서 멘다고 허주게, 무꺼 놓는 거. 췌 멘다, 말 멘다.

108024 @ 항 놔 두는 디는 어디 항 놔 뒤낫수과?

108024 #1 고팡.

108024 @ 고팡에 항 놔뒤 나서예. 웬장, 간장 항은?

108024 #1 그거는 게, 장독이렌 허질 앓고 안땀, 집 두에 안땀, 안투에 해서 안땀.

108024 @ 그럼 장독대를 거?

108024 #1 여기는 장독대란 말이 없어. 저 안땀에 강 장 거려 오라.

108025 @ 춤이나, 춤향은 뭐과?

108025 #1 춤. 춤이렌 건 여기서는 이 제 울타리에 나무가 있으면은 새를 가지고 무꺼 놔 경혜근에 향아리에 물을 받는 거를 보고 춤 받는다고 허지.

108025 #2 그 물 먹엇주게.

108025 @ 아, 수도 엇어부난.

108025 #1 어, 그렇지게. 물 질러 갈라고 허면은 여름에나 저 못에, 바닷가에 가야 물을 길어다 먹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 오면은 향아리를 헤가지고는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레 무꺼서 거레 물을 들어가게 하면은 이파리에 비 와서 골린 물이 전부 향아리에 전부 고이니까.

108025 #2 하늘로 내린 물은 하늘 내기 좋다고 해서.

108025 #1 그걸 보고 춤 받는다고 했주.

초가 지붕하기

108026 @ 춤 받는다고 했던 거예. 그리고 우리 집에 지붕 그땐 새로 허니까 헛면 거뒤가지고 다시.

108026 #1 아니, 거 거뒤내는 건 막 땀년 묵으면은 지붕이 무거우니까 거뒤넛주 그렇지 앓으면 그대로 했주게.

108026 @ 그 지붕 그거 몇 년이면 한 번씩 영 바뀔니까?
108026 #1 일년이면 매년.
108026 @ 아, 매년 허는 거과?
108026 #1 어.
108026 #2 새 이는 거게 우에.
108026 #1 게메,
108026 @ 새 더프는 거?
108026 #1 새 더프는 거 매해, 매해.
108027 @ 매해. 그럼 새 더프젠 허민 무신 준비를 험니까? 지붕 이젠 허민?
108027 #1 새 비여당.
108027 @ 새 비여당, 거 가을에 비여당예.
108027 #1 긴 건 새라 그러고 짧은 건 각단이라고 헤.
108027 @ 아, 각단.
108027 #2 각단이엔 허는 건 줄 이젠, 여기선 줄 논다, 영 허는 사름은 줄 논다
허고 이거 데왕 가는 사름은 줄 빈다 이러거든. 그래가지고는 그거 어울려 새로 덮
어가지고는 무끄는 거주.
108027 @ 각단으로는 줄 놓을 때 쓰는 거예?
108027 #1 어.
108027 @ 새는 언제 밍니까?
108027 #2 11월 돼사.
108027 #1 새는 동지 전에.
108027 @ 동지 전에.
108027 #1 그러면 완전히 노랑게 익주게 익어. 미리허면은 야리거든.
108027 #2 지낭허민 눈 맞아 삭아불고.
108027 #1 거 새 밍이 힘들엇주게.
108027 @ 그럼, 출 다 끝나고 나서다예?
108027 #1 어이, 출 다 끝나고 보리 농서 짓고 난 다음에.
108028 @ 줄 만들 때는 어떻 험니까? 각단으로 줄 어떻 만들어?
108028 #1 겐 혼사름은 여기서 놓고,
108028 @ 놓고.
108028 #1 여기서 연결해 주는 사름 보고 줄 놓는다 허고.
108028 @ 줄 놓는다 허고.
108028 #1 이거 젓어 가는 사름 보곤 줄 빈다 허고.
108028 #2 어울릴 때는 네 사름도 비고.
108029 @ 게니까 줄 놓젠 허민 뭐가 잇어야 झा아예.
108029 #1 호랭이. 여기서는 호랭이
108029 @ 호랭이.

108029 #1 알아서 허는 거 뒤채.
 108029 @ 뒤채. 그럼 호랭이 돌리는 사름은 아까 뭐렌?
 108028 #1 줄 빈다.
 108028 @ 줄 빈다 허고 뒤채 놓는 사름은 줄 논다 허고?
 108028 #1 어.
 108028 @ 그거 놉 빌영 허는 것과?
 108028 #1 수눌영도 허고 놉 빌영도 허고.
 108028 #2 것이 누게 빌어오라사주게 이녁 식구 잇이민, 네 사름 허젠 허민
 108028 @ 네 사름 해야 돼는 거?
 108028 #2 하나로 비여당 여기 꼽앗당 하나로 두 개 만들어사 배 뉘여근에 헐
 거나 여기서 둘이 비고 저기서 혼 놉 들르고 혼 놉은 영 심어근에 영 혜영 놓고 허
 민 네 사름.
 108028 @ 네 사름 해야큰게.
 108028 #2 줄 올리젠 허민 막 빌어 오람주게.
 108028 #1 보통 수눌영도 허고 집 식구 잇이민 식구끼리 허고.
 108030 @ 음. 그 아까 우리 초가집 앞에.
 108030 #1 풍채.
 108030 @ 풍채말고 그 집줄 이을 때 이 낭을?
 108030 #1 거왕.
 108030 @ 아, 이거 거왕이렌 허는 거?
 108030 #1 거왕.
 108030 @ 이걸 대나무로 사용했었다는 거지예?
 108030 #1 대나무, 대나무가 오래 가고 무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진
 낭은 그거베끼 없으니까.
 108031 @ 집줄 매기는 얼마마다?
 108031 # 지붕 일 때난 1년에 혼 번.
 108032 @ 집줄 하영 만들양 남으민 뭐 헛수과?
 108032 #1 무사 남아, 아, 옛날 부엌 방식. 그 줄로 영헨 부엌 방식을 갱 안 허
 민 때어불고, 불 질러불고.
 108032 @ 남은 거 불질러불고.
 108032 #1 게고 거 사용해난 거, 사용해난 거는 땀 감으로 사용하고.
 108032 @ 우에 써난 거예.
 108032 #1 으, 건 땀감으로 써 불고.
 108032 @ 막 삭은 거 불 잘 붙으난예.
 108032 #1 맞추게.

연장

108033 @ 집 지을 때 연장은 뭐 뭐 필요합니까?
108033 #1 무시거 집 짓을 때?
108033 @ 예.
108033 #1 경허난 지금 목수들은 그걸 안 쓰는데, 옛날에 자귀, 곱자귀라고 자귀.
108033 @ 자귀.
108033 #1 또 까끄는 건 귀자귀.
108033 @ 귀자귀.
108033 #1 큰 나무 가지고 영 가까내는 건. 귀자귀, 자귀, 톱, 끌. 옛날에 못이 힘들어났으니까 못을 잘 안 썼주게.
108033 @ 톱, 톱이랑 끌이랑.
108033 #1 으.
108033 @ 못은 힘들어서예?
108033 #1 어. 요 근래와서 못덜은 사용했주게.
108033 @ 계민 자귀, 톱, 끌 요거 있으면 집 지어지는 거?
108033 #1 으.
108033 @ 흙 바를 때 쓰는 건?
108033 #1 아, 손으로 옛날엔 다 손으로.
108033 @ 아, 손으로 헛수과?
108033 #1 으, 옛날에 다 손으로. 쇠손이렌 헛 거는 나온 지가 얼마 안돼여. 건 세멘 나오면서 나온 거.
108033 @ 아. 흙 바를 땀 손으로, 나무로도 뭐 안 만들어?
108033 #1 아니 아니.
108033 @ 그럼 이건 쇠손이잖아예?
108033 #1 으.
108033 @ 이 받치는 건 뭐렌 헤낫수과? 건 엇어난?
108033 #1 여기서는 그런 거 안 썸.
108033 @ 안 써서.
108033 #1 이 삭강 세멘 나옴 시작해사.
108033 @ 음.
108033 #1 겐디 여기에는 그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소라 껌질, 구쟁기 108033 껌질을 슬아서 휘를 만들었어. 휘, 휘 그걸로 칠하는 사람은 그걸로 헛지.
108033 @ 아, 조개껌질 갈아가지고.
108033 #1 아니, 불태와 가지고.
108033 @ 아, 불태왕.
108033 #1 그걸 헤, 석휘라고 헤가지고는 그걸 만들어서, 요 앞에서 그걸 만들

었는데.

108033 @ 그거 헐 때는 쉼손 써낫수과?

108033 #1 어.

108034 @ 톱도 종류가 있지 안 허과?

108034 #1 큰 건 거두.

108034 @ 응, 큰 건 거두. 그리고?

108034 #1 작은 건 그대로 톱.

108034 @ 작은 건 톱.

108034 #1 또 또 목수들 쓰는 거, 이 문 짤 때 쓰는 건 양날베기.

108034 @ 양날베기. 그건 날이 두 쪽 있는 거?

108034 #1 으. 양쪽 있는 거.

108034 @ 양날베기. 또 왜 큰 톱 혼자 못허고 둘이 잡아 영영 허는 것도 있지 안허과?

108034 108034 #1 어, 낭 잘르는 거. 건 줄톱.

108035 @ 줄톱. 못 뽑을 때 쓰는 거.

108035 #1 빠루.

108035 @ 빠루? 못 뽑을 때 쓰는 거 빠루렌 험니까?

108035 #1 어. 여기 사름덜은.

108035 @ 빠루렌 허면 이쪽으론 못 뽑고 여기는.

108035 #1 망치 그건 근래 나온 거.

108035 @ 근래 나온 거.

108035 #1 어, 흔착은 망치허고 흔착은 못뽑는 거주.

108035 @ 배척이랑 장도리란 건 뭐과?

108035 #1 장도리렌 험 거는 문 짤 때 쓰는 거.

108036 @ 문 짤 때 쓰는 거. 대패는 종류가?

108036 #1 대패는 시아게 대패 있고 그대로 대패 있는디 게 나무 뽕뽕하게 깎으는 거.

108036 @ 예, 뽕뽕하게 깎을 때 쓰잖아예. 이런 거 밀 때 쓰는 거예. 케민 그거는 종류가 하나밖에 엇수과?

108036 #1 어어. 거 시아게 대패 있고, 시아게 일본말인데 여기 사름덜 일본말 이주만은 시아게 대패 시아게 대해 헛주게.

108036 @ 시아게 대패 있고 또?

108036 #1 그대로 대패 있고.

108036 @ 그대로 대패 있고.

108036 #1 홈베기 있고.

108036 @ 홈베기?

108036 #1 여기 홈치는 거 게.

108036 @ 아, 흠치는 거. 그럼 시아게 대패는 어떤 거?
 108036 #1 더 늘쑈 거.
 108036 @ 아, 보통 대패로 허고 시아게 대패 헤여.
 108036 #1 으, 경허게 뉘면은 이 저 대패허고 곱은자 그 각 맞추는 거.
 108037 @ 곱은자. 자예.
 108037 #1 겐디 곱은자도 요 근래 나온 거이지 옛날에는 나무로 헤서 딱 만들
 영 썰어. 곱은자도 옛날에는. 그 각을 맞추기 위해서게.
 108037 @ 옛날에는 만들영예.
 108037 #1 으.
 108038 @ 떡통, 떡줄은 뉘파?
 108038 #1 떡통이엔 현 거는 그자 수평 재는 거.
 108038 @ 떡통은 수평 재는 거. 떡줄은?
 108038 #1 떡줄은게 떡통 안에 떡물 문힌 줄, 줄이 있어야 수평 썰 거 아니게.
 108039 @ 수평 재는 거. 흑순, 흑받기를?
 108039 #1 여긴 그거 엇어.
 108039 @ 엇어난예.
 108039 #1 전부 손으로.
 108039 @ 손으로 흑 부쳐난.
 108039 #1 게도 옛날 사름덜 잘헤여.

9. 신앙

109001 @ 예, 집에 가신이렌 신이 잇어났수과? 가신이렌 험니까?
 109001 #1 여기 엇어.
 109002 @ 성주는 뉘과?
 109002 #1 성주라는 것은 집 짓어서 들어갈 적이 성주풀이라고 헤거 거 여긴
 안헤여. 여긴 뉘 허냐 허면 집을 지어서 들어가서 입주를 헐라면은 동네 사름들 수
 고했으니까 초청해서 술 한잔 대접허거든 여긴 성주엔 안 허고 그자 이사험저.
 109003 @ 성주렌 딱 안 허고. 문전은 허지에 문전.
 109003 #1 게 문제 제사허는 날 문제허는 집안 잇고 우리집이도 허단, 우리집이
 도 허여. 제삿날.
 109003 @ 문전제렌 험니까, 문제렌 험니까?
 109003 #1 여긴 문제.
 109004 @ 조왕은 뉘과?
 109004 조왕은 부엌 구신. 정제 구신그라 조왕, 조왕 할망.
 109002 @ 성주는 어떤 신이고, 문전은 어떤 신?
 109002 #1 성주는 구신이 아니주게.
 109002 @ 아, 귀신이 아니.

109002 #1 집들이 허는 디 주인.

109003 @ 음. 문전은?

109003 #1 문전은, 문전이엔 현 거 문 귀신이주게.

109005 @ 문 귀신예. 칠성은?

109005 #1 칠성은 구신인데 여기서는 저 바깥칠성.

109005 @ 바깥칠성.

109005 #1 안칠성허는 디 여긴 허는 디 벨로 없어. 우리 두릴 때나 영 보면 토 산쪽으로나 영 가민 집 두에 새로 주쟁이렌 헨 멘들앙 딱 썩와 논 디가 잇주게. 돌 앓아냥. 여긴 이렌 잘 엇어.

109005 @ 잘 엇어.

10. 세시 풍속

110001 @ 정월 명절은 언제 어떻 허는 것과?

110001 #1 옛날에는 여기는 정월 초하루날 멧질을 세면은 요새는 보통 단순허 게 살려고 허니까 팔촌 집이도 멧질 먹으레 안 가는데 우리 이쪽 풍속으로는 옛날에는 차순부터 멧질을 헤 오기 시작허여. 그럼 종손집이 쥬 나중에. 그러면 어둑아. 계민 그 날부터 초 사흘까지 세배를 다녔어.

110001 @ 언제까지?

110001 #1 초사흘날까지. 그러면은 동네, 옛날에는 삼 년상을 치뤘으니까 상식을 허지 사름이 죽으면은 상을 싱겨 놔 거기 가고 또 나이 많은 어른 집이 세배를 쥬 다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단오가 있었는디 단오 해방 전이 없어진 집이 있고.

110002 @ 정월 거부터 먼저 여쭙볼게마써. 정월에 정월 명질이 있고 대보름이 잇어예?

110002 #1 여긴 대보름 엇어나서.

110003 @ 방사란게 뭐과?

110003 #1 그거 여기 사름덜 액막이나 방사는 해녀들 바다에 가서 허는 사름덜 배끼 엇어. 거 지들인다고 해서 밥이랑 고기랑 싸가지고 바다에 가서 굶허고 거 데 끼고.

110003 @ 그거 정월에 합니까?

110003 #1 어. 배, 배 이렇게 만들어서는 닷 실러서 띄우고. 거 해녀들, 해녀들이나 어부들.

110004 @ 여기 마을 포제합니까?

110004 #1 여긴 아녀고 남원2리에서 허주.

110004 @ 포제혈 때 금줄이나 그런 거 합니까? 금줄 맵니까?

110004 #1 아니 저 제관을 정허면은 제관이 흐 밧디 전부 모여, 5일 전부터. 경 거기만 메주게.

110004 @ 제관 모이는 곳에만, 그럼 제관이 모영 5일 동안 ㄴ치 사는 거?

110004 #1 ㄹ치 거기서 밥 먹고 거기 살고.
110004 @ 집이 못 가고?
110004 #1 어.
110004 @ 아, 포제 지낼 때 집이 못가고.
110004 #1 어. 그런데 그거 허당도 사람이 죽으면 다음으로 연기허여.
110004 @ 동네에 사람이 죽으면?
110004 #1 남원리서, 예를 들어서 헐라고 출려났다 겐디 사름 죽으면 안 허여.
겐 다음 정일에, 정자 든 날에만 포제는 허니까 다음 정일에.
110004 @ 게민, 제관은 어떻 정협니까?
110004 #1 부락에서 누게누게 헐 정허주게.
110004 @ 회의행?
110004 #1 어어. 옛날에는 영의뜸이라고 나이 쯤 많은 어른을, 게도 옛날에 양반 쌍놈 허기 때문에 좀 낮은 사름은 영의뜸 안 시켜줘.
110004 @ 영의뜸?
110004 #1 영의뜸. 나이 쯤 많은 남저 어른. 겐 그 어른을 주관으로 해서 포제 상썰 모인다 허거든. 그래서 회의, 회합을 헤여. 경허고 오늘은 어느, 예를 들어 김 씨 집안에 하나, 고 씨 집안에 하나 이렇게 헤가거든. 그러면은 침 옛날 양반에 속 허지 못한 사름은 뉘야지 잡곡 허는 일을 허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초혼을 헐 김칩이서 했으면 다음엔 현칩이서 허자 그 다음은 김칩이서 허자 허면서 그렇게 헤가지고 모아서. 허면서 예를 들어 고칩이서 허자 허면은 고칩이서가 아 우린 누게 내 놓겠다.
110004 @ 어쨌든 영의뜸허는 사름이 기준이 되영 각 집안마다 김칩 고칩 골고루 가게예.
110004 #1 그렇주게. 경 안허민 큰일나게.
110004 @ 붉은 흙 뿌리기 같은 것도 협니까?
110004 #1 아니 아니, 여긴 그런 건 엇어. 이쪽으론 신이 거의 없는 편.
110004 @ 기파? 남원리는?
110004 #1 어. 남원, 한남리, 수망리러렌 거의 없어.
110004 @ 거민 포제날을 정이 있는 날?
110004 #1 으. 정자 갑자, 을축허는데 ‘정’자. 정자 든 날.
110004 @ 아, ‘정’자가 들어 있는 날을 포제날로 정하고.
110004 #1 정월 첫째 정자 들엇주.
110004 @ 아, 정월달에 첫째 정자 드는 날. 근데 마을에 저기 상 난 집 이시민 안 허는 거?
110004 #1 그때 사름 죽어불민 안 허여.
110004 @ 아, 그때.
110004 #1 으. 그때만. 미리 죽은 건 필요엇고.

110005 @ 음. 안택은 뭐과?
110005 #1 안택이엔 현 말은 잘 모르겠네.
110006 @ 보리밭 밟기는 어떻 허는 것과? 거 1월 달에 허는 것과?
110006 #1 봄에, 봄에.
110006 @ 봄에.
110006 #1 봄 나갈 적에. 거 왜냐하면 흙이 얼었다 뭐했다 허민 땅이 부꺼져불
거든.
110006 @ 꼭 정월에 했던 건 아니다예. 보리밭 밟기는예.
110006 #1 아니 아니, 정월달엔 여긴 아무 것도 안허여.
110007 @ 아무 것도 안 해. 혹시 걸궁 같은 거 해놔수과? 걸립, 걸궁?
110007 #1 아, 옛날에 조금씩 해주게.
110007 @ 걸궁허는 이유가 뭐과?
110007 #1 단합을 위해서 허는 거주.
110007 @ 걸궁 허명 집집마다 돌아땡집니까?
110007 #1 어어, 그럼 쌀도 줌 주고, 돈도 줌 주고.
110007 @ 걸로 포제를 지내고 했던 거?
110007 #1 아니아니. 여기는 포제 허게 돼민 옛날에는 집집마다 쌀이든 돈이든,
예를 들어서 올해 혼 돼허자 허민 집집마다 혼 돼씩 내어야.
110007 @ 아.
110007 #1 겐디 이 올레 안에 형제 간이 다 살민 혼 사람, 혼나만 내민 돼고,
올레가 따로 허게 돼민 따로 내고.
110007 @ 형제끼리 같이 살아야 줌.
110007 #1 혼 올레 안에 살민 안 내고.
110008 @ 입춘, 우수. 입춘이 뭐과?
110008 #1 여기선 안 해. 입춘이게 절기주게, 여기선 뭐 안해.
110008 @ 뭐 안해도 입춘날이 어떤 건지 설명해줍서.
110008 #1 입춘날은게 묵은 날은 가고 새날 들어온텐 허는디 여기는 입춘 경
뒤.
110008 @ 옛날에 여자들 어디.
110008 #1 옛날에는 입춘 돼가면은 놈의 집 가지 말렌 검질 진텐 헤가지고.
110008 @ 저 놈의 집 놀레 못 가는 날이랏수게. 여자들만.
110008 #1 어, 남잔 가민 곤밥해주고. 겐디 여긴 그런 건 잘 엇어서.
110008 @ 이쪽엔 엇어수과. 저 어릴 때만 해도.
110008 #1 겐디 이쪽더렌 그러니까 나 전이도 얘기했주만 각 처에서 모여살기
땀시 그런 걸 안 허주게.
110008 @ 우수는 어떤 날이과?
110008 #1 여기 우수 세도 안헤여. 우수 오는지 마는지도 몰라.

110009 @ 2월달 넘어가쿠다예. 2월에 영등하잖아예.
110009 #1 여기 영등할망 들어온덴 해근에 어제 가지 안해서.
110009 @ 어제 간?
110009 #1 어제 보름이난. 어제 2월 보름이난.
110009 @ 여기도 영등 올 때는.
110009 #1 저 해녀들 영등곳 해여. 해녀들이나 어부들.
110009 @ 어부들.
110009 #1 이 사람덜은 영등곳이라고 허는데 그저 농서 짓는 사람은 생각도 안 허여.
110009 @ 어쨌든 영등할망은 바당랑 관계있는 거?
110009 #1 으. 여기서 글로 미뤄볼어.
110010 @ 경칩은 어떤 것과?
110010 #1 경칩도 여기엔 오는지 몰르고.
110010 @ 춘분은?
110010 #1 춘분도 오는지 마는지 몰르고.
110011 @ 3월달 넘어가쿠다. 3월에 한식 이신디?
110011 #1 한식이 널 아니라게. 양력으론 딱 맞는 거니까.
110011 @ 으. 한식날은 뭐?
110011 #1 5일날이 청명이고 그 뒷날이 한식이난에. 겐디 옛날은 한식을 했다고 허는데.
110011 @ 기억 엇수과?
110011 #1 기억도 엇고. 우리 큰외할아버지 여기서 유명헌 어른이랏주. 게서 그 할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물어봐나신디 여긴 허지 않는다.
110012 @ 청명날은?
110012 #1 청명도 뭐 안 허여.
110012 @ 곡우 모르겠다?
110012 #1 곡우도 몰르고, 뭐 5월 단오는 5월 단오는 설러분 지 얼마 안 돼여. 이쪽으로는.
110012 @ 아, 기과? 언제까지 지넷수과?
110012 #1 우리집이도 해방후에도 쪽 허다가 설러분디.
110015 @ 해방 후에. 단오날은 어떻 지냅니까?
110015 #1 그대로 저 멥질이나 마찬가지로, 팔월 추석이나 마찬가지로.
110015 @ 음식들 경 미리허고.
110015 #1 어, 그래서 제서 지내고.
110015 @ 어떻 단오날을 경 중요시 여겨나신고예?
110015 #1 글썸, 나도 건 모르겠어.
110013 @ 4월달엔 초파일 있잖아예?

110013 #1 절간에 가는 사람만.
 110014 @ 입하, 소만에는.
 110014 #1 에이 그런 것도 이딘 엇고.
 110015 @ 단오 명절은 추석같이 지내당.
 110015 #1 이젠 전부 일본 시대부터 못 허게 헛어. 숨어서들 허다가, 해방 됐니
 까 허다가 것도 간소화돼명 삭삭.
 110016 @ 망종, 하지?
 110016 #1 여긴 그런 거 안 따져.
 110017 @ 6월달에 닭 잡아 먹는 날 이수과?
 110017 #1 유월 스무날 닭 잡아 먹넨 해낫주.
 110017 @ 그럼 그날 집이서 닭 잡아 먹어수과?
 110017 #1 그날 먹어낫주. 먹을 거 엇일 때.
 110018 @ 삼복날이?
 110018 #1 여긴 복도 안 따져.
 110019 @ 소서, 대서?
 110019 #1 안 따지고.
 110020 @ 7월달 감수다예. 칠석은?
 110020 #1 칠석도 여긴 안 세고. 것도 절간에 가는 사람만.
 110021 @ 절간에 가는 사람예. 백중제?
 110021 #1 백중제는 허당, 소나 말 키우는 사람덜.
 110021 @ 무사 소 키우는 사람들이 백중제 지냅니까? 관련 이수과?
 110021 #1 그 저 뭐 어떻게 된 거진 지금도 헤여. 소 많이 키우는 사람덜 지금
 도 험다고.
 110021 @ 그럼 제 지내는 거?
 110021 #1 난 안 가보니까 몰르는데, 전부 출렁가. 백중날 소 키우는 사람끼리
 목장에 가서 같이 제사지내고 술 먹고 험덴 허대.
 110023 @ 모래찜이나 물맛이 같은 거 험니까?
 110023 #1 아, 여기 소정방에 강, 돈내코 물맛이레 갖주. 백중 때, 백중 ㄹ리에.
 그때 더울 때니까.
 110023 @ 물맛으면 뭐가 좋덴 물맛는 거?
 110023 #1 신경통 좋덴 허여.
 110022 @ 모래찜은 안 허고?
 110022 #1 여기 모래찜 험 디가 엇주.
 110022 @ 저기 표선 가민.
 110022 #1 안 헤여,
 110024 @ 입추, 처서 뭐 안 험니까?
 110024 #1 안 헤.

110025 @ 팔월달에 벌초하지예. 벌초 어떻 험니까? 언제?

110025 #1 이젠, 옛날 옛날에는 백로, 백로를 기준으로 해서 벌초를 했는데 이젠 양력으로 9월, 주로 일요일날 택해서들 허주게.

110025 @ 아 양력으로.

110025 #1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많고 직장이 만허니까, 이제는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우리도 9월 첫째 일요일날 벌초허여. 쟁 안허민 직장 있는 사름덜 못 허니까.

110025 @ 그 음력 초하루도 생각 안 험니까?

110025 #1 옛날에는 걸 생각, 모듬벌초라고 해서 초하루날 했는데, 이제는 직장인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110025 @ 계민 모듬벌초 험니까 아버님네도?

110025 #1 해야주게.

110025 @ 멧 집 정도 같이 험니까?

110025 #1 아이고, 많이 모여.

110025 @ 많이 모여. 그럼 모듬벌초도 허고 우리집 벌초도 허고. 며칠이나 벌초 험니까?

110025 #1 아, 옛날에 차 없을 적에는 한 며칠씩 걸렸는데, 저 용눈 오름에, 거티비(TV)도 나오는데 우리 고조부님은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옛날은 세 사름 당일 가서 못 헤 왔어. 걸어가기 따시. 이젠 차로 허니까 하루에덜 가요.

110025 @ 하루에 강 다 해와예.

110025 #1 어. 벌초허는 시간이야 얼마 걸려 왔다갔다 허민.

110026 @ 팔월 명질이 추석인 거잖아예. 추석 때는 정월 명질이랑 비교헐.

110026 #1 어. 똑같지. 여긴 꼭 같아. 이젠 세배 안 다니니까 꼭 같아.

110028 @ 백로, 상강 험니까?

110028 #1 아니 아니.

110029 @ 입동, 소설?

110029 #1 그런 거 안 헌텐 허난.

110032 @ 동지?

110032 #1 동지도 안 세여.

110030 @ 동지 풋죽 헤 먹어났수과

110030 #1 풋죽 헤 먹는 집 있고 안 헤 먹는 집 있고.

110030 #2 절에서나 허고.

110030 @ 절에서나 허고. 어무니 동지 풋죽 험니까?

110030 #1 우리 안 헤 먹어.

110030 #2 헤 먹는 사름이 있어. 경해도 집마다 안헤.

110031 @ 납평날이 뭔지 알아지쿠과?

110031 #1 몰라.

110032 @ 대설, 동지 안 헐거예. 친구간 관계 잇수과?
 110033 #1 누게 이사하고 싶은 사름.
 110033 @ 그럼, 여기도 친구간 따정 이사합니까?
 110033 #1 으. 또 집거튼 거 고치젠 헐다든지.
 110033 @ 계민 친구간이 어떤 날이과?
 110033 #1 신이 없는 날게. 저 하늘레 올라불영 없는 날.
 110033 #2 묵은해는 다 가고 새해는 아직 안 오고.
 110033 @ 새해 들기 전에, 설날 되기 전이라.
 110033 #1 명질 된 후에도 친구간 허주.
 110033 #2 입춘 돼기 전에.
 110033 #1 입춘 전. 삼일 전까지.
 110034 @ 그 이사갈 때 집 어떻 구합니까?
 110033 #1 갈 때 택일?
 110033 #2 행 가주게.
 110033 #1 친구간에 거의 택일 안 허여.
 110035 @ 이사갈 때 뭐부터 가져가고 그건 거 이수과?
 110035 #2 솥.
 110035 @ 솥 먼저 들어가고예.
 110035 #1 왜냐허면 택일허게 되면은 멧 시에 가라 허면 강 솥부터 옮겨 강 불만 살라근에 밥을 허든지 불살라불민 췌 거. 솥 앓져근에.

11. 놀이

111001 @ 옛날에 놀아난 거 물어보쿠다.
 111001 #1 으?
 111001 @ 어렸을 때 어떤 거 허멍 놀아나신지 그걸 물어보쿠다.
 111001 #1 방치기.
 111001 @ 예, 방치기, 또.
 111001 #1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게 영 선긋어나가지고 허는 거.
 111001 @ 방치기렌 헤마썸.
 111001 #1 으, 여기선 방치기렌 헤.
 111001 @ 방치기 또?
 111001 #1 자치기, 진돌이 그렇게 그런 거주 뭐. 다른 건 없어 여기. 췌이치기.
 111001 @ 췌이치기, 연날리기.
 111001 #1 여기 연 그다지 날리지 안 헐주, 종이가 힘들어 노니까 우리 두린 때는 여기 종이가 힘들어.
 111001 @ 쪽기차기?
 111001 #1 쪽기차기도 허고.

111001 @ 쪽기차기도 허고예. 물타기도 허고예.
111001 #1 어.
111001 @ 구슬치기도 허고예.
111001 #1 구슬치긴 안 해서.
111001 @ 다마치기 안 헨마씨?
111001 #1 그거 잘 안 해나서.
111001 @ 아, 다마치기 안 해수과?
111001 #1 어.
111001 @ 숨박꼭질?
111001 #1 여기선 곱을락.
111001 @ 으. 곱을락. 굴렁췌거트 건 안 해나수과?
111001 #1 아니, 그것도 안 허고.
111001 @ 안 해 나서.
111001 #1 그런 게 없어 여기엔 촌이니까.
111001 @ 뽕이치기?
111001 #1 뽕이치기는 허주게. 그건 봄철에.
111001 @ 봄철에.
111001 #1 으. 훈철에.
111001 @ 계난 그런 거 하나씩 물어볼게예.
111001 #1 으.
111002 @ 우선은 연날리기 먼저 물어보쿠다, 연 종류에 뭐가 잇수과?
111002 #1 여기는 가오리연 허고 들연.
111002 @ 가오리연, 들연. 방패연이라고는 안 허고?
111002 #1 가오리, 저 들연이 방패연이주게.
111002 @ 들연이 방패연예.
111002 #1 으. 네모나게 헤가지고 가운데 구멍 허는게. 여기선 방패연이라고 허지 않고 들연. 들거치 가운데 구멍 낮다고 헤가지고 들연.
111002 @ 그거허고 가오리연예?
111002 #1 가오리거치 생겼다고 헤가지고 가오리연.
111002 @ 경 두 개 만들엇던 거.
111002 #1 어.
111003 @ 그럼 연 어떻게 만드는지 촌근촌근 글아줍서.
111003 #1 창호지, 창호지가 저 한지 잇주게.
111003 @ 예.
111003 #1 창호지 헤 가지고 대나무. 대나무 쪼개가지고는 가까. 그뻐 이런 풀이 없어 가지고는 밥풀. 밥풀 막 끈적거리근에 밥풀로 부쳐근에.
111003 @ 잘르는 거는 어느만씩 자릅니까?

111003 #1 대?

111003 @ 예.

111003 #1 건 종이에 맞춰.

111003 @ 종이에 맞춰예?

111003 #1 저 부저집 아이덜이나 종이 하면은 크게 만들고 족으면 족게 만들고.

111003 @ 족으면 족게 만들고예.

111003 #1 가오리연 같은 건 신문지 이시민 신문지로 만들고. 들연은 안 돼.

111003 @ 아, 들연은 신문지로 안 돼?

111003 #1 신문지로 안 돼.

111003 @ 계민 연 만들젠 허민 필요헌 게.

111003 #1 대, 종이, 밥풀.

111003 @ 대, 종이, 밥풀만 이시민 돼는 거라예.

111004 #1 연술은 계난 힘든 게 자기 집에 길쌈을 허면은 할머니나 어머니나 허게 돼면은 그 저 실 곳인 거 빌어 가지고 걸로 드러. 연술 할 때 밥풀 맥여가지고.

111004 @ 줄에 밥풀 맥여?

111004 #1 으. 연술. 그래야 바짝바짝 허곡.

111004 @ 아.

111004 #1 안 늘어나게.

111004 @ 안 늘어나니까, 연술.

111004 #1 게고 또 연싸움 허젠 허민 유리, 유리 부수와 가지고는 밥풀에 서터젠 연술에 메겨. 그러면은 연술 이렇게 허게 돼면은 이걸 당겅다 늦춰다 허면은 잘라지주게 실이. 잘라지민 날아가고.

111004 @ 아, 경허난 우리 부쉬가지고.

111004 #1 으. 유리 부셔서.

111004 @ 계민 연 만들젠 허민 대나무 미리 행 놔두는 거과?

111004 #1 아 그때 잘라다가.

111004 @ 그때 잘라당예.

111004 #1 그땐 대가 만허으니까게.

111004 @ 열레나 실 같은 건.

111004 #1 실 글썸, 집에 길쌈허게 돼민 미녕실.

111004 @ 미녕실.

111004 #1 어.

111005 @ 연싸움 허젠 허민 어떻헉니까?

111005 #1 글썸 연 날려 가지고는 저 늦춰당 텅겅당 허민 영 겹치주게 실이. 연이 겹치는 게 아니라 실이 겹쳐.

111005 @ 으.

111005 #1 그러면 탱겨다 허다 보민 그 실이 잘라져 부는 거주. 실 잘라진 거는 연이 땅에 떨어져분단 말이지.

111006 @ 연날기 허멍 뭐 재미난 일 벗어나수과?

111006 #1 엇어. 그때는 못 살아 노니까 이 학교도 그때는 삼일 이상 결석 안허민 그때는 도지사 상을 줬다고. 여긴 농촌이니까 그때 애기들, 형제간이 만허니까 애기엿게 해야 부모네가 밧디 강 검질도 메고 농서 짓는 거주. 공부허기가 힘들었주.

111002 @ 연 부분 이름덜 알아지쿠다. 아까 들연이렌 헨 거.

111002 #1 여기선 기자 종이, 연살, 겐 이젠 영 줄 메는 건 벌이줄 멘다.

111002 @ 벌이줄 멘다?

111002 #1 어.

111002 @ 줄 메는 건?

111002 #1 어. 겨고 연술이다 허는 거베긴 앞이가 뭐고. 겨고 들연은 들연은 꿩지가 엇고 가오리는 꿩지가 잇어.

111002 @ 꿩지가 있지예. 그럼 그 꿩지는 뭐렌 불러?

111002 #1 연 꼬리엔 허고 또 옆이 귀가 잇어. 연귀.

111002 @ 귀, 연귀예

111002 #1 어. 게고 연꼬리.

111002 @ 그, 그 들연에 동그란 거 구멍난 거 뭐렌 험니까?

111002 #1 그건 무신 여기선 뭐렌 안 고아.

111002 @ 이름 엇어?

111002 #1 여기선 그런 말은 안 고아.

111002 @ 그럼 줄은?

111002 #1 연술. 연줄이엔 안 헤영 여기선 연술.

111002 @ 연술이렌 헤예?

111002 #1 어.

111002 @ 고기 나쁘는 그것도 고깃술이렌 허고?

111002 #1 연줄이엔 안 허여, 연술.

111002 @ 연술 감는 그걸 뭐렌 험니까?

111002 #1 얼레, 여기서도 그냥 얼레.

111002 @ 그럼, 그 얼레 종류에 따라 뭐 두모얼레 네모얼레?

111002 #1 아, 여기서는 그처럼 안 헨 기자 요렇게 짜 가지고 네모 안에 이렇게 헤 가지고는 싹 감아불어.

111002 @ 네 개로 헨.

111002 #1 어.

111002 @ 그걸 네모얼레렌 말도 안 허쨌다예?

111002 #1 어. 그대로, 그대로.

111002 @ 연줄은 감다, 굵다?
111002 #1 감다. 계난 재기 감으라이.
111002 @ 재기 감으라이.
111002 #1 경헨 재기 풀라이. 경허주게.
111002 @ 풀라 허는 거는?
111002 #1 연을 띄올라면 늦춰 주는 거.
111002 @ 늦춰 주는 거예?
111002 #1 으.
111002 @ 뭘 연줄에 메는 벌이줄.
111002 #1 벌이줄게. 벌이줄을 메사 연줄을 메주게.
111002 @ 그럼, 벌이줄 부분이 어디라?
111002 #1 이건 들연, 여기, 가오리 연은 가운데.
111002 @ 가운데. 여기를 벌이줄이렌 허는 건 똑같다예?
111002 #1 어.
111007 @ 그럼 쪽기는 어떻 만들어놨수과?
111007 #1 쪽기는 허게 뒤편은 형짚 즐게 찢어가지고는 그뎨 여기는 거기 놀
게 없으니까, 소라, 구쟁기이, 딱지 앞이 딱지 그거 낱.
111007 @ 하하.
111007 #1 엇이니까게.
111007 @ 엇이니까. 묶는 건 어떻 묶어?
111007 #1 실로. 일본 동전 그걸로 놓기도 허주. 망헨 가부니까, 그거 쓸 곳도
엇이니까.
111007 @ 아하.
111007 #1 근데 주로 구쟁기 딱지, 그거 두 개나 세 개 낱. 흐나만 허민 게벼우
니까.
111007 @ 아하, 가벼워부난.
111001 #1 게고 춤 놀이에 여긴 못치기엔 헨 것이 잇어주.
111001 @ 못치기? 못치기는 어떤 거라?
111001 #1 웨 못이엔 해근에.
111001 @ 예.
111001 #1 이 집 짓을 때나 주룩 박는 거.
111001 @ 예.
111001 #1 그걸로 또 헨 놀앗주. 그건 웨 놀앗는고 허니까 사삼사건 때 이디 습
격덜이 활퀴고 가부니까 그 못이 많았어. 그 못이. 이 학생덜 그거 가근에 좇어단
그걸로 못치기 해근에.
111001 #1 그리고 혼 열 댓설 넘으면은 열 댓설 넘어근에 혼 장개가기 전이덜
은 구녁치기엔 해가지고 돈 내기.

111001 @ 구녕치기?

111001 #1 으, 구녕치기엔 헤 가지고는 땅에 이렇게 땅을 파. 땅을 파 가지고는 동전, 진짜 동전으로 사용허는 동전으로 게서 혼 사람이 혼나씩 내 뇌근에 그 구멍 더레 들어 던지는 거라. 구멍에 들어가민 먹고, 안 들어가민 돌로 맞춰. 게민 만약 에 나가 던지면은 그쪽에서가 어느 걸 맞추라고 지적을 해 줘. 그럼 그걸 맞추민 자기 돈이 되는 거라. 어린 아이덜은 안 허고, 빠른 아이덜은 열 서너네설 웨야, 그 학교 오륙학년. 우리 때는 사학년에 결혼 험 사람도 잇어서니까?

111001 @ 그걸 구녕치기?

111001 #1 어.

111001 @ 고망도 아니고 구녕?

111001 #1 으, 구녕치기.

111001 @ 동전 가정 잇당, 십 원짜리 동전?

111001 #1 그때 일 원짜리도 잇고 그때 사용허는 돈.

111001 @ 그럼, 진짜 돈 따 먹는 거?

111001 #1 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덜 도박이지.

111001 @ 어, 진짜 놀이가 아니고 도박인게예.

111001 #1 게, 따민 자기 거니까.

111007 @ 자기 거니까예. 아까 제기 만드는 거 다시 혼 번만 곱아줍서. 여기 안 들어간.

111007 #1 구쟁기 딱지.

111007 @ 예, 구쟁기 딱지.

111007 #1 어, 우이, 여물에 부튼 거 우이 딱지 그거를 이렇게 형겘으로 싸는 거라. 이레 싸면 여기 딱 접아가지고 실로 감아.

111007 @ 실로 감아.

111007 #1 게민 우인 찢는다 이겨주. 줌질게. 그러면 쪽기가 되는 거.

111007 @ 쪽기 되는 거예.

111007 #1 으.

111008 @ 기민 쪽기차기 종류에도 뭐 한 발?

111008 #1 혼 발차기, 두 발차기 잇주.

111008 @ 또?

111008 #1 종 들인데 헤가지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안티 들어 던져. 그러면 또 차.

111008 @ 아, 그걸 종들인덴 헤?

111008 #1 어. 여기선 종들인다 허주.

111008 @ 혼 발차기, 두 발차기, 그 다음 올리기?

111008 #1 여긴 올리기 그런 건 엇고.

111009 @ 그런 건 엇고예. 쪽기 차기는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기는 거?

111009 #1 그렇주게. 많이 차는 사름이 이기주게.

111010 @ 쪽기차기 허멍 재미난 일 잇어나수과?

111010 #1 아니, 그런 거 엇어.

111012 @ 자치기?

111012 #1 자치기는 게 대나무, 저 대나무렌 험저, 그대로 나무 좀 이렇게 솔지고 요만이 긴 거는 자, 또 이레 짧은 건 치, 그래서 이걸 쳐 가지고 멀리 가는 사름이 들어 던져. 들어 던지민 둥글렁허게 방이라고 그려 낡. 그 방안에 들어 가민 죽는 거라. 던지는 사름이 던져 가지고. 거기 안 들어가민 이제 때린다 이거지 세 번이면 세 번 네 번이면 네 번. 그럼 멀리서 멧 자 행 불러 자를. 그럼 그걸 자로 험채는 거주. 게서 이제 쉰 자 나기 허민 쉰 자 빨리 허는 사름이 이기는 거.

111013 @ 그럼, 이 자치기, 아까 쪽기차기도 두 사람만 험 수 있는 거?

111013 #1 아니, 멧 사름도 험 수 있는 거.

111013 @ 여러 사름이 험 수 있는 거. 팀 나뉘?

111013 #1 아니. 자치기만은 두 펜으로 나뉘.

111013 @ 두 펜으로 나뉘.

111013 #1 쪽기차기는 각자 험 수 잇고.

111013 @ 아, 각자 험 수 잇는데, 자치기는 펜 나뉘서.

111013 #1 두 펜으로. 게 가지고는 백 자내기, 백 자내 가지고는 죽는단 말이지 그럼 잘 허는 사름이 선수로 나가근에 혼 번에 멧 자 허게 돼민 전부 살아난 새로 허고.

111013 @ 잘 허는 사름이 이기면 죽은 사름이 다 살아나?

111013 #1 그렇주게. 이 저 멧 자, 멧 자 허민 살아날락 약속 허주게. 게 백 자 허기 전에 여기서 혼 사름만 남는다 이거주. 그럼 저쪽엔 여러 사름 남아서 그러면 이 사름이 선수가 똥 서른자 혼 번에 약속헌 서른 자 허게 돼민 전부 살아나는 거라.

111013 @ 아, 그럼 아까 자치기 험 때 긴 게 자, 짧은 게 치?

111013 #1 어.

111013 @ 그럼 우리 치는 게 치인 거라예?

111013 #1 손에 잡은 게 자.

111012 @ 그럼 그 자 준비는 어떻 험니까?

111012 #1 그때는 낭 그차근에 허주.

111012 @ 동네에 잇는 낭 그차근에예.

111012 #1 어.

111012 @ 똑같은 낭 사용허는 거 자랑 치랑?

111012 #1 치는 가늘고 잘 깨지니까 동백나무.

111012 @ 치는 동백나무.

111012 #1 이나 가시나무 단단헌 나무로 허주게. 치는.

111012 @ 자는 아무낭이나 상관 었고?
111012 #1 건 소나무도 돼고 아무 낭이나.
111012 @ 음. 가시낭이나 동백낭이나.
111012 #1 단단헌 나무.
111014 @ 단단헌 거예. 자치기 허명도 특별허게 기억에 남는 일 었수과?
111014 #1 에이 었어.
111015 @ 몰타기?
111015 #1 몰타기는.
111015 @ 몰타기 종류.
111015 #1 그거 몰타기 허게 뉘면 펜 갈라.
111015 @ 뉘 족은몰타기, 대몰타기.
111015 #1 아니, 그런 건 었어, 그런 건 었어고.
111015 @ 었어. 편 갈랑 어떻마씨?
111015 #1 게, 펜 갈랑게 흐 사람 허고 죽 구부리면은 진 펜부터 먼저. 쟁헤가 지고는 뛰어강 그 우이 타는 거라 계민 대장안티 장개 불러. 우리가 이기면은 계속 타는 거고 지면은 앞드리는 거주.
111020 @ 다마치기는?
111020 #1 이디 우리 어릴 땐 다마가 없으니까.
111028 @ 딱지치기도 안 헤낫수과?
111028 #1 딱지치기도 우리 설러분 후제. 종이덜이 없으니까게.
111032 @ 아하. 종이덜이 었어부난 곱을락은?
111032 #1 곱을락은 허주게. 젠디 곱을락은 어린애들은 잘 안 허고 그때 열여 섭, 열일곱 처녀, 총각덜 모영 많이 허주게.
111032 @ 아, 기과? 우린 어린 아이덜이 막 헛던 거 같은디.
111032 #1 기자 어린 아이덜은 막 구경허민 곧지 말라, 곧지 말라 허명.
111033 @ 아하, 곱을락 험 때 술래, 술래는 어떻 정허여.
111033 #1 장깁 헤영 쉼 진 사람.
111033 @ 가위바위보 험 제일 진 사람예.
111033 #1 경험 좇으면은 좇은 사람들끼리 장깁보 헤영 또 허고.
111033 @ 음, 다 좇아야 끝나는 거?
111033 #1 아니, 흐 멧 사람 좇고 못 좇으면은 아예 그 나오라 헤 불주게.
111033 @ 으, 기민
111033 #1 멧 사람만 좇으민.
111033 @ 계민 멧 사람만.
111033 #1 좇은 사람끼리만 또 장깁보 허는 거라.
111033 @ 예, 좇은 사람덜끼리만.
111034 @ 주로 어디 곱아낫수과?

111034 #1 아이고, 거 혼이 엇어 밧 구석에도 간 곱아 불고. 이 봄철에는 보리 밧디 그런 디나 아니민 굴묵 같은 디 그런 디.

111034 @ 굴묵, 굴묵.

111034 #1 으, 굴묵 거튼 디. 겐디 굴묵은 잘 좇는단 말이지.

111034 @ 아하.

111034 #1 게민 주로 담 엠에 잘 곱아. 경헨 영 가민 저레 돌아나불고. 이레 들 아가불고 게민 낭 우이도 올라가불고.

111032 @ 영 손으로 잡아야 잡은 거?

111032 #1 아니 아니, 너 좇아져 허민 손으로 가리키민 좇은 거.

111032 @ 기지예.

111032 #1 어.

111036 @ 실뜨기도 알아지쿠과?

111036 #1 아, 그것도 험난디 나 그거 이름을 몰라.

111036 @ 남저덜은 잘 안 헛잖아. 주로 여저덜이 헛잖아예?

111041 #1 공기도 남저, 여긴 남저덜 안 험서.

111041 @ 남저 안 험예?

111041 #1 으, 여저덜만.

111044 @ 고누 알아지쿠과 고누?

111044 #1 고누엔 현 건 무신 말이라.

111053 @ 웃놀이?

111053 #1 에이 어린아이덜 웃놀이 안 허여.

111053 @ 아니아니, 어른 웬 가지고 헛을 때 웃놀이. 웃가락 어떻 준비힙니까?

111053 #1 낭 이만씩 잘라가지고 두 개 깨여.

111054 @ 두 개 깨여, 무슨 낭으로 헤?

111054 #1 여긴 혼이 엇어. 여긴 주로 동박낭으로 헤.

111055 @ 동박낭이과? 그럼 종지는 뭘 종지로 씹니까?

111055 #1 장종지.

111055 @ 잔종지, 술 마시는 술잔?

111055 #1 아니아니, 상 출리면 간장 넣는 요만이 현.

111055 @ 아하. 잔 종지예. 그럼 판은 어디에 그려?

111055 #1 명석에.

111055 @ 명석에 하하하.

111055 #1 여긴 명석에 허난게.

111059 @ 썩이치기?

111061 #1 썩이는 썩이도 동박낭이 제일 좋아. 족이 안 구리니까.

111061 @ 예.

111061 #1 경헨가지고 깎아근예.

111061 @ 꺾양?

111061 #1 게서 저 대막덩이나 나무막덩이 요만한 거 해근에 형겘, 형겘해서 끈을 이렇게 무껴. 경혜가지고는 막 돌려근에 치는 거.

111060 @ 팽이에 종류가 따로 있어수과?

111060 #1 아니지.

111064 @ 없었던 거예. 팽이도 싸움 험니까, 팽이 싸움.

111064 #1 허주게.

111064 @ 게민 어떻험니까?

111064 #1 서로 등그려 일로도 치고 일로도 치고 팽이와 팽이끼리 부닥쳐 겐 쓰러지민 지는 거주.

111064 @ 치는 사람은 자기 팽이만 치는 거라?

111064 #1 어.

111064 @ 굴렁썰 같은 거 해낫수과?

111064 #1 아니. 그런 거 엇어.

111069 @ 깡똥차기?

111069 #1 깡똥차기도 안 허고.

111072 @ 뽕이치기?

111072 #1 뽕이, 우릿말로 새. 새왓디 가네. 꽃이지게 그거 뽑아다가 멧 개 이렇게 숨어, 이렇게 짹 돌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방이 생긴다. 그럼 멧 개 찍는다. 게민 나가 열 개민 열 개 찍으면 나 열 개 주고 서른 개 찍으면 서른 개 주곡.

111072 @ 그럼, 뽕이치기 허젠 허민 뽕이를 뽑아와야겠다예.

111072 #1 게, 새왓디 강 뽑양 와야지. 쟁헨 새왓임제안티 걸리민 욱 들곡.

111072 @ 무사?

111072 #1 아, 그거 뽑아볼민 새가 안 자라주.

111072 @ 아, 그거 뽑아볼민 새가 안 자라. 저 어렸을 때 우리 그거 뽑양 먹어 나신다.

111072 #1 아고 맛좋아.

111072 @ 연하고예?

111072 #1 이제 먹을 게 만허니까 헤지 옛날에는.

111072 #2 억새, 억새뽕인 더 좋아.

111072 #1 여깃말로 어웁이라고 헤서, 억새보고 어웁이라고 허주 여깃사름덜. 어웁뽕이는 그 여물이 더 맛좋아.

111072 @ 여물이?

111072 #1 거 솔지니까게.

111072 @ 아하.

111072 #1 겐 뽕이치기 허젠 허민 참 놈의 맛디 여기는 해변이니까 새밭이 험

들주게. 겐 주인 뵙샤 안 뵙샤 몰르게 뵙아당 새.

111072 @ 하하 뵙아당?

111072 #1 놀게 없으니까. 여기는 그때 당시 촌이니까. 놀, 예를 들어가지고 ***
봤다. 그걸 놀라고 해도 재료가 없으니까 못 논다 이거지.

111072 @ 못 놀아예?

111072 #1 그주게.

111075 @ 저기 고무줄 놀이도 해놔수과?

111075 #1 저 여자덜.

111078 @ 줄넘기?

111078 #1 줄넘긴 무시거라.

111078 #2 베펠락.

111078 #1 베펠락 게메 잘 안헤여.

111078 @ 이거 어무니안티 물어볼 거우다.

111078 #2 고무줄, 저 베는 막 옛날 아니라.

111078 #1 요 근래.

111078 #2 흔 육십년, 칠십 년 전.

111078 @ 육십년, 칠십년 전?

111078 #2 어. 칠십년 전이.

111078 @ 그럼, 어무니 열 설 뎨게. 칠십 년 전이민?

111078 #2 으. 열 설 때. 열 설, 열 다섯허난 흔 칠십년 뉘엇주.

111082 @ 으, 게난 그런 거 어무니안티 물어보쿠다. 한다리인다리도 헛지예?

111082 #2 한다리인다리 잇주게.

111082 #1 그 저 조용히 겨울에 방 안에 강 앓앙 놀민덜게.

111082 @ 겨울에. 건 어떻 허는 거?

111082 #1 저 할망이 건 잘 알아.

111082 @ 어무니 여기 오십서.

111082 #2 이런 다리덜 코짱히 노민 흔다리인다리.

111082 @ 어.

111082 #2 개칭 대칭 원님 수설 횡경 밧디 지등에 쳐.

111082 @ 어.

111082 #2 그거주게, 노래 부르는 게.

111082 @ 그럼 다리 영 번갈앙 앓앙?

111082 #1 서로 이렇게.

111083 #2 아니 겨허민 이 다리를 다리를 곤는 사름이 흔 서이가 앓으민 흔 다
리, 흔 다리 행 다 다리 수정을 허다 보면은 개칭 대칭 원님 수설 지등에 척 허면
은 이 다리가 부트민 이거는 못 허여. 이거는 빠베야 뉘여.

111084 @ 빠붙어야 뉘여.

111084 #2 어. 거민 또 남은 것만 해근에 그것에 가민 또 빠붙어야 돼고.
 111083 @ 아까 그 노래 한 번만 더 불러 줘서.
 111083 #2 노래 무신 노래?
 111083 @ 혼 다리 두 다리, 혼 번만 더.
 111083 #2 게난 그것이 말째라가난이 막 노래가 여러 가지로 나오란.
 111083 @ 으.
 111083 #2 경헌디 게도 우리 처음 배울 땐, 혼다리인다리 개청 대청 원님 수설
 지등에 쳐. 게 그거주게.
 111084 @ ‘쳐’허민 그 다리가 걸린 거?
 111084 #2 만약에 이 다리 와서 이 다리가 걸리민 빠는 거.
 111084 @ 빼버리는 거예.
 111084 #2 어 남은 다리만 또 허다근에 걸리민 또 허고.
 111084 @ 게민 난 진 거예.
 111084 #2 어. 이제.
 111075 @ 어무니 고무줄 놀이 해난 것도 곱아줍서.
 111075 #2 고무줄 노래해난 건 그 노랜 아니해서. 고무줄 노랜.
 111075 @ 고무줄 헐 때 혼 줄 고무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수과?
 111075 #2 아니, 고무줄은 이레 이디 심고 저레 심곡 헐 두 사람이 심영 가운데
 서 뛰지게. 게난 그거는 근래에 아이들이, 우리보단 막 아랫 아이덜이 헛주게.
 111075 @ 아, 어무니 때가 아니고.
 111075 #2 어.
 111075 @ 나중에 헛 거.
 111078 #2 우리렌 그 베뿔락을 주로 허고 그 베뿔락을 해난 노래는 원.
 111078 @ 베뿔락?
 111078 #2 어.
 111078 @ 베뿔락은 멧 사람이 허는 거?
 111078 #2 베뿔락은 혼자. 혼자 그자 베 가지고 이거라. 혼자.
 111078 @ 아, 여러 사람이, 둘이가 영 돌려주고 뛰어가는 건 안 허고?
 111078 #2 그거는 근래에 체육대회 ㄴ튼 때 허는 거주게 그거는.
 111078 @ 아, 혼자만.
 111078 #2 근래에 체육대회 같은 때 멧 사람이 사 가지고 돌리면서주 그때는
 베 혼 발은 헛 거 가정 혼자, 혼자.
 111080 @ 그네뛰기는?
 111080 #2 그네뛰기는 나무에 베 걸어근에.
 111080 #1 것도 잘 안 해서. 해변이니까 나무가 많지 안 해근에.
 111080 @ 아, 그 나무도 큰 나무여야 뿔 거난예?
 111080 #1 어.

111080 #2 그렇게 해서 그 저 오래 그걸 헤가민.
 111080 #1 게고 걸 부랑꼬엔 헤여. 부랑꼬.
 111080 @ 부랑꼬 그거는 일본말.
 111080 #2 으.
 111080 #1 그것이 일본말인디이 여기 사람덜은 부랑꼬엔 해서.
 111080 @ 부랑꼬엔 해서예.
 111080 #2 으.

12. 통과의례

출생

112001 @ 들어났수다, 할아버지안테는. 케민 애기, 애기 가졌을 때 애기 가지면 태고 같은 건 신경 써난마씨? 배 속에 이실 때 애기 생기민.

112001 #2 아니라 것도 엇어네 혼 번 나 애기 가짐은 으섯 겔 가졌주. 혼 번은 애길 가져신디 씨러진 적도 아무 적도 엇인디 점 배도 크게 안 아프고 기자 곳인물만 팔팔하게 난에게.

112001 @ 어.

112001 #2 곳인물만 팔팔하게 나난 저 집에 오라네 집이 흐뎀 이신 처레주. 집이 오란, 옛날엔이 애기가 배 소곱에서 영 이상 됴민 기자 새끼훤나 저디 잡아근에 도새기 새끼 확해당 훤청 맥이민 살 거는 제 자리에는 부뜨고 안 텔 건 팔팔팔 느려가 불주게. 경허난 집이 오난 이젠 어디가네 그걸 허젠 허민 어디 도야질 잡아 도야질, 새끼 벤 거 사사주게.

112001 @ 음.

112001 #2 상 잡앙 고긴 풀고 그것만 쓰멍 게난 도새기 새끼 헤단에 먹으난 아프던 배가 부글부글 허멍 싹 빠져베라게.

112001 @ 음.

112001 #2 게난 혼난 경 허고 혼난 난 죽어불고.

112001 @ 큰 아이 혼나 낭 죽어 분 건 얼마나 잇영?

112001 #2 혼덜 넘은 세 설이주게 오월덜에 들 넘어 팔월 나난 죽어벤. 지금 같아시민 원 죽지 안헐 아이. 침 잘 못 쥐부난, 침 잘 못 쥐부난 말 몰란.

112001 @ 아이구.

112001 #2 게난이 허가 엇이 의사신디 가지 말고 야부 의사신디 가지 말렌 험게 그거주. 경험 죽어 벳주, 경험 죽어부난 그 다음은 저 큰 아들. 스무 일곱에 낫주게, 스무 다섯에 난 건 죽어부난 두 설 문이로. 그 아이 죽을 때 배에 잇당 아이 주 큰아덜이.

112001 @ 음. 케민 애기 가지면 거의 산달까지 밧디 강 일 허잖아예?

112001 #2 허주게. 허곡 말곡.

112001 @ 하하 허곡 말곡예. 전날까지도예. 애기 날 땐.

112001 #2 큰아덜 날 땀 저 산디 비레 가신디 스뭇 날을 헤도 못 바레난 재기 스뭇 오젠 아파네 재기 헤던 집이 오라네 난 눅고 아방은 또 혼 번 시꺼오고 헤네 밤이 낮주.

112001 @ 하하 저녁에꺼지 일 허당.

112001 #2 뭐 저처럼 덜렁거리도이 그런 건이 좀삼혜영 애기 나는 것도 시어머니나 누게 흰 오라보지 안 해서 기자.

112001 @ 게도 누구, 산파상 부르지 안 험니까?

112001 #2 나가 나민 저 사름이 줄 쫄르거주게.

112001 @ 헤 아버지가 줄 쫄라?

112001 #2 으, 나가 나민 저 사름이 쫄르민 쌍 눅저더그에 어머니신디 애기 낮수다 혜영.

112001 @ 애구게 애기 낳젠 허민 물 끌렁 뭐 끌아 두고 경 안허여?

112001 #2 경허영 짝 끌양게 이녁냥으로 끌양.

112001 @ 아.

112001 #2 경허민 시어명이 저 아덜만이 못 허여. 성질이 차분허질 못 허여.

112001 @ 막 밧덧일만 하셨구나. 물질.

112001 #2 알기 쉽게 말으면 아주 놀강아지거치 놀아텡겨.

112001 @ 그니까 일만예?

112001 #2 바농질도 무시거.

112001 @ 못 허고예?

112001 #2 이만씩 이만씩,

112001 @ 하하.

112001 #2 시아버지가 바농질을 잘 헨게 저 사름도 바농질을 잘 허여.

112001 @ 아.

112001 #2 시방 이거이 옷 조금 줄 거라도 시민 확 지냥으로 그차덩 주영 입곡.

112001 @ 아.

112001 #2 나 엇이민 다 현다.

112001 @ 아, 기마씨.

112001 #2 으.

112001 @ 게민 아버지도 미싱질 헤.

112001 #2 어, 허여.

112001 @ 아이구, 아이구.

112001 #2 바지라도 사당 흐썰 건다 허민 나만 엇이민 싹 줄영 입어불어.

112002 @ 하하. 게민 애기 낳젠 허민 뭘 준비헤 됩니까?

112002 #2 므물궤루 헤당 놔두주게. 므물궤루 헤당 놔뵤 기자 그거 니빨따문에 흐랑허게 현다고 저 저 므물궤루 낵 궤는 물에 헤근에 기자 영 몰양 슴구룩 짓영, 슴구락으로 질퍽질퍽허민 기자 물썩헌 거 애기 어멍 궤루 카주는 거 궤루 카는 거

그거 해영 먹고 그거 먹어나민 능력 있는대로 고기 사 먹는 건 사먹고 못 사 먹는 건 기자 그 아이고 요새 같아시민 그 무시겨 샷빠.

112002 @ 으.

112002 #2 오죽 좋아. 애기 나 나민이 고기나 못 먹으면 혼 들도 곳인물 나는 거주게. 그처럼 허민 아무것도 무슨 생리델 허느냐 그 옷, 이 옷에, 옷도 옛날말로 속곳이라 속곳. 무신 고무옷 말앙 해녀들 물에질 헐 때 입는 거. 그거 조금 내리민 속곳더래 게우살 행 베꼈더래꺼장 게우살허고 게난 애기 나 나민 무신 고기, 고기 국도 바닷고기 국을 좀 얻어 먹어민 곳인물이 재기 개고 그거, 능력 엇언 그거 사지 못허고 못 얻영 먹으면 곳인물이 항창 가.

112002 @ 한참 가.

112002 #2 영 입단 너저분헌 옛날 같 몸빼 같은 거 그런 건 막 두민 그런 때 필요하여 글아입곡.

112003 @ 그민 아버지가 태 잘랐잖아예 그 텃줄은 어떻습니까?

112003 #2 텃줄은 싸근에 ㄱ만이 야기 클 때도록 놔두민 저 하도 오래 뉘난 말젠 좀 일어서라. 냉장고엔 안 놔 뉘 된 기자 놔 두난.

112003 @ 말령예.

112003 #2 으. 좀 일어서라게 그때는 헐 수 엇이 던져불고.

112003 @ 으.

112003 #2 텃줄은 오래 잇당 털어지는 애긴 좋켜. 재기 털어져부는 애긴 곳이켜 해도 웬 어떻사 허는 지 기자.

112003 @ 상관 엇인 거 아니?

112003 #2 몰라 기자 혼 메틀 시민 털어지민. 것도 조심 허게 헤사주게. 물도 가게 말고. 그레 잘 조심헤사.

112004 @ 야까 애기 나민 어떻 음식은 모물로 허는 거예.

112004 #2 으, ㄱ물ㄱ루. 아이고 애기 어떻 ㄱ루 카 쥐사 곁. 게난 우린 엇영 못허주. 누게 헤 줄 디 바래진 안 허여. 우리 어머니도 경 잘 살곡 해도 ㄱ음이 경 상허게 안 허영 애기 난 곁 무시겨 헤 쥐사곁 혼엇이 안 허여.

112004 @ 아, 안 허여.

112004 #2 무신 거 혼끼도 얻어 먹지 못허고. 차라리 나가 무신 거 해당 낫당 애기 낫수텐 허민 오민 나신디 거 숲양, 어무니가 숲노렌 헐 숲양 ㄱ치도 먹곡 경 헤낫주.

112005 @ 음, 애기 목욕은 언제 시킵니까 그럼.

112005 #2 애기 목욕은게 그걸 나근에 싹다근에게 뒷날은 애기 목욕을, 그날 시키는 사람도 잇고 시켜사주게 시키민 애기 날 때 무신 ㄱ루 음식이나 먹으면이 애기 이디가 상피론가 행주로 헤 가민 민작민작 허민, 요즘은 애기 비누로덜 싹 깨끗이 헤 부는디, 그땐 그 애기난 애기라고 비누나 허민 애비 비누도 아니고 눈더레나 비눗물 가카부덴이 그 기자 물로만 허는디, 행주로 이레 밀민 이레 갖닥 저레 밀민

저래 갖닥 민작허게. 경해도 머리에 부떠근에 헤영헌 것이 게작해도 메틀 험시민
어떻어뎡 벗어져. 매날 헤사주, 매날.

112005 @ 매날예?

112005 #2 웬 그때도 못 살아도 애기 몸은 잘 곱지더라. 저 그거험 사름은 경헌
디 난 그거 안 헛당 우리 손지덜. 베 험겍 애기가 막 울어도이 슬이 벌경케 베 험
겍으로 막 문 건 몸이 깨껏허는디 난 애기 아프카부덴 아까완에 베 험겍으로 안 허
난 우리 애들이 흐쓸 ㄱ려와.

112005 @ 아 슬.

112005 #2 애기가 울고웨고 이디가 벌경케 특히나 지집아이, 스나인 가렝이 가
렝이를 잘 씻어야. 난 애기 아프카부덴 가렝이 그추룩 잘 안 씻어단 우리 큰 손지
막 피해 봤주.

112006 @ 애기 할 때 애기 옷 입히잖아예. 베넷저고리에, 그건 어떻게 미리 만듭
니까?

112006 #2 빌령 입는 사름 한다.

112006 @ 아.

112006 #2 애기 낭 잘 키운 사름 거. 복 좋은 사름.

112006 @ 아, 좋은 디 거. 옷도?

112006 #2 으. 아이구 빌령 입는 사름이 하고 옛날엔이 애기 분이 그렇게 좋아
신디 텅기당 보민 겨드랭이 이디가 물러, 물르민 베옷 헌 거, 베옷 헌 거를 막 치점
시민 그것이 막 풀어지민 솜보다는 흐쓸 훑어도 것이 흐쓸 복삭허민 물르디 그거
냥 놔두민 흐쓸 보수헛저.

112007 @ 음. 거 할망상도 험니까 애기 건강허게 잘 크렌?

112007 #2 아니, 아니혀. 애기가 아파사 할망안티도 빌고, 아프민 할망에 빌어,
안 비는 사름은 안 빌어도 비는 사름은 할망에 빌어.

112007 @ 음.

112007 #2 애긴 아프민 우선 할망신디 비는 거베긴 약이 엇덴.

112008 @ 음. 그 애기 머리는, 머리는 언제 깎아마씨?

112008 #2 초파일.

112008 @ 초파일, 애기 낭 돌아오는 초파일에 깎는 거예?

112008 #2 으.

112009 @그 뉘 흥역이나 천연두 걸리지 말렌 예방허는 건 그뎡 엇엇잖아예.

112009 #2 아이구, 그뎡 엇이난게 애기 경 하영 죽어서네게.

112009 @ 게니까예, 그거 걸령예?

112009 #2 아이구, 독허게, 심허게 허는 애기덜은 원 그거 해당 보민 아이 닳지
안 헌다. 원 얼마나 아이덜이 못 전더산디. 것이 막 으라가지라. 아썩 시늬만 행 넘
어가부는 애기덜은 지장 엇고.

112009 @ 으.

112009 #2 거 보민 아이가 흐쓸 열 오르멍, 땀띠거치 흐쓸 기자 소소소소 허게 올랑 흐뽀름 낫도 불그랑 허민 보름이나 방지허고 그추룩 허민 돼지고기나 득고기나 그추룩 현 걸 아니 먹주게. 고기 중룰 아니 먹어.

112009 @ 애기 경 허면?

112009 #2 으.

112009 @ 애기만 안 먹는 거 아니고?

112009 #2 아이구, 집 안에 그걸 아니 텡겨.

112009 @ 아.

112009 #2 고기국도 안 허여. 애기가 경 혈 때 제서가 당허면 고기는 상에 올려 야 건디, 쳐, 쳐. 고기를 굽질 안허여.

112009 @ 무사마씨?

112009 #2 고기 구워 가민 이딧걸 막 헌텐 허영.

112009 @ 친 건 괜참고?

112009 #2 으, 그추룩 헤영 심허게 허는 아인 낫 산디 엇나. 막 헤봐도 막 굽어 불고 굽어가민 딱지지고 피가 막. 경해도 말젠 좋으민.

112009 @ 아이고.

112009 #2 건 죽어도 헌텐 헨게. 겐디 이제덜은 다 예방 주사.

112010 @ 예, 주사 맞으니까. 뭐 출산할 때 뭐 허민 안 뵤텐 허는 금기 사항 같은 거 엇수과?

112010 #2 아니, 기자 애기 어멍 뵤 수 시민 그루 음식이나 안 먹어사 깨끗허고.

112010 @ 아, 그루 음식 먹지 말렌 헤영?

112010 #2 으, 그자 아기 날덜 받은덜 뵤젠헤연 기자 그 애기 날 때 뵤 거, 여정일이엔 허는 디 그뵤 받은덜.

112010 @ 받은덜?

112010 #2 받은덜. 그날 그덜 날 거라 헨 받은덜 뵤젠. 그뵤 여정일도 엇고 그들.

112010 @ 그 들, 그 들에 낳는 거라예?

112010 #2 열흘이 늦엇든 일럿든 그자 받은덜.

112010 @ 날짜꺼진 몰라?

112010 #2 몰르주게.

112010 @ 몰라.

혼례

112011 @ 결혼식 절차가 잇어. 잔치 할 때 첫 번째 날은 뭐 헵니까?

112011 #2 첫 번째 날은 거시기 돼지 무시겨 짜그락헌 거 흐나 잡앙 친족덜영 잡앙 부지 아정 오는 사름은 안 오고.

112011 @ 아, 첫째날은?

112011 #2 으. 그거 수웨 담아근에, 감은 고쟁이라고 고쟁이에 큰 베설도 흔 짐족은 베설도 흔 짐, 대창이영 헌 거영 꿩영 어른은 조금 낮게 꿩 거, 큰 베설 꿩 거, 아이는 짜끄만헌 거. 게민 뒷날 잔치날사 저 새서방도 오고 새각시도 가곡 허는 날사 주로 쓸구덕게. 쓸게. 저 보리철에 보리쌀도 싣고. 근썰이엔 헌 게 그 산두 헌 거.

112011 @ 예예.

112011 #2 이제추룩 깨끗도 안 헌 거. 아주 그거 허는 딴 사둔부찌에나 브딘 친족이나. 게고 보리쌀이나 좁쌀이나 헤도 두 돼, 석 돼. 흔 말 허는 사름은 막 새각 허는 거.

112011 @ 음.

112011 #2 무신 경 허단 쪼끔 잇어 가사 돈이 좀 나오랏주 다 쓸로만 헤서. 게고 우리도 요자기까지만 헤도 사둔침이 다 쓸로만 아져가신디.

112011 @ 아까 사둔부찌렌 헤신디 사둔부찌가 뭐과?

112011 #2 사둔허고 사둔 친족.

112011 @ 아, 만약에 그런 게 있잖아예. 우리 딸이랑 저집이 아들이 결혼허면 둘이 사둔 돼는 거잖아예?

112011 #2 으.

112011 @ 사둔 돼신디 거기 동생들끼리도 또 결혼을 하게 꿩.

112011 #2 아니, 우리집 딸이랑 그 집 아덜광 결혼헤신디.

112011 @ 여기 동생이랑 여기 동생이랑 또 결혼을 하게 꿩.

112011 #2 어떻헐 결혼헤, 시집은 사름이 또?

112011 @ 아니아니, 두 집이 자식이 하서예. 경 이 집 딸이영, 이 집 아들이영 결혼헐. 다음은 다른 딸이영, 이 집 다른 아들이영 결혼헤?

112011 #2 안 허여, 안 허여.

112011 @ 안 헤?

112011 #2 으.

112011 @ 그럼 겹사둔 같은 거 엇수과?

112011 #2 그게 아니고 이 집이 딸광 이 집이 아덜이 결혼을 허민 이 딸네 집 이 큰일을 헐 때 아덜 집이 식구덜이 다 사둔부찌주게.

112011 @ 예, 그걸 사둔부찌렌 허는 거라예?

112011 #2 으, 아덜 집이 친족, 식구덜이 사둔부찌고 당 아덜네 집은 당사돈.

112011 @ 예, 당사돈.

112011 #2 당사돈이고 그 친족덜은 사둔부찌.

112012 @ 사둔부찌예. 옛날에는 다 중매였잖아예. 중매는 누가 서는 것과? 친척 들이?

112012 #2 잘 사주젠 안 허여. 중매 사는 사름도 사름을 골렁헤여. 복 존 사름.

시집 오랑 잘 살고 아덜이나 낳고 허는 사름 빌영 중매허여. 홀어명도 안 웨여.

112012 @ 안 웨지예?

112012 #2 으, 홀어명도 잔치허는 디 신랑밥도 못 거리고 신부밥도 못 거리고
기자 어지렁헌 곳인 거나 허여. 중매서는 사람 막 사름 방 허여.

112012 @ 예.

112012 #2 애기도 잘 낳고 시집 오랑 잘 살고.

112012 @ 그럼 만약에 우리집이 딸을 시집 보내고 싶다 허민 어명이 누구 잘
사름안티 강 우리딸 중매 서줍서 부탁을 험니까?

112012 #2 아니.

112012 @ 그럼?

112012 #2 신랑집이서가 누구네집이 딸을 구해 오고 시프다 허면은 그 집이 잘
통헐 사름, 강 딸이라도 부칠 사름, 또 애기도 나고 살림살이도 헐 만헌 복 존 사
름. 강 딸이라도 곶아댕기당 딸 사름 아니 웨염직허다 헌 사름을 신랑집이서가 빌
주게.

112012 @ 신부집이서 비는 건 엇어?

112012 #2 아니, 아니.

112012 @ 신랑집이서예?

112012 #2 으.

112012 @ 우리 저 집이 딸 데려오고 싶은디 중매 섭서.

112012 #2 으, 저 새각시 곶아봐 줍서, 곶아봐 줍서. 아이고 곶아 보민 웨카이,
게도 곶아봐 줍서 허영 곶으민 아이고 당채 안 웬덴 허여라도 허고 웬덴 헤라 영
허고 허민 이제 웬덴 허민 그 사름그라 확실허게 웬덴 허민 이제 신랑아방이 가는
거지, 이제 중매헌 사름허고. 뭐허레 가는 거냐, 스주 빌레. 그 새각시 난날 난시 그
거 빌영 오민 신랑 아방이 강 택일을 허는 거여.

112012 @ 아.

112012 #2 택일헤영 아저가민 자상헌 신부 아방은 술째기 어디 강 이날이 좋으
냐 안 좋으냐 알아도 보고 우리 아버지 닮은 사름은 그자 좋덴 허난 좋았구나 험
잔찰허곡 허는 거라.

112012 @ 계난 사주를 신랑집이서 보는 건데 어쨌든 신부집이서도 걱정 웨난
술째기 방 오는 거예, 그게 맞는지 아난지.

112012 #2 어, 경헌디 옛날은 그자락도 안 허는디 요즘은 택일도 육진 다 여저
집이서 웬덴 험게.

112013 @ 예예. 막편지라는 게 뭐과?

112013 #2 막, 막편진 저 마지막 사둔칩이 가 오는 거. 잔치 막 근당헤영.

112013 @ 음.

112013 #2 이제 옛날엔 신랑칩이서가 막 으라 번 출입헌다. 새각시 예롭게 구험
줄듯 헤렌 허민 스주 빌고 계민 저 역활허는 사름이 막 공들어, 경허민 스주 빌레

어느 때 드령 읍니까? 스주빌레 가는 날도 뽕 가. 궂인날 아니로.

112013 @ 음.

112013 #2 갱 강 스주 빌영 오민, 이제 택일 허민 스주 빌레 간 날은 신부칩이 서가 냉정허게, 이제난 차도 잇주 그뎨 차도 엇어이. 게난 택일을 헤영 아정간 날은 잔치가 되는 걸로 밥을 헤줘. 사둔나시로 밥 헤주고. 밥 때 뉘난 이제거치 뭐 돈이 경 가는 게 시카, 새서방도 옷 행 입어 오고, 새각시도 옷 행 입영 가곡 허는 거난 경헌디 어뎡이난 헤영 출려점수겐. 날은 널모리 당헛는디 사둔님 집이서 어뎡 준비 가 뉘영 출려점수겐 그거 들어 보레 가는 거 막헛지 옛날에.

112013 @ 아, 그제 막헛지?

112013 #@ 경헛 가 오고 또 잔치 넘어 나민 이제 지금거치 신혼여행 아니 가 난, 또 뉘날 신랑아방이 신부칩이 덕택에 좋은 일 잘 넘겨졌수덴 경 곶으레 가 오 고.

112014 @ 음. 이바지는 뭐 허고?

112014 #2 게메, 육지 이바질 헤도 이딘 이바질 안 헛당 2만히 잔치 헤낭 흔 메칠 사노렌 허민 사름 사는 가정이이 잘 살고 일름 내우젠 허민, 문친떡허고 흔 늘 시루떡 허곡 이제 정기 허던가 이제 여저 집일 이제 아저 가. 아저 가민 여저 집이서가 이제 시루떡 흥, 시루허고 정기 멧 개 농곡 이제 새서방집이서 새각시 떡 헤 오랏수덴 경 헛 늑누민 그것이 경 그거고 여저 집이선 남저 집이 헤가는 사름도 잇고 안 헤 가는 사름도 잇고.

112014 @ 음, 헤가는 사름도 잇고 안 헤 가는 사름도 잇고?

112014 #2 으, 남저 집이선 헤 오고.

112015 @ 아까 어무니 시집 갈 때는 미녕 두 필 행 갔덴 헛잖아예?

112015 #2 으.

112015 @ 그제 혼수인 거잖아, 보통 혼수는?

112015 #2 흥세주, 흥세.

112015 @ 으. 흥세는 경 헛 가마씨?

112015 #2 그제 행 가고 잘 출리는 사름은 더 허주게 더.

112015 @ 더? 더 뭐 놔?

112015 #2 미녕을 더 놔.

112015 @ 아, 미녕을 더 놔.

112015 #2 어, 미녕 세 필도 놓고 미녕을 더 놔. 막 잘 출리는 사름은. 우린 거 흔 빌 노는 사름은 엇이난에 우린 거 못 출린 거.

112015 @ 아, 궂 같은 건 안 행 갑니까?

112015 #2 아주 옛날에는 이런 궂, 저 산에 가근에 그제 잇어시민 좋을 걸. 산 에 강 나무 헤다근에 궂 짤 나물 헤당 아무 나무나 못 허난 그런 톱, 둘이가 마주 사사 스릉스릉 절로 등기민 밀리고 이레 등기민 밀리는 허는 법으로.

108034 @ 그런 톱이 무슨 톱? 그 톱을 뉘렌 헛니까?

108034 #2 대뜸이엔 해서 옛날에 대뜸. 경혜영 그 널판데길 만들어서, 이런 까
끄는 대패 있어, 대패로 삭삭삭삭 까까가지고 옛날에도 목수가 시니까 퀘 짝을 요것
보다 조금 크게 짜.

108034 @ 음.

112015 #2 그렇게 헤네, 그거 아정 가는 사름이 난 멧 못 봐서. 경허난 퀘가 저
렇게 짬 시작헌 후젠 잘사는 사름은 두 개, 혼 바리주, 혼 바리.

112015 @ 두 개가 혼 바리?

112015 #2 으.

112015 @ 퀘 두 개가 혼 바리?

112015 #2 으, 혼나 헨 가는 사름도 있고, 혼 바리 행 가는 사름도 있고. 경혜영
퀘 행 갖주게.

112015 @ 으, 그 후제?

112015 #2 으.

112015 @ 그럼, 그 후젠 헨 간 사름덜은 다 퀘 짜는 집이서 산 간 거?

112015 #2 으, 퀘 짜는 집이서 사단, 조금 그걸 헤지난 이젠 가구가 난 거여.

112015 @ 가구가 난 거예. 보통 혼수는, 어무니 결혼 할 때 혼수는 미녕?

112015 #2 미녕게.

112016 @ 그럼, 예장은 어떻 험니까, 예장?

112016 #2 게, 예장은게, 아무거네 딸을 우리집이 드려 오는 걸로 글을 쓰는 거
주게. 성씨가 무시거고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헌 사람이고 허는 걸 그걸게.

112016 @ 그럼 글쓰는 사름 빌영?

112016 #2 아무나 못 쓰주게.

112016 @ 문중에서 잘 쓰는 사름 빌어사큰게?

112016 #2 경허난 신랑집이서 널 잔치거트민 방 혼나 비워근에 여장 쓰는 사름
이디 딱 드려다 놓고 술 안주 흘렁 앓자 농곡 허영, 여장 써 나민 먹을 걸로 허영
그 여장을 쓰는 거주게. 여장 받는 사름도 아무나 글 몰른 사름은 못 허는 거주. 그
여장 신부집이 아정 가민 신부집이서가 여장을 폐와 뵙 뜰리민 뜰렀다 맞으민 맞았
다 허는 것도. 것도 글 아니 사름이어야.

112016 @ 뜰리민 뜰렀덴 돌려 보냅니까 그 여장을?

112016 #2 아니, 뜰린 거는 뜰렀젠 허민 옛날에 막 비우 좋고 존 사름은 새서방
은 그 여장 보기 전이 몰 우이 앓아사주게 게민 새서방이 뵤양지민 몰 우터레, 필
떡이엔 현 건 베루허고 붓.

112016 @ 음.

112016 #2 필떡에 것이 앓아 올리라 헤근에 신랑이 아무 지가 뜰렀다 허민 고
치는데 경혈 신랑이 멧 개 잇어게. 경허민 어떻 그디서가 이거 뜰린 중이난 알렌.
우리가 몰르민 멧청 풀 거난 요거 요거 뜰러시난 경해도 그냥 들여 놓느렌 허민 그
뎌 새서방을 느리는 거주. 새서방 몰 우이.

112016 @ 아, 안 내려고 기다리는 거.

112016 #2 으.

112017 @ 이제 잔치허게 되면 가문잔치를 허잖아예. 가문잔치 허민 동네 사름이 다 옵니까?

112017 #2 그 도새기 잡는 날이 가문잔치날이주.

112017 @ 계민 그 때 다 와?

112017 #2 그때 기자 동네 사름도 브딘 디 사름은계, 아이구 그 돛 숲은 국물계, 그 도새길 숲아낀 국물 누물 낱 끝릴 거, 그 돛 숲은 국물, 수웨 숲은 거. 아이구 돛 숲은 국물 혼 사발 얻어먹젠.

112017 @ 하하.

112017 #2 경헨 아시날 그거 먹고 뒷날은 저 신랑, 신부 다 도메혜영 보내고 부지 친축간덜 그 친축덜은 가문잔치날 쓸 아저와 오멍, 빈차 오지 안 혜영 쓸구덕 아정 와.

112017 @ 으.

112017 #2 그 이틀이주 이틀, 이틀인디 이젠 사흘 허단에 이젠 하루 험주.

112018 @ 우시는 누가 우시를 허는 거과?

112018 #2 신랑집이서 잔치 허젠 허민 신랑쪽에서 흥나, 신랑쪽이 아니고 아버지쪽 사름 흥나, 어머니쪽 사름 흥나 경해도 아버지쪽 사름은 글도 알고 요망진 사름을 보내여야 그 여장을 강 불합격허민 책임질 사름을 보내야. 어머니쪽에 사름은 기자 기본적으로 뒤에 강 먹기만 행 오고.

112018 @ 아.

112018 #2 아버지 쪽이 사름은 그 여장 확인험새 겁이 나지. 이것이 합격이 텔런야 말런야. 겨난 글도 알고 웨양진 사름을 보내야는 거.

112018 @ 계난, 어쨌든 우시 가는 사름은 두 사름인 거.

112018 #2 두 사름.

112018 @ 어머니쪽 친척 한 분, 아버지쪽 친척 한 분예.

112018 #2 어. 둘리.

112019 @ 그럼, 대반이나 중반은?

112019 #2 중반은 무시거라, 중반 말은 엇고, 대반은 누게게 신부 새서방칩이도 새서방이 가면은 그디 알아서 그 보통 새서방칩이 가면은 우리집이 사위가 오게 되면은 먼저 큰 사위가 잇이민 큰사월 앓저. 큰사월 앓지고 그렇지 앓으민 단 사름 어떻 누게 집이 사름만 아니라도게, 저 오라방은 시면은 우실 가사허고 스춘이나 스춘사위라도 앓지고, 새각시 이제 신랑집이서 새각시가 오랑 상, 대반을 앓젠 허민 그 새각시보단 손우에이, 손아랜 말고 손우에 그디 동세빨 돼나 시삼춘빨 돼나 시누이는 혈 수 엇이 사름이 엇일 때 쓰꼭 아니 써. 시삼춘나 동세나. 것도 시집 오랑 잘 살고 애기도 낫고 복 존 사름이라사, 아무나 홀 어멍도 아니고. 경헨 앓는 거주게. 경헨 그거고 또 혼 착에 앓지는 건 대반이 아니고 새각시집이서 새각시 들러리

가 가거든. 새각시 들러리가 가민 그거 맞지고 대반 맞지고.

112020 @ 부주는 아까 친척덜은 쓸 가져 간덴 헛잖아예.

112020 #2 으.

112020 @ 동네사름덜도 쓸 부지 험니까?

112020 #2 으, 쓸 부지 허민 구덕 구석에 밥 멧 사발.

112020 @ 아.

112020 #2 쓸 비와 갖고 밥 멧 사발.

112020 @ 녁영 보내는 거라 밥은?

112020 #2 답례품 대신 밥 두어사발, 구덕에 밥 두어사발.

112020 @ 아. 잔치 먹으레 갈 때 구덕에 쓸 담양 오면 그거 비와딩 밥?

112020 #2 으, 구덕 구석더레 밥 두어 사발.

112020 @ 아. 어머니 암창개라는 말 들어 봐수과?

112020 #2 으?

112021 @ 암창개? 게니까 결혼 날짜를 잡앙 신랑은 군대 강 있어. 결혼식날에 내려오기로 혜신디 태풍이난 못 내려 온 거라예.

112021 #2 게난 여저만 드려간, 경헨 흐쓸허민 저 어디 강 신랑 저 ㄱ짜 말따나 군인 신랑 올 때 돼도 안 오라 감저. 암창개 감저 그런 말 곶아.

112021 @ 아, 여자만 헐 수 없이 혜야 돼는 경우에.

112021 #2 으.

112022 @ 그리고 이 동네 사흔이라고 죽은 사름덜끼리 혼레 치러주고 그런 거 있어났수과?

112022 #2 그런 거 하영 혜여.

112022 @ 하영 혜 마씨.

112022 #2 이젠 안 혜여. 이제는 이신 구신도 걸천 못 허는 거 뿔허레 놈의 구신 빌어오느니.

112022 @ 음.

112022 #2 그거 죽으면서 글은 어떻게 쓰는지 몰라. 이디 아덜이 죽으면 저디 딸이 흐나 죽영 이시면 이제 친척덜이 다 계산을 허는 거주. 이제 부뜰 참에 이걸 혜 붙어야 헐 건디 허멍. 누게네 집이 딸 죽은 것이 이신디 영 생각혜 봐근에 죽은 사름도 막 뜰령은 안 돼여, 죽은 **에도 스주가 맞아야 허여.

112022 @ 아.

112022 #2 게민 어디 흐쓸 의논 혜뵙이, 헐 만 허다 허민 그디도 그디 통험직헨 사름을 이녀 친축이면서도 그디 딸 죽은 집이 통험직헨 사름을 보내는 거여. 사실 이 영 정 허영 이디 시난 경헨 생각이 엇수과, 빌어 가쿠덴 허민, 쟁 주민 그 저 어땡, 그 각시, 그 딸이 묻은 디 강 과당 이녀 아덜 묻은 디 옆더레 열영 ㄱ치 묻은 사름도 싣고, 기자 문세상으로만, 문세상으로만, 나 글은 어땡 쓰는지 몰라도 흥서 결론식 허는 걸로 경혜근에 허민 어땡 어땡덜은이 큰 이불은 혼 채 혜영 보내여.

보내민 그 이불은 어떻 허느냐 ㄹ만이 뒀다가 그 저 죽은 사름이 얘기 안 나 봐근
에 죽은 사름 아냐 총각이나 죽으민 그 사름 알로 누계가 양이 들면 그 사름 준텐,
젠 그추룩 허는 거라 혼사름.

112022 @ 으, 결혼식 관련헌 금기 사항이나 그런 거 잇수과?

112022 #2 그러 저런 건 몰르켜, ㄹ싸 들은 건 곁은디. 그만 곧주.

출생

112001 @ 오늘은 얘기 낳고 키운 얘기 물어볼게예?

112001 #3 에이구 옛날에사 얘기 키움 출리고 예구예구. 나근에 검질 깥양 구덕
에 녹정 내불민 갈정벙이나 입엿 텡기당 흑허게 벗엿 텡기곡. 젓 맥일 때나 흐끔
일렁 안주 안 안아. 아이구.

112001 @ 그냥 내불어.

112001 #3 그냥 내불주. 울당 지치민 자곡 요새 예구, 아구 요새사 아길 아래
내불진 안 허여. 들렁 게나제나 들렁.

112001 @ 요새는 뱃속에 이실 때부터 얘기 교육시킨테.

112001 #3 게메게메.

112001 @ 태교렌 허는 디 태교렌 헤예.

112001 #3 말 곧는 거 든젠덜 업더정 든젠 설명들어가민 다 병원에덜 자랑 허
고.

112001 @ 태교를 허는디 어무니 때도 그런 거 잇어나수과?

112001 #3 아이고, 우린 아기 배어진처레도 몰르고 날 때도 두어시간 아팡 털어
저불민 일허고.

112001 @ 얘기 뱃 줄 몰란.

112001 #3 몰르주게 배 불어 가민 얘기 배져신가.

112001 @ 배 불어가민. 게민 배 불어가민 얘기 배진 거 알잖아예. 그럼 뭇 준비
를 험니까?

112002 #3 얘기 낳젠 허민 뭇 준비를 헤서 옛날에사.

112002 @ 뭇 그래도 얘기.

112002 #3 뭇 검질, 검질 밀집이나 산뒤찍이나 그러 헤근에 방에 깥양.

112002 @ 산뒤찍 무사 준비 헌 거?

112002 #3 거 피 흘리민.

112002 @ 아, 얘기 날 때?

112002 #3 어, 얘기 날 때. 이 뭇 이 이불이나 뭇 깥양은 안 뒤주게. 피 낭 막.

112002 @ 아, 게난 산디찍 준비허는 거. 얘기 입을 옷이나 그런 건.

112002 #3 입을 옷을 보뎃옷이엔 허멍 무시겨 저 멩지로나 베로나 헤여근에 풀
잇는디 다 채고 이런 디 다 헤근에 입져근에.

112002 @ 미리 만들어 놓는 거?

112002 #3 아, 미룻 만들양도 놔 두고 그때 닥청도 멘들고.
112002 @ 출산허젠 허민 뭐?
112002 #3 뭐 준비헐 게 셔. 무신 거 준비헐 거라.
112002 @ 얘기는 어디서 낫수과?
112002 #3 애긴 저 다른 디 살 디.
112002 @ 집이서. 이 집 아닌 거라예.
112002 #3 으, 이집 아니. 이 집이 온 후젠 애기 안 난.
112002 @ 누구 불령 낫수과? 산과?
112002 #3 아니, 이녀만 일허레 탱기당 그자 배 아프민 나고.
112003 @ 기민 탱줄이랑 그런 건 어떻허고?
112003 #3 그런 건 애기 할망이나 누게 저꿋디 잇당.
112003 @ 누게 잇당. 그럼 ㄹ세로 즐르는 거라?
112003 #3 실로 즐라메여근에 ㄹ세로 즐라.
112003 @ 할망이 그런 건 다 아는 거 아니예. 다 옆에서 나나니까.
112003 #3 어어.
112003 @ 그럼 그 탱줄은 어떻 처리헵니까?
112003 #3 탱줄은게 그냥 그 일주일 돼민 다 술아. 술아베.
112003 @ 술아불어?
112003 #3 옛날엔 다 술아벳주게. 지금은 병원에 강 몬 쓰레기통에 다 허는다.
112004 @ 아, 일주일 잇당 불에 술아 불어. 그민 애기 나 나민 음식덜은?
112004 #3 음식은 ㄹ물ㄹ루, ㄹ물ㄹ루 헤근에 물 팔팔 끌영, 죽 쓰듯이 팔팔허 게 헤영 그거 먹어. 그거 피 삭으렌.
112004 @ 아, ㄹ물졸로 죽 끌리는 게 아니라 ㄹ물ㄹ루로 죽 씹니까.
112004 #3 아니아니 ㄹ물 ㄹ루로 ㄹ루로 애기 난 땀 그거 행 먹어. 피 삭으렌 피 삭으렌.
112004 @ 아, 피 삭으렌.
112004 #3 으.
112004 @ 기민 메역국은?
112004 #3 메역국도 떡곡.
112004 @ 메역국도 먹고. 어머니 누가 헤 줘수과?
112004 #3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첫 애기 난 때 시어머니가 허고 두 번찬 이 녀냥으로 헤영 떡곡.
112004 @ 이녀냥으로 행 떡곡.
112004 #3 이녀냥으로 행 떡곡 애기 나근에 삼일만이 모옥허주. 모옥헤당 물 질 어당, 이녀냥으로 물 질어당 때 헤 먹고.
112005 @ 아이고, 애기 낭 삼일만이 아이고. 애기 목욕은 언제 시켄마씨?
112005 #3 애기 모욕은 그때 배줄 그친 흐뎡 시민은 모욕허고.

112005 @ 그럼 애기 난 날 바로 목욕을 시키는 거라예?
 112005 #3 으으.
 112005 @ 그때는 어머니대로 바로 못 허잖아예.
 112005 #3 할망이 허주 게민 그 뱃줄 그치고 할망이.
 112006 @ 땃줄 그치고 애기 목욕시켜주고 허는구나예. 애기 입는 저고리를 뒀
 렌 곱습니까?
 112006 #3 보땃옷.
 112006 @ 그런 어땡 만듭니까?
 112006 #3 적삼 만듭듯. 그자 적삼 만듭듯.
 112006 @ 그건 누게가 만듭니까 아니민 집이서 다 각자가 만듭니까?
 112006 #3 아이 늑 빌영도 만듭고 이녁냥으로도 만듭고. 그거 혜영 만듭어근에
 곱 요를 영 줄라메민 일로 영 둘러당 메곡. 아이고.
 112008 @ 베넛머리는 어땡헙니까?
 112008 #3 베넛머리? 거 몰라.
 112008 @ 애기 때 나는 머리를 뒀렌 곱습니까
 112008 #3 머리주, 머리.
 112008 @ 그냥 머리? 머리 잘라주거나 허는 건 안허여?
 112008 #3 안 헤, 안 헤. 애긴 옥아사 머리 잘르주게.
 112008 @ 옥아사.
 112008 #3 초파일 돌아오면은 초파일에 세 번, 삼 년 초파일에 머리 벗어 주민
 그 아이가 막 건강헌 덴.
 112008 @ 아 세 살 됐을 때 초파일에 머리 잘라 주면.
 112008 #3 어어. 세 살까지.
 112008 @ 아아.
 112008 #3 세 살까지 세 번.
 112008 @ 아, 세 번.
 112008 #3 흔 설, 두 설, 세 설까지 세 번 허민 아이가 건강헌덴.
 112007 @ 할망상은 뭐과?
 112007 #3 할망상?
 112007 @ 예.
 112007 #3 할망상은 몰라. 할망상은 이 저 심방덜이 애기덜 무시거 허민 애기덜
 이 아프나 어땡허민 그 상 놔근에 무시거 좃불 키곡 물 걸어 놓고 비는 것이 할망
 상이엔 허주.
 112007 @ 아, 집이서 허는 건 아니고?
 112007 #3 으. 심방덜은 그런 거 저 모셔근에 상 놔근에 물 흔 사발 떠 놓고 좃
 불 키곡 경허여근에 그거 할망상이엔 심방덜은.
 112007 @ 그럼, 그 할망상을 차리는 것은 애기덜 아프지 말렌 차리는 거?

112007 #3 으으. 경험 애기들 건강허렌 비는 거주 비는 거. 거 아무나 안 허여 심방덜이나.

112009 @ 기민 애기덜 막 어렸을 때는 천연두여 홍역이여?

112009 #3 홍역이엔 현 건 막 감기허여근에 콩콩 현 것ㄴ라 홍역이엔 허주.

112009 @ 으.

112009 #3 겨고 이 몸에 막 불긋불긋허게 막 피여. 것ㄴ라 홍역이엔 현 마누라.

112009 @ 어머님 애기덜 키우멍 주사도 맞추고 헛수과?

112009 #3 아, 주사가 어디 셔. 그때사 병완장이 어디셔. 우리 애기 키울 땐 병 완장덜 벗어나서.

112009 @ 벗어난예.

112009 #3 저 아프민 어디 강 침이니 흐썰 맞앙.

112009 @ 음, 그 애기 낳을 때 집 앞에 줄을 메달거나?

112009 #3 안 허여.

112009 @ 그런 것도 안 해 낫수과?

112009 #3 것도 웬 안 허여.

112010 @ 그럼 애기 낳 때 금기 같은 거?

112010 #3 금기 안 허여.

혼례

112011 @ 그 결혼식 헛던 거 물어볼게예. 집에서 결혼식 올렸수과?

112011 #3 나사게 집이서 헛주게. 그때에 시국 전이난.

112011 @ 시국 전이 결혼식 헛 때 뉘뉘 찰령 어떻 험난 거 곶아봅서.

112011 #3 결혼 식 헛 때에 집이서 험근에 도새기 잡아놓고 도새기 잡는 날은 가문잔치. 가문잔치 허멍 밥 험여 놓곡 그 도새기 잡아 숯아난 국물에 몰망 낵 국 끌려 가문잔치예. 그 베설에 또시 수에 담앙 그거 숯아근에 거 썰어근에 가문잔치 예 수에 먹고. 꿩기 숯아난 국물에 몰망 낵 밥 험영 떡곡. 가문잔치.

112011 @ 가문잔치예.

112011 #3 결혼허는 아시날.

112011 @ 아시날.

112011 #3 식 지내는 아시날. 경험덜 떡주.

112011 @ 본날은?

112011 #3 저 결혼식 지내는 날?

112011 @ 으.

112011 #3 식 지내는 날은 새서방 상이여 허멍 거 돼지 잡아 논 거영 몬 출려 근에 상 험영 새서방 오랑 받앙 그거 먹어나민 새각시 들앙 나가는 거라.

112011 @ 음.

112011 #3 나가근에 또 새서방침인 가민 새각시 상이엔 허멍 또 그추록 출령.

경헨 출렁 대반이여, 하님이여 경헨덜 앓안 먹고.

112011 @ 게민 식 올릴 때는 어떻게?

112011 #3 식 올릴 때 그때 원 사진을 찍나 경 허지 안 허고. 그것이 식이라.

112011 @ 아, 그게 식이라? 마당에서 막 절허고 경 안 험니까?

112011 #3 안 해. 그건 저 거시기 흥세, 흥세엔 허멍 이 하인덜 하인덜이 함에 흥세 개여근에 담아 낵 그거 싸근에 하인이 지어. 지영 뭇 타근에 가근에 그 새서 방칩이서가 건 새각시 집더레 오는 거라. 뭇 탕 그거 부러근에 들여놓곡 또 저 거 시기 그 뭐인가 여장, 여장이엔 허멍 새서방 집이서가 새각시 집이 그거 여장이엔 허멍 썩 오랑 이거 죽을 때꺼지 그치 동행허영 살라 허는 거주.

112011 @ 아아.

112011 #3 여장, 여장 씨근에 들이민 그 여장을 새각시 집이 언제까지는 놔 두라. 놔 두는 거주 그건.

112011 @ 언제까지 오래오래 잘 살라 허는 글귀를 써 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

112011 #3 어어.

112012 @ 그때 다 중매랏수과?

112012 #3 중매주 그때 연애가 어디셔?

112012 @ 아, 다 중매예.

112012 #3 어. 중매도 즐바로 안 허민 그 여장 썩 가근에 잘 아니웨민 뭇 우이 타 앓아근에 그 여장을 봐. 여장 빵 잘 안 웨시민 저 놈을 꺾어 들이렌 헿 막.

112016 @ 그 여장은 누게가 쓰는 것과?

112016 #3 여장은게 그 새서방칩이서가 누게 이녁냥으로 못 쓰민 놈 빌영 쓰주 게. 거 잘 안 썩은 욱 먹을 거니까.

112016 @ 글씨를 잘 써야 허는 거?

112016 #3 으으. 글씨도 잘 쓰고 혼 자라도 잘 못 헿 것이 시면은 저 놈 잡아들 이라 헿 막 욱주곡 해나서.

112014 @ 음. 그 이바지 음식.

112014 #3 이바지엔 헿 건 그 새성방칩이서가 새각시 집이 무시거 아져 오는 거.

112014 @ 무시걸 아져 와낫수과?

112014 #3 양석을 아져 오나 돈을 아져 오나.

112014 @ 아, 양석이나 돈이나.

112014 #3 으. 그럴 걸 이바지.

112014 @ 아.

112014 #3 그런 거 아무 디나 엇어 나셔. 막 큰, 이 뭐 허는 집이나베끼. 막 큰 집이나 부제칩이나베끼 그런 거 아무 딜로나 엇어나셔.

112014 @ 양석이라고 허는 건 쌀, 보리 같은 거?

112014 #3 어, 쌀이나 돈이나.

112015 @ 음. 혼수 같은 건 그때 뭐 하나신고예?
112015 #3 무시거?
112015 @ 혼수, 혼수. 여자도 뭐 헨 간 거 아니? 시집 갈 때.
112015 #3 저 퀘, 퀘 이추룩 헨 퀘. 저런 퀘에 쫄이나 혼 말 놔근에 가. 경허민 가는 날 걸로 밥 해영 먹주.
112015 @ 뭐 이불이나 옷 같은 건 안 허고?
112015 #3 이불이사게 이녁 더끝 이불 허주게.
112015 @ 것도 여쨌든 혼수 아니예?
112015 #3 어, 이불 두 채 허는 사람, 혼 채 허는 사람. 경혜근에게 뒤편, 뒤편 헨 그 소꿉에 새각시가 앓앙 가는 거라.
112015 @ 하하.
112015 #3 경헨 뭉 앞이 혼나 세우고 두에 혼나 세우고 헨 뒤편 허민 이 우이 짐을 실어 막 뭐 처근에 경허민 그 소꿉에 이불 담아근에 그디 새각신 앓고, 뭉 앞 이 혼나 세우고 두에 혼나 세우곡 헨 메와근에 가는 거. 하하.
112015 @ 아, 가마처럼?
112015 #3 가마처럼.
112015 @ 뒤편.
112015 #3 뒤편.
112016 @ 예장은 어떻 합니까?
112016 #3 게 예장이엔 헨 것이 글 써근에, 글 썩 아정가는 거.
112016 @ 아정 가는 거?
112016 #3 으, 여장.
112011 @ 그 전날 잔치 헨 덴 헛잖아예, 가문 잔치.
112011 #3 어. 가문잔치 아시날 거 뒤편 잡아근에 밥 허곡 그 수에 스투앙덜 먹는 것이 가문잔치. 뒷날은 그 퀘기 스투아 놓고 밥 허고 먹는 것이.
112011 @ 가문잔치 헨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 아니마씨.
112011 #3 다 와, 다 와. 친족덜이영 동네사람이나.
112020 @ 그럼 부조도 허고마씨?
112020 #3 으, 그때는 부지는 돈 부지는 천 오백원 헨 때도 있고, 오 백원 헨 날 때도 있어. 오백 원.
112020 @ 하하.
112020 #3 아이고 오백 원 허는 디도 있고 천오백 원 허는 디도 있고. 삼천 원 은 막 한 부지라.
112020 @ 아아.
112020 #3 이젠 소꿉 오만 원이여, 십만 원이여 해도 그땐 그런 거 거민 소꿉 밧을 사카 집을 사카 허주. 그땐 돈이 그렇게도 어려워나서. 하루 일당이 오백 원도 헨나고. 이천 원도 헨나고 허난.

112011 @ 계민, 가문잔치 할 때 음식은 아까 순대말고 뭐 잇어나수과?
 112011 #3 순대허고 감쥐도 행 먹고 술 먹는 사람은 술도 떡곡. 밥 허곡 그거
 그거주게.
 112011 @ 국은 어떤 국?
 112011 #3 국 계메 물망국 도새기 삶아난 물에.
 112011 @ 물망국예. 순대 나오고 돼지 고기 삶은 거 나오고?
 112011 #3 돼지퀘기, 퀘긴 안 먹어. 퀘긴 뒷날사 먹어. 가문잔치날에 퀘긴 안 먹
 어. 순대.
 112011 @ 아, 기마씨. 순대. 요샌 두부도 만들양 먹잖아예?
 112011 #3 계메 요샌 두부 다 행 먹은디 그뻐.
 112011 @ 그때는 아니. 계민 본 잔치에는 돼지고기 먹는데 가문잔치에는 안 먹
 어?
 112011 #3 순대만 먹어.
 112011 @ 다른 반찬은 뭐 잇수과?
 112011 #3 다른 반찬 뭐 이서. 짐치나 그런 거.
 112018 @ 우시는예.
 112018 #3 응?
 112018 @ 우시, 우시. 우시 간 덴 허잖아예?
 112018 #3 우시는 우시는 이녁 친족. 이 새각시에 나가 새각시민 이 저 동생,
 오라방이나 오빠나. 경허고 웨가침이 시민 웨가침이 허고 둘리가.
 112018 @ 음.
 112018 #3 둘리 가면은 또 저 지금은 새서방 들러리엔 셔도 그때는 그런 거 아
 니 텡겨서. 우시, 우시 둘리만 가고 새각시, 저 새서방침이서는 대반, 대반 혼 사람
 앓고 그 흥세 정 간 사람은 하님, 하님이엔 허명 하님 혼 사람 앓고.
 112018 @ 대반 혼 사람 앓고 하님 혼 사람 앓고예. 계민 우시는?
 112018 #3 둘리.
 112018 @ 둘리 가는 거마씨?
 112018 #3 으. 수우시, 수우시 허고 가짜 우시 허고 둘리.
 112018 @ 아 걸 수우시허고.
 112018 #3 가짜 우시.
 112018 @ 가짜 우시? 가짜 우시렌 험니까?
 112018 #3 수우시, 수우시 허고.
 112018 @ 가짜 우시?
 112018 #3 으음.
 112018 @ 계민 동생이나 누나가 있으면 그 가족 중에서 가고 엇이민?
 112018 #3 엇이민 웨가침이라서도 가고.
 112019 @ 웨가침이서라도 가고예. 남저침이서는 대반이랑 하님이 가고예?

112019 #3 으. 하님이 가고.

112019 @ 하님이라고 해. 중방은 뭐과, 중방은?

112019 #3 중방은 몰라 나.

112019 @ 중방은 몰라.

112019 #3 하님, 하님빠끼.

112019 @ 대반이랑 하님예?

112019 #3 어.

112021 @ 암창개가 뭐과?

112021 #3 몰라.

112022 @ 혹시 이 동네에도 죽은 후에 결혼하는 경우가, 지난 번에 시동생 글 아신디 잇수과?

112022 #3 죽은 혼사 해.

112022 @ 죽은 혼사, 그거 사혼예?

112022 #3 으.

112022 @ 시동생 사혼한 얘기 해 줘서.

112022 #3 열일곱에 그 저 폭도덜안티 창으로 박양 창으로 박양 죽어베서.

112022 @ 시동생이?

112022 #3 으. 열일곱에.

112022 @ 열일곱에 경 장가 못 강 죽은 거예. 장개 못 강 죽은단 우리 시아버네가 막 강단이 세주게. 절대로 소소한 건 무시거엔 곤지 못허게. 경허난 우리 시아버니네가 어디 강 들으민 게나제나 그 구신이 들영 우리를 못 살게 굴엄다고 막 실패만 허난. 쟁허난 그 구신을 모시렌 해네 저 열여섯 난 처녀 열여섯 처녀 해여네 일분 살단 저 한남리 오란 문언 내부난 게난 우리 시아방은 몰르게시리, 몰르게 나가 그 구신을 죽은 혼사를 해서. 그 처녀 죽은 구신을 만나네. 쟁헤영 구헨에 아이고 구신이 엇덴도 못 허크란게 그때. 시아방네 몰르게 허젠 허난 팔월 멧질에, 시월에 죽은 구신인디 팔월 멧질 아척이 우리가 막 큰 대중손이라. 경허난 시아방네 몰르게시리 뒷날 아척 새벽이 일어난에 그 재물은 큰 멧질 헐 때 문딱 출려 노난 그 거 하나씩 하나씩 헨 헨 사라 해 놓고 밥 헨 그릇 놓고 헨, 꿩기 하나 구워 놓고 국은 쟁이엔 허메 쟁. 쟁 떠 놓고 탕시덜 문딱 허고 헨에 이젠. 옛날엔 죽은 방이 이디 이서 나서. 죽은방이엔 방에 상 하나 해영 그걸 출런에 이젠 흐뎡 잇당 그 승냥을 허젠 그 승냥이엔 헨 건 승냥 물, 밥 솟디 물을 떠다근에 그레 잡것을 문딱 거려 놔서 거려놔네 동녝 파제로 그 승냥을 지봉 우이 영 올렸주. 올리난에이 걸로 보난 구신 엇덴 못 허크란게 가마귀가 하나만 하나만 꼬딱 안 행 절로 행 끝장 내려오랑 그거 오랑 좇어 먹어지난 또 올라가난 끝장 올라가며. 겨난 거 구신 엇덴 말을 못 허는 거.

112022 @ 까마귀가.

112022 #3 어. 웨가메기가 느려오라네 그추룩 그거 문딱 먹어지난 또 올라가는

디로 그다 꼴작 올라가근에 아 경혜영 그런 걸 어른덜안티 골으난에 거 보라 구신
엇텐 혜지느냐 거 구신 아니냐 경 골아난 거 들어나서. 에이구, 에이구 시아방 몰르
게 삼 년을 혜서. 시아방 몰르게 삼 년을 혜여. 제 때는 허면은 쉼웨기나 사단 끌령
허민 다 혜영 밥 혜영 앓져가민, 이거 어떻헌 밥이니, 웨기 사단 국 끌령 아져 오라
수다. 안팓거리에 사니까. 시아방네 이디 살고 난 저디 살곡 허니까. 그추룩 허곡
시아방네 안네고. 멩질은 일 년에 시 번 헐 때라 오월 멩질까지. 경허민 멩질은 어
른덜 일어나기 전이. 전이 나만 몬딱 출려근에. 예구예구. 아이구아이구.

112022 @ 오월 멩질은 단오?

112022 #3 어어. 단오꺼지 허민 멩질 세 번에 제 열두 번에 나 열 다섯 번, 열
다섯 번. 아이고 심부림헐 사름이 시카. 아이구 튼내지 말젠 해도 튼내 가민 머리가
열도 사고 살지 못허커. 경덜허난 눈도 다 멜라져불고. 아이고.

112023 @ 혼례헐 때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이 잇수과?

112023 #3 무시거?

112023 @ 잔치 이실 거니까 뭐 허지 말아야 헌텐 헌 금기 사항.

112023 #3 금지는 무시거?

112023 @ 혼례 이신 집이 사람들은 상가집이 가지 말렌 하거나 하는 금기 사항
잇수과?

112023 #3 그런 건 난 아이 들어 봐서. 아니 들어 봐서.

상례

112024 @ 예. 그럼 집안에 계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영 뺑 돌아가셨는지 아닌
지 어떻 확인헙니까?

112024 #3 우리 시아버지가 쳇 번으로 돌아갓주. 쳇 번으로 저 시월, 시월달에
시월 스무이틀날. 스무이틀날 돌아갔는디 나가 스물 세 해에 오란 보난에 위병으로
콩콩허게 지침을 허기 시작헬서. 경 허단에 헐 두어해 살아노난 이제 나 어깨에서
나가 이제 시아버지 영 녹져 난에 영 무시거 헤단 흐쉴 거려 먹임도 허고 일러도렌
허민 일러 영 안양 영 헤가민 경허지 말라 베개로 마투라. 영허민 느 손 메까분다.
그추룩 허민 베개로 헨 직산헨 앓으민 흐쉴 잇당 녹져 도라. 그추룩 허멍 헨 사흘
을 나 어깨에서 살양 돌아가서.

112024 @ 음.

112024 #3 시어멍네 잇어도 베꼈디서만 돌양 왕 보젠 원 안 허여.

112024 @ 그럼, 할아버지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신 거 확인허젠 허민 어
뎡 헙니까? 영 뺑 숨 이신지 어신지를?

112024 #3 숨 신가 어신가 허면은 할아버지가 경헨 영 앓정, 경헨 영 손바닥에
보면은 물 늘어 무시거 헌텐 허주게. 난 그때 사름 죽는 것도 베랴 아니 봐 나난.
손 영 봐 가민 콧이 시꺼멩게 얼랑얼랑 이디가 보플보플보플 혜여. 그추룩 허민 죽
나 허는 말은 들엇거든. 들으난 손에 물 늘어시냐 허민 경해도 하르방이 겁 나카부

덴 엿수다 어떻 안헤수다.

112024 @ 경 직접 하르방이 물엇던 거?

112024 #3 어. 또시 눈에 액이 잇고 어신 거 영영 헤 가민 눈이 액이 엿어 눈이 부영허주게 안개 낀 거 모양으로. 게민 애길 바래지 못 허영 눈이 부영헤여 사름 바래지 못헤여. 영헤가민 액이 베레점냐 예, 경허멍 앓아 스무이틀을, 스무이틀 시 월 스무 이튼날은 돌아갓는디 네 시웨난 돌아가서, 네 시. 딸은 하나 메기라, 하나 메기난에 오랑 주사나 봐 도렌 허난, 그 저 거 몰름사 혈티 암사 혈티 몰라. 서귀포 저 동산의원이엔 헌 디 부원장으로 잇어 나서 우리 시누이 서방이. 게난 이디 주사 오란 봐 뒤네 가난에 나가 잇당 어둑건 혼 대 더 봐 도란 허난에 그만이민 삽니다 경헤던 집이 차 안 간 때에 눈 곰아베서 하르방이.

112024 @ 음.

112024 #3 경허난에 이제 딸도 하나 못 보고 하나 이신 딸은. 겨난 스물 이튼날 돌아갓는디. 나 어깨 돌아갓단에 그추룩 녹지렌 헨 녹지난 멧 시 웨시니 허난 네 시 웨수다 허난 어 네 시 웨시난 허난 그것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112024 @ 경 죽은 건 어떻 알아져. 숨 안 쉬는 걸로?

112024 #3 어, 숨 안 쉬고 그자 노릇허주게. 손도 물기가 잇고.

112024 @ 어. 손이나 눈이나 다?

112024 #3 아이구.

112025 @ 돌아가셨을 때 복부르기 험니까?

112025 #3 복부르기 몰라 거.

112026 @ 장지 마련은 어떻 험니까?

112026 #3 무시거?

112026 @ 무덤헨 디.

112026 #3 게난 우리 으드레, 집이서 으드레 살안에 물엇주. 으드레 살안에 묻는디 집이서 밥 헤영 동네 사름이나 친족덜이나 몬 오랑 영장헨 때보다 더 헤. 여 러날 살민. 밥 헨 게나제나 맥이고.

112026 @ 물을 장지는 미리 다 뺑 봐 두는 거?

112026 #3 어.

112026 #3 돌아간 후제에도 허고, 돌아가기 전이도 흐쉴 짐작은 헨 나두주게.

112026 @ 어디쯤 하겠다.

112026 #3 음.

112026 @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면 정허는 거?

112026 #3 응응.

112027 @ 관, 돌아가시면 관에 놓잖아예?

112027 #3 관.

112027 @ 관에 하고 횡대 같은 건 어떻 마련합니까?

112027 #3 관은 그때는 집이서 짜, 목수 빌영 짜.

112027 @ 돌아가시고 나서?

112027 #3 응, 돌아 간 후제. 관을 짜근에 저 사름, 죽은 사름 영 대로 해근에 키 맞추고 몸피 맞추고 헨 그것에 맞게. 그것에 맞게 관을 짜 놓 빌엉, 놓 빌엉 짱 그것에 들여 놓는 거주. 빌여 노면은 그 **, **이라고 사름을 하나만 들이치민 관이 골라. 골르민 양 옆더레 무시거 헨 옛날엔 그 산디쪽 그걸로 헨 담아 나서 그걸로 헨 짝각허게 이 사름이 흥글지 못허게시리, 빼 오고라지지 못 허게시리 그추록 헨 담양 셔 낫주게. 지금은 옷덜 엇이민 베, 베로 헨덜 담양덜 허는디 그때는 베도 어렵고 돈도 어렵고 허니까 짝으로, 짝으로.

112028 @ 돌아가시기 전이 수의나 상복 같은 건 미리 준비해 둥니까?

112028 #3 상복같은 건 돌아간 후제, 베 상 낫당 돌아간 후제덜.

112028 @ 상복은 돌아간 후제예.

112028 #3 으.

112028 @ 수의는?

112028 #3 수의는, 그 수의는 무시거 헨 엇이 거 베랑 엇주게. 엇이난 상복덜 상제덜 다 해영 느나주고.

112029 @ 그 상장이 뭐파?

112029 #3 상장 뭐, 상복은 상제가 입는 옷. 수의는 죽은이 입는 옷. 그건 멩지로 문땅 해영.

112029 @ 집동, 상장, 집동. 짚으는 거 있잖수과?

112029 #3 으, 저 방장대.

112029 @ 방장대?

112029 #3 으, 방장대.

112029 @ 방장대. 누게가 지프는 거과?

112029 #3 건 아덜네. 아덜네가 저 사위도 시민 사위도 주곡 아덜도 주곡.

112030 @ 음. 두건이랑 복치마는.

112030 #3 두건, 복치멘 건 베로 만드는 거.

112030 @ 베로 만드는 디 누게안티까지 나누어 줍니까? 다?

112030 #3 두건은 친축덜안티 다. 친축덜안티 문딱.

112030 @ 몇 촌까지 그런 건 없고?

112030 #3 육촌, 육촌 칠촌까지 다 허주게.

112030 @ 육촌, 칠촌까지 다 주고, 복치마는?

112030 #3 복치마는 즈손, 저 손자덜허고 상제.

112031 @ 손자덜허고 상제예.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풋죽 쓰잖아예.

112031 #3 으. 풋죽은 사둔칩이서덜 풋죽은 씨.

112031 @ 아 사둔칩이서가 풋죽 썩 와?

112031 #3 응.

112031 @ 언제 썩 와?

112031 #3 죽으면 성복허기 전이.
 112031 @ 성복허기 전에. 기민.
 112031 #3 성복은 오늘 죽으면 널 아침도 허고 널 저녁도 허고. 성복허민 그 성복허기 전이 죽덜은 씨 와.
 112031 @ 죽 씨 오민 건?
 112031 #3 것덜 먹어.
 112031 @ 먹는 거예. 온 손님들이영, 준비허는 사름덜이영예?
 112031 #3 응응.
 112032 @ 성복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서.
 112032 #3 성복제엔 현 건 그거 그처럼 헤여 놔근에 저 관 안터레 들어 놀 때가 입관. 입관허민 성복허는 거.
 112032 @ 음 제 지내는 거예. 관 짜서 입관다 해서 성복제를 지내는 거예.
 112032 #3 어.
 112033 @ 일포제는?
 112033 #3 일포는 이틀만이고 사흘만이고 건 택일 허여야, 어느날 어떻게 험니까 해연 날을 정허여야 일포 허는 거.
 112034 @ 부조는 뭘로 험니까?
 112034 #3 부조는 그뻐 찰로덜 하영 해서.
 112034 @ 아, 찰로덜.
 112034 #3 찰, 보리찰이고 근찰이고. 사둔침이는 근찰허고 그자 친족이는 보리찰허고, 좁찰도 허고.
 112034 @ 조문도?
 112034 #3 조문은 일포날덜게.
 112035 @ 일포날. 토신제도 지냅니까?
 112035 #3 토신제는 이 집이 정월나민 정월나민 일년에 혼 번 허는 것이라 토신제.
 112035 @ 상난 디 허는 거 아니고?
 112035 #3 영장 허는 디 허는 건 산제.
 112035 @ 아, 산제라고 허는 거.
 112035 #3 으, 산제.
 112036 @ 상여꾼은 어떻게 꾸립니까?
 112036 #3 상여?
 112036 @ 예, 영장 닳을 때 들렁 가는 사람덜.
 112036 #3 으, 들렁가는 사름덜. 우리 시아바지는 저 이장으로 땡겨나난 만서, 만서엔 허명 이 죽은이가 일름이 무시거고 무신 직업을 헛다 헤근에 그 만서에 몬 씨근에 만서 이만씩 헤근에 대 헤영 막 들러근에 거주게. 경허민 우리 시아방은 이장으로 땡겨나난 이디서 이디서 만서를 들름 시작허민 혼, 혼 설나문 개 헤영 저

장밋디까지도 막 가나서 껌 하나서.

112036 @ 누계가 들러, 동네사람덜?

112036 #3 동네 사람덜이나 친족덜이 몬 들렁.

112036 @ 상여꾼은 동네사람덜이, 놉 빌거나 경허진 안 험니까?

112036 #3 아니아니, 놉 빌거나 허지 안 허여. 이녁 친족덜이 들렁.

112036 @ 친족덜이 다 집이서 장지까지 날라 가는 거?

112036 #3 으.

112036 @ 기민 장지는, 아버님 할 때 장지는 멀엇수과?

112036 #3 무시거? 멀어?

112036 @ 예, 장지까지?

112036 #3 우리 시아버님넨 브디게 묻어서. 저 운주름 알아져, 저 운주름.

112036 @ 운주름예?

112036 #3 저 운주름 저 상동 큰 소낭밧ㄹ라 운주름이렌 허는 디 그 저쪽에 과수원에 우리 과수원이니까 그디.

112038 @ 음. 봉분은 어떻 만들엇수과?

112038 #3 봉분이사게 혹 파당, 근펜 이디 혹덜 존 때난 혹 파다근에 혹 파당 막 더꺼냥, 그 우이 또 테역, 테역헤다근에 툃툃 두드리멍 봉분을 쌓는 거라.

112038 @ 봉분 이렇게 동그략게 쌓젠 허민 누가 맞춰줘.

112038 #3 그디 봉분 쌓는 사람이 잇주 또, 봉분 쌓는 사람이 친족이나. 동네에 막 친절헌 사람이.

112039 @ 호충이렌 헌 말 알아지쿠과?

112039 #3 골충?

112039 @ 호충, 호충.

112039 #3 호충 몰라.

112040 @ 저기 영장밧디 가가지고 음식덜 나눠 주잖아예. 상여꾼덜안테. 어떤 음식덜 나눠줍니까?

112040 #3 그디션 그 저 답레품이라고, 답레품이라고 거 무시거 커피나 또 무신 저 풍풍이나 .

112040 @ 건 최근에 꺼 아니? 옛날에는?

112040 #3 옛날에 게민 그런 거 나눠 줘낫주. 무시거.

112040 @ 아버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거 헛수과?

112040 #3 으.

112040 @ 그때도 커피 이서?

112040 #3 커피 잇어주게.

112040 @ 음식 대접, 음식은?

112040 #3 음식은게 딸 이시민 점심을 헤 오나 조반을 허나, 상제덜 으라이민 다 몰아냥덜은 허나 경허는 디 우리는 저 딸 허나 시난 그 딸이 조반 출려 오난 나

머진 점심덜은 몬 몬아낭덜 헛주.

112042 @ 음. 상식이 뭐과?

112042 #3 상식은 죽어 돌아가불민 물어덩 오랑 저 상 노민 밥 헤 놓는 것그라 상식이엔 허주.

112042 @ 그럼 그거 상식을 얼마동안 헛니까?

112042 #3 삼 년이주.

112042 @ 삼 년 동안예.

112042 #3 남저는 밥 해당 올령 담뱃불 부쨌 놓고 또 점심 해당 노난 담뱃불 부쨌 놓고 하루 삼시 담뱃불 부쨌 놓고 어둑어 가민 이부자리 게여 낯당 그 영 아 놓고 신 또시 베겏더레 돌려 낯당 어둑으민 안터레 돌려 놓고.

112043 @ 아, 안에 사람 있는 것처럼. 삭망제는 어떻게 지냅니까?

112043 #3 삭망 때는게 뒷날 아척이 초하루에 허고 보름에 허고 혼 달에 두 번. 두 번 삭망 헐 거난에 밥 헤 놓고 꿩기 구워 놓고 행 삭망. 곡 소리 내와덩 밥 아 헤멍 먹고.

112043 @ 소상, 대상 다 허고예?

112043 #3 어. 소상, 대상 다 허고.

112043 @ 그럼 삭망 때나 소상이나?

112043 #3 아이구 지금 무슨 삭망 험서게. 삼 년도 안 허는다.

112043 @ 계난 언제 정도까지 이 삭망은 헤난시고예. 이 남원리 쪽에는?

112043 #3 남원리 삼 년, 삼 년.

112043 @ 게니까 몇 년 전이까지 삭망제덜을 헛나수과?

112043 #3 멧 년 전이산디 알아지크라.

112043 @ 한 80년대까지도 헤나신가예?

112043 #3 80년대꺼지 안 헤실거라.

112044 @ 그럼 지금 소상, 대상 허는 거랑 옛날에 소상 대상 허는 거랑 어떤 것이 틀립니까?

112044 #3 아니 지금이사 소상, 대상을 험서게. 허지 안 험주.

112044 @ 아, 허질 안 허고.

112044 #3 막 생각허는 사름은 백 일 허면은 탈상 헤불고. 밥도 아니 거려 놓고 아무 것도 아니헿 설러베. 경 안헤영 그자 물어부는 사름은 그자 산으로 강 물어뒤 근에 그디서 지방도 다 슬아두고 옷도 다 슬아뒤근에 그디서 편찌롱허영.

112044 @ 그냥 끝?

112044 #3 아이구, 계난 죽으민 끝이라 이제.

112044 @ 죽으민 끝이라.

112044 #3 계난 우리 오널덜도 곱앗주. 우리 이추록 텅기당 죽으민 확 슬아부난 물어부난 허민 따시 베리도 못 허고 먹도 못 허고. 아아구 죽으민 끝이라.

112044 @ 귀신 되민 또 올 거 아니과? 하하.

112044 #3 구신 웨민 밭도 엇고 입도 엇인디 어뎡헛 올말이라. 우리 오닐 경허 멩 웃엇서.

112045 @ 아. 그 왜 관 만들기 전이라든지 임시로 흙 쌓아가지고 무덤 만들잖 아예 토롱이엔 헤가지고?

112045 #3 어어, 토롱, 토롱. 토롱이엔 현 건 그자 빈차, 빈차 그자 테 헤근에 산 만들영 놔 두는 것이 토롱이라.

112045 @ 무사 만들어 두는 거, 토롱.

112045 #3 그 산터 누게 헤 불카부덴.

112045 @ 아.

112045 #3 거 득툼으로.

112045 @ 아, 득툼으로. 산 만든 것처럼 미리 만들어 부는구나예. 빈차로.

112045 #3 어, 미리. 하르방이나 할망이나 죽어가갸민 털 봐. 지관이엔 허멍 그 털 보는 하르방을 득렁덩기면 허면은 그덜 막데기를 쫓아. 막덴이 쫓앙 낫당 그덜 누게 헤불카부덴 그디 토롱힘이라고 그덜 저 흑 허당 봉분 만들앙 놔 두민 토롱웨 는 거주. 아이구.

112046 @ 옛날에는 이묘, 못자리 안 좋다고 허민 읍기고 헤낫수과?

112046 #3 으, 옛날도 경헤낫주. 옛날은 더 헤 나서. 막 터 보레 소못, 멧날 며 틀. 나도 저 우리, 우리 념편 군인 가부난 우리 시아버지가 육지 저 지관, 지관이엔 허메 터 보는 사름. 지관이엔 허멍 육지 하르방 득려다네 나신디서 때 맥이고 딱 일주일 때 맥이고 이부자리 빨앙 녹지고 또 저 터 보레 가젠 허민 밤 혼 사밭 허고 췌기 흐나 허고 술이나, 감취나 혼 췌 질어 놓고 헤근에 전대, 전대엔 옛날은 전대 엔 헤서. 전대엔 허는 것이 천 헤근에 요건 천이민 으추룩 으추룩 헤근에 돌아근에 으 소굽에 저 술이영 밥이영 췌기영 담아근에 영헤영 이걸 뚜려메여, 뚜려메영 강 저물앙 살당 오민 또 저낙 헤 농곡, 일주일 동안 그추룩 허단에 아이고 아덜도 군 인 가불고 헤도 우리 시아방이 나신디서 때 맥이곡 허멍 그것 몬 허멍, 보내던도 원 보내ㄴ렌도 안 허고 밥도 또 허렌도 안 허고. 그만 아무 이상 엇이 헤베서. 경 내부난에 이제 우리집이 하르방이 군인 간 오란에 살젠 허난 저 말차이엔 현 디, 옛날 할망은 그 저 말차이엔, 말차이 어디산디 그디 묻엇단에 우리집이 하르방 온 후제, 온 후제 또 지관 환에 터 환에 남원 목장에 오라서.

112046 @ 아, 이묘했구나예.

112046 #3 어, 이묘헤연. 경헛 삶 시작을 헛주.

112046 @ 아, 지관 불렁 땅 보멍예.

112046 #3 으, 땅 보멍.

112047 @ 그 복 벗는데 허지예, 끝나민. 복?

112047 #3 복 벗어.

112047 @ 언제 복 벗는 거과?

112047 #3 삼 년 넘으민게.

112047 @ 삼 년 넘으면 복 벗는 거라예?
 112047 #3 으, 삼 년 넘으면 복 벗어.
 112047 @ 그럼 돌아가서가지고 삼 년 동안.
 112047 #3 삼 년 동안.
 112048 @ 하지 말고 해야 돼는 거 이서마씨? 금기사항?
 112048 #3 그런 건 몰라.
 112048 @ 그런 건 몰르고.
 112042 #3 그런 거 몰라. 삼 년 동안 삼시 때 해 놓고, 남저는 담배 다 부쳐 놓
 곡. 할망은 담배 안 부쳐도 삼 시 때만.
 112042 @ 예예.
 112042 #3 그처럼 허당 삼 년 넘으면 담제, 담제엔 허멍 삼 년 넘으면 석달만이
 또 제 허는 거라.
 112042 @ 삼 년 넘으면 석 달만이 또 제해마씨?
 112042 #3 어. 마지막제. 경혜여근에 그때 마지막제 넘으면 그냥 잇다근에 그
 죽은날 돌아오민 제, 제 허는 거.
 112042 @ 식계예?
 112042 #3 어, 식계.
 112042 @ 그때서부터 식계가 되는 거라예.
 112042 #3 어. 아이고.
 112042 @ 담제렌 헨 복 벗은 다음에 석 달.
 112042 #3 석달만이.
 112042 @ 석달만이 담제렌 헨 해마씨.
 112042 #3 아이고 날거치 때 갖게 낱 고생만 고생만 헨 사름 엇어. 해 논 거 원
 엇고.
 112042 @ 상식에는 아침 저녁 올리잖아예?
 112042 #3 으, 아침, 저녁 올리는 것이 상식.
 112042 @ 점심에도 올립니까?
 112042 #3 어, 하루 삼 시, 하루 삼식.
 112042 @ 계민 밧디 갖당 오는 거?
 112042 #3 오라, 오라. 아이구.

제례

112049 @ 이제 삼 년 지난 다 벗은 다음에 이제 돌아오민 제사 허잖아예. 제사
 돌아올 때 되면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112049 #3 어떻게는 어떻게.
 112049 @ 제숙도 준비하고?
 112049 #3 어, 제숙이멍 이 고사리, 탕쉬 문딱 해여근에 고사리 탕쉬하고 꿩기

곱곡 밥 허곡 꿩 국 끌리고 다 해근에 친촉들도 다 오랑 먹는 거.

112050 @ 기민 제물, 제물은 뭐뭐 잇수과?

112050 #3 제물은 잘 출리젠 허민 친떡, 인절미, 절벤, 솔펜, 우썩 경헨 다 허는 거주.

112051 @ 경 다 허는 거예. 콩나물은 어떻?

112051 #3 콩나물은 집이서 콩 물 적정 뒤 그릇에 낱 놔두민 자꾸 물 쥘 물 쥘 허당 보민 그 콩나물이 곤작 나는 거라. 나민 그거 해여근에 키와근에 콩나물 허는 거주.

112051 @ 게민 콩나물은 상시 영 키우는 것과 아니민 제사 때만 영 키웁수과?

112051 #3 어, 제사 때만.

112052 @ 제육, 제육 준비는 어떻 험니까?

112052 #3 고기 제육.

112052 @ 응, 제육?

112052 #3 제육은게 꿩 사다근에 물류왕 그거 낫당 곱곡, 짓갈은 돼야지 꿩기 나 췌꿩기나. 그거 해여근에 저 전날은 거 사다근에 그거 행 몬 썰어근에 구우멍 그것ㄴ라 짓갈. 짓갈 허고 꿩기는 생선 해영 구웁.

112052 @ 꿩기 생선 허는 건 생선은 어떤 생선해마씨?

112052 #3 생선은 오토미 생선, 오토미.

112052 @ 여기서 남원에서 오토미렌 험니까?

112052 #3 어, 오토미.

112053 @ 적은 몇 종류, 두 종류, 아까 소고기, 돼지고기?

112053 #3 어, 두 종류 허고 목 허고 세 개.

112053 @ 남원리서 그거말고 더 허는 디도 잇수과? 두 개말고?

112053 #3 몰라도 세, 우린 세 개 넘언 안 해봐서. 목 허고 짓갈 세 개. 짓갈 두 개 허고 목 허민 세 가지.

112054 @ 음. 그 떡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예. 떡 이렇게 꿩는 순서가 있지 안험니까?

112054 #3 건, 꿩는 순서는 저 친떡은 밀에 낱 그 다음 인절미 낱 니귀반뜩헌 거. 저 인절미 낱 그 다음은 또 절벤 동글랑헌 거 절벤 낱 그 우이 솔펜 더깁 그 우이 또시 우썩. 우썩은 상ㄴ루, 솔펜은 쓰레또, 인절미는 지둥, 절펜은 또시 밀바닥.

112054 @ 밀동?

112054 #3 으, 밀 바닥.

112055 @ 다 의미가 있는 거라예. 과일은 뭐 해낫수과, 과일은?

112055 #3 과일은 그대에 뭐 베풀 엇이난에 그 거시기 배, 사과 그거빼끼 옛날은 엇어나니까, 그거 사다근에.

112055 @ 미깡, 미깡은 안 올렸수과?

112055 #3 미짱 엇어낫주게.
 112055 @ 미짱 엇어나고. 배랑 사과랑 사당예?
 112055 #3 어, 사당.
 112055 @ 장날 강?
 112055 #3 어, 장날 강 사오라서.
 112056 @ 채소는? 채소는 뭐뭐 헨?
 112056 #3 채소는게 콩늬물 허고 고사리 허고 무우채 허고.
 112056 @ 무우채도 험니까?
 112056 #3 무우채도 허주.
 112056 @ 음.
 112056 #3 것도 세 가지.
 112057 @ 음 세 가지예. 진실이 뭐과, 진실?
 112057 #3 진실?
 112057 @ 예.
 112057 #3 진실이엔 허는 건, 거 알아지크라? 진실이 뭐 제 헐 땡가?
 112058 @ 메나 갱은 누가 거릅니까?
 112058 #3 건 그디 주장허는 사름이 거리주게 누가 거러. 메엔 헨 건 밥, 갱이
 엔 헨 건 국.
 112058 @ 건테 저기 메누리도 시어머니도 있을 때, 어머니 시어머니랑 같이 있
 을 때 누게가 떠 낫수과?
 112058 #3 시어명이 뜨나, 메누리가 뜨나.
 112058 @ 건 상관 엇어?
 112058 #3 건 상관 엇고.
 112059 @ 현관?
 112059 #3 현관이엔 헨 건 제 헐 때에 그디 큰아덜이나 큰손지나 제일 옷 즈손
 이 옷즈손이 챗 번 가근에 잔 동그랑허게 흐쉴 큰 잔 그것이 잔을 드리는 것이라
 현관이엔 허주.
 112059 @ 초현관이 맨 먼저 허는 거?
 112059 #3 으.
 112060 @ 파제는 몇 시쯤에 해낫수과?
 112060 #3 파제는 옛날은 새로 혼 시 뉘민 제를 넘기주. 새로 혼 시 뉘민 제 넘
 경 파제 뉘민 두 시도 뉘고, 세 시도 뉘고 경허메.
 112060 @ 혼 시 넘경 제 헤여? 새로 혼 시 넘경예.
 112060 #3 지금은 열 시에덜 다 허는디.
 112060 @ 열 시에예. 그럼 그때는 전 날 허는 거지예?
 112060 #3 으, 전날 허는 거주.
 112061 @ 문전제 지넵니까?

112061 #3 문제는 그 제 험 전이, 제 험 전이 이 무똥뎡더래 상 뇌근에 상 뇌 그디 다 올려 낵, 밥이나 국이나 탕쉬, 제물이나 문똥 올려뇌근에 그 문제 허는 거.

112062 @ 제반이 뭐과? 제반?

112062 #3 제반 걸음이엔 현 건 문똥, 제 헤여 뇌근에 그 흐나씩 흐나씩 다 승 뇨 사발에 걸어낵 허는 것ㄴ라 제반.

112062 @ 아, 그니까 음식 차려 논 거 승 뇨 사발에 쫄금씩 쫄금씩 다 떠 놓는 거예?

112062 #3 으, 그것ㄴ라 제반.

112063 @ 그걸 제반 걷는 거렌 허는거예. 지제는 언제 허는 것과?

112063 #3 지제는 그디 제 먹을 즈손덜이 엇어가민 지제허는 거주. 제 아니 헤 영 내부는 것ㄴ라 지제헌덴 허주.

112063 @ 그럼 몇 대까지 가는 것과 보통? 지금은 보통 고조까지 제사를 지낸 덴 허는 디?

112063 #3 게메 경허는 디 그뎡 고고조까지 제서 헤낵어.

112063 @ 고고조까지예.

112063 #3 으.

112063 @ 그럼 사대까지?

112063 #3 으, 사대.

112064 @ 묘제는 어떻 헵니까?

112064 #3 묘제?

112064 @ 예.

112064 #3 묘제는 종손집이서 뉼지 잡고 문똥 헤 뇌근에. 문똥 헤 뇌근에 이 제 관덜은 다 막 큰 어른덜로 제관을 막앙 허는 것ㄴ라 묘제.

112064 @ 예, 큰집에서?

112064 #3 응.

112065 @ 그 제사헤 먹젠 허민 뉼 허지 말렌 현 금기사항은 엇수과?

112065 #3 금지 무시거 뉼 부정헌 밧디 그런 디 가지 말렌 허주.

112065 @ 부정헌 밧디 가지 말렌 허민 부정헌 밧디가 어떤 데라?

112065 #3 부정은 어디 엄장을 허난 사름이 죽으나 그런 디 가지 말렌 허는 거 주.

112065 @ 제사 헤 먹젠 허민예.

112065 #3 으.

112065 @ 며칠 전이서부터?

112065 #3 흔 삼일 전이부터.

13. 민간요법

113010 @ 다래끼 낵을 때 어떻 헵니까?

113010 #2 난 아무 것도 모르난 보리 방울 해근에 그 우이 꼭대기 싹 나는 딜로 말고 뿌리 나는 딜로 .

113010 @ 어.

113010 #2 그 다래끼를 꼭꼭 열네 번 침 쥐, 열네 번. 일곱 번씩 두 번.

113010 @ 으.

113010 #2 그거, 그거 해난 거베끼 었어.

113010 @ 하하, 아 기과.

113010 #2 어. 뭐 유식헌 사름덜은 발창에 글도 쓴덴 헌디 난 그건 몰르고.

113004 @ 그럼 버즘, 버즘 낮을 때.

113004 #2 아이고 버즘 낮을 땐, 버즘도 무신 버즘, 저 도리 버즘 잇고 무신 버즘 잇주게.

113004 @ 버즘 종류 아까 뭐? 도리버즘?

113004 #2 으, 도리버즘 잇고, 기자 버즘 잇고.

113004 @ 아, 도리버즘 잇고 기자 버즘 잇고.

113004 #2 으.

113004 @ 도리버즘이 어떤 거?

113004 #2 동글랑허게 그릇 벗어정 동글랑허여 츄츄츄츄 너비가 커져 가는 거.

113004 @ 아. 그리고 그냥 버즘은 그냥 버즘이요?

113004 #2 으.

113004 @ 게민 어떻힙니까?

113004 #2 도리버즘 낮을 땐 나 옛날말로 저 집 없는 들벙이 험벅에 싸근에 그 버즘더레 막 민잘민잘 민잘헌 풀 나오게 막 밍겨 가민 이따근에 혼 이틀 잇당 씻어 불민 아이덜 좋아나고 경해서. 거베끼.

113004 @ 하하.

113004 #2 것도 허고 거 거시기도 저 신문도 저 혼 두장쯤 헤영 몰아가지고 접시에 헤영 톱 세왕 꼭대기로 불을 부치면 츄츄츄츄 카오라 가민 문 카근에 확 불을 영 보닌 노랑헌 기름이 접시창에 줌 잇어. 것도 블라나고 원 것베끼 몰라.

113012 @ 이빨 아플 땐 어떻허여마씨 이빨 아플 땐?

113012 #2 백분도 물어보고.

113012 @ 백분? 백분이 뭐과?

113012 #2 겐 이빨 삭아불고.

113012 @ 이빨 삭아불어 백분 물민?

113012 #2 삭주게. 이빨 물민. 겨고게 원 이빨아프민 빠젠 베긴 고안을 못 헛주게.

113011 @ 눈 충혈 했을 땐, 눈 빨강했을 때? 그냥 내불어?

113011 #2 그자 그런대로 살암시민 좋앗주 뭐.

113013 @ 혀에 뭐 낮을 때는?

113013 #2 경 헤보진 안 해서.

113014 @ 홍역이나 천연두 했을 때 방법 잇수과?

113014 #2 홍역도 우리 아이덜은 살짝살짝 헤불고.

113005 @ 머리에 백선, 이발충 했을 때?

113001 #2 게메 놈들은 이발충이엔 현 거 막 저들어도 우린 그런 거 안 헤 보 난.

113001 @ 아, 안 헤 봤구나.

113001 #2 막 저들아 이발충 낫젠 허멍. 다른 건 몰르고 이발충 헛을 땀 막 저 들아.

113003 @ 비듬 했을 땀? 비듬은? 그냥 내불어.

113003 #2 비듬 무시거로 약을 헤여. 우리 하르방은 빨래 비누로 곰으난 돌아낫 져 헨게.

113003 @ 머리 감을 때 빨래 비누로 머리 감아.

113003 #2 으.

113006 @ 여드름, 기미, 주근깨 그냥 내불엇지예.

113006 #2 그런 거 엇어나서게. 헤 보질 안 헤영.

113009 @ 사마귀? 손에 막 사마귀 같은 거 낫을 때.

113009 #2 그 사마귀가 나낫는디 언제 어떻게 엇어져벤게. 언제 어떻게 뵈지를 몰라.

113009 @ 아하.

113009 #2 나 나서. 그것이 나이가 땀 설에, 어느 때 엇어진 지 모르게 엇어져 불언.

113017 @ 볼거리헤낫수과?

113017 #2 볼거리가 뭐라?

113018 @ 목거리, 목 아팡?

113018 #2 몰라.

113022 @ 종기 낫을 때 어떻헛수과?

113022 #2 아이고 종기 낫을 땀 고안을 못 허민 고름 들어불민 চে엇주게.

113022 @ 집이 있는 칼로?

113022 #2 야부 이사가, 의원이 잇어서. 체는 의사.

113022 @ 야부 이사, 하하.

113022 #2 그땀 허가고 뵈고, 의원이 침 주곡 소뵈 체곡 허난. 그런 넙덕헌 판 쉬라고 체는 것이 잇주게. চে엇주게.

113022 @ 그냥 야부 의사 안티 강예.

113022 #2 으.

113024 @ 손 알렸을 때?

113024 #2 아이고 손 알릴 때, 난 흐단흐단 약도 버천 손도 다 뵈시뵈부난에 말

혈 수가 엇인디.

113024 @ 손 영 쥐 봅서.

113024 #2 아이구, 아이구 나 뵈우지 안 허켜.

113024 @ 뵈우지 안 허크라. 손 알렸을 때, 어떻 방법이 엇어.

113024 #2 놨은 이거 해도 존나, 저거 해도 존나 해도 난 안 좋으멍 경 헨게.
벨 거 다 해도.

113025 @ 두드레기 나민? 두드레기나 땀띠나?

113025 #2 거싸 무신 약 잇어. 두드레기 난 것사게. 기자 두드레기 낫젠 해근에
몹이나 김아불민. 모욕이나 해불민 좋앗주.

113027 @ 애기덜 키울 때 경기 허민 어떻 헛수과?

113027 #2 침 맞치고 또 옷밤인가 무시거 그것덜만 사례 땡겨주게.

113027 @ 옷밤?

113027 #2 무신 밤에 그 어느 엉덕 아래 사는 거, 거라 매엔사 헨신지 그거
옷밤이주, 옷밤. 그것만 사례 다니고 무신 쟁맹주여 무시거영 헨 맥이곡 침 맞치곡.

113027 @ 쟁맹주?

113027 #2 으. 애기 먹이는 거.

113027 @ 그게 뭐라?

113027 #2 애기 먹이는 것이 잇어. 쟁맹주라고.

113027 @ 약으로 나온 것과?

113027 #2 으. 애기덜 맥이는 거.

113028 @ 화장입었을 땐? 화장 입었을 때 웬장 블랏수과?

113028 #2 술도 블르고 옛날엔 술베끼, 간장이영 술이영 블라나신디 윈 블르는
것이 엇어가지고, 이젠 무신 알로에도 최고여, 이것도 최고여, 저것도 최고여.

113029 @ 동상일 때는?

113029 #2 요즘사 병완에 강, 나가 옛날 동상해나신디 이 발이 겁덕 혼 엇이 벗
어져서 우리 어머니 그것 먹어신가 데껴베신가. 차두해가지고 콩을 혼 사밭썸 차두
에 낱 발 이디 디물어 낱 이디 무경 헌디 그 발에 영 부떠난 콩을 윈 먹어나신디
어떻헤신디.

113029 @ 하하하.

113029 #2 그추룩, 동상은 나가 걸려나신디 경헌디 이젠 엇어져베서.

113030 @ 엇어져베서. 감기 걸리면 어떻 헤낫수과, 감기 걸리면?

113030 #2 감기 걸리민 어떻허는 거라 옛날에 땡우지나 딸렁 떡곡.

113030 @ 뭐, 뭐 대우지?

113030 #2 땡우지.

113030 @ 아, 땡유지. 아까 뭐레 곶앗수과 다시 한 번.

113030 #2 땡우지렌 허주 땡우지.

113030 @ 땡우지.

113030 #2 경허멍 케나 제나 축지 말게 사노레 허민 좋앗주, 이제난 병원에 확 감주만은.

113031 @ 기침 헐 때도 마찬가지로 땡유지 딸려 먹언.

113031 #2 어, 기침 헐 때도 마찬가지로 헐만이 헤져사 좋아.

113033 @ 코피나는 건 그냥 내불엇지예.

113033 #2 어. 내불어서.

113035 @ 이 허벅다리에 여기 허벅다리에 핏줄 막 부어 오를 때, 그런 거 잇어 난?

113035 #2 몰라.

113036 @ 설사 허민?

113036 #2 설사 허민 무신 약이 셔게. 배 창지 거 다 나와불민 좋주게.

113039 @ 하하하. 맞수다. 저기 체 했을 땐 어떻 헤낫수과?

113039 #2 케난 나도 그걸 몰라가지고 체 헐을 때 막 여기 사름은 따주게, 따는 걸 난 몰랑. 애기 업영 그걸 따레만 땡겅주게. 그 손 보는 할망신디.

113039 @ 아, 손 보는 할망신디. 할머니가 따 주는 거?

113039 #2 아니 이디만 썰어, 이디만.

113039 @ 아, 썰어.

113039 #2 어.

113039 @ 어무니가 체 헐, 애기가 체 헐?

113039 #2 애기.

113040 @ 애기. 베엿을 땐. 손 베연?

113040 #2 것을 어떻게 ㄱ만이 체멍 내불민 좋주게.

113041 @ 모기 물린 땐? 그냥 내불어?

113041 #2 아이고 난 모기 물린 때 메누리 몰르게 허젠 재기 좋게 허젠 저 킬라 브르난 아인 다 죽어가고 애기 들멍.

113041 @ 아, 손지 들 때? 하하.

113041 #2 아이구 메누리 알카부덴 스몓 겁나게.

113041 @ 손지 볼 때 에프킬라 발라불언?

113041 #2 어. 겐 아기가 스몓 다 죽어지켄 허멍.

113042 @ 하하하. 뱀 물린 때, 일 허당 뱀 물린 때?

113042 #2 뱀 물린 땐 나가 물려 봐신디, 뱀 물린 땐, 도새기 똥.

113042 @ 에에?

113042 #2 도새기 똥 쳐 메곡 즐르곡.

113042 @ 으음.

113042 #2 발 물리민 이디 즐르곡, 손 물리민 이디 즐르곡 헤사주게, 우터레 올라가지 기영 올라가지 못 허게.

113042 @ 아하, 도새기 똥 헐. 어무니 물려난?

113042 #2 으. 도새기 허고 배염이가 상극인 생이라.

113042 @ 아하.

113042 #2 겐디 아주 붓어, 붓곡 즐르민 아프곡 헤도 경 험시난 어떻 안 헤연 살아전.

113043 @ 별 쏘이민?

113043 #2 별 쏘이민 무신 약이 셔. 그자 ㄱ만이 내불민, 붓을 만이 붓어 저시 민.

113043 @ 뭐 오줌 싸고 안 험니까?

113043 #2 그런 것사 허주만은 것도 약이라?

113043 @ 아니 어쨌든.

113043 #2 기자 별 물리민 예염더래 강 오줌 싸민, 멘도롱 현 오줌 싸명 블라낫 주게. 게도 막 좋지 안 허여.

113044 @ 옷 올른텐 험니까? 옷, 풀옷 올른텐 험니까?

113044 #2 으, 원 자기가 안 허여 나난.

113047 @ 허리 빼엿을 때, 발목 빼엿을 때?

113047 #2 빼서게 빼지 안 허영 그대로 오그라만 지곡 발목도 빼여보지 안허고 게.

113049 @ 귀에 물 들어가낫수과, 귀에 물질 허당?

113049 #2 물 들어가도 나오라불민 좋아. 물 튼튼헛다근에 무시거로 것지민 고 로록 허게 나와 불민.

113049 @ 뭐, 뭐 것지민?

113049 #2 무신 종이라도 빙빙 돌양 것지민 고로록 허게 소리나명 나와베.

113049 @ 나와 불어예.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114001 @그 아까 사삼 때에 창 맞양 죽을 뻔헌 일 말고 그밖예 뭐 죽을 뻔헌 일도 잇수과?

114001 #2 그런 건 엿어.

114002 @ 어렸을 때 도깨비 만나졌다?

114002 #2 그런 건 엿어.

114003 @ 영 일허당 놈이 밧디 강 친구들이이랑 고치 감저 파 먹어불고 현 재 미난 얘기덜은 엿수과?

114003 #2 감저 나 경헌 것도 안 헤 보고 그.

114003 @ 옥수수 따 먹어불고.

114003 #2 그런 건 안헌디 그, 나가 지금이라도 경 약허질 안허영 몸은 이제라도 어린 때라도 무신 허빨봐져라 무시거 봐져라 경허진 안허여. 그런 거 못 봐.

114002 @ 기 약헌 사름덜이 그런 거예.

114002 #2 으 그런 건 못 봐. 꿈자리도 무신 언치낙 꿈이 어떻 허난 오늘 어떻 헤라 해도 꿈도 기자 헛꿈 꾸민 아무것도 아니.

114004 @ 뭐 들어난 재밌난 이야기는 엇고?

114004 #2 재미난 것도 엇고 무신 그거 튼내지크냐게 그런 거.

101001 @ 여기 남원리가 어떤행 생겨난 마을인지 알아지쿠과?

101001 #2 옛날에 이디 뭐 멧 호 안 살아나신디 뭐, 어떻 어떻헨 이거 마을이 돼신디.

101001 @ 경 멧 호 안 살당 사삼 사건 때 막 들어온 거?

101001 #2 아니, 그 사삼사건 박 전이가 멧 호 안 살앗주.

101001 @ 경 많이 안 살당 언제서부터 많이 살게 뵈수과?

101001 #2 그건 우리 하르방이 알주. 양 하르방.

제2절 어휘

-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
201002	대가리	드맹이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골
201005	제비초리	머리출렁이
201006	머리털	머리털
201007	머리카락	머리겁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썩르다
201010	빗[梳]	빗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땡다	닿다
201014	비녀	빈네
201015	고수머리	뽕실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메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앞갈름
201019	이마	이맹이
201020	넓다[廣]	넙다
201021	이마빼기	이맹이
201022	숨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양지
201024	낯[面]	놋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숫대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거울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뺨얌
201032	뺨따귀	뺨얌
201033	때리다[打]	때리다

201034	불	불
201035	불따구니	불기착
201036	불거리	긱둥치기
201037	광대뼈	불뼈
201038	보조개	불
201039	주름살	주름술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동자
201042	검은자위	검은동자
201043	눈꺼풀	눈두께
201044	거적눈	더께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
201047	속눈썹	속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양두세
201049	수침(垂針)	이멩이에 바농 세우는 거
201050	거머리	푸린꼭줄
201051	폐롭다	폐롭다
201052	눈곱	눈꼽
201053	눈초리	눈각
201054	사팔눈	눈팔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직다
201058	콧마루	콧마루
201059	세다[強]	썰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코페랭이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따끄다
201064	콧수염	콧쉬염
201065	인중	인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진정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뉘달하다	답달허다
201072	입술	입바위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헛입 놀리다
201075	말하다	말허다
201076	입방아	늪의말
201077	허풍	허풍쉬
201078	뇌다	노다시리다
201079	침[唾]	꿈, 춤
201080	삼키다[呑]	삼지다
201081	가래침	가래
201082	뱉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느치림
201084	턱받이	턱바데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할르다, 할트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 니빨
201089	앞니	앞늑
201090	송곳니	걸늑
201091	덧니	덧늑
201092	버드렁니	버드렁늑
201093	어금니	어금늑
201094	사랑니	꼬장늑
201095	옥니	오곰늑
201096	옥다[曲]	옥다
201097	돌다[出]	나다
201098	옥물다	꼭물다
201099	턱	턱, 아굴턱
201100	턱살	야개슬
201101	빨다[稍峽]	빨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
201105	귓볼	귓자락
201106	귓구멍	귓고망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꺄뵁
201109	꺄이꺄	꺄오꺄
201110	꺄는꺄	꺄는꺄
201111	꺄뵁	꺄뵁
201112	꺄레나룻	양지쉬염
201113	목	목, 야꺄
201114	꺄다[顙]	훗다
201115	모꺄지	모꺄지
201116	꺄살	꺄살
201117	꺄다[執]	심다
201118	뒤통수	뵁꺄꺄, 뒤통시
201119	꺄뒤	꺄꺄뒤
201120	뵁덜미	뵁설꺄꺄

상체

201121	어꺄	어꺄
201122	어꺄뵁	푼체짱
201123	어꺄꺄꺄지	어꺄꺄꺄지, 꺄꺄지
201124	꺄드랑이	꺄드렝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꺄꺄
201127	새꺄다[刻]	새꺄다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꺄	심꺄
201130	꺄꺄살	꺄꺄꺄
201131	팔꺄꺄치	폴꺄꺄지
201132	팔목(=손목)	훗목
201133	뵁	짱
201134	뵁꺄꺄	뵁꺄꺄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웁손
201137	오른손	노단손
201138	왼손꺄꺄	웁꺄꺄
201139	손등	손등, 손등얼, 손등어리
201140	손바꺄	손바꺄
201141	손뚝	손꺄꺄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허끈다
201144	거스러미	거슴
201145	할퀴다	박긋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안채기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손거림
201153	가슴	가심
201154	뛰다[跳]	튀다
201155	젓가슴	젓가심
201156	멍치	맹치
201157	멍자리	맹자리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꼭지
201160	젓명울	젓명얼
201161	짜다[擽]	짜다
201162	울다[鳴]	올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꼽
201167	옆구리	역갈리
201168	갈비뼈	갈리꽁
201169	등	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때기	등뎡이
201173	가렵다[癢]	ㄱ렵다
201174	긋다[抓]	긋다
201175	걸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등어리 물 놓는 거, 등물
201177	찬물	언물
201178	등마루	등마루, 등꽁
201179	등뼈	등뼈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허리가 ㄴ늘다
201182	가늘다[細]	ㄴ늘다
201183	엉덩이	엉치, 엉둥이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볼기
201186	엉덩이뼈	볼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궁둥이뼈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똥고망
201191	더럽다[汚]	데럽다
201192	가볍다[輕]	게볍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버치다
201194	살	<u>저개기</u>
201195	가래뿔	늦인들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안다리
201200	무릎	무릅
201201	무릎뼈	절벤짱
201202	뼈다[髑]	뼈다
201203	정강이	정갱이
201204	정강뼈	정갱이뼈
201205	종아리	종애
201206	장판지	쥐슬
201207	오금	오곰
201208	복사뼈	귀마리짱
201209	발[足]	발
201210	걷다[步]	걷다
201211	긫다[凶]	긫다
201212	헛발질	헛발질
201213	발목	귀마리
201214	겹질리다	접질르다
201215	발등	발등얼, 발등어리

201216	발바닥	발창, 발바닥
201217	발부리	발봉오지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u>저글다</u>
201220	간지럼	저곰
201221	발가락	발꼬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꼬락
201221-2	둘째발가락	*
201221-3	가운데발가락	가운데발꼬락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꼬락

201222	발살	발거림
201223	까치눈	*
201224	티눈	퀴눈이, 켈이진거
201225	고린내	고랑내
201226	발톱	발굽
201227	발뒤축	발뒤치기
201228	쓸개[膽]	슬개
201229	허파	복베기
201230	마음	므음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베설
201232-1	큰창자	대창
201232-2	작은창자	소창
201233	목숨	목숨
201234	빼앗다[脫]	빼앗다
201235	한숨	훈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쁘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낱다[媿]	낱다
202006	태(胎)	애기붓
202007	텃줄	배또롱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믈지
202011	갓난아이	궂난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어린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눔
202015	계집아이	지집빠이, 제집빠이
202016	아깝다	아깝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엿괘
202018	엿저지	애기엿괘
201019	품다	쿰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요강
202022	오줌버캐	오줌정갱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쌌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나무레다
202026	지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믈렵다
202028	꾸지람	꾸지럼
202029	배넛저고리	붓넛옷
202030	기저귀	지성귀, 샷빠
202031	배두렁이	베부레기
202032	포대기	포데기
202033	보자기	포자기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풀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치네	뚜데지성귀
202038	띠	걸렁기
202039	개구멍바지	알터진바지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죤메죤메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선달선달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짜짜꿍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u>정게정게</u>
202046	걸음마	걸음마
202047	걸리다	걸리우다
202048	곤두박질	곤주왁
202049	곤두서다	곤주왁사다
202050	가동가동	가당가당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정게고개
202054	흉내	슌내
202055	흉내질하다	슌내질허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시알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부애
202060	참다[忍]	츄다
202061	심술	심웃
202062	밋다[憎]	밋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지
202066	딱지치기	빠딱치기
202067	통차기	통차기
202068	숨바꼭질	굽을락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u>손꺠놀이</u>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썰떼기
202073	풍계물이	굽질락
202074	줄넘기	줄뿔락
202075	줄다리기	줄똥길내기

202076	수수께끼	수수께기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뺏기	방치기
202082	사금파리	사그막지
202083	말놀음질	말틀락
202083-1	생말타기	듣는말타기
202083-2	죽은말타기	산말타기
202084	대말[竹馬]	대말
202085	달음박질	달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숨백허다
202087	제기차기	쪽기차기
202088	혜엄치다	혜엄치다
202089	웃놀이	웃노는 거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짓혀졌을 때	토
202090-2	개	두 짝 짓혀졌을 때	캐
202090-3	걸	세 짝이 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없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2	막동	막지
202093	보리웃	*
202094	줄목	*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상쟁이
202097	싸우다[鬪]	싸우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다치기
202100	편벽하다	편벽허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들연
202107	가오리연	가오리연
202108	연달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
202108-2	꽂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
202108-3	꺾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벌이줄	연술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202112-3	꽂줄	연의 꽂달구멍에 꿰어서 꽂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u>벙고래</u>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굴리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그네

202120	밑신개	발판
202121	굴렁쇠	*
202122	구르다[轉]	등그리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자전거
202125	키[身長]	키
202126	키다리	헛대쉬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위염
202128	선하품	선하위염
202129	기지개	질트는 거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기하다
202132	놀라다[驚]	노래다
202133	졸음	졸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짚은즘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꾸레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게트레기
202145	말꼭질	털꼭지
202146	재채기	햇쟁이
202147	개치네췌	*
202148	방귀	똥방구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u>방기쟁이</u>
202151	구렁내	구렁내
202152	노린내	노렁내
202153	사레들다	살러레들다
202154	감기	감기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홍역
202157	학질	*
202158	천연두	꼼보지는거
202159	곰보	꼼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독짓
202163	두부백선	드름
202164	웁	칠
202165	버짐	버즘
202166	마른버짐	백버즘
202167	진버짐	*
202168	주근깨	프리춤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사막
202171	여드름	여드름
202172	명	명
202173	퍼렇다	퍼렇허다
202174	굳은살	굳은슬
202175	부스럼	부스럼지
202176	종기	허물
202177	습종	습종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허물빨
202180	다대	허물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긋인물
202183	낫다[癩]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베적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앓다[痛]	알르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떼기
202190	소경	봉서
202191	청맹과니	튼봉서

202192	먼산바라기	천상바레기
202193	애꾸눈이	웨눈백이
202194	사팔뜨기	*
202195	다래끼	개씹
202195-1		들럿
202195-2		개씹
202196	언칭이	청보
202197	외언칭이	청보
202198	쌍언칭이	청보
202199	귀떡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몰레기
202202	말더듬이	세다드레기
202203	혀짤배기	세다드레기
202204	입비뚫이	입트레기
202205	구안괘사	웨살풍
202206	가납사니	자자귀
202207	곰배팔이	폴졸레기
202208	곱사등이	등곱새
202209	절뚝발이	발절레기
202210	앉은뱅이	아진다리
202211	문둥이	용다리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버지
203002	어머니	어머니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할아버지
203006	할머니	할머니
203007	남편	남펜
203008	아내	마노라, 각시
203009	부부	부부
203010	싫다[厭]	싫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족은아덜
203012-9	막내아들	막냉이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슴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슴딸
203018	자식	즈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즈순
203021	어비딸	에비딸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닻다
203024	어이딸	에딸
203025	어이아들	에이아덜
203026	말이	큰성
203027	막내	막냉이
203028	형	성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언니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웨아덜
203034	외딸	웨딸
203035	쌍둥이	쌍둥이, 곶에기

203036	다르다[異]	트나다
203037	같다[如]	ㄱ트다
203038	양자	양제
203038-1		양제들다
203038-2		양제들다
203039	처녀	처녀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스주보다
203044	중신	중진애비
203045	권당	권당, 켄당
203045-1		집안 가족
203045-2		일가 친족
203046	얹은잔치	안팎잔치
203046-1	암창개	*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시아방
203050	시아머니	시아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아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할르방
203054	외할머니	웨할망
203055	삼촌	족은아버지/큰아버지/셋아버지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시아주방
203057	아주머니	삼촌
203058	환갑	한갑
203059	늙으신네	늙은이, 늙신이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광허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
203063	병추기	벙주시
203064	거동하다	오몽허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지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웨펜
203073	종내기	종네기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아주망, 올케
203076	큰아버지	큰아버지
203077	큰어머니	큰어머니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버지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머니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할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89	홀아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버지
203092	친어머니	친어머니
203093	의붓아버지	다슴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203095	웁딸	빌은딸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눔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ㄴ슴
204002	꿍다	그치다, 끈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썰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줄다
204007	무녕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썰
204009	닷새무명	닷새미녕
204010	옛새무명	옛새미녕
204011	생목	지찾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소개
204017	풀숨	설맹지
204018	숨틀	소개클
204019	숨틀집	멘네 테우는 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드레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즘박
204024	번테기	고주워리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낭섭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산뽕낭
204029	오디	오동
204030	다듬잇돌	다듬이뎀베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듬이마께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버꿈
204035	물거품	물버꿈
204036	빨랫돌	빨레팡
204037	빨랫방망이	물마께
204038	빨랫바구니	빨레구덕
204039	행구다	행구다
204040	빨랫줄	빨레줄

204041	마르다[乾]	몰르다
204042	바지랑대	<u>작대기</u>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바래다
204046	형겘	형벽
204047	찢다[裂]	브리다
204048	나부랭이	형벽쫓가리, 보스레기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달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메자락
204054	풀치마	깍치메
204055	옷고름	옷금
204056	옷깃	저고리깃
204057	옷섶	옷섭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들메기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소미
204062	중의	바자마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갈적삼
204065	도포	도포
204066	두루마기	두루메기
204067	장옷	창옷
204068	고쟁이	살마다
204069	토시	소데
204070	누더기	헌옷
204071	거지	걸바시
204072	구두쇠	<u>브뜨사름</u>
204073	잠방이	점벙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허리친

204075	주머니	주멍기
204076	호주머니	계와
204077	넣다[入]	놓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u>보선 목자리</u>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u>보선 뒤치기</u>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u>보선 등어리</u>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u>보선 코지</u>

204079	길목버선	질목
204080	버선발	멘보선착
204081	대님	다님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홀옷
204084	겹옷	접옷
204085	솜옷	소개옷
204086	얇다	얄루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카바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접이불
204093	사이	사이
204094	누비이불	누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푸숨
204097	홀칭	호칭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겹질
204100	눅다[臥]	누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자부둥
204104	앉다[座]	안지다

204105	베개	베게
204106	베갯잇	베갯잇
204107	베갯머리	베갯머리
204108	베갯모	베갯모메기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밑짚모자	밑짚패랭이
204115	미사리	삿갓망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채총박이	*
204118	판총박이	비빈깍신
204119	미투리	*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죽신	가죽신
204123	부르트다	붕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
204127	부채	푼채
204128	미선	푼채
204129	부치다[扇]	푸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짚고리	바농상지
204131	가위	ㄱ세
204132	마르다[裁]	물르다
204133	골무	손끝메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실가림
204136	실패	실패
204137	바늘	바농
204138	찌르다[刺]	찌르다
204139	바늘겨레	<u>바농짚레</u>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통, 쌀독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205007	빠다[湯水]	빨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근밥
205011	팔밥	폴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선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녕이, 누렁지
205016	눌은밥	눈밥
205017	더운밥	더운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톨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과래밥	프레밥
205020	밥보	밥푸데
205021	밥술	밥술가락
205022	밥알	밥알
205023	끼니	끼니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승냥
205029	화독내	끄시럭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낙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냉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데기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흰죽, 쌀죽
205041	팔죽	폴죽
205042	섞다[混合]	섞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쾌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반찬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배치짐치
205051	무김치	눔삐짐치, 무수짐치
205052	열무김치	*
205053	물김치	물짐치
205054	나박김치	나비짐치
205055	갯김치	갯늬물짐치
205056	파김치	파짐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덤그다
205060	간장	물장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병덩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간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간허다

205069	콩나물	콩나물
205070	숙주나물	녹두지름
205071	무나물	무수채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채소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밥
205075	껌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곳
205077	고비	베염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나리
205079	부추	새우리
205080	상추	상초, 상추
205081	시금치	시금초
205082	푸성귀	늑물
205083	오이	오이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츄웨
205086	수세미외	스가웨
205087	말물	초물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간잘귀
205090	원두막	웨막
205091	갯잎	유입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풋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치ㄴ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작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칭동호박	막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섭, 호박입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알개미젓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별식

205108	흰떡	근쌀떡
205109	백설기	제편
205110	부스러기	부스레기
205111	송편	송편
205112	소[떡소]	앙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레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두
205117	가루	ㄴ수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칼국수
205120	삶다[烹]	삶다
205121	수제비	저베기
205122	물다[淡]	얕루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미숫ㄴ루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지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옛기름	옛
205129	감주	감쥐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기울다
205135	주다[授]	쥐다
205136	마시다[飲]	마시다
205137	준(罇)	술켄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데
205140	술독	술항아리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싸다
205146	갑시다	ㄱ끼다
205147	지짐이	덴뿌라, 지짐이
205148	누름적	지짐이
205149	산적	젓갈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제
205151	부엌문	정젓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불망굴
205154	불뚱	불뚱
205155	부엌비	정젓비치락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늑잡다
205158	높다[高]	높다
205159	그슬음	그슬음
205160	검댕	경뎡이
205161	아궁이	솻강알
205162	재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도다
205164	부뚜막	불칫막
205165	붓돌	솻덕
205166	숯	솻
205167	옹달숯	즉은솻
205168	무쇠숯	무쇠솻
205169	끓다[沸]	궤다
205170	숯뚜껑	솻뚜껑
205171	숯귀	<u>솻꼭지</u>
205172	숯전	솻전
205173	숯바닥	솻창
205174	숯밑	솻강알
205175	숯검정	솻검뎡이

205176	부삽	불삽
205177	군손	군손
205178	군일	군일
205179	살장	찾장,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줄방석
205182	성냥	성냥
205183	성냥개비	성냥개비
205184	성냥갑	성냥집
205185	부시	부시
205186	부싷돌	부들
205187	부싷깃	불쩍
205188	부시쌈지	부싷주멧기
205189	부시통	*
205190	등잔	등피
205191	관술	술각
205192	호룽	초룽
205193	남포등	남포등
205194	접싷불	접싷불
205195	불켜다	불키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구땡이
205199	뜬숯	숯망굴
205200	숯검정	숯검대기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칸내
205203	불태우다	불부치다
205204	불티	불똥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봉당	부섭
205210	화룻불	화룻불
205211	불찌다	불추다
205212	화상(火傷)	화상

205213	부손	불손가락
205214	부젓가락	불젓가락
205215	다리쇠	적쇠
205216	석쇠	적쇠
205217	물독	물동이, 물통
205217-1		춤
205217-2		항아리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우다
205220	용고뚜리	담배초관
205221	담뱃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뿌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통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봉지
205227	재떨이	재떨이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사발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눗사발
205233	사발	사기사발
205234	뚜껑	뚜껑
205235	접시	접시
205236	굽달이	굽이신접신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간장종지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
205243	수저통	제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짓물
205246	도시락	벤또, 정심
205247	주전자	주전자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박세기
205250	박	꼭박세기
205251	뒤옹박	두렁박
205252	조롱박	꼭작박
205253	쪽박	족박
205254	양푼	밥도고리, 낭푼
205255	조리	조기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
205258	시루	바드랭이
205259	시룻밀	챗망
205260	시룻번	시룻마개
205261	경그레	바드랭이
205262	함지박	남도고리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소쿠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솜대(분죽)	수리대
205269	제주조릿대	길대
205270	굳은대	굳은대
205271	무른대	무른대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물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부엌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글다
205281	숫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늘쓰다
205283	행주	상뻐
205284	번철	*

205285	국자	국자, 사꾸
205286	밥주걱	밥자
205287	죽젓광이	남숙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본
205290	밀관	돔베
205291	밀개	마께
205292	소줏고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
205292-4	(받이뿔)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

205293	빚다	딴다
205294	풍로	*
205295	삼발이	세발소
205296	달이다	딸리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질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족다
206006	낡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지에 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오막살이
206011	외채	외거리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박거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

206016	결채	모커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독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독간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u>여비다</u>
206024	마구간	돌막
206025	변소	돛통
206026	부춘돌	두들팡
206026-1	부출	두들팡
206027	기척	기적
206028	맞서다[拮]	마주서다
206029	냄새	내음새
206030	맡다[臭]	마트다
206031	울담	웃담
206032	울안	우жат
206033	터알	들렝이
206034	가리	늘
206035	보릿가리	보릿늘
206036	짚가리	집늘
206036-1	출늘	출늘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사다리
206040	이영	줄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여끄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풍채
206043-2		풍채
206044	디딤돌	잇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상방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샛문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장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얇다	얇루다
206053	구들직장	방지기
206054	큰방	큰방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밭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닿다
206060	옷바람	옷풍
206061	안방	양광, 고풍
206062	방문	구들문
206063	비[帚]	비치락
206064	빗자루[柄]	비치락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버리다
206067	바람벽	백브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시렁
206071	선반	시렁
206072	헛대	간지
206073	도배	도배
206074	귀알	술
206075	풀비	풀비
206076	찰방	죽은삼방
206077	광	양광
206078	두다[置]	놓다
206079	광문	양광문
206080	간수하다	가냥허다
206081	안뒤결	안튀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도당
206084	지붕물매	물메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집가제
206088	처맛기슭	<u>집귀역</u>
206089	낙숫물	지슬물
206090	댓돌	잇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검은흑
206093	찰흙	춘흑
206094	흙덩이	흑덩어리
206095	새벽	개벽
206096	흙질	흑질
206097	이기다[沓]	이기다
206098	산자(撒子)	고데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u>생게지둥</u>
206101	뒤틀기둥	*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지둥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르
206106	보	*
206107	대들보	*
206108	반자틀	천아반귀클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椽)	서슬
206111	인방	메낭
206112	문설주	문대방
206113	문곶도리	문귀클
206114	문얼굴	문부출
206115	문틀	문골
206116	문머리	웃지방
206117	문흙	문골
206118	문지방	문데방
206119	지계문	구들셋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줍그다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창곰
206125	구멍	그망
206126	미닫이	미닫이
206127	여닫이	여닫이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
206131	문틈	문틈
206132	돌쩌귀	도질귀
206133	암톨쩌귀	*
206134	수톨쩌귀	*
206135	문고리	문걸쇄, 문고리
206136	배목	문걸쇄
206137	괘	괘
206138	열다[開]	을다
206139	장식	장식
206140	자물쇠	통쇄
206141	열쇠	통쇄
206142	부수다[碎]	부수다
206143	서랍	설랍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거두
206146	거도	거두
206147	틀툽	대툽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곱자귀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못빼기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방멩이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뜯루다
206162	굽자	굽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줄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휩손	쉐손
206167	쇠휩손	쉐손
206168	나무휩손	쉐손
206169	휩받기	*
206170	돌물레	*
206171-1		호랭이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서, 용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u>가령다리</u>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들랭이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잠대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짓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몽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치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쇠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쇠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돌벥이뿔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

207009	육보다	속다
207010	겨리	저리
207011	벧밥	흑병덩이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명에
207014	밭두둑	밭두둑
207015	밭고랑	밭고랑
207016	밭이랑	밭판이
207017	거웃	판이
207018	극쟁이	*
207019	씨레	씨레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손잡이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괭이	괭이
207022	곡괭이	곡괭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쉐스렁
207025	삼	갈레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굽씨
207031	백씨	웁씨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망탱이
207034	꾸게	끄슬퀴
207035	남태	남태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매기
207040	두벌매기	두불매기
207041	세벌매기	세불매기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아이고, 지치다. 집이 가게.”
207043	호미	골갱이
207044	홍아기	사데소리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삿	품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품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글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 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띠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호미 놀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뺨기	속베설
207055	새끼	노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노
207059	끈	끈
207060	참바(바[索])	배
207061	짐바	질배
207062	질빵	질빵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마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둥산 모양의 나무	*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둥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쟁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
207066-7	쟁거리끈	쟁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
207066-8	쟁거리막대	쟁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
207066-9	배뎃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

207067 멩에 멩에

207067-1	목대	멍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멍에
207067-2	봇줄	멍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줄대
207067-3	한태	봇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등배
207067-4	(오리목)	봇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
207067-5	비겨미	봇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봇줄에 꿰는 막대기	*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다리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가지	지겟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지겟방석
207068-5	지게꼬리 (밀뼈)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겟작대

- 207069 바지게 바지게
 207070 발채 바지게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이석
 207072-1 이석
 207073 짚 집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클
 207076 벼훑이 클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등근 살)	클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클

- 207078 타작하다 태작하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진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207083 겨를 저를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즈락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깨꼭지

207085 여물 여물
 207086 쪽정이 쫄레
 207087 꼴 출
 207088 꼴밭 출왓
 207089 꼴꾼 출놉
 207090 꼴단 출단
 207091 신다[載] 신다
 207092 마차 마차
 207093 북두 췌앗배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덕석
 207096 거적 여쟁이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거름체
 207099 굵은체 대처
 207100 말총체 ㄱ는체
 207101 쳇바퀴 쳇망
 207102 쳇다리 *
 207103 어레미 얼멍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거
 207106 까불다 능그리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술박’ 술박
 207109 풍구 선풍
 207110 홉 옥제기
 207111 홉되 옥제기

207112	되	뒤
207113	관되	관뒤
207114	사삿되	*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귀말, 관뒤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207118	고무래	근대,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불당그네
207120	떡둥구미	멩멩이
207121	가마니	가멩이
207122	꿇다[引]	꿇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허끄다
207125	자루[袋]	마다리
207126	부대(負袋)	마다리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계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간세다리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밭
207132	누리다[黃]	노리다
207133	밟다	뽏다
207134	까끄라기	ㄴ스락
207135	보리쌀	보리쌀
207136	보릿겨	보리체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쌀보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맥주맥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짚
207141	매끼	깨
207142	깜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팏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슈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이삭
207150	서속(黍粟)	서속
207151	비비다	보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재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칩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이삭
207157	볍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못자리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이삭
207161	밭벼밭	산디밭
207162	밭벼쌀	산디쌀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멧돌	ㄹ레

207164-1	멧돌짝	멧돌의 위아래 돌	*
207164-2	윗돌	멧돌의 위짝	*
207164-3	아랫돌	멧돌의 아래짝	*
207164-4	매암쇠	멧돌 위짝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ㄹ레고망
207164-5	멧수쇠	멧돌의 아래짝 한가운데 박힌 물건	*
207164-6	멧손	멧돌의 손잡이	ㄹ레즈룩

207165	멧방석	ㄹ렛방석
207166	매함지	함지
207167	풀멧돌	정ㄹ레
207168	풀매	정ㄹ레
207169	썰기	끌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두클방에
207171-1		서클방에
207171-2		너클방에
207171-3		

207172	방아확	방에 흑
207173	방앗간	물방에간
207174	븀비다	븀비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물방에
207178	방앗돌	방엿돌
207179	연자맷간	물방에간
207180	절구	<u>방에</u>
207181	절굿공이	<u>방엿귀</u>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뉘	니, 니꺼리
207184	고르다[擇]	골르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닙
207189	기름콩	지름콩
207190	콩각지	콩각지
207191	콩짚	콩집
207192	꼬투리	<u>콩꼬질</u>
207193	두부	뚝비
207194	두붓물	뚝빗물
207195	뜨겁다	뜨겁다
207196	비지	비제기, 뚝비주시
207197	찌꺼기	찌꺼기
207198	완두	푸린콩
207199	강낭콩	강낭콩
207200	동부	뚝비
207201	팔	폴
207202	팔알	폴방울
207203	팔밥	폴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퀘
207206	들깨	들퀘
207207	참기름	참지름
207208	갯묵	꿇주시

207209	고소하다	쿠시다
207210	메밀	ㄹ물
207211	메밀밭	ㄹ물밭
207212	나깨	*
207213	메밀껍질	ㄹ물체
207214	메밀국수	ㄹ물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ㄹ물처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ㄹ물칼국수
207217	메밀떡	ㄹ물떡
207218	메밀묵	ㄹ물묵
207219	무르다[軟]	물르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절간감저, ㄹ데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207225	마늘	대사니, 마농
207225-1	마늘대	대사니대
207225-2	마늘밀	대사니빨리
207225-3	마늘종	마농쥬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
207227	파	마농
207227-1	파밑동	마농빨리
207228	무	무수
207229	무청	츄노물썸
207230	시래기	씨레기
207231	장다리무	씨늬뻬
207232	열무	츄마기
207233	배추	배추
207234	고갱이(배추)	속안은거
207235	나물	ㄹ물
207236	채소	채소
207237	겉대	ㄹ물유레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녕이
207240-1	옥수수	강녕이

207241	수수	대죽
207242	쌀수수	쌀대죽
207243	비목수수	비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탕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수, 잠네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웃	물웃, 속곳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눈
207249-2		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뜰채	쪽바데
207256	그물	구물
207257	돛단배	풍선배
207258	이물	배코지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풍선
207261	마룻대(돛대)	풍선대
207262	마룻줄(용충줄)	풍선줄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넛대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놋구멍	*
207273	놋줄	*
207274	닷	*
207275	닷가지	*
207276	닷줄	*
207277	닷돌	*
207278	닷걸이	*
207279	키[舵]	*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u>자릿</u>
207284	떼[浮筏]	<u>테우</u>

기타

207285	이웃	이웃칩
207286	더불다[與]	더불다
207287	마을	막을
207288	고을[村]	고을
207289	누리[世]	시상
207290	윗마을	웃동네
207291	옮다[移]	올르다
207292	아랫마을	알동네
207293	마을가다	*
207294	밤마을	*
207295	가게	상점, 점빵
207296	구멍가게	구멍가게
207297	다녀오다	갔다오다
207298	심부름	신부름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u>우수리</u>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우수리

207302	있다[有]	있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u>남오기</u>
207307	흥정	흥정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항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손불미
207315	모루	불미판
207316	모루채	철몽치
207317	갓양태(양태)	입즈
207318	망건	망건
207319	망건골	망건골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결다[編]	절다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꾼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올가미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누누다
207331	갖다[持]	가지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
208001-2	(2)	*
208001-3	(3)	*
208001-4	(4)	*
2080015-	(5)	*
208001-6	(6)	*
208001-7	(7)	*
208001-8	(8)	*
208001-9	(9)	*
208001-10	(10)	*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208004 스물~백

208004-1	(20)	*
208004-2	(30)	*
208004-3	(40)	*
208004-4	(50)	*
208004-5	(60)	*
208004-6	(70)	*
208004-7	(80)	*
208004-8	(90)	*
208004-9	(100)	*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	*
208005-2	(2/두)	*	*
208005-3	(3/서, 석)	*	*
208005-4	(4/너, 녀)	*	*
208005-5	(5/닷)	*	*
208005-6	(6/엿)	*	*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	*	*
208006-2	(2-3/두세)	*	*	*
208006-3	(2-3-4/두서너)	*	*	*
208006-4	(3-4/서너)	*	*	*
208006-5	(4-5/네댓)	*	*	*
208006-6	(5-6/대여섯)	*	*	*
208006-7	(6-7/예닐곱)	*	*	*
208006-8	(7-8/일고여덟)	*	*	*
208006-9	(8-9/여덟아홉)	*	*	*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뺨 뺨마
208010 집계뺨 조리
208011 발[單位] 어깨바라
208012 밟다 발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마흔자
208014-2	명주	마흔자
208014-3	광목	마흔자
208014-4	베	*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150평
208016 못 단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단
208019-1 단
208020 조짐 *

208021 바리(종류)바리

208021

208021-1	보리	서른단
208021-2	조(이삭 있음)	서른단
208021-3	콩	웃단
208021-4	밭벼	서른단
208021-5	꿀	마흔단
208021-6	띠	*
208021-7	각단	마흔단
208021-8	어욱	*

208022 모금 어금
208023 섬 섬
208023-1 열닷말
208024 덩이 덩어리
208025 포기 포기
208026 그루 줄
208027 돌이(양태) 돌이
208028 마리 마리
208028-1 두[頭] 마리
208028-2 마리
208029 축 *
208030 꿩미 꿩미
208031 쌍(돼지) *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켈레(신) 켈레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못 단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자리
209002 아이서다 아이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성할망
209004	깃저고리	붓댓옷
209005	배넛머리	배안엿머리
209006	돌	돛
209007	새 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서방
209009	가마	가메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개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개보내다
209014	함	홍세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신부상
209018	휘다[樣]	테와지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안사둔
209021-2	바깥사돈	밖사둔
209022	곁사돈	*
209023	상갓집	상가칩
209024	수의	수이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주
209028	맡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떡이남
209031-2		대남
209032	짚동	복시미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퀘견허다
209035	뒗자리	뭇자리

209036	지관	지관
209037	패철	내경판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여
209040	보장(寶帳)	포장
209041	계(契)	제, <u>다노모시</u>
209042	상두꾼	상뒤
209043	장삿날	장날
209044	장지	장지
209045	광중	관중
209046	횡대	칠성판
209047	호충	*
209048	무덤	무덤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
209053	마치다[終]	마치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제월밭
209056	고충	골충
209057	제사	제서, 식계
209058	제삿집	제서칩
209059	편틀	편틀
209060	퇴물	튀물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갱
209063	제육	젓갈
209064	제편	제편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웃기떡	우짚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놓다
209070	몹	짝세
209071	면례(緬禮)	천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정월명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명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금줄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구
209079	설장구	설장구
209080	팽과리	정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물레구침
209085	추석	팔월명절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안택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판
210008	명두	맹두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샤르다[燒]	슬다
210012	살(煞)	쌀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술방, 막은방
210014	도깨비	도채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채비
210016	허깨비	허깨비
210017	어둑서니	그스대
210018	무섭다	막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고사

210021	고수레	코서
210022	포제	므을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들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에
211004	불다[點火]	부트다
211005	내[川]	내
211006	냇가	냇ㄱ
211007	물가	물ㄱ
211008	따르다[從]	뜨르다
211009	건너다[渡]	넘어가다
211010	낭떠러지	<u>영구쟁이</u>
211011	다리[橋]	다리
211012	가깝다[近]	브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벌, 섬벌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벌
211015	돌무더기	돌무더기
211016	갈림길	거림질
211017	묻다[問]	묻다
211018	비탈길	거병질
211019	벼랑길	*
211020	내리막길	거병질
211021	오르막길	느룻질
211022	길가	길가
211023	큰길	대한질
211024	분화구	굽부리
211025	꼭대기	꼭지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
211028	산바람	*
211029	산꼬대	느룻
211030	상고대	산강
211031	구렁	굴렁지

211032	고랑창	고랑챙이
211033	건너가다	건너가다
211034	넘어지다	푸더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빌레물
211037	숲	고지
211038	성(城)	성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갯것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바닷브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붕물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자갈
211049	갯가	갯것
211050	펼	*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돏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너울
211056	굼뉘	민뉘절
211057	물결	물절
211058	잔물결	잔물절
211059	무수기	물끼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211059-2	두무날	두물	
211059-3	서무날	서물	
211059-4	너무날	너물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211059-8	여덟무날	으덟물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211059-10	열무날	*	
211059-11	열한무날	*	
211059-12	열두무날	*	
211059-13	(열서무날)	열서물	
211059-14	아끈췌기	*	
211059-15	췌기	*	
211059-16	한조금	한조금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곶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썰물	*

시후

211066	오늘	오널
211067	내일	넬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정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계
211074	그끄저께	그직아시날
211075	새벽[曉]	새백
211076	꼭두새벽	동새백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벧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저녁 ㄴ슴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지폰밤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들갓
211095	초승달	초승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그믐들
211098	햇무리	해갓
211099	무지개	항고지
211100	쌍무지개	쌍항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ㄴ슬
211104	겨울	겨울
211105	입춘	입춘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구믐

211110-1	하루	흐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새
211110-6	엿새	웃새
211110-7	이레	일레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나흘
211112	너더닷새	너닷새
211113	대엿새	대엿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달
211119	선달	선달
211120	올해	올히
211121	내년	맹년
211122	내후년	우맹년
211123	작년	작년, 넘은해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살
211127	따스하다	듯다
211128	땡별	땡벧
211129	가을별	가을벧
211130	양지받이	*
211131	아지랑이	아지랭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위
211137-2	바람아래	브름아래
211138	맞바람	*
211139	바람받이	브름받이
211140	바람살	브름살
211141	회오리바람	돛쟁이브름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든브름
211144	서풍	마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줄기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봄장마
211149-2	가을장마	ㄱ슬마
211150	곰팡이	마
211151	소나기	소나기
211152	여우비	넘어가는비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하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송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이남
211162	번개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u>쟁이쉬</u>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함박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쓰레기눈
211170	도둑눈	아이몰른눈
211171	내리다[降]	느리다
211172	희다	헤영ㅎ다
211173	춡다	춡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굽다	굽다
211180	진눈깨비	눈짐벙이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저곳
211185	옆	옆
211186	위	우이
211187	아래	아래
211188	밝다[明]	붉다
211189	어둡다[暗]	어둡다
211190	왼쪽	웬쪽
211191	오른쪽	노단쪽
211192	밑	밑
211193	흐르다[流]	흐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베곶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
211198	가[邊]	ㄱ
211199	가장자리	가쟁이
211200	가운데	가운데
211201	곧다[直]	곧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쉐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쉐
212004	수소	밭갈쉐, 부랭이
212005	쇠소	어럭쉐
212006	불까다	*
212007	불알	*
212008	황소	누린쉐
212009	얼룩소	어럭쉐
212010	부리망	쉐망울
212011	쇠고삐	쉐늑대
212012	끌다	이끄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벙작쉐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룻(1)	금송	금송매
212015-2	이듭/두슴(2)	다간	*
212105-3	사룻(3)	사룻	*
212015-4	나룻(4)	나룻	*
212015-5	다슴(5)	*	*
212015-6	여슴(6)	*	*
212015-7	이룻(7)	*	*
212015-8	여듭(8)	*	*
212015-9	아슴/구룻(9)	*	*
212015-10	열룻/담불(10)	*	*

212016	작두	작뒤
212017	쇠죽	쉐죽
212018	구유	남도고리, 돌도고리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u>암매</u>
212023	수말	웅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라물
212026	칭총마/총이말	칭총매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다물
212028	얼룩말	어럭물
212029	유마	*
212030	백마	백매
212031	고라말	*
212032	곰배말	*
212033	조랑말	*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마쉬
212036	글경이	글경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말줄레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지꾸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비리
212048	비루먹다	비리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쥬이	숙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멀떠구니	산맥
212058	산맥	산맥
212059	닭의어리	*
212060	닭장	<u>득고리</u>

212061	달걀	독새기
212061-1	노른자위	붉은알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병아리	비아기
212064	까다[剝]	깨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하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숨씨	*
212072	생둥이	서툰바치
212073	새끼 돼지	도새기 새끼
212074	돼지우리	돛통
212075	돼지고기	돛퀘기
212076	적	적갈
212077	적꼬치	적꽃이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
212080	기르다	질르다
212081	들치	<u>지지랭이(음성확인)</u>
212081-1	들암소	*
212081-2	들암말	*
212081-3	들암돼지	*
212081-4	들암개	*
212082	거위	*
212083	오리	오리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베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취슬다	취싸다
212088	가시	장베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극다귀
212096	장구벌레	고노리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훤이	챙빋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훼충
212103	거머리	거멀
212104	바구미	남쉐
212105	콩바구미	*
212106	굼벥이	굼베렝이
212107	땅강아지	하늘강생이, 땅강생이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며느리	*
212110	노래기	구레기
212111	지네	지넝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쉬느리다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덜벥이
212117	민달팽이	*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물게염지, 왕게염지
212121	불개미	*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산뒤말축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극췌베기

212126	귀뚜라미	공쟁이
212127	풍뎅이	두메기
212128	장수풍뎅이	하늘썌
212129	무당벌레	무당버렁이
212130	쇠똥구리	*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접제기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
212137	날다[飛]	늘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물자리
212140	고추잠자리	*
212141	장수잠자리	*
212141-1		
212142	매미	재
212143	매미허물	재뭇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
212145	쓰르라미	고삭재
212145-1		
212146	소금쟁이	소금바치, <u>당아지</u>
212147	방개	*
212148	반딧불이	불한디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꿀벌
212151	꿀	꿀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왕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서미역
212155-2		진독
212156	송충이	송충베렁이
212157	개구리	가개비
212158	올챙이	올챙이

212159	맹꽁이	가개비
212160	두꺼비	두테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헤치
212161-2	뱀허물	베염홀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헤치
212163	도마뱀	돛줄레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들짐승

212166	여우	*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쇄애기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쟁이
212172	값다	굽다
212173	쥐구멍	쥐고망
212174	박쥐	드람쥐
212175	다람쥐	*
212176	오소리	오로
212176-1		오로굴
212177	지달(이)	오로
212178	지달피	*
212179	멧돼지	산툏
212180	원숭이	원생이
212181	원숭이띠	원생이띠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호랭이띠, 범띠
212184	꼬리	꼴리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새
212186	꿩지	꿩지
212187	깃[羽]	*

212188	새총	느래기
212189	새가슴	*
212190	참새	밥주리생이, 춤새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새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춤매
212195	솔개	똥수레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빼꾸기	빼꼭새
212200	종달새	*
212201	올빼미	옷밤
212202	평	평
212203	까투리(암평)	암평
212204	장끼	장평
212205	평알	평득새기
212206	꺼병이	평벙아리
212207	두루미	하기새
212208	기러기	그레기
212209	갈매기	<u>올랭이</u>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 ㄹ메기
212211	개울타리고등	*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
212214	밤고등	먹보말
212215	팽이고등	수두리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메옹새
212218	대수리	마타살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뿔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대오살
212224	따개비	<u>따개비, 오갈, 벨망</u>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물군벗
212226	진주담치	가마귀부리, 대슬
212227	소라	구쟁기
212227-1		
212228	전복	생복, 전복
212228-1		암천복
212228-2		수천복
212229	전복갑	전복겹데기
212230	오분자기	오분작
212231	게	쟁이
212232	마위게	돌쟁이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춤쟁이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아강방, 쟁이늬빨
212240	갯강구	*
212241	말미잘	돌문조리
212242	성게	귀
212243	말뚱성게	슴
212244	군소	군수, 굴멍이
212245	새우	새워
212246	불가사리	물방석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물췌기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몽게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당궤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흐리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패쓰다
212261	생선(生鮮)	퀘기
212262	미끼	니껍
212263	갯지렁이	*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낙싯대
212266	만들다[造]	멘들다
212267	낙싯줄	낙시술
212268	붕돌	뽕돌
212269	참대	수리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지느러미
212274	아가미	아우생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
212279	베도라치	브들락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애이리
212283	고생놀래기	코생이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생선, 오토미
212288	흑돔	웁이
212289	돌돔	갯돔
212290	감성돔	*
212291	벵에돔	구릿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돔
212293-1		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212299-1		나끄다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괘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솔치
212307	독가시치	따찌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즌다니
212313	팽이상어	도랭이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비계
212316	수염상어	비근다리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곰수웨기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ㄱ라지
--------	-----	-----

213002	갈대	갈대
213003	억새	어웁
213004	새품	미꼬장
213005	화승(火繩)	*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질차다
213009	빨기	뽕이
213010	사초	*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췌터럭
213013	쇠무릎	믈모작풀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대롱제완지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믈작풀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생이워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메마줄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췌비눔
213028	개비름	*
213029	참비름	츄비눔
213030	땅빈대	고름풀
213031	애기땅빈대	딸감낭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득쿨
213034	질경이	베체기
213035	쭈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속떡
213038	토끼풀	토끼풀

213039	개자리	개자리
213040	냉이	냉이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물룻
213043	여뀌	*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귀	소왕가시
213046	췌기풀	*
213047	수크령	글럭
213048	망초	천상풀
213049	별꽃	진쿨
213050	병풀	함박쿨
213051	깨풀	*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푸계
213054	땅파리	밀푸계
213055	피막이풀	*
213056	도깨비바늘	개버물레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시풀
213059	왕모시풀	진썸
213060	천남성	츠남상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브계기
213064	차풀	자골
213065	결명자	*
213066	까마중	*
213067	하늘타리	물오좁
213068	노랑하늘타리	하늘웨기, 두레기
213069	부처손	*
213070	방가지뚱	돛수웨
213071	닭의장풀	고네쿨
213072	배풍등	*
213073	췌	꼭
213074	췌덩굴	꼭줄
213075	췌뿌리	칙뻬 ^ㅈ 피

213076	땡땡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별지낭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
213081	함바기	정당풀
213082	담쟁이	담쟁이풀
213083	송악	*
213084	인동	인동고장
213085	멸꿀	명줄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등디쿨
213090	수영(승아)	개술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
213093	땡싸리	*
213094	명아주	제낭
213095	갯	갯늪물
213096	달래	드룻마농
213097	씀바귀	*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
213104	구릿대	수리대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
213107	피마자	*
213108	뉴질랜드삼	*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반치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물웃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늦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꽃봉오리
213119	채송화	*
213120	민들레	고름풀
213121	봉선화	*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마농꽃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u>고냉이빨리, 하레비꽃</u>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
213128	해바라기	*
213129	진달래	전기꽃
213130	철쭉	*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쑥부쟁이	*
213133	수국	*
213134	산수국	도체비꽃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말마농꽃
213139	선인장	*
213140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빨리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줄
213144	가지	낭가지
213145	잎	썸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하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솔남
213150	솔잎	솔입
213151	솔가리	솔입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멜감	진을거
213154	마디다	마티다
213155	갈퀴	글쟁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뚝박낭
213160	붉다[赤]	붉다
213161	멀구슬나무	물구슬낭
213162	버드나무	버디낭
213163	녹나무	*
213164	아카시아	웨가시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엄낭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벚나무	사꾸라낭
213170	왕벚나무	*
213171	사옥	*
213172	느티나무	굴목낭
213173	주목	노가리
213174	종려나무	남총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유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세닥낭
213180	굴나무	미짱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유즈낭
213184	비자나무	비즈낭
213185	치자나무	치지낭
213186	비파나무	피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록낭
213189	배롱나무	*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
213192	팡팡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제낭
213194	때죽나무	종낭
213195	마가목	*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굽낭
213199	향나무	*
213200	웃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u>마주목</u>
213204	닥나무	*
213205	돈나무	*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쥐똥나무	*
213208	섬쥐똥나무	가끄레기낭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소웁이가시낭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꿇가시낭
213217	덜꿍나무	꿇낭
213218	사스레피나무	두풍낭, 피풍낭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좁머귀나무	늑독낭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말오줌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물하레비낭
213224	예덕나무	복닥낭
213225	참식나무	신낭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럼비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박달낭
213234	떡갈나무	*
213235	상수리나무	*
213236	참나무	*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췌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저슬살이
213242	모람	모람줄
213243	누리장나무	*
213244	아왜나무	아왜낭
213245	순비기나무	*
213246	붉나무	북칠낭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과일
213250	껍질	겉질
213251	까다	까끄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계염지탈

213255	멍석딸기	보리탈
213256	복분자딸기	가막탈
213257	줄딸기	*
213258	산딸기	한탈
213259	가시딸기	가시탈
213260	검은딸기	감은탈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멀뤼
213264	개머루	고냉이멀뤼
213265	까마귀머루	가메기멀뤼
213266	산머루	*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
213270	다래	드래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마깨볼레낭
213275	앵두나무	앵도낭
213276	앵두	앵도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탕지
213282	탱자나무	탕지낭
213283	감	감
213284	뽕다[柿]	즈랍지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시
213287	풋감	폴감
213288	청미래덩굴	멜레기낭
213289	맹감	멜레기
213290	찹레나무	도꼬리낭
213291	영실	*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굉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저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
213302	복숭아나무	봉숭아낭
213303	복숭아	봉숭아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넌줄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넙메역
213310	미역쇠	메역췌
213311	김	김
213312	파래	파래
213313	톳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충이	지충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물망, 몌
213321	청각	정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도박

213327	갈래곰보	독고밭
213328	풀가사리	가스리